차 례

전승에 기여한 썩장

전철호

고구려 초기 산성자산성이라고 불리운 위나암성(중국 지린성에 있는 고구려의 산성)에서 있은 일이라고 한다.

아직은 동이 트기 전인데 밤새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꼼꼼히 바로잡으며 기척이 날세라 조심스레 방문을 연 집 로친은 추녀밖으로 손을 내밀었다.

부슬부슬 보슬비의 내림이 감촉되자 그는 《에익, 망할것!》하고 중얼거리였다.

그것은 구질구질한 하늘만을 원망하여 하는 소리가 아니였다.

《모조리 잡아 토막쳐 죽일 오랑캐놈들! 씨종자가 나쁜 놈들!》

그의 입에서 분노에 찬 욕설이 터져나왔다.

이를 갈며 욕설하는 오랑캐는 이 땅을 탐내여 고구려에 쳐들어온 서쪽 오랑캐—후한침략군이였다.

바로 그 오랑캐놈들때문에 하루아침에 대대손손 살아오던 성밖의 정든 집을 떠나 온 가족이 여기로 피난을 왔다.

그는 정든 집을 그리며 한동안 추녀밑에 못박힌듯 서있었다.

그의 집은 위나암성에서 불과 두시간쯤이면 걸어서 가닿을 개울가에 있었다.

큰 강(압록강)으로 흘러내리는 개울을 안고있는 마을은 양지바르고 아름다운 곳이였다.

그 마을 한변두리에 몇백년 묵었을 돌배나무 한그루가 솟아있는 집이 있는데 사람들은 돌배나무의 조상이 서있는 집이라고 하여 《돌배나무집》이라고 불렀다.

높이 솟아오른 산봉우리들을 등에 지고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시내가에 자리잡은 마을의 앞으로는 기름진 밭이 펼쳐져있었다.

해마다 풍작이 들고 사람들도 화목한 그 좋은 고향마을이 이제는 터만 남았으니 그의 마음은 분노로 하여 막 미칠지경이였다.

세상에 악귀같은 오랑캐는 왜 생겨가지고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것인가. 그 서쪽 오랑캐들이 무슨 원쑤진것이 있다고 이 땅에 쳐들어왔단 말인가.

그는 이를 뿌드득 갈았다.

제 집을 제 손으로 불지르던 일이 삼삼히 떠올랐다.

얼마전 고구려를 호시탐탐 노리던 후한침략군이 대군으로 불의에 쳐들어왔다.

고구려 8대임금인 대무신왕 11년(기원 28년) 여름에 있은 후한의 고구려침공이였다.

침략군은 후한의 료동태수가 이끌고있었다.

오랑캐의 급습에 대처하여 고구려의 좌보(최고벼슬의 하나)을두지는 들판을 비우고 성을 지키는 청야수성전법을 내놓았다.

한톨의 낟알도 한줌갈의 소금도 외적에게 넘겨주지 말라.

고구려사람들은 곡식이며 집짐승, 남새며 모든것을 성안으로 끌어들였다. 가지고갈수 없는 짐같은것은 서슴없이 불살라버렸다.

《돌배나무집》식솔들은 위나암성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돌배나무아래에 벌려섰다.

원래 《돌배나무집》식솔은 스무명도 넘었다.

예순을 가까이 한 늙은 내외와 네 아들부부 그리고 열명이 넘는 손자손녀들이 있었다. 시집간 네 딸이 또 제 자식들을 거느리고 오면 집에는 발도 들여놓을 자리가 없었다.

그래서 본래의 초가삼간집에 방을 몇개 덧붙였었다.

사내들은 다 창검을 틀어잡고 전장에 나갔으니 지금은 늙은 내외와 아녀자들, 아이들만이 집마당에 모인것이였다.

령감이 불망치를 켜들고 소리쳤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집은 열백번이고 다시 지을수 있다. 우린 오랑캐를 쳐물리칠 때까지 당분간은 성안의 셋째딸네 집으로 가야한다.》

령감은 분연히 초가지붕에 불망치를 들이댔다. 삽시에 삼단같은

불길이 정든 집을 삼켜버리고 식솔들은 눈물을 쏟으며 위나암성으로 향하였다. …

《로친네! 아침밥을 짓지 않고 뭘 멍청해 서있나?》

뒤따라 나온 령감이 나직이 일렀다.

로친은 그제야 푸름푸름 동이 터오고있음을 알아차렸다.

《이크, 이 정신 보지.》

그는 급히 부엌으로 들어갔다. 빨리 밥을 지어가지고 사위들과 아들들이 있는 남문의 군사들에게 가야 했다.

벌써 여러날째 치렬한 싸움이 벌어지고있었다.

군사들뿐아니라 성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까지 다 떨쳐나 기를 쓰고 달려드는 적군을 물리치는 싸움에 떨쳐나섰다. 군사들의 때식을 맡은 녀인들까지 적군이 달려들 때면 물을 펄펄 끓여 놈들의 머리우에 들씌웠다.

적을 물리치자면 뭐니뭐니해도 군사들을 잘 먹여야 했다. 배만 부르면 우리 군사들이 천만대적과도 싸워이길수 있었기때문이였다.

그가 아궁에 묻어둔 불씨를 찾아 불을 지피는데 셋째딸과 며느리들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로친은 혀를 차며 《좀더 눈을 붙이지 않구.》 하고 말했다.

어제밤 성벽을 더 높이 쌓는 군사들을 도와 돌을 나르고 늦게 들어와서는 또 그들에게 비지를 해먹인다며 콩망질을 마치고서야 쪽잠에 들었던 그들이였다.

《어머니! 우리가 해요.》

그는 며느리들에게 등을 밀리워 부엌을 나섰다.

그렇다고 그냥 팔짱끼고 나앉고싶지는 않았다.

그래 뒤울안으로 들어가 파를 한줌 뜯어들었다.

군사들에게 비지를 맛있게 먹이려면 장을 잘 곁들여야 했다.

그는 뒤울안의 장독대우에 주런이 세워둔 장독에로 다가갔다. 집에서 가져온 장독들까지 놓으니 장독대는 볼만 하였다. 허나 장이 담긴 독은 몇개 안되였다. 식구수에 맞추어 담근 장을 군사들에게 보내니 장 한독이래야 며칠 못가서 바닥이 났다.

목숨걸고 싸우는 군사들에게 그까짓 장이 뭐라고 아끼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며 그는 장 한바가지를 들고 부엌에 들어가 파를 썰었다.

날이 밝자 그는 며느리들과 셋째딸을 거느리고 군사들을 찾아갔다.

그들이 남문을 가까이 하자 아들들과 사위들이 달려와 음식함지며 동이들을 받아내렸다.

군사들이 아침밥을 달게 먹는 동안 그는 남문의 문루에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았다.

가늘게 내리던 비가 멎은 성밖의 마을자리며 들판과 골짜기들에 초막들이 너저분하고 무수한 기치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는데 그 사이에서 오랑캐놈들이 개미떼처럼 우글거렸다.

가까이에 있는 놈들을 눈여겨보니 그 꼬락서니가 말이 아니였다. 한놈같이 후줄근하고 괴죄죄해보였다.

그럴수밖에 없는 일이였다. 단숨에 고구려를 먹으려는 망상에서 먼길을 달려온 놈들이 고구려군사의 청야수성전법에 걸려들어 굶주린데다가 몇차례의 싸움에서 여지없이 얻어맞았으니 그럴수밖에 없을건 뻔했다.

반면에 고구려군의 진영에는 누런기, 흰기, 붉은기, 푸른기, 검은기들이 질서정연하게 솟아있고 군사들은 한결같이 씩씩하고 힘과 의기에 넘쳐있었다.

어찌 제 나라, 제 고향, 자기의 부모처자와 형제들을 지키는데 그렇지 않겠는가.

여기 위나암성이 어떤 성인가. 바로 이 성을 지켜내야 나라의 도읍인 국내성을 지켜낼수 있다.

그런데 이 성은 동쪽으로 불과 5리 남짓한 지척에 자리잡고있다.

위나암성은 고구려가 도읍을 졸본에서부터 국내성으로 옮겨오면서(기원 3년) 쌓은 수도를 방위하는 위성이였다.

성안에는 아무때나 임금이 나와 거처할수 있는 2개의 궁전이 있고 많은 집들과 5개의 못에 장대와 망대들이 갖춰져있다.

성벽 또한 기묘하기 그지없다. 동, 서, 북의 3면은 산세가 가파

롭고 바위벼랑이 많아 천연요새요, 남쪽에만 산릉선을 따라 견고한 돌성을 쌓았다.
먼저 밥순갈을 내려놓은 맏사위가 어머니에게로 다가왔다.
《어머님! 잘 먹었소이다.》
《에그, 그저 마음뿐이네. 저 륙실할 오랑캐무리를 단칼에 요정냈으면 속이 후련하련만…》
인상좋은 맏사위는 벙긋 웃으며 대꾸했다.
《념려마소이다. 어리석게도 우리의 쌀을 빼앗아 먹으면서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기여든 저놈들은 지금 좌보어르신의 신묘한 지략에 걸려들어 칼도마에 오른 고기신세가 되였소이다. 저놈들이 대군이라 뽐내면서 날마다 달려들지만 매번 무리죽음을 당하고 있소이다. 이제 머지않아 저놈들은 싸움에서 더는 승산이 없다는걸 알게 될것이고 황급히 패주할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군사들은 성문을 활짝 열고나가 놈들을 모조리 쳐죽이겠소이다.》
맏사위의 말에서 힘을 얻은 로친은 이 세상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는 고구려의 아들들에게 힘껏 때식을 지어주리라 생각하며 집에 들어섰다.
마침 령감이 무거운 쌀짐을 토방우에 내려놓고있었다. 군사들에게 밥을 해주는 집들에 내여주는 쌀을 받으려 관가쌀창고에 갔다가 금방 돌아온 참이였다.
웬일인지 령감의 얼굴에 희색이 어려있었다.
《령감!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겼수?》
《생기지 않구. 관가에 나가 듣느라니 글쎄 좌보어르신께서 우리 성에 오시여 저 륙실할 종자들을 모조리 쳐죽일 묘책까지 벌써 다 가지고있다는것이 아니겠어.》
《그래요?》
로친도 며느리들도 딸도 기뻐 환성을 올렸다.
그러니 머지않아 온 집안이 다시 모여앉아 화목한 새살림을 펴게 될것이다.
로친은 두팔을 걷어부치며 말했다.
《그날이 빨리 오게 하자면 군사들을 잘 먹여야 할텐데… 령

감은 땔감만 떨어지지 않게 하시우다. 자, 그럼 우리들은 점심 차비를 하자꾸나.》

…

며칠후 《돌배나무집》로친의 얼굴에는 그늘이 져있었다. 쌀이 떨어져서도 아니며 땔감이 떨어져서도 아니였다. 뒤뜨락의 텅빈 장독들이 그의 가슴을 허비였던것이다.

피를 흘리며 성을 지키는 군사들에게 장없는 때식을 마련해가자니 손맥이 탁 풀려버렸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장은 벌써 떨어졌으니 이 일을 어쩌나.

대군이라 뽐내는 적군은 어떻게 하나 국내성의 마지막관문인 위나암성을 무너뜨리려고 필사적으로 달려들고있었다. 세상에 그 어떤 성문이나 보루도 단번에 박살내치운다는 집채만한 요란한 충차(성을 공격하는데 쓰는 수레의 하나)들과 소가죽으로 둘러막은 루차(공격용수레의 하나)들을 앞세운 적들은 밤낮없이 성을 들이쳤다.

아군은 성벽우에 설치한 포차로 큰 돌을 날려 충차며 루차들을 박살냈고 화살을 날려 적을 물리치고있었다.

벌써 거의 보름째 치렬한 싸움은 지속되고있다.

나라와 부모처자들을 지키며 한목숨바쳐 싸우는 군사들에게 때식 하나 변변히 대접하지 못한다면 무슨 녀인된 체면이 있겠는가.

허나 온 성안에 장이 다 말라버렸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엎어놓은 빈 장독들을 우두커니 굽어보며 오래동안이나 서있던 그는 한참만에 장대신 소금물이라도 파와 마늘로 잘 양념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로친이 소금물을 만들고있는데 령감이 기척도 없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요즘 스스로 군사가 되여 전장에 나가 살던 령감이였다.

《로친네, 내가 무슨 소식을 알아왔는지 알아맞춰보라구.》

로친은 퉁명스레 대꾸했다.

《원, 부지깽이도 뛰는 바쁜 란리통에 한가하게 알아맞추기나 할새 있수?》

《챠, 입은 잘도 놀린다. 내 로친넬 돕자고 화살을 부리나케 날리는 그 틈바구니속에서도 장있는델 알아가지고왔단 말이야.》

《그게 참말이시우?》

로친의 얼굴에서 주름살이 펴졌다.

《아, 그런 말도 롱으로 하겠나? 글쎄 앞집에 살던 우달이네 말이야. 그 사람네는 집을 불사르기 전에 장독들을 뒤울안에다 묻어놓았다누만.》

《그럼 성밖으로 나가겠다는거우? 그러다 죽자구 그러시우?》

로친의 눈이 대번에 커지자 령감은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흥! 독틈에도 용수가 있다고 한밤중에 나가 귀신도모르게 장을 퍼오겠단 말이요.》

로친은 성이 나서 어성을 높였다.

《안돼요. 그것만은 안돼요.》

《그럼 군사들에게 맨 소금물만 내놓겠나?》

령감의 말에 그는 그만 말문이 막혀버리고말았다.

그날밤 《돌배나무집》령감은 성의 북쪽켠의 아찔한 벼랑에 바줄을 늘이였다. 날새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발을 붙일수 없는 그쪽에는 적군이 별로 없었다.

하늘의 초생달마저 령감의 의로운 《거사》를 도와주려는듯 구름속으로 숨어버려서 주위는 코를 베여가도 모를 정도로 캄캄하였다.

하여 그는 별로 힘들이지 않고 적들이 있는쪽으로 들어갔다.

령감이 돌아오기를 초조해서 기다리는 로친의 마음은 한줌만 해졌다.

자정도 지나고 첫닭이 홰를 치는데도 령감은 나타나지 않았다.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로친은 그만 가슴이 덜컥하여 급히 남문으로 달려갔다. 남문우에 올라서면 돌배나무가 서있는 마을이 잘 보였던것이다.

밤새 창검을 틀어쥐고 성문을 지키던 사위와 아들들이 바삐 달려오는 그를 알아보고 마주 달려왔다.

《어머님, 웬일이오이까?》
로친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간밤에 령감이 장을 구해오겠다고 성을 넘어나갔는데…》
《성을요?》
모두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이때 성밖에서 류창한 고구려말소리가 들려왔다.
《여ㅡ 고구려군사들! 여길 보라!ㅡ》
그 소리에 로친과 군사들은 급히 성문우로 달려갔다. 화살이 넉근히 미칠만한 가까이에 오랑캐들이 고구려복차림을 한 웬사람을 붙잡고있었다.
막내아들이 선참 아버지를 알아보고 소리쳤다.
《아버지다! 아버지!ㅡ》
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였다.
자식들을 알아보았는지 령감의 웨침이 들려왔다.
《얘들아, 나다. 놀라지들 말아라. 내 운수가 좋지 않아 그만 잡힌 몸이 되였구나. 이놈들이 날보고 성문을 열라고 말하지 않으면 목을 치겠다고 하는데… 난 살만큼 다 살았으니… 잘들 싸우거라.》
령감의 곁에 선 놈이 왜가리청으로 고함을 질렀다.
《그렇다. 성문을 열지 않으면 이 늙다릴 쳐죽일테다. 그다음 성문을 까부시고 들어가 고구려놈들의 씨를 모조리 말려버릴테다. 살려거든 성문을 열고 항복하라!ㅡ》
바로 그 순간이였다. 고개를 숙이고 서있던 《돌배나무집》령감이 비호같이 몸을 날려 고함을 질러대던 놈의 상통을 들이받았다.
그놈은 외마디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에 나자빠졌다.
다른 놈이 칼로 령감을 찔렀다.
《앗!ㅡ》
로친은 얼굴을 싸쥐였다.
격노한 군사들이 성문으로 뛰쳐내려갔다.
《서라! 섯!ㅡ》
수문장을 하는 맏사위가 엄하게 웨쳤다.

《군령을 잊었는가? 우리에겐 성문을 굳게 지키라는 령밖엔 없다.》

군사들은 어깨를 떨며 주먹으로 눈물을 훔치였다.

《자기 진지를 차지하라. 어서!—》

맏사위의 웨침에 군사들은 성루에 올라 활을 틀어잡았다. …

집에 돌아온 로친은 그새 비보를 받았는지 울며 자기를 에워싸는 며느리들과 딸들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눈물을 거두거라. 울면 좋아할건 오랑캐놈들뿐이야! 지금은 전시라 누구나 목숨을 바쳐싸우는 때이니… 우리가 이긴 다음 령감의 장례를 치르기로 하고… 당장은 군사들을 도와야 하느리라.》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군사들의 밥을 지었다.

로친은 뒤울안에 들어가 장독대앞에 섰다.

빈 장독들이 가슴아프게 안겨왔다.

장! 장때문에 령감이 목숨을 바쳤다. 이 나라 사람들 누구나 때식때면 빼놓지 않고 너무도 례사롭게 먹던 장이 이렇게 귀한것인줄이야…

그는 텅 빈 장독속에서 령감의 목소리가 울려나오는듯 하여 그것을 쓸어만지며 오열을 터치였다.

독에서 메아리처럼 울려나오는듯한 그 목소리는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군사들에게 장을 대접하라는 령감의 당부로 들리였다.

허나 이 란리판에서 어떻게 장을 구해다 군사들에게 먹일수 있단 말인가. …

싸움은 지속되고있었다. 수십일간의 싸움에서 숱한 주검을 냈건만 놈들은 좀처럼 물러갈념을 않고 악착스레 달려들었다.

가렬한 싸움에서 아군의 손실도 적지 않았다.

어른들뿐아니라 아이들까지 전부 떨쳐나 군사들에게 화살도 날라다주고 돌도 굴려다주었다.

놈들의 더러운 몸뚱이에 펄펄 끓는 물벼락을 안겨주려 남문에 가마를 내다놓고 물을 끓이는 《돌배나무집》로친의 머리속에는 어떻게 하면 군사들을 잘 먹일수 있을가 하는 그 생각뿐이였다.

군사들을 맛있게 먹이자면 반찬을 잘 만들어야 하는데 성안에는

이미 남새가 떨어진지 오랬다.

이런 때 장이 있으면 얼마나 좋으랴.

이제라도 장을 담글수는 없을가. 메주가 없이도 장을 담글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가.

이런 생각에 묻혀 때식때문에 집에 돌아온 로친은 덧저고리를 벗어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방안을 둘러보던 그는 아래목의 한구석에 나딩구는 콩알 몇알을 띄여보았다. 며칠전 삶은 콩을 떡소로 넣을 때 방구석에 흘린 모양이였다.

그것을 집어드니 콩알에 찐득찐득한 허연 곰(곰팽이)이 발려있었다.

무심결에 그것을 내던지려던 그의 손이 문득 굳어졌다. 석장이란 음식이 떠올랐다.

옛적에 한 녀인이 아이들에게 콩을 삶아주었는데 그들중 어떤 아이가 벼짚멍석을 깐 방구석에 삶은 콩 한줌을 감춰두었다고 한다. 며칠이 지나 방을 치우던 녀인은 한구석에서 허연 곰이 발린 삶은 콩을 발견했다. 그걸 내버리기가 아까와 녀인은 허연 곰이 발린 콩알을 먹어보았다.

그런데 그게 영 맛이 없는것이 아니였고 먹은 후에도 아무 탈이 없었다. 이게 바로 삶은 콩을 쳐서 메주를 빚고 벼짚우에서 띄우는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것을 깨달은 녀인은 삶은 콩을 벼짚우에서 띄운 다음 간을 맞춰 밥반찬으로 상우에 올렸다고 한다.

그후 사람들은 멍석자리에서 띄워진 콩으로 담근 장이라는 뜻에서 그 반찬에 석장이라는 이름을 달아주었다고 한다.

그는 무릎을 쳤다.

왜 석장을 만들 생각을 못했을가. 이제야말로 석장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그는 광에 들어가 비지를 하려고 물에 불군 콩을 통채로 내왔다. 한말 잘되였다.

군사들에게 때식을 차려주려 들어온 며느리들은 콩을 삶고있

는 그에게 물었다.

《이번엔 비지가 아니라 콩국을 하시려나이까?》

로친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보면 알게 되느니라.》

콩이 푹 삶아지자 그는 뜨뜻한 아래목에 목함지를 들여다놓고 거기에 삶은 콩을 퍼옮겼다.

다음 벼짚 한줌을 가져다 한뽐길이로 잘랐다.

성으로 들어올 때 장독밑에 깔았던 벼짚이였다.

그 벼짚이 이처럼 요긴하게 쓰일줄은 몰랐다.

논고장이 아닌 이 일대에서는 벼짚이 귀했다.

그는 개울가에 뙈기논을 풀어 논농사를 하였다.

거기서 나온 벼짚이 메주를 띄우는데 요긴하게 쓰였다.

장을 맛있게 잘 담그려면 반드시 메주덩이를 벼짚에 싸서 띄워야 하는것이다.

로친은 벼짚우에 콩을 골고루 펴놓고 그우에 채반을 씌웠다. 그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베천을 꼼꼼히 덮어놓았다. …

다음날부터 그는 아침저녁으로 목함지에 든 삶은 콩을 들여다보군 하였다.

사흘째되는 날 그의 얼굴이 밝아졌다.

함지속의 삶은 콩은 메주내를 물씬 풍기며 허연 곰이 잘 퍼져있었다. 한알 집어먹어보니 메주같이 신통한 맛이였다.

《이젠 됐어.》

그는 흥이 나서 삶은 콩을 내여다 절구에 퍼담았다. 며느리들이 그 뜻을 알아차리고 절구질을 하였다.

잘 쳐진 콩을 목함지에 옮기며 로친은 생각을 이어나갔다. 이대로 간을 맞춰 먹기보다는 한번 더 가마에 쪄내면 볼품도 있고 맛도 더 날것 같았다.

그의 생각대로 한번 더 가마에 찌고 소금물을 짭짤하게 하여 맛을 보니 된장맛이나 다를바 없었다.

《이게 석장이라는게지!》

그의 얼굴에 웃음이 한가득 비껴있었다. 며느리들도 딸들도 그

맛을 보고 환성을 올렸다.

《어서 이 석장을 군사들에게 맛보이렴.》

석장에 대한 소식이 그날로 온 성안에 퍼졌다.

녀인들은 앞을 다투어 《돌배나무집》을 찾아와서 석장담그는 방법을 배워갔다.

군사들은 그 석장을 《돌배나무집석장》이라고 불렀다.

녀인들의 지극한 후원속에서 군사들은 용기백배하여 악착스레 달려드는 오랑캐들을 물리쳤다.

작은 성이 감히 대군과 맞서 싸워 이기고있는것을 하늘의 조화라고 여긴 적들은 마침내 기진맥진하여 꽁무니를 빼였다.

이때를 노렸던 고구려군사들은 성문을 열고나가 꽁지가 빳빳해서 줄행랑을 치는 적들을 호되게 족치였다.

이 싸움에서 살아돌아간 적은 몇이 안되였다.

나라를 자기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는 고구려사람들의 마음을 오랑캐들이 어찌 알수 있으랴.

백성들의 도움, 녀인들의 지극한 후원이 바로 하늘의 조화였던것이다.

마을사람들은 《돌배나무집》로인의 장례를 잘 치르는것으로 승전을 맞이하였다.

마을이 다시 일떠섰다.

새로 지은 《돌배나무집》이며 집집들에서 때식을 끓이는 연기가 굴뚝마다에서 무럭무럭 피여올랐다.

석장을 담그려고 콩을 삶는 구수한 냄새가 사람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였다.

석장은 며칠만에 해먹을수 있는데다 그 맛도 괜찮아서 누구나 즐겨먹었다.

마을사람들은 석장을 담가먹으면서 군사들의 때식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 《돌배나무집》령감을 추억하면서 그처럼 살리라 마음다지였다.

그후 석장은 전란이 닥쳐올 때면 군사들의 밥상우에 자주 오르군 하였다.

172년 한나라침략군의 침입때에도, 수, 당나라침략군이 기여들어왔을 때에도 고구려녀인들은 석장을 담가 군사들의 입맛을 돋구어주었다.

기나긴 세월의 흐름속에 고구려녀인들이 빚은 석장은 그날로 만들어 먹을수 있는 콩장보다 그 맛이 썩 좋다는 의미에서 썩장이라 이름을 달리하였다고 한다.

이름은 어떻든 선조들의 애국의 넋과 슬기가 슴배여있는 썩장은 오늘날 된장이 가지고있는 영양소와 약효뿐아니라 썩장균이라고 하는 혈전을 미리 막고 치료하는 특이한 효소까지 충분히 들어있다는것이 밝혀짐으로써 장수식품으로 세상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였다.

하여 썩장은 북부지방뿐아니라 온 나라 사람들이 즐겨해먹는 기초식품으로 더욱 장려되고있다.

쑥떡에 깃든 사연

김정희

평양시 사동구역 리현리에는 쑥골이라고 부르는 오붓한 마을이 있다.

새싹이 파릇파릇 움트는 봄이 오면 푸른빛에 은빛이 도는 쑥들이 마을의 들판과 밭두둑들에 뒤덮여 봄철은 물론 여름, 가을까지 짙은 쑥향기속에 묻혀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을 쑥골이라고도 하고 쑥떡을 많이 빚어먹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떡섬이라고도 하여왔는데 여기에는 쑥으로 떡을 빚어먹게 된 한 녀인에 대한 이야기가 깃들어있다.

아득히 먼 옛날 쑥골에는 솔메라는 처녀가 살고있었다.

솔메는 아련하면서 어여쁘게 생긴 겉모습과는 달리 마음은 매우 강직하였다.

그가 처녀꼴이 잡히기 시작하자 아침이슬을 머금은 꽃망울처럼 아름다운 그 모습에 반하여 사방에서 그의 집 문돌쩌귀에 불이 일도록 청혼이 들어왔다.

하지만 솔메는 도리머리를 저으며 모든 청혼을 거절하군 하였다.

부모들이 그에게 좋은 혼인감을 놓친다고 꾸지람할 때마다 솔메는 방그레 웃으며 《저와 한생 뜻을 같이해야 할 사람인데 제 마음에 들어야 할게 아니오이까? 부모님들은 념려마소이다.》라고 대답하군 하였다.

이 시기 침략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있던 외적들이 우리 나라를 침범하여 쑥골로 향해 쳐들어온다는 기별이 전해졌다.

이 소식에 접하자 쑥골마을좌상인 솔메 아버지는 즉시 마을 장정들과 함께 싸울 준비를 갖추어가지고 외적을 맞받아 싸움

터로 달려갔다.

솔메는 마을의 부녀들과 함께 전장으로 보낼 식량과 음식을 마련하느라 몸을 아끼지 않고 분주히 뛰여다녔다.

그러던 어느날 해질무렵이였다.

저녁연기가 피여오르는 마을의 동구길로 전령군사(령을 전달하는 군사)가 탄 말이 요란한 말발굽소리를 내며 달려오더니 솔메네 집앞에 멈춰서는것이였다.

《좌상어른의 소식을 가지고왔소이다.》

부엌에서 밥을 짓던 솔메는 다급하게 대문을 두드리며 웨치는 그 소리에 가슴이 섬찍하였다.

무슨 일이 생긴게 아닐가.

그는 불안한 생각이 갈마들었으나 마음을 다잡으며 문을 열고 나섰다.

문밖에는 부리부리한 눈과 우뚝한 코, 훤칠한 키와 뻐그러진 어깨로 하여 첫눈에 헌헌장부로 안겨오는 낯모를 군사가 서있었다.

《무슨 일로?…》

솔메가 의아한 눈길을 던지자 전령군사는 품속에서 서신 한장을 꺼내여 그에게 내밀며 목메인 소리로 말하였다.

《좌상어른이 오늘 외적을 몰아내는 싸움의 선두에서 싸우다가 그만 적의 칼에 맞고 쓰러졌는데 마지막힘을 다하여 써보낸 서신입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솔메는 떨리는 손으로 서신을 받아들고 황황히 글줄을 더듬었다.

《솔메야, 이 아버지를 죽인 외적들을 절대로 잊지 말어라. 그리고 이 소식을 가지고가는 범이는 좋은 젊은이이다. …》

《아버지!…》

솔메는 아버지를 목메여부르며 마당에 주저앉아 오열을 터뜨렸다.

한동안 설분을 토하고나서 솔메는 피로 얼룩진 아버지의 서신을

다시 보고 또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그의 눈앞에는 아버지의 엄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곧 약해지는 마음을 다잡았다.
(아버지가 남긴 부탁을 절대로 잊지 않겠사와요.)
그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며 솟구치는 눈물을 가까스로 참아냈다.
잠시후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말없이 마구간으로 들어간 솔메는 《호오옹—》 하고 투레질하는 살이 진 준마를 끌고나와 슬픔에 잠겨있는 군사에게 고삐를 넘겨주었다.
《제가 집에서 키우던 준마예요.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당부를 받아들일 결심을 하였으니 부디 이 준마를 받아주시와요.》
《아—니? 이거…》
처녀의 갑작스런 행동에 어리둥절해진 범이는 얼굴이 수수떡처럼 벌개져 그냥 서있기만 하였다.
《아버지가 남기고간 원한을 제 몫까지 합쳐 꼭 풀어주기 바라나이다.》
《솔메!》
그제서야 솔메의 깊은 마음과 결심을 알게 된 범이는 가슴이 뜨거워져 그의 두손을 꼭 감싸쥐였다.
당시 외적의 침입이 잦은 때여서 쑥골마을에서는 처녀들이 좋은 말을 길러두었다가 혼인할 총각에게 주는 풍습이 있었다.
솔메가 정성껏 길러오던 준마를 범이에게 넘겨준것도 결국은 아버지의 마지막의향을 받아들일 결심을 가지고 그에게 혼인할 뜻을 표시한것이였다.
범이는 쑥골의 막바지인 산기슭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 이름난 사냥군이였던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범이는 힘이 장사였으며 특히 창던지는 솜씨가 여간 아니였다.
솔메의 뜨거운 사랑과 굳은 결심을 가슴속에 고이 간직하고 다시 싸움터로 달려나간 범이는 창을 추켜들고 외적의 무리를 삼대베듯 쓰러눕히였다.
이렇게 전장에서 여러달 싸움에만 몰두하던 범이의 몸이 날이 갈

수록 점점 쇠약해갔다. 어렸을 때 앓았던 속병이 다시 도지였던것이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솔메는 마음속으로 몹시 근심하며 그가 돌아오면 병을 꼭 고쳐주어 남아의 름름한 모습을 다시 갖추게 하리라 결심하였다.

얼마후 외적을 물리치고 마을의 장정들이 돌아오자 쑥골마을 사람들은 솔메와 범이의 혼례식을 성의껏 차려주었다.

혼례식에 참가한 이웃들은 장부의 기골에 맞지 않게 병색이 짙은 범이를 보고는 모두 혀를 차며 가슴아파하였다.

범이를 두고 걱정하는 녀인들의 말을 들으며 솔메는 남편의 병을 꼭 고쳐주고 건장한 무사로 보란듯이 내세우리라 굳게 마음먹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남편의 병을 하루빨리 고쳐주리라 다짐한 솔메의 소원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는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약도 지어다주고 약초를 캐여다 달여주면서 지성을 다하였지만 남편의 병세는 좀처럼 차도가 보이지 않았다.

어느덧 날이 가고 달이 흘러 솔메는 아이어머니가 되였다.

아이를 돌보기도 헐치 않은데다 몇년째 가물과 큰물로 흉년이 겹쳐들고 부자들의 결터듬질이 늘어나다나니 솔메는 집생활을 꾸려나가기가 몹시 힘들었다.

솔메는 그럴수록 이를 악물고 집안살림살이를 해나가면서 한편으로는 남편의 속병을 치료하는 일에 정성을 기울였다.

그는 새벽별을 이고 밭에 나갔다가 저녁별을 이고 들어오며 곡식을 심어가꾸었고 짬짬이 길쌈도 하였다.

그런 속에서도 솔메는 남편의 속탈에 좋다는 약재를 캐다가 달여주는 일을 어느 하루도 번지지 않았다.

그러나 남편의 병세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고 몸은 더 약해만 졌다.

솔메는 남편의 수척해진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여지는듯 아팠다.

더구나 요즘 다시 외적들이 쳐들어와 쑥골마을장정들모두가 싸움터로 달려나가는 때에 떳떳하게 남편을 전장에 내보내지 못하는 것이 죄스러워 솔메는 이웃들 보기가 몹시 괴로웠다.

(하루빨리 남편의 병을 털어버려야 전장에도 나갈수 있겠는데. 아마도 아직 내 성의가 하늘을 감동시킬만큼 크지 못한 모양이야. 이젠 무슨 약을 써봐야 할가.)

솔메는 자나깨나 언제나 이런 생각에 잠겨있었다.

어느날 솔메는 고개너머에 있는 친정집을 다녀온 이웃집녀인에게서 속병에 쑥이 좋다는 말을 전해듣고 쑥을 뜯어다 남편에게 달여주었다.

쑥물로 한 열흘간 치료해보니 약간 차도가 보이는듯 하였으나 큰 변화는 없었다.

쑥물에 큰 기대를 가졌던 솔메는 실망하고말았다.

(쑥골에 흔하디흔한게 쑥인데 그게 무슨 약이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솔메는 다시 다른 약재를 얻기 위하여 여러곳으로 뛰여다녔다.

어느날 솔메는 새벽이슬을 맞은 10년묵은 산삼을 캐다가 꿀에 푹 재워먹으면 속병에 직효라는 말을 듣고는 새벽이슬을 헤치며 마을뒤에 솟은 달맞이산으로 올랐다.

험한 벼랑길과 가시덤불숲을 헤치며 산판을 오르내리던 솔메는 수림속에 해빛이 비쳐들기 시작하자 산삼을 한뿌리도 캐지 못한채 산을 내리였다.

솔메가 산속을 벗어나 펑퍼짐한 둔덕에 이르니 거기에는 파란 잔디가 비단필처럼 펼쳐졌는데 그속에 다문다문 민들레와 쑥대들이 돋아있었다.

풀판에 아침해빛이 눈부시게 비쳐서인지 잔디들은 기묘한 무늬를 수놓으며 두눈을 자극하였다.

(몸이 왜 이렇게 나른해지는가?)

솔메는 온몸의 맥이 풀리는것을 느끼며 잔디우에 스르르 주저앉았다.

솔솔 불어오는 부드러운 바람이 솔메의 귀밑머리칼을 스치며 얼

굴을 간지럽히였다.
아침이슬을 맞아 푹 젖었던 옷자락에 따스한 해빛이 비치자 그의 몸은 점차 훈훈해지기 시작하였다.
마치 포근한 이불속에 든것 같은 안정감을 느끼며 솔메는 저도 모르게 살며시 눈을 내리감았다.
… …
아지랑이 아물거리며 피여오르는 넓은 들판은 마치 푸른 비단을 펼쳐놓은듯 아름답기 그지없다.
그 들판으로 솔메가 다래끼를 옆에 끼고 치마자락을 날리며 춤추듯이 달려가는데 갑자기 그의 앞에 파르스름한 풀대들이 불쑥불쑥 솟구쳐올라 길을 막는다.
《무슨 풀대들이 나를 둘러싸는가?》
솔메는 무릎을 꺾고앉아 풀대를 하나 당겨잡고 유심히 들여다본다.
풀대는 두어자가 넘게 자랐는데 어긋치며 뻗어나간 가지에는 뾰족뾰족한 파란 잎들이 다문다문 돋아있었다.
파란 잎새들은 바람결을 따라 보르르한 흰털이 덮인 뒤면을 살짝 드러냈다감추었다하며 제모습을 자랑하는듯 하였다.
《아유, 무슨 풀인가 했더니 우리 마을 들판과 밭두둑에 많은 쑥이로구나.》
솔메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일어나 걸음을 옮겼다. 순간 솔메의 앞에는 난데없이 흰수염을 드리운 할아버지 한분이 오른손에 파란 쑥대를 들고 나타났다.
《솔메야, 놀라지 말거라. 나로 말하면 이 땅을 지키는 단군신선이로다. 네가 남편을 위해 애쓰는 마음이 기특하여 내 약처방을 내려주려 하니 잘 듣거라.
너는 이제부터 너의 마을에 흔한 쑥을 뜯어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석달 열흘동안 매끼 삶아 우려낸 쑥을 한웅큼씩 번지지 말고 남편에게 먹이거라. 그러면 너의 소원대로 남편의 병을 꼭 고칠수 있을게다.》
《정말로 고칠수 있소이까?》

《암, 고치구 말구. 병을 털고 장수가 될수 있으니 내 말대로 해보아라.》

《신선할아버님! 정말 고맙소이다. 꼭 명심하겠소이다.》

솔메는 땅에 닿도록 머리를 숙여 절을 올리고 일어섰다.

그러자 금방 앞에 서있던 그 신선할아버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다만 동쪽 하늘가 멀리에 신선의 옷자락인듯 흰구름 한송이가 흘러가고있었다.

그 구름송이가 마치 사라져버린 신선처럼 느껴져 그것을 잡아보려고 허둥지둥 쫓아가던 솔메는 그만 발을 헛디뎌 아찔한 벼랑에서 꺼꾸로 떨어졌다. …

《앗!》소리를 치며 솔메가 눈을 뜨니 그것은 꿈이였다.

솔메는 아쉬운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니? 아직 내가 꿈속에 있는것이 아닌가? 분명히 꿈속에서 보았던 그 쑥대들인데.》

솔메는 이상스럽고 놀라운 눈으로 주위에 돋아있는 쑥대들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지난번 쑥이 속병에 좋다는 이웃집녀인의 말을 왜 소홀히 여기고 줴버렸던가. 생각해보노라니 어렸을 때 여름밤 쑥을 태워 모기를 쫓으며 쑥이 예로부터 병치료에 좋은 약재라고 이야기하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당장 고개너머 의원을 찾아가자.

솔메는 곧장 의원을 찾아가 쑥으로 속병을 치료하는데는 쑥을 달여먹는 방법밖에 없다는것을 알아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나 남편에게 쑥을 많이 먹여야 한다는 조급성이 앞선 솔메는 쑥을 뜯어다 삶아 물에 헹구어 성의껏 료리하여 그날 저녁상에 올렸다.

그 쑥찬을 먹던 남편은 얼굴을 찡그리며 이렇게 물었다.

《이게 무슨 나물이요? 너무 쓰거워 넘길수가 없구만.》

《쑥으로 만든 찬인데 쓰긴 하지만 속병에 좋다기에…》

솔메는 미안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쑥찬을 만들게 된 사

연을 이야기하였다.

남편은 그 말에 감동하여 억지로라도 찬을 다 먹으려 애썼지만 속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찬그릇을 내지 못하였다.

그때부터 솔메는 어떻게 하면 쑥의 쓴맛을 없애고 맛나는 식찬으로 만들수 있을가 하고 생각하였다.

그는 거듭 궁리하여 쑥을 주무르던 끝에 삶아낸 쑥을 물에 여러시간 담그어 쓴맛을 없애게 되였다.

그리하여 그가 다시 쑥찬을 만들어 맛을 보니 쓴맛은 없어졌으나 솜덩이를 씹는듯 질기여 도저히 목구멍으로 넘길수가 없었다.

솔메는 삶아우려낸 쑥으로 쑥밥도 지어보고 국도 끓여보았으나 어느것 하나 신통한것이 못되였다.

어느날 질긴 쑥잎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절구에 넣고 찧던 솔메는 문득 낟알과 함께 찧어서 떡을 만들면 어떻겠는가고 생각하였다.

낟알과 섞으면 매끈해지기때문에 넘기기도 쉬울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삶아우린 쑥을 절구에 넣고 보드랍게 찧은 다음 조찹쌀가루를 내여 섞어서 반죽하여 시루에 넣고 김을 올렸다.

김이 오르기 시작하자 향긋한 쑥내와 구수한 낟알냄새가 부엌에 가득 어리였다. 솔메는 떡김이 적당히 오르자 쑥물이 퍼져 파르스름하게 익은 떡덩이를 꺼내여 보기 좋게 떡을 빚어서 남편에게 드렸다.

솔메는 흐르는 땀을 씻으며 이번엔 또 뭐라고 할가 하는 기대와 안타까운 마음을 조이며 남편의 식사하는 모습을 눈여겨보았다.

남편은 상우에 놓인 파르스름한 쑥떡을 하나 들어 입에 넣고 씹더니 인츰 꿀꺽소리를 내며 목구멍으로 넘기는것이였다.

《아주 맛이 좋구만. 눈맛도 있고 입맛은 더욱 별맛이요. 맨 조찰떡보다 더 맛이 있소. 자, 어서 하나 들어보우. 정말 목구멍으로 혀가 따라넘어갈 지경이요.》

순간 솔메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어리였다.

그는 남편이 집어주는 떡을 소중히 받아 입에 넣고 맛을 음미하며 씹어넘겼다. 쫄깃쫄깃한 떡에서 향긋한 쑥냄새가 폐부로 흘러들며 상쾌한 맛을 주었다.

《정말 별미구만요. 이젠 됐소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하늘을 감동시킨 당신의 정성이 이렇게 맛있는 쑥떡을 만들어냈구려. 앞으로 이런 쑥떡을 자주 만들어 먹기요.》

《그렇게 하겠사와요. 그러면 식량보탬도 되고 몸에도 좋으니 그야말로 꿩먹고 알먹는 격이 되겠소이다.》

이튿날부터 솔메는 즐거운 기분으로 부지런히 쑥을 뜯어다가 삶아서 우려내여 여러가지 낟알가루와 섞어 떡을 빚어 상우에 올렸다.

이 쑥떡으로 하여 가정에는 화기가 넘쳐났다.

향긋한 쑥떡에 맛을 들인 후부터 남편의 오랜 속병은 점차 나아져갔고 건강도 회복되여갔다.

솔메는 매끼 쑥떡을 만드는것이 품이 많이 들었으나 힘든줄 몰랐고 떡도 쑥절편, 쑥찰떡, 쑥송편 등 여러가지로 만들어 남편에게 드렸다.

쑥떡으로 때식을 하여 한달이 되자 남편은 얼굴에 희색이 돌아 불깃불깃해졌으며 두달이 되면서부터는 몸이 부해지고 힘과 기운도 늘어났다.

병세가 씻은듯이 사라져가자 법이는 자기때문에 지금껏 애쓰며 고생해온 솔메를 위해주느라 두손을 걷고 땔나무도 해오고 하루종일 밭김도 매며 집안일에 발벗고나섰다.

그러나 솔메는 반가와할 대신 오히려 남편을 나무람하였다.

《제가 당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애쓴것은 우리 한가정을 위해서가 아니예요.

저는 어느 한순간도 아버지와 마을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원쑤를 어느때든 꼭 갚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버린적이 없어요. 바로 이러한 마음을 지니고있었기에 제가 당신을 위해 정성을 기울인것이예요.

이제 또 외적들이 쳐들어올수 있으니 당신은 집걱정은 아예 말고 마을의 장정들과 함께 달맞이산으로 들어가 무술을 익히도록 하세요.》

《솔메, 그 깊은 마음을 내 미처 헤아리지 못했구려. 사내대장부로서 솔메의 소원을 꼭 풀어주겠다는것을 맹약하우.》

범이는 가슴속에서 불뭉치같은것이 뭉클 치밀어올라 뒤말을 잇지 못하고 솔메의 두손을 꼭 그러잡았다.

그 다음날부터 범이는 마을의 장정들과 함께 산으로 들어가 말타기와 칼쓰기, 활쏘기와 창던지기 등 무술을 익히며 외적들과 맞서 싸울 준비를 갖추어나갔다.

이렇게 무술을 련마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이는 젊은 시절의 기상이 되살아나 집채같은 바위도 단숨에 들어올렸고 산중의 호랑이도 무색할 정도로 험준한 산발들을 씽씽 타고다녔다.

쑥골마을사람들은 다시금 름름한 무사로 변모된 범이의 모습을 보고 솔메의 지극한 정성과 바위처럼 굳센 마음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예로부터 정성이 지극하면 돌우에도 꽃을 피운다고 하더니만 솔메의 지극한 정성이 쑥떡을 낳았고 그 쑥떡이 범이의 속병을 말끔히 털어냈구만.》

《그렇고말구요. 강의하고 이악한 솔메가 아니면 누가 할수 있었겠소. 범이를 다시 무사로 내세운것만 봐도 과시 솔메는 치마두른 대장감이라 할수 있네.》

마을로인들이 솔메를 칭찬하자 녀인들도 맞장구를 치며 서로들 끼여들었다.

《그럼요. 솔메야말로 우리 쑥골마을의 복덩이예요. 그는 자기 손으로 제 복을 찾았어요.》

《글쎄 범이어른이 새서방적보다 더 젊어보이고 또 름름한 무사로 되였으니 정말 시샘이 날 정도로 부럽구만.》

녀인들이 전해주는 치하의 말을 듣고 조용히 웃고있던 솔메는 정색한 표정으로 말하였다.

《너무 그러지들 말아요. 그 집들에서야 남편들을 먼저 싸움

터로 떠밀어보내지 않았댔나요. 저도 이 쑥골에 태를 묻고 자랐으니 응당 자기 할 도리를 해야겠는데 정성이 모자라다나니 그렇게 못해서 항상 마음이 괴로웠어요. 이제는 제 남편도 떳떳하게 싸움터로 내보낼수 있게 되였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솔메!…》

마을녀인들은 솔메의 손을 서로 잡으며 그의 깨끗한 마음에 감동되여 뜨거운 눈물을 삼키였다.

얼마후 또다시 외적들이 나라의 지경을 넘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쑥골에 와닿자 범이는 곧 싸움에 나갈 준비를 갖추었다.

솔메는 싸움터로 떠나는 남편에게 아버지가 쓰던 장검을 내놓으며 당부하였다.

《아버지의 원쑤를 꼭 갚고야말겠다는 마음을 안고 당신에게 의탁했던 뜻을 오늘에야 성취하게 되였나이다. 제비둥지가 깨지면 알이고 새끼고 살아날수 없는것처럼 나서자란 정든 고향과 나라가 없으면 한 집안의 행복도 바랄수 없지 않소이까? 집걱정은 마시고 외적들을 모조리 쳐부시고 몸성히 돌아와주사이다.》

《내 솔메의 그 부탁을 가슴에 새기고 다시는 외적들이 우리 땅을 넘보지 못하게 쫓아버리고 돌아오겠소. 잘 있소.》

범이는 솔메의 두손을 뜨겁게 잡아준 다음 준마에 올라 채찍을 날리며 싸움터로 달려나갔다.

달맞이산에서 무술을 련마한 마을장정들과 함께 범이는 외적의 무리를 맞받아나가며 장검과 창을 번개같이 휘둘렀다.

사나운 범의 기상을 하고 족쳐대는 범이앞뒤에 외적들은 삼대처럼 쓰러졌다.

《호랑이같은 장사가 나타났다.》

혼비백산한 외적들은 비명을 지르며 흉기들을 내던지고 줄행랑을 놓았다.

《외적들을 한놈도 놓치지 말라!》

범이는 소리를 지르며 군사들과 함께 말을 달려 도망치는 적들을 무찔러 멀리 지경밖으로 쫓아버렸다.

범이에게 어찌나 혼쌀이 났던지 외적들은 쑥골마을에 범같은 장

수가 났다고 벌벌 떨며 다시는 쳐들어올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속병이 들어 약해졌던 범이를 무적의 장수로 되게 한 향기롭고 빨리 쉬지도 굳어지지도 않는 쑥떡은 눈맛도 좋고 입맛도 있으며 더우기는 위병에 특효가 있는것으로 하여 그후부터 쑥골마을사람들은 즐겨만들어 먹게 되였다.

그리하여 쑥골은 병이 없는 마을로 소문이 나게 되였으며 쑥떡을 많이 빚어먹는다고 떡섬마을이라고도 불렀다.

쑥떡은 점차 마을과 마을을 넘어 다른 지방에도 널리 퍼져나갔다.

세월이 흐르면서 쑥떡은 속병에 특효가 있어 간을 보호하고 위장치료에 좋을뿐아니라 랭병과 부인병, 고혈압과 기관지염 등 여러가지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는것이 확증되였다.

우리 인민들은 쑥이 돋아나 자라는 봄, 여름에는 물론이고 가을이나 겨울에도 햇쑥을 잘 말리워두었다가 별식으로 쑥떡을 빚어먹는것을 하나의 풍습으로 여기게 되였다.

그리고 또한 우리 녀인들은 자연의 피해를 받아 흉년이 들었을때이면 적은 낟알가루에다 삶아우려낸 쑥을 많이 섞어서 쑥떡을 맛있게 만들어 먹음으로써 식량보탬의 음식으로도 널리 리용하였다.

송도특식 설야적의 유래

전철호

임진년(1592년) 여름, 한성을 함락시킨 왜군이 전조선을 송두리채 삼킬 기세로 송도땅에도 기여들었다.

악귀같은 왜군을 피해 북으로 가는 사람들로 길이 미여질 지경이였다.

송도의 거무골마을에 사는 40대 과부 김씨도 열댓살난 외아들 찬봉이를 앞세우고 피난길에 올랐다.

그들은 백여리 험한 길을 헤치고 제비모양의 바위가 있는 어느 깊은 산중에 들어섰다.

골안은 사방이 가파로운 산봉우리들로 둘러막혀있어 피난처로서는 그저그만이였다.

일행중에 글깨나 아는 늙은이가 있어 제비모양의 바위를 보고 연암이라 하더니 골안에 연암골이란 이름을 달아주었다.

연암골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것은 썩 후날 실학자 박지원이 이 골안에 들어와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의 호를 《연암》이라 한 때부터였다.

그것은 아직 200년후의 일이고 그때는 임진왜란으로 조선사람들이 불행을 겪던 시기였다.

인적드문 연암골에다 초막을 지어놓고 김씨가 하는 일은 땔감을 해다가 끼식을 끓이는 일이였다.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축내며 제 혼자 씩씩거리던 찬봉이 어느날 온다간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김씨는 혼이 나갈 지경이였다. 사방에 왜놈들이 개싸다니듯 하겠는데 이 일을 어쩌누, 외아들이 잘못되면 죽어 무슨 낯으로 일찍 돌아간 남편을 지하에서 만날수 있으랴.

김씨가 눈물속에 지내는데 며칠이 지나 찬봉이 불쑥 나타났다.

외아들을 보자 김씨는 석달 장마끝에 해를 보듯 너무 기뻐 찬봉을 붙안고 소리내여 흐느꼈다.

한참 울고나니 속이 좀 후련해졌다.

《에끼, 이녀석! 에미속을 태워도 분수가 있지.》 하며 찬봉의 차림새를 바라보던 김씨는 두눈이 휘둥그래졌다.

어디서 났는지 삼척장검이 찬봉의 허리에 매달려있었고 등에는 활과 화살이 든 동개까지 지여져있지 않은가.

《얘야, 이 어찌된 일이냐?》

찬봉은 벌씬 웃더니 며칠새 겪었던 일들을 털어놓았다.

인적드문 산속에 피신하여 하는 일없이 지내자니 왜놈들이 무섭다고 도망친 자기가 미워났다.

그래서 홀로 씩씩대던 찬봉은 도대체 왜놈들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알고싶어서 갑갑해났다.

하여 남몰래 연암골을 빠져나갔다.

현화동에 못미쳐서 몇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의 말이 장단고을에서 일어난 의병대가 왜놈들을 족친다는것이였다.

그 소식에 찬봉은 날아갈듯 기분이 좋아졌다.

무엇때문에 제 나라, 제 땅에서 쪽발이따위가 두렵다고 숨어다닌단 말인가. 나도 얼마든지 의병이 되여 왜놈들을 족칠수 있다.

찬봉은 즉시 장단의병대를 찾아가려 길의 방향을 바꾸었다.

어렵지 않게 연암골의 남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솟아있는 망해산에서 의병대를 만날수 있었다. …

《어머니! 난 의병대장님으로부터 직접 왜놈들의 실정을 알아오라는 군령을 받았소이다. 대장님은 적과 싸워이기자면 먼저 적을 잘 알아야 한다면서 아직은 어린 내가 그 적임자라고 했소이다. 어머니가 음식점에서 일했다는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하나 송도성안에 들어가 음식점에 자리를 잡으라고 하면서 칼과 활을 주었소이다.》

김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 왜놈들이 욱실대는 송도에 다시 간단 말이냐. 안돼! 넌 삼대독자가문의 외아들이란 말이다. 네가 잘못되면… 난… 안돼.》

찬봉은 도리머리를 하는 어머니의 손을 꼭 감싸쥐였다.

《어머니! 죽긴 왜 죽는다고 그러세요? 그까짓 난쟁이 왜놈들을 무서워할건 없소이다. 지금 사방에서 백성들이 들고일어나 왜놈들을 파리잡듯 하고있다 하오이다.》

김씨는 그래도 고개를 가로저었다.

《너만은 안돼. 넌 아직 어려. 정 대장어른의 령을 따라야 한다면 내가 가겠으니 넌 여기에 남아있거라.》

《어머니! 너무 걱정마세요. 왜놈은 죽어야 하구 우린 살아야 하오이다. 두고보세요. 난 상처 하나없이 무사하질 않나.》

김씨는 그 어떤 말로도 아들을 설복할수 없다는것을 깨달았다. …

다음날 이른새벽, 찬봉은 어머니와 함께 이슬을 차며 연암골을 나섰다.

화장사고개를 넘은 그들은 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어둠을 타서 거무골마을로 돌아왔다.

거무골은 송도성안에 있는 마을들중에서 제일 으슥진 곳으로 알려졌다. 송악산 동쪽의 부흥산에서 뻗어내린 산줄기로 빙 둘러막히다보니 대낮에도 어둑시근하여 거무골이란 지명이 붙었다.

다행히 살던 집은 그대로 있었다. …

꼭두새벽에 일어난 김씨가 아침밥을 짓는 동안 찬봉은 조심히 거리에 나가 송도형편을 살피였다.

마을마다 사람들이 남아있는 집이 적지 않았다.

운신을 제대로 못하는 병자나 늙은이들이 있는 집들이였다.

성안의 큰거리 길가에는 왜놈들의 병영들이 너저분했다.

왜놈들은 날밝기 무섭게 병영에서 무리로 쓸어나와 사람들을 때리고 쌀이며 집짐승이며 재물들을 략탈하였다.

찬봉은 자남산 복숭아골음식점이 그대로 있는것을 보고 놀랐다.

복숭아골음식점이라고 하면 어머니가 숙수(료리사)로 일하던 곳인데 산적(고기와 그밖의 재료를 길쑥하게 썰어서 양념에 재웠다가 꼬챙이에 끼워 구운 료리)이나 약과같은 맛있는 음식을 잘하기로 소문이 났다.

바로 그 음식점에서 이전처럼 연기가 굴뚝으로 쏟아져나오고 있었다.

사실 음식점주인은 많은 재산이 아까와 피난을 가지 않고있다가 왜놈들이 기여들자 적장들의 음식시중을 들고있었다.

찬봉은 쾌재를 올렸다. 어쩜 의병대장이 준 분부를 따를수 있게 손발이 맞아떨어질가, 어머니가 다시 저기에 발을 붙인다면 왜놈들의 동태를 얼마든지 알아낼수 있을것이다.

찬봉의 말을 듣고 김씨가 찾아가니 음식점주인은 이게 웬 떡이냐 하고 환성을 질렀다.

왜장들의 비위를 맞추려면 산적을 차려내야겠는데 재주있는 숙수들이 다 피난을 가서 골머리를 앓던 그였다. 그런데 산적에 솜씨있는 복덩이가 제발로 찾아오다니…

김씨의 특기는 산적을 잘 굽는 재주였다.

어려서 산적을 잘하기로 이름난 친정어머니한테서 그 비방을 전수받은 까닭에 김씨가 구워내는 산적은 별맛이였다.

음식점주인은 입이 가로 째져서 산적 굽는 일을 맡아달라고 하였다.

하여 김씨는 복숭아골에서 10리 떨어져있는 거무골을 오가며 음식점일을 하게 되였다. 찬봉이도 음식점에 땔감을 해다주는 일을 해야 했다.

김씨가 음식점에서 일하는지 보름쯤 지난 어느날이였다.

한낮에 왜장들의 두목이라 하는 뚱보놈이 말라깽이 통역놈을 뒤에 달고 음식점에 들이닥쳤다.

그놈만 나타나면 더 잘 보이려고 애쓰는 음식점주인은 값진 술상을 차리게 하였다.

김씨는 독한 술을 항아리채로 내놓았다.

김씨가 구워내는 산적에 맛들인 왜장놈은 사발로 술을 퍼마시고

는 비틀거리며 혀꼬부라진 소리를 줴쳤다.
그놈의 말을 통역놈이 음식점주인에게 조선말로 번지였다.
부엌에서 산적을 굽는 김씨는 통역놈의 말을 놓칠세라 귀를 바싹 강구었다.
들어보니 하루이틀안에 장단고을의 석주원집에 머물러있는 의병부대가 몰살될것이니 두고보라는 수작이였다.
김씨는 등골이 서늘하였다. 빨리 이 소식을 의병들에게 전해야 한다.
어머니에게서 적정을 받은 찬봉은 즉시 의병대를 찾아 내달렸다.
적정이 제때에 가닿지 못한다면 의병들이 잘못될수 있다.…
김씨는 가슴을 조이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아들이 무사히 성을 빠져나갔는지, 제발 다른 변이 없어야겠는데…
며칠 지나 김씨가 음식점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보니 찬봉이 흥얼흥얼 코노래를 부르며 저녁밥을 짓고있었다.
속이 새까매서 아들을 기다렸던 김씨는 너무 기뻐서 어쩔줄 몰라했다.
《어머니가 아니였다면 정말 변이 날번 했어요.》
찬봉은 신이 나서 이야기하였다.
찬봉이 종주먹을 쥐고 석주원집에 당도했을 때는 벌써 자정무렵이였다.
원집은 오고가는 행인들이 묵어가는 숙박소인데 석주마을에 그런 집이 있었다.
그 집에 백여명의 의병들이 묵고있었다.
장단나루에 진을 친 왜놈들을 기습하려 떠나간 의병대의 배후를 지키려고 떨어진 의병들이였다.
왜놈들이 석주원집으로 달려온다는 말을 들은 의병들은 곧 싸울태세를 갖추었다.
적군을 물리치지 못하면 의병대장이 이끌고간 주력이 위험에 빠질수 있다는것을 잘 아는 그들은 어떻게 싸울것인가 의논을 하였다.
의병은 적고 왜놈들은 많으니 신묘한 꾀를 쓰지 않으면 안

되였다.
의병들이 어서 돌아가라고 등을 떠밀었지만 찬봉은 한바탕 싸울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고싶지 않았다.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끌면서 의병들이 의논하는것을 지켜보았다.
헌데 신통한 수가 나지 않는지 의병들은 의논을 거듭하는것이였다.
이때라고 찬봉은 자기 생각을 비치였다.
지내보니 왜놈들이란 간특한데다 여간 의심이 많은 족속이 아니다, 바로 그 약점을 리용하면 감쪽같이 왜놈들을 속여넘길수 있지 않겠는가. …
의병들은 찬봉의 꾀를 지지해주었다.
하여 그밤으로 많은 허수아비를 만들어 진지에 세워놓았다.
날이 밝자 늙은이로 변장한 몇몇 의병들이 마을어귀에 있는 느티나무아래에서 장기도 두고 낮잠도 자는척 하였다.
밤새껏 달려온 왜놈들은 셈평좋게 놀고있는 로인들을 보자 더럭 의심이 들었다.
석주마을은 쥐죽은듯 잠잠한데 늙은이 몇사람만이 한가롭게 논다는것은 무슨 꼬간이 있다는것이 아닌가. 틀림없이 의병들이 대군으로 복병을 치고 아닌보살을 하는것이 분명하다.
적장은 곧 날파람있는 병졸 몇을 불러 의병들이 진을 친듯한 산으로 은밀히 기여들어가 정황을 살펴보게 하였다.
그놈들은 곧 마을뒤에 있는 울창한 수림속에서 수많은 의병들이 진을 치고있는것을 발견하였다.
의병이 대군으로 진을 치고있다는 말을 들은 적장은 급기야 퇴군령을 내렸다. 놈들은 의병들의 추격이 두려워 도적고양이마냥 마을앞의 사이길로 소리없이 줄행랑을 놓았다.
하여 의병들은 화살 하나 날리지 않고 적을 물리칠수 있었다.
후날 이고장 지명은 왜놈들이 사이길로 뺑소니를 친 마을이라는 뜻에서 사이시(사시리)로 고쳐졌다.
《네가 참 큰일을 했구나. 장하다, 장해.》

《아니오이다. 어머니가 아니였다면 그런 일이 있을번이나 할 일이오이까?》

그날밤 김씨와 찬봉은 쌓였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정신에 날이 밝는줄도 몰랐다. …

세월은 흐르는 강물과도 같다더니 어느새 여름이 가고 가을도 가서 북새바람이 터져나왔다.

김씨와 그의 아들 찬봉은 여전히 복숭아골음식점에 발을 붙이고 왜놈들의 동태를 살피였다.

요즘 송도거리는 이전보다 더 살벌했다. 사방에서 의병들에게 얻어맞기만 하는 왜놈들은 그 분풀이를 무고한 백성들에게 해댔다.

매일같이 마을들에 달려들어 사내들을 죽이고 부녀자들을 겁탈하고 재물을 모조리 로략질하였다.

김씨는 한가지 근심이 날로 더해갔다. 수시로 적군의 삼엄한 경계진을 뚫고 성을 드나드는 찬봉이에 대한 걱정으로 가슴은 점점 졸아드는것 같았다.

찬봉이 음식점에 땔나무나 수걱수걱 해오고있으면 그래도 마음이 좀 놓이겠는데 밤에는 밤대로 놈들의 개질을 하는 부자집들에 경고장을 던져넣기도 하고 왜놈들의 군량고에 불을 지르기도 하니 그러다 붙잡히면 어쩐단 말인가.

게다가 요새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그였다.

성안에 쌀이 떨어져 음식점에서 일하는 하인들에게도 멀건 보리죽 한사발이 고작이였다.

한창 먹을 나이에 멀건 보리죽 한사발로는 배에 기별도 안갈것이다.

김씨가 아들생각에 근심을 놓지 못하고있는데 왜놈 통역이 음식점을 찾아왔다.

그놈은 잔뜩 산적이며 술을 처먹고나서 수일내로 왜장 사이또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대덕산으로 쳐들어갈것이라고, 그러면 의병대는 전멸이라고 희떠운 수작을 늘어놓았다.

그놈의 수작을 엿들은 김씨는 일각이 여삼추같았다.

이 적정을 아들에게 알려야겠는데 찬봉은 아직 산에서 돌아오지 않고있었다.

해질무렵에야 찬봉이 무거운 나무짐을 지고 음식점에 들어섰다.

김씨는 나무광으로 들어가 아들에게 적정을 알려주었다.

찬봉은 태연한척 휘파람까지 불어대며 지게를 지고 음식점을 나섰다.

아들이 음식점을 나선 다음에야 김씨는 그에게 누룽지 하나 소매속에 넣어주지 못했음을 알아차렸다.

가슴이 아파났다. 먼길을 그것도 위험한 사지길을 가는 아들에게 먹을것조차 주어보내지 못했으니 무슨 에미란 말인가. …

다음날 음식점에 나간 김씨에게 뜻밖의 행운이 찾아들었다.

음식점주인은 마누라가 독감에 걸려 누웠다면서 여러명의 녀인들중에서 김씨에게 소고기를 저며내는 일을 맡기였다.

주먹같은 자물쇠를 벗기고 고기광에 들어가보니 가죽을 벗긴 소가 두짝이나 있었다.

보나마나 백성들의 소를 잡아왔을것이다.

이 고기를 고스란히 왜장들에게 처먹여야 한다고 생각하니 울화가 치밀어올랐다.

《안된다. 안돼.》

김씨는 왜놈들을 찌르는 심정으로 식칼을 휘둘러 소고기를 베여냈다.

그리고 댓근을 뭉청 잘라내여 감추었다.

내 아들에게 소고기산적을 실컷 먹여야겠다. …

그날밤 집에 돌아온 김씨는 산적을 굽는 일에 달라붙었다.

얄팍얄팍 저며낸 소고기를 마늘양념장에 재웠다가 꼬챙이에 꿰여 숯불이 맞춤한 화로에 적철을 올려놓고 구웠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사납게 기승을 부리고있었다. 보기 드문 추위가 들이닥친것이였다. 차디찬 칼바람이 어찌나 드센지 문풍지는 바들바들 떨며 붕붕 울어댔다.

그 소리에 김씨의 마음은 졸아드는것 같았다.

한치앞을 가려보기 힘들게 눈보라치는 이밤이 야속하였다.

차라리 이 험한 밤에 의병대에 련락간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의병대가 진을 친 대덕산까지 왕복 백수십리이니 오늘밤 찬봉은 꼭 돌아오겠다고 하였다.

소고기 익는 냄새가 났다. 한점 씹어보니 그만하면 맛이 괜찮았다. 흠이 있다면 고기가 질긴것인데 늙은 소고기니 별수가 없었다.

그쯤한것이 무슨 대수랴. 돌덩이도 씹어삼킬 나이에 배고픔에 시달리고있으니 아들이 이걸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소고기산적을 다 구워놓은 김씨는 흡족한 생각이 들었다.

눈에는 소고기산적을 맛있게 먹는 아들의 정겨운 모습이 얼른거렸다.

윙윙—, 붕붕—…

더 세차게 울부짖는 찬바람소리며 문풍지 우는 소리에 김씨는 소름이 끼쳤다.

따끈하게 구워낸 산적이 어느새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김씨는 산적을 덥히려고 적철우에 올려놓았다. 인차 타는 냄새에 놀란 그는 산적을 얼른 찬물에 담그었다가 다시 올려놓았다.

그러기를 몇번…

사경이 되였겠는데 눈보라치는 소리는 조금도 숙어들지 않았고 찬봉이도 돌아오지 않는다.

어느덧 려명이 창호지문으로 뿌잇하게 스미였다. 새날이 밝아오고있었다.

(이애가 종시 돌아오지 않으려나보구나.)

불안한 생각이 갈마들었다. 혹시 세찬 눈보라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거나 아닌지…

김씨는 잦아들줄 모르는 상념에 묻히였다.

이때 방문이 벌컥 열렸다. 소스라쳐 놀라서 김씨가 고개를 쳐드니 그렇게도 속태우며 기다리던 바로 찬봉이 성에투성이가 되여 들어서는것이였다.

《어머니!－》
김씨는 와락 아들을 껴안았다.
《왔구나. 왔어.》
《어머니! 저때문에 온밤을… 실은 늘 넘어다니던 성벽에 왜놈새끼들이 밤새 나와있어 늦어졌소이다.》
《이렇게 돌아왔으니 됐다. 배고프겠는데 어서 먹어라.》
어머니에게 이끌려 화로에 나앉은 찬봉의 두눈이 커졌다.
적철우에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산적이 무둑하였다.
《이거 어디서 났소이까?》
《다 나는데가 있지. 어서 먹으렴.》
《예.》
찬봉은 두손을 맞비비고는 고기꼬챙이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곶감꼬치에서 곶감알 빼먹듯 정신없이 먹어댔다.
두꼬치를 먹고서야 그는 어머니생각이 나서 어줍게 웃었다.
《어머니도 드시오이다!》
《이건 네 몫으로 남겨둔거니 어서 먹어라.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진단다.》
《헌데 어머니! 어디서 애송아지고기까지 났소이까?》
《애송아지고기라니? 그건 늙은 소고기다.》
《아니오이다. 애송아지고기오이다. 분명!》
《한창때 이발이니 소가죽이라고 씹어먹지 못하겠느냐? 어서 먹어라.》
고개를 기웃거리며 또 한꼬치를 먹어치운 찬봉이 김씨의 입에 고기 한점을 넣어주었다.
《맛 좀 보시오이다. 분명 애송아지고기라는데…》
할수없이 고기점을 씹던 김씨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늙은 소고기가 돼서 질긴것이 탈이였는데 이게 어떻게 된 조화인가. 애송아지고기가 왔다 울고갈 지경이였다.
한점 또 먹어보니 역시 만문하여 더 맛이 좋았다.
이게 어찌된 까닭인가. 곱씹어 생각을 해보니 산적을 덥힐적에 고기가 탈가봐 여러번 찬물에 담근것이 요술을 부린것 같았다.

그게 정녕 비슷하겠다.

이윽하여 김씨는 고개를 끄덕이였다.

《네 덕으로 맛있게 산적을 굽는 비결을 찾아낸것 같구나.》

《어머니! 그건 무슨 말이오이까?》

《이런걸 가리켜 뜻밖의 횡재라고 할게다. 질긴 소고기가 애송아지고기처럼 만문하게 되였으니 이걸 이전처럼 보통 산적이라고 할수 없겠다. 눈보라치는 겨울날밤에 왜놈들을 물리치려 떠나간 아들을 기다리며 구워낸 산적이니 〈설야적〉이란 이름이 좋겠다.》

찬봉은 두손을 맞잡고 환성을 올렸다.

《어머니! 그게 참 좋겠소이다. 야! 설야적!》…

이듬해 정월, 의병들은 평양성을 회복하고 남하하는 관군과 합세하여 송도땅에서도 왜놈들을 몰아냈다.

송도를 되찾는 날 전승연에는 김씨가 정성다해 구워낸 설야적도 올랐다. 설야적을 맛본 의병들은 이야말로 제일 맛있는 고기붙이음식이라고 하면서 그동안 의병대를 크게 도운 김씨의 소행을 높이 치하하였다.

이리하여 설야적은 단연 송도의 명물이라 알려졌고 뜻깊은 날에 차리는 특색있는 고기음식으로 만사람의 절찬을 받게 되였다.

금장기를 두는 사람

리선복

개성시에서 남쪽으로 40여리 내려가면 마치도 왕관을 올려놓은듯도 하고 또 어찌보면 룡의 뿔같이도 보이는 백룡산이 기묘하게 솟아있고 그 산 동남쪽기슭에는 리조 2대왕 정종의 무덤인 후릉이 있다.

리성계가 고려왕조를 허물어버린 때로부터 리조는 500여년의 력사가 흘러가는 동안에 왕대만 하여도 27대나 바뀌였다.

그 27대 왕들중 26명의 왕릉은 모두 림진강이남에 있지만 유독 2대 정종의 릉인 후릉만이 림진강이북지역에 자리잡게 된데는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여 날뛴 리성계의 여덟아들들의 치욕스러운 비화가 깃들어있다.

× × ×

별의별 음모와 모략을 꾸미고 수많은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한 뒤에 룡상을 타고앉은 리성계는 심한 고통과 번민끝에 울화병에 걸려 자리에 눕고말았다.

이런 속에서 본처 한씨와 후처 강씨는 모두다 비명에 죽고 여덟이나 되는 아들놈들은 서로들 왕세자가 되겠다고 치렬한 류혈전을 벌려 이미 맏아들 리방우는 무주고혼이 되였으며 왕세자로 봉했던 후처의 아들 리방석과 리방번은 본처의 아들 방원의 칼날에 머리없는 귀신이 되였다.

동생인 방원의 덕분에 왕이 된 방과(정종)는 너무나도 복에 겨워 만시름을 다 잊고 구름우에 둥실 떠서 호화로운 나날을 보내였다.

이렇게 되니 나라의 권력은 자연히 방원에게로 쏠리고 방과를 쏘아보는 방원이의 집권야욕은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감촉한 왕비 김씨의 고통과 불안은 나날이 커갔다.

어느날 왕비 김씨는 동생인 방원에게 왕위를 넘겨주자고 방과에게 간청하였다.

방과는 일부러 태연한체 하고 《내 다 생각이 있으니 걱정마오.》라고 저력있게 한마디 하고 눈길을 돌리였으나 허전한 생각과 서글픈 감정은 온몸을 엄습하는지라 떨리는 가슴을 진정할수 없었다.

드디여 결심을 내린 방과는 조서와 옥새를 받들어 방원에게 정식으로 왕위를 넘겨주었다.

그리고 김씨와 함께 번화롭고 무시무시한 송도바닥을 떠나 백주 강서사에 짐을 풀었다.

방과와 김씨는 경기도 려주출신으로 40이 넘도록 태기가 없어 생남을 기도하려 온 부부로 가장하고 돈(시주)을 충분히 찔러주고는 별실에 거처하였다.

이래저래 두석달이 지나는 기간 방과는 강서사에 깊숙이 묻혀있으면서 한쪽으로는 심복하인들을 시켜 백룡산남쪽기슭에 거처할 집을 한채 준비시킨 후 늦가을 감쪽같이 이사를 했다.

그러던 어느날 방과의 집에는 불현듯 자기를 찾아오라는 방원의 특별지시를 받은 차사가 말을 타고 찾아왔다.

서른살도 되나마나한 젊은이였다.

해풍과 덕수일대에 나가 상왕을 찾아볼데 대한 특별어명을 받은 차사는 림진강을 건너 덕수현일대를 돌아보고 금성천 상류를 타고 내려오다가 왕의 친모인 한씨의 묘인 제릉근처에 와서는 그 주변 골짜기들까지도 샅샅이 돌아본 다음 남쪽으로 방향을 돌려 가좌을을 거쳐 장경동에 이르렀다.

비록 그 높이는 높지 않으나 산세가 수려하고 울창한 수림속에는 노루와 토끼 등 작은 짐승들이 욱실거리며 이름모를 새들이 지저귀고 분주히 날아나고 날아오는양은 깊은 산골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서를 안겨주었다.

말을 타고 오솔길을 따라 뚜걱뚜걱 내려오다가 좌측으로 꺾인 굽인돌이를 지나는데 갑자기 앞에서 모래알이 날리더니 한쪽 앞다리가 부러진 사슴 한마리가 다리를 절며 달아났다.

고삐를 든든히 잡고 말에 박차를 가했으나 원체 길이 협소하고 험한데다가 나무가지들에 걸려 뜻대로 사슴을 따라잡을수 없었다.

그런데 얼마후 앞에서 그 사슴이 또다시 나타났다.

또다시 박차를 가해 따라가는데 사슴은 어느새 작은 등마루를 넘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아무리 살펴보아야 사슴의 행적은 찾을길이 없는데 멀지 않은 곳에 외딴집 한채가 정가롭게 자리잡았고 그앞에는 몇그루의 수양버들이 보기 좋게 흐느적이며 버드나무그늘밑에서는 웬 중년이상의 두사람이 장기를 두고있다.

공손히 말을 집옆에 있는 나무말뚝에 매놓고 대문앞에 다달아 인기척을 냈으나 두사람은 장기에만 정신이 팔려 알은체를 안하였다.

멀찌감치에서 장기두는 모양을 보느라니 그중 나이가 더 먹은듯한 사람이 어깨를 으쓱하며 쾌재를 부른다.

《아하, 이사람 또 졌군. 〈마궁필패〉인데 자네 말이 또 궁속에 들어갔으니 야단이군.》

《허지만 〈공상불급〉이니 달리는 할수 없소이다.》

주고받는 말을 들어보니 보통사람들이 아닌듯 하다.

《아하, 그래도 공짜로 상을 주는것이 지는것보다야 낫지 않으리. 그럼 한장을 받게나.》하고 반대쪽 포를 넘겨 장훈을 부르니 중심에는 제 말이 있고 중선 옆측에는 제 상이 있어 사졸도 움직일수 없고 궁도 움직일수 없어 말그대로 마가궁속에 들어감으로 하여 어쩔수없이 지고말았다.

《오늘도 역시 선달님의 장기수는 당할수 없소이다.》

젊은이는 이렇게 말하며 뒤로 물러앉았다.

차사는 자기자신도 역시 장기를 무척 즐기는지라 한번 대붙고싶

은 생각이 간절해졌다.

그래서 공손히 다가가 머리를 숙여 인사를 차리였다.

《황공하오이다. 지나가던 길손인데 잠간 신세를 질가 하여 찾아왔소이다.》 하고 장기판을 내려다보니 장기판과 장기쪽 역시 보통이 아니다.

금장기가 틀림없다.

주인인듯한 중년이상의 사나이는 체격이 좋고 얼굴이 희며 준수한 인품을 가졌는데 목소리도 역시 우렁우렁하였다.

《원로에 수고가 많았소. 자, 여기 좀 앉소.》 하고 자리를 주었다.

그리고는 자기 소개를 하였다.

《나는 이 사람 말대로 박선달이고 이 사람은 개성사람인데 이 산골로 약초를 캐러 온 사람이요.》

차사와 주인이 주고받는 말을 듣고있던 약초를 캐러 온 젊은이는 《실례하오나 저는 먼저 자리를 뜨겠소이다.》 하고 자기 처소로 돌아갔다.

차사는 차사대로 자기를 소개하고 어명을 받들고 상왕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임을 사실대로 고하였다.

《어허! 그것 참 안됐구먼. 그 일로 하여 벌써 몇차례씩 차사들이 오게 되니…》 하면서 진정으로 걱정을 해주는듯 하였다.

그리고 주인은 자세한 내막을 들려준즉 자기의 본명은 박용인데 선조들은 대대로 높지 않은 무관벼슬을 해왔으며 자기도 선대의 뒤를 이어 무과에 급제는 하였으나 갑자기 불치의 병이 생겨 직첩을 받지 못하고있다가 병증세가 점점 더 악화되여 산좋고 물좋은 이곳으로 이사를 온지도 어언간 20년이 되여온다는 것이다.

《그런즉 선달님이 틀림없소이다.》

《옳은 말이요.》

당시 무과급제는 했으나 직첩을 받지 않고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선달이라고 불렀다.

차사는 박선달과 장기를 두고싶은 생각이 간절한지라 금장기

쪽을 어루만지며 한마디 하였다.
《그런데 선달님의 장기가 보통이 아닌듯 합니다. 선달님의 장기수를 좀 배워볼가 하는데…》
《차사도 장기에는 조예가 깊은듯 한데 그럼 한번 붙어보세나. 하하하.》
이렇게 되여 그들은 장기판앞에 마주앉았다.
《〈약자선수〉라니 내가 먼저 둘수밖에.》 이렇게 말하면서 박선달이 먼저 오른쪽 졸을 안으로 접었다.
차사도 뒤따라 자기의 오른쪽 졸을 안으로 접었다.
다음은 말이 나오고 면포를 세우며 궁사를 할 때까지는 똑같은 수를 썼다.
다음은 의례히 오른쪽 차들이 나오는데 박선달은 차를 그대로 둔채 사졸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러거나말거나 차사는 자기 식대로 차를 졸앞선에 내세웠다.
그랬더니 박선달은 역시 장기의 격식인듯 《조차위명》인데 하면서 훈시조로 말하고는 자기의 귀포를 뒤로 넘기였다.
《조차위명》이란 일찍 나온 차는 명이 위태롭다는 뜻이다.
아닌게아니라 몇수를 놓은 후 박선달의 면상이 앞으로 나오며 장훈을 부르니 차사의 두 차가 동시에 선달의 상밥에 걸려들었다.
할수없이 장훈을 부르는 상을 졸로 먹었더니 박선달은 제꺽 옆상으로 차사의 궁줄에 들어온 차를 먹어버렸다.
《조차위명》이란 격식이 그대로 들어맞았다.
차를 공짜로 떼우고나니 벌써 승부는 결정된셈이다.
결국 이날 장기두기에서 차사는 5전 5패를 하고말았다.
일찌기 장기에서 이런 참패를 당해본적이 없는 차사는 다음날 조반을 먹자마자 또다시 장기판에 마주앉았다.
그런데 박선달은 장기쪽을 옮길 때마다 거의나 매번 한자로 된 4언격식을 알려주면서 훈시를 하는데 그 묘술이야말로 탄복할 정도이다.

례하면 차가 움직일 때는 《조차위명》이요
《량차갈차》요
《차식량마》요… 하고
포가 움직일 때는 《량포쇄우》요
《외포귀포》
《면포궁인》
《명포망조》요 하고
마가 움직일 때는 《마불변행》
《마궁필패》
《면마겹마》
《무차마승》 … 등등으로 말하는데 그 격식이 그대로 들어맞으니 차사로서는 도저히 선달의 장기수를 따를수 없었다.

이리하여 이날 오전경기는 10전 10패로 끝났다.

차사는 은근히 약이 올라 더 바싹 달라붙는데 박선달은 뒤로 물러앉으며 《장기도 중로동인데 오전엔 이만하세나.》 하고는 계속하여 《옛날에 서울바람둥이와 시골바람둥이가 내기에서 서울바람둥이가 쪽도 못썼다더니 서울장기수도 역시 산골장기수에 비길수 없네그려.》 하면서 점잖게 말했으나 차사의 머리속에서는 피가 솟았다.

허지만 어찌하랴.

이왕지사 망신을 당한바에는 더 바싹 달라붙어 단 한번이라도 이겨보려는 야심이 북받쳐올랐다.

그래서 차사 역시 제나름대로 박선달을 야유해봤다.

《선달님의 장기수는 국수도 당할수 없을듯 하오나 오늘 오후 경기에서는 쓴맛을 보게 되오리다.》

《그건 어떻게 하는 말인가?》

《이름난 낚시군은 이갑을 크게 물리는 법이니 지금까진 제가 이갑을 크게 뿌린셈이옵니다.》 하고는 선달의 얼굴을 슬쩍 올려다보았다.

그랬더니 박선달은 여전히 여유있게 웃으며 《그렇다면 오후

에도 역시 〈도덕장기〉를 두어야겠군. 좌우간 점심부터 하고 보세나.》 하고는 먼저 일어나 집안으로 들어갔다.

차사는 뒤따라 일어나면서 혼자서 중얼거렸다.

《〈도덕장기〉란 또 무엇인가?》

점심밥을 먹자마자 차사는 버드나무그늘밑으로 나와앉았다.

허지만 박선달은 좀처럼 나오려 하지 않는다.

차사는 몇번이나 서성거리며 집안으로 들어가 살펴보니 박선달은 높직한 목침을 베고는 코를 골고있다.

하긴 그럴만도 한 일이다.

자기도 자기를 이기는 사람하고는 장기를 두고싶지만 자기에게 지는 사람하고는 두고싶지 않았다. 그러나 약속이야 지켜야 하지 않는가. 제 입으로 오후에는 《도덕장기》를 두자고 해놓고는 배포유하게 낮잠만 자고있는 선달이 밉살스러웠다.

한잠 늘어지게 자고난 선달은 해가 기울어서야 장기판을 들고나왔다.

《오후에는 5회 3승으로 결속을 해보세나.》 하며 선달은 차사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좋도록 하시지요.》

차사 역시 순순히 동의하였다.

어떻게 하면 저 령감을 한번이라도 이겨볼가 하고 곰곰히 생각하던 차사는 무조건 선달이 장기쪽을 옮기는대로 따라 둬보자고 생각했다.

《이제까진 계속 제가 먼저 선수를 썼으니 오후엔 선달님께서 먼저 쓰십시오.》

《그래? 그럼 내가 먼저 쓰지.》 하고는 궁사까지 한 다음에는 한쪽 포를 졸앞으로 슬쩍 넘기더니 다음 왼쪽 포를 오른쪽 변으로 넘겼다가 차를 먹자고 했다. 감쪽같이 먹히우게 되였다.

그래 자기도 오른쪽 포를 오른쪽으로 넘겨 선달의 차를 겨누었다.

네 차 내 차가 된셈이다.

박선달은 제꺽 포를 넘겨 차사의 차를 먹으면서 《장훈!》을 불

렀다.
이렇게 되니 차사는 장훈부터 받아야지 자기도 선달을 따라 그의 차를 먹지 못하게 되였다.
공짜로 차 하나를 먼저 떼우다나니 이미 장기수는 기울어졌다.
결국은 오후경기에서도 차사는 5전 5패가 되고말았다.
더 할 말이 없는지라 저절로 오른손이 뒤통수를 긁적거렸다.
박선달이도 너무 참혹하게 이긴것 같이 생각이 되여 좀 미안해하는 빛을 띄우며 점잖게 또 한마디 했다.
《장기에선 이기는것이 도덕이라 하기에 〈도덕장기〉를 두었더니 그런것도 아닌가보군. 아무래도 래일은 〈흥미장기〉를 두어야겠네.》
《아니, 〈흥미장기〉란 또 무슨 말입니까?》
《장기란 서로 이기고지고 해야 흥미가 있는것인데 그러자면 우정이라도 져주어야 할테니 우정 져주기란 이기는것보다도 몇배나 더 힘든 일일세. 하하하…》 하며 호탕하게 웃었다.
아무리 놀음놀이라 해도 사태가 이쯤되고보니 이런 정황에선 솔직히 말하는것이 상책이라고 차사는 생각하였다.
《내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제 장기수가 동료들속에서는 짝지지 않았는데 선달님의 장기수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겠소이다. 그러니 래일부터는 그 묘술을 착실히 배워주소이다.》
《허허, 그게 차사가 진정으로 하는 말인가? 그러니 정식 〈교육장기〉로 넘어가잔 말이지. 좋도록 하세나.》
《〈교육장기〉란 또 무슨 말입니까? 장기도 뭐 그렇게 종류가 많습니까?》
《종류가 많다마다. 장기를 두는 목적과 두는 형식, 방법에 따라 〈도덕장기〉, 〈흥미장기〉, 〈교육장기〉, 〈내기장기〉, 〈계약장기〉 등등 말할수없이 많고 또 〈면포장기〉, 〈면상장기〉, 〈면마장기〉, 〈량귀마량상〉 등 말할수없이 많네. 허지만 이건 다 부차적이고 장기를 두는 격식과 묘술이 중요하지. …》 하며 한참 엮어대였다.
다음날 아침 이들은 또다시 장기판앞에 마주앉았다. 박선달이 먼

저 입을 열었다.

《자네 장기쪽별로 그 점수가 얼마씩 되는지 아나?》

《쪽별로 또 점수가 있습니까?》

《암, 있구말구. 그러면 먼저 그것부터 적게나.》

차사는 선달이 시키는대로 붓과 참지를 가져왔다. 그리고는 박선달이 부르는대로 적어나갔다.

《궁 하나의 점수와 차를 비롯한 매 쪽들의 점수를 다 합한것이 28점으로 딱같은바 차는 10점이요 포는 6점, 말은 4점, 상은 3점, 사졸도 3점, 졸은 2점일세. 그리고 한쪽편의 모든 쪽들을 다 합한 점수는 90점인즉 궁이 28점, 차 둘이 20점, 포 둘이 12점, 말 둘이 8점, 상 둘이 6점, 사졸 둘이 6점, 병졸 다섯개가 10점일세. 계산을 해보게나. 맞지 않는가?》

차사가 선달이 시키는대로 암산을 해보니 90점이 딱 맞는다.

《예, 옳습니다. 90점이 딱 들어맞는군요.》

《이것은 매 쪽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을 말해주거니 장기를 두면서 그 경중을 타산해보라는걸세. 가령 차가 말이나 하나 먹고 죽으면 6점이나 손해를 보고 반대로 상이 차 하나를 먹고 죽으면 7점이나 리득을 보는셈이니 해볼만한 수이지. 알겠나?》

《예, 알만 하오이다.》

차사 역시 이런것쯤은 알고도 남지만 이렇게 수자적으로 딱딱 따져본적은 없는지라 머리를 끄덕이였다.

다음은 두는 격식에 대하여 궁으로부터 시작하여 《거궁입사》, 《뜬궁단명》, …, 《졸도자자》, 《외졸단명》 등 기본격식 28수를 조리있게 설명하였다.

즉 《거궁입사》란 궁이 들어앉고 사졸을 박으며 그앞에 포나 말이나 상을 세우면 안전하다는것이며 《뜬궁단명》이란 반대로 궁이 앞줄 귀퉁이에 나가앉으면 명이 짧으니 이렇게 하지 말라는것이고 《졸도자자》란 졸도 내 자식이니 귀중히 여기고 죽이지 말며 《외졸단명》이란 외로이 떨어져있는 졸은 명이 짧으니 될수록 졸은 합쳐놓으라는 등등을 세세히 설명해주었다.

차사가 듣고보니 하나도 틀림이 없는 명백한 리치이다.
이대로만 한다면 박선달이와도 능히 승부를 겨루어볼만한 신심이 생기였다.
허지만 애써 참으며 겸손한 태도를 취하였다.
《선달님의 훈시를 듣고보니 신심이 생깁니다. 허지만 눈엔 익고 손엔 설다고 련습을 많이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옳은 말일세. 그러니 오후에 〈실습장기〉를 두세나.》
박선달의 말이 옳기는 하지만 차사는 속으로 웃음이 나갔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더니 장기이름도 그저 붙이는대로 생겨난다고 생각하니 터져나오는 웃음을 가까스로 참았다.
이렇게 되여 《실습장기》를 두고나니 진짜 신심이 생겨났다.
그리하여 다음날엔 《진짜장기》판을 벌렸다.
장기격식을 머리속에 통달하고 고도로 각성하여 한수한수에도 신경을 집중해두었더니 첫캐에 귀중한 한점을 얻었다.
그것도 선달이 우정 져주는 장기가 아니라 치렬한 공방전끝에 이기고보니 실로 하늘의 별이라도 따낸듯이 즐거웠다.
그래서 2회전에서는 더 바싹 긴장하여 두었으나 불과 십여수 안팎에 지고말았다.
이날 오전 《진짜경기》는 차사의 5회 1승 4패로 결속되고말았다.
억울하기 짝이 없었다.
오후에는 기어이 이겨보자고 벼르고있는데 박선달은 약초를 캐야겠다고 하면서 괭이를 메고 산으로 올라갔다.
할수없이 차사는 혼자서 장기판을 놓고 이궁냥, 저궁냥 하면서 련습도 하고 수풀이도 해보았다.
해볼수록 묘술도 떠오르고 신심도 확고해졌다.
잠자리에 누웠으나 장기쪽이 눈앞에서 얼른거리며 잠들수 없었다.
새벽녘에야 잠간 눈을 붙인 차사는 아침밥을 먹자마자 졸라댔다.
《선달님, 오늘은 제 정식 〈도덕장기〉를 신청하는데 쾌히 승

낙하시겠습니까?》
《〈도덕장기〉라… 자네가 도덕을 지킬수만 있다면 내 어찌 마다하겠나. 딱 세판만 두세나. 3회 2승이지.》
차사의 선수로 시작된 첫판에서는 차사가 이겼다.
박선달이 보건대도 차사의 장기수가 훨씬 늘은것만은 사실이다.
2회전에서는 불과 몇수만에 또 박선달이 이겼다. 3회전 결승은 무승부로 끝났다.
약자와 강자와의 대전에서 비겼을 때의 기쁨은 약자에게 있는것이다.
차사는 희열에 들떠 입이 귀밑까지 올리붙었다.
《자네 장기수가 며칠사이에 몰라보게 높아졌군. 대단해. 정말 대단하단 말이야.》
선달은 차사를 바싹 추켜올렸다.
《뭘요. 그저 선달님의 훈시를 명심했을뿐이지요. …이젠 그만할가요?》 하고 차사는 반대로 박선달을 야유하였다.
무참한 패배자가 무승부수준에까지 올랐으니 다시한번 더 둔다면 승부는 명백하리라는 암시였다.
《어허, 이젠 이렇게 됐나. 좋네. 그럼 이젠 정식 〈내기장기〉를 둬보세.》
《〈내기장기〉요, 좋습니다. 내기를 어떻게 걸가요?》
차사는 더 바싹 들어붙었다.
《딱 한판으로 결정하되 자네가 이기면 내 금장기를 줄테니 어떤가?》
《그래요?! 아주 고맙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기면 자네가 진 값으로 3일간만 〈처벌장기〉를 두기로 하세. 그런데 자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장기규칙을 모르는게 탈이거든.》
《어떤 규칙을 말입니까?》
《규칙이야 많지. 그중에서도 기본은 〈일수불퇴〉요, 일단 장기쪽을 옮겨놓았은즉 절대로 물리면 안되는것이지. 알겠나.》
《알겠습니다.》 하고 차사는 한마디로 답변하였지만 한쪽손으로

는 또다시 뒤통수를 긁적거리였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는 표시였다. 허지만 차사의 머리속에는 《내기장기》에서 딱소리나게 이긴 후 저 현란한 금장기판을 들고 서울에 있는 동료들앞에 나서서 뽐내니 동료들은 너무나도 부러워 손벽을 치며 선망의 눈길을 보내는 희귀한 장면이 얼른거렸다.
(아니, 내 기어코 이기리라.)
이렇게 속다짐한 차사는 《선달님, 이번엔 제가 먼저 쓸가요?》 하고 장기판을 유심히 보니 장기쪽 놓는것자체가 달라졌다.
상이 차위치에 가있고 차가 상자리에 와있다.
(이건 또 뭐인가? 저런 장기두 있는가?)
차사는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잠시 주춤하고 눈을 껌벅거리니 선달은 태연하게 《왜 그러나? 이번엔 〈속차장기〉를 두겠네.》
《〈속차장기〉란 또 뭡니까?》
《그야 둬보면 알지 않으리. 속차란 차가 신속히 나간다는 뜻이지. 호기심이 가거든 자네도 속차를 놓게나.》
허지만 차사는 속차란 금시 초견이니 따라할수도 없었다.
그래 고정격식대로 먼저 오른쪽 졸을 안으로 접었다.
그랬더니 박선달은 오른쪽 두번째 졸을 안으로 접었다.
얼핏보니 자기의 왼쪽 두번째 졸이 차에 걸렸기에 자기도 제꺽 왼쪽 두번째 졸을 가운데로 모았다. 그렇다고 위기가 가셔진것은 아니였다.
순간 박선달은 차를 번개같이 가져다가 《장훈!》을 부르는것이였다.
얼떨떨하지만 속으로는 《거궁입사》라는데 하고 제꺽 뒤로 물러앉으며 《멍훈!》 하고 큰소리를 쳤다.
그랬더니 박선달은 《그럼 내 먼저 3점을 먹겠네.》 하면서 상을 제꺽 먹어버렸다.
불과 세수만에 큰쪽 하나를 공짜로 떼우고말았다.
그후 몇수 왔다갔다하는 사이에 꽉장에 걸렸다.

결국 머리속에 떠올랐던 환상은 삽시에 사라져버렸다.
박선달은 통쾌하게 한바탕 웃더니 《자네 장기수가 푹 늘은 줄 알았더니 개판이군. 어찌겠나. 약속대로 3일간 〈처벌장기〉를 두게나.》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줄 모른다.》는 속담이 딱 맞았다.
차사는 상왕의 행처를 찾아오라는 왕의 어명을 받았으나 꼭 찾아보게 된 어병산 불당골과 부소산 탑골, 옥암산 긴골은 가보지도 못한채 장기바람에 팔려 제정된 기일은 다 지나고말았다.
이제 돌아간다 해도 큰 소동이 일어나겠는데 3일간 《처벌장기》까지 두고가면 생벼락이 내릴 판이다.
할수없이 차사는 박선달에게 사정이야길 하고 빌었다.
그러나 박선달은 막무가내였다.
《아 이사람, 늙은이와 약속을 어기면 되나. 기일을 못지킬바에야 하루면 어떻고 사흘이면 어떤가? 그러면 내 〈처벌장기〉기일을 하루로 줄여주겠네.》
이렇게 되여 차사는 다음날 온종일 《처벌장기》를 두었다.
《처벌장기》란 실로 가치있는 장기였다. 박선달은 차사에게 이 하루동안에 그의 미숙한 장기수를 하나하나 바로잡아주었다.
그리고는 그날저녁 백룡산 산천어를 잡아 특식으로 어죽을 쑤어놓고는 대포 한잔을 나누었다.
허지만 차사의 근심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잠자리에 들어 밤새껏 모대기다가 잠간 잠이 들었는데 무시무시한 악몽끝에 가위에 눌리웠다.
괴상한 비명소리를 듣고 선달이 달려가 차사를 흔들어깨우고보니 그의 온몸은 땀속에 들떴다.
《여보게, 자네 몸이 말이 아니구먼. … 쯔쯔.》
《선달님, 그 장기바람에 큰죄를 진것 같습니다.》 하면서 차사는 몸을 떨었다.
장기에만 눈이 팔려 어명을 어긴것이 제기되면 영낙없는 모가지였다.
이쯤되니 박선달이도 진정으로 동정이 갔다.

《여보게 차사, 너무 근심말게. 내 힘껏 자네를 도와주겠네.》
《저를 도와주다니요, 어떻게 말입니까?》
차사는 속으로 되지도 않을 소리를 한다고 코방귀를 뀌며 박선달을 어이없어 쳐다보았다.
그러나 박선달의 입가에는 느슨한 웃음빛이 피여올랐다.
《우선 땀에 들뜬 속내의는 벗어버리고 새옷을 입게나.》
그리고는 자기의 깨끗한 속내의 한벌을 내주었다. 서울에서도 보기 드문 고급내의였다.
일찌기 일어나 조반을 먹고난 차사는 작별인사를 하려 하였다.
그런데 박선달은 방으로 들어가더니 붓과 벼루를 들고 대청으로 나오면서 부드럽게 말하였다.
《자, 이젠 내 하라는대로 하게나. 관복을 벗고 돌아앉으라구.》
《왜 그러십니까?》
《글쎄 돌아앉으라는데. 내가 임금님께 자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청원서를 한자 써주겠네.
그런데 이 글은 상도(서울)에 들어서기 전에는 절대로 보면 안되네.》
뭐가뭔지 알수 없으나 어쨌든 차사는 선달이 하라는대로 관복을 벗고 돌아앉았다.
박선달은 차사의 잔등에 일필휘지하고는 붓을 놓았다.
그리고는 《자, 이젠 어서 떠나게.》 하면서 차사를 데리고 앞고개마루까지 나와 친절히 배웅해주었다.
비록 반갑게 자기를 배웅해주지만 차사는 선달의 두눈에서 알수 없는 이상야릇한 눈물이 흘러내림을 감촉하였다.
이로부터 며칠후 태종 방원의 앞으로는 상왕 방과의 친필이 새겨진 내복 한벌이 올라왔다.
글의 내용인즉 《금왕께서 나를 잊지 못하는 지극한 사랑과 차사의 높은 충성에 감복되였은즉 수일내로 상경하오리다. 방과》 하고 수표까지 하였다.
이렇게 되여 행방불명이던 상왕 방과의 행처는 밝혀지게 되고 그 공로로 하여 차사에게는 8품의 낮은 벼슬자리로부터 일약 3품의 높

은 벼슬이 차례졌다.

그리고 방원은 방과의 선의로 하여 쉽게 왕자리에 올랐은즉 그에게 계속 상왕의 존호를 올리고 특별은총을 베풀었다.

상왕 방과는 서울 별궁에 들어오라는 동생의 간절한 청이 있었으나 역시 산좋고 물좋은 백룡산에 정이 들은지라 다시 제 집으로 내려오니 태종은 특총을 베풀어 백룡산 남쪽기슭 넓고 아늑한 자리에 궁궐을 짓고 상왕의 행처로 삼아주었으니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그 터가 남아있는 인덕궁이다.

이때부터 방과는 마음놓고 인덕궁에서 부인 김씨와 함께 한가로이 살다가 부인 김씨는 무술년(1418년)에 먼저 죽고 방과는 그로부터 2년후인 경자년(1420년)에 63세로 죽었다.

죽기 전에 백룡산 동남기슭에 김씨의 묘를 먼저 쓰고 자신도 그 옆에 묘를 써달라는 유언을 남겼기에 공민왕릉의 형식을 본따 쌍통식무덤을 만들었으니 이것이 바로 현재까지도 그대로 보존되여있는 령정리의 후릉이다.

리조 2대왕 정종이 죽어 후릉에 묻히고 그가 살던 인덕궁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빈터만 남았으나 아직도 이 주변 사람들속에서는 정종의 은신생활과 관련한 일화들이 그대로 전해지고있다.

등산놀이

리성덕

우리 나라 중서부에 자리잡은 개성은 천여년의 오랜 력사를 자랑하는 도시로도 유명하지만 여러가지 민간풍속들이 많이 전해지고있는 고장으로도 유명하다.

전해지는 향토색 짙은 풍속들중에는 《북성귀》, 《남성귀》라고 부르는 등산놀이풍속도 있다.

북성귀란 말그대로 북쪽의 성을 돌아온다는 뜻이고 남성귀란 남쪽의 성을 돌아온다는 뜻이다.

꽃이 한창 피는 봄철과 단풍이 붉게 타는 가을철이면 마을의 남녀로소가 좋은 날을 골라 등산놀이에 떨쳐나서는데 북성귀는 늙은이들과 장년들위주의 가을철등산놀이라면 남성귀는 젊은이들 위주의 봄철등산놀이이다.

그렇다고 북성귀에는 젊은이들이 참가하지 않는다거나 남성귀에는 늙은이들이 섞이지 않는다는것은 아니고 경우와 형편에 따라 편리한대로 하였다.

《늙은이위주》요 《젊은이위주》요 하는 말은 가을철의 단풍과 풍경이 늙은이들의 감정정서와 잘 어울리고 봄철의 꽃과 풍경이 젊은이들의 감정정서와 통한다는 리유때문에 생긴 말이겠지만 어쨌든 남성귀는 젊은이들이 즐기는 등산놀이였고 북성귀는 늙은이들과 장년들이 즐기는 등산놀이였다.

등산로정은 북성귀인 경우 북쪽의 박연폭포까지 갔다가 대흥산성을 에돌아오는 왕복 백수십리로서 여러날 품을 들이는 길이였으며 남성귀는 남쪽 진봉산과 덕물산의 산성을 돌아오는 왕복 30～40리로서 하루품을 들이는 길이였다.

이 등산놀이들이 어느때부터 어떻게 유래된것인가를 밝히기는 어

려우나 먼 옛날에도 《옛날부터 해오던 일》이라고 하였고 지금에 와서도 《옛날부터 해오던 일》이라고 하는것으로 보면 그 유래가 자못 깊다는것을 알수 있다.

북성귀와 남성귀는 유래가 오랠뿐아니라 무예를 즐기고 운동과 몸단련을 좋아하던 우리 민족의 상무적인 생활풍습과 활동적인 기질에도 맞는 개성지방의 고유한 등산운동놀이였다.

1. 남성키

어느해 봄철이였다.

개성의 내성밖에 자리잡은 무시울동네 최서방네 집은 이른새벽부터 분주스러웠다.

첫닭울이에 제일먼저 깨여난것은 열아홉살난 딸 보패였는데 깨여나자마자 등잔불을 켜놓고 하나밖에 없는 나들이옷을 손질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보패의 남동생인 잠꾸러기 장쇠도 《어이쿠, 늦었구나!》하고 벌떡 일어나더니 잠이 가득 실린 눈을 비비고나서 미투리(삼실로 결은 짚신)를 손질하기 시작하였다.

《누나두 미투리 코떨어진게 있으면 얼른 내놓아. 내가 기워줄게.》

《어마나, 장쇠가 이렇게 살뜰할 때도 있구나!》

《뭐니뭐니해도 산길을 걸으려면 신발이 든든해야 한단 말이우.》

《옳다. 미투리를 잘 손질해주면 오늘 빈자(지짐) 맛있게 부쳐줄게.》

《흥, 누나 아니면 빈자 부쳐줄 사람이 없대?》

《호호호… 그러니 너를 따라다니는 기집애가 있다는거냐?》

《있지 않음. 내가 아직두 철부진줄 알아?》

《아이구, 귀구녕이 막혀 죽겠구나.》

자식들이 일찍 일어나 두런두런하는 바람에 어머니 리씨가 잠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나가더니 밀쌀가루를 내느라 쿵쿵 절구질을 하였다.

절구질소리에 잠을 깬 아버지 최서방이 쿨룩쿨룩 기침을 하면서 머리말에 놓인 곰방대를 손더듬으로 찾아쥐고 절컥절컥 부시를 쳐서 독한 엽초 한대를 붙여물었다. 그리고는 누구에게라없이 낄낄 혀를 찼다.

《쯧쯧… 어뜩새벽부터 분주탕을 피우니…》

새벽잠을 설친 최서방이 혀를 차기는 했지만 지금 최서방네만이 아닌 온 무시울동네가 남성귀준비로 분주하였다.

사는 형편이 좀 나은 집들에서는 등불을 밝히고 화전(꽃지짐)을 부칠 쌀가루를 봉았고 살림형편이 여의치 못한 집들에서는 밀가루요, 그보다 더 못한 집들은 메밀가루를 봉는것으로 그치였다.

맵시보기에 한창인때라 젊은이들은 새벽부터 단벌 나들이옷과 신발을 꺼내서 손질하느라 분주하고 처녀들과 새각시들은 머리를 곱게 빗고 연지곤지 찍어 바르느라 바빴고 총각들과 새서방티를 벗지 못한 젊은이들은 또 그들대로 바빴다.

우선 등산놀이도 나들이인것만큼 례절상 맨 상투바람이나 맨머리로 나설수 없기때문에 조막상투나 거치장스러운 총각머리태를 가리울 초립이나 석자베수건(이것으로 총각머리태를 감아넣은 둘레머리를 감싼다.)이 너무 헐망하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했고 험한 산길에 신을 짚신이며 짐을 져나를 지게도 미리 손질해놓아야 했다.

온 마을이 어뜩새벽부터 남성귀준비로 설렁거렸으나 마을앞 정자나무아래에 모두 모이라는 징소리가 쟁강쟁강 울린것은 아침해가 두어발이나 떠오른 뒤였다.

무시울은 예로부터 쇠보습이며 무쇠가마를 부어내는 무쇠장인들과 호미나 낫가락을 벼려내는 대장쟁이들이 모여사는 마을인까닭에 쇠메질에 잔뼈가 굵어지고 가슴팍이 떡 벌어진 남정네들이 많을뿐아니라 소리 잘하고 길쌈 잘하고 마음씨 삭삭하기가 이를데 없는 얌전하고 맵시 고운 녀인네들이 많기로 이름난 마을이다.

그래서 씨름이나 바줄당기기와 같이 힘을 겨루는 내기에서는 말할것이 없고 그네뛰기나 널뛰기 같은데서도 다른 마을에 져본적이

없었다.

남성귀나 북성귀 같은 등산놀이때에도 다른 마을들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나서는것을 어길수 없는 마을의 기풍으로 여기고있었다.

마을 좌상로인이 남성귀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정자나무아래로 나와서 일일이 잔소리를 하여 미흡한점이 없도록 신칙을 하였다.

사람들의 기세를 올리는데서는 뭐니뭐니해도 풍물군(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한몫을 한다. 그래서 새납은 누가 맡고 징과 북, 새장고는 누가 맡는다는것이 미리 분담되여있었다.

풍물군 젊은이들이 멜것은 메고 들것은 들고 불것은 불면서 정자나무아래 모여서 징과 북을 울리면서 한바탕 기세를 올리기 시작하였다. 이집저집에서 처녀총각들과 새각시, 새서방티를 채 벗지 못한 젊은이들이 쓸어나왔다.

최서방네 집 보패와 장쇠도 덤벼치며 대문간으로 향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부모들에게 인사를 하였다.

원래 말수 적은 최서방은 《오냐. 조심히들 다녀오너라.》 하고 한마디로 그치려다가 몸이 약한 장쇠가 마음에 걸려 퇴마루까지 나와서 한마디 하였다.

《꽃구경이나 하고 오라는 남성귀가 아니다.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면서 몸단련을 하라는것이다.

어디가 아프오, 어디가 결리오 하는 소리를 더는 하지 말고 이번 길에서도 몸단련에 힘을 써라. 일이 사랑이란 말이 있으니 제일 무거운 짐을 지고 남먼저 앞장서 걸어라. 나이 한살이라도 우인 사람은 존대하고 나이든 사람들이 짐을 들세라 네가 먼저 나서야 한다. 무슨 일에서나 남을 위해 제 한몸을 바칠줄 알아야 너도 사람대접을 받게 된다. 알겠느냐?》

《네. 알겠어요.》

어머니 리씨도 삽짝밖으로 나서려는 보패에게 신칙을 한다.

《행동거지에 주의하거라. 기집애가 남의 말밥에 오르면 시집을 바루 못간다. 들었느냐?》

《알겠어요. 백번도 더 들은 말을 또…》
《이년아, 백번이 아니라 천번이라도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
《호호… 알겠어요.》
보패는 홰대에서 날아내리는 깃털 돋기 시작한 암닭처럼 닭장밖 넓은 세상으로 어서 나가고싶은듯 삽짝밖으로 나는듯이 달려나갔다.
이윽고 정자나무아래 모두가 모이자 젊은이들은 풍물을 앞세우고 끼리끼리 떼를 지어 길을 떠났다.
일행의 음식따위들을 모아 큰 고리짝에 넣어 짊어진 장쇠또래 지게군들이 맨 나중에 따라섰다.
긴 행렬이 떠들어대면서 남쪽을 향해 길을 다그쳐 가는데 걸음걸음이 웃음이요 자국자국이 롱질이였다. 호들갑스러운 새납소리가 흥겨운 노래가락을 자지러지게 굴려넘기면서 흥취를 돋구면 장고를 멘 젊은이들과 징을 든 젊은이들이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면서 장고채와 징방망이를 멋스레 휘둘러대였다.
남문(라성의 고남문)을 나서서 한 시오리쯤 이렇게 걸어가니 진봉산중턱에 자리잡은 도선암과 장자궁으로 향하는 산길에 들어섰다.
이제부터는 파릇파릇 새움이 트고 꽃향기가 싱그러운 산길이여서 등산분위기는 한껏 고조되였다.
처녀들은 깔깔대며 쏟뜨린 구슬알처럼 사방으로 흩어져서 꽃도 따고 산나물도 뜯었다.
보패는 꽃지짐을 부치는데 쓸 진달래꽃잎을 송이송이 상할세라 조심조심히 따서 바구니에 차곡차곡 담았다.
아버지의 분부를 명심하고 제일 무거운 짐을 지고 나선 장쇠는 이마에 내돋은 땀발을 훔치다가 문득 하늘을 쳐다보았다.
봄철의 짧은 해는 어느덧 하늘높이 떠올라 점심때를 가리키고있었다. 장쇠는 알맞춤한 곳에 자리를 잡고 음식고리짝을 내려놓았다.
《자, 모두들 다리쉼을 안하겠어요?》

곁에 있던 젊은이가 껄껄 웃으며 대답하였다.
《허허… 네가 짐을 지고오느라 출출한 모양이구나!》
《흥, 해가 중천에 걸렸는데 형님은 배고픈줄도 모르니 봄바람에 취했소, 다홍치마에 취했소?》
《녀석두… 말하는 꼴을 좀 보지. 꽃향기에나 취하겠지 다홍치마에두 취한다드냐?》
《흥, 진짜 취하는건 다홍치마랍디다.》
《하하하… 호호호…》
온 산등성이에 웃음소나기가 쏟아졌다.
《에라, 모르겠다. 엎어진김에 쉬여간다구 우리도 마른 목이나 추기고 가세나. 다들 이리로 오게!》
이리하여 온 동네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이고지고온 음식들을 벌려놓기 시작하였다.
남정네들이 모여앉아 막걸리병을 기울이는 동안에 녀인네들은 삭정이를 주어다 지짐판을 걸어놓고 불을 지펴 꽃지짐을 부치였다.
이 꽃지짐이야말로 오늘 등산놀이의 절정을 장식하는 음식이고 오늘을 놓치면 아무때 아무 곳에서나 맛볼수 없는 봄철특산음식이였다. 뿐만아니라 그것은 음식이상의 깊은 의미를 담고있는 민족생활의 향기이기도 했다.
꽃지짐에는 제 고장의 아름다운 풍속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뜨거운 애정이 어려있으며 음식 한가지라도 더 맛있고 보기좋게 만들어 내놓으려는 이고장 녀인들의 알뜰한 솜씨와 갸륵한 마음씨가 그대로 담겨져있었다.
녀인들은 서로가 남들보다 더 맛있고 모양곱게 만들려고 윈심을 쓴다.
누가 지진 지짐이 꽃잎색갈이 고운가, 꽃잎이 반듯한가, 맛은 어떤가를 서로서로 살피였다. 흰쌀지짐, 밀지짐, 메밀지짐… 지짐마다 제나름의 맛이 있고 제나름의 모양을 갖추고있으니 어느것이 낫고 못하다고 단마디로 말할수가 없었다.
한창 꽃지짐 부치는 기름냄새가 풍겨나올 때 한 처녀가 모두

가 듣게 소리를 쳤다.

《뭐니뭐니해도 보패가 부친 꽃빈자가 제일이다! 모두들 맛보세요.》

처녀가 솜씨 빠르게 꽃지짐을 접시에 담아들고 여기저기로 내돌린다. 김이 문문나는 지짐짝들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나드는데 꽃지짐과 함께 웃음과 롱담이 오가고 남정네들이 모여앉은쪽에서는 걸죽한 우스개소리도 들려온다.

《꽃빈자맛이 이렇게 좋은걸 보니 보패가 올해는 시집을 갈라는가보다.》

《애개개… 난 몰라!》

《하하하…》

뒤이어 여기저기서 건드러진 노래소리가 울리더니 덩실덩실 춤판이 벌어졌다.

집에서는 언제한번 마음놓고 터쳐보지 못하던 호들갑스러운 처녀들의 웃음도 이날만은 거침없이 터져나온다. 까닭없는 웃음이건만 누구도 탓하는 사람이 없었다.

막걸리를 마신탓에 얼굴이 불그레해진 한 총각이 우쭐 일어서더니 한마디했다.

무시울사람이라 다른 소리가 나올리 없다. 풀무소리를 한바탕 엮어댄다.

풀무야 풀무야 풀무야
이 풀무가 뉘 풀문가
경기도 대풀무로다
푸르르 딱딱 박서방
똑딱 똑딱 윤서방
에루화 당기여라
쇠불이를 달구어라

풀무야 풀무야 풀무야
경기도풀무 이 아니냐

당길 때면 낫가락
밀 때면 또한 호미
에루화 당기여라
신선풀무 이 아니냐

부끄럼 타던 처녀들도 동무들의 손목에 이끌려 일어선다.

록의홍상이라 일컫는 초록색반회장저고리에 분홍치마를 차려입은 동네 좌상령감네 막내딸이 갑사댕기 드린 외태머리를 만지작거리더니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꽃은 꺾어 머리에 꽂고
잎은 따서 입에다 물고
나물은 캐서 바구니에 담고
새장고는 어깨에 메고
어허 둥둥 봄놀이가세

흥이 한껏 오르자 논밭머리와 쇠부리터 일판에서 익힌 마구잡이 곱새춤도 나왔다.

보물찾기놀이도 하고 덕물산 최영장군사당에도 들려 고려명장의 애국행적을 돌이켜보기도 하는 사이에 해는 어느덧 서산에 기울기 시작하였다.

일행은 귀로에 올랐다.

올 때처럼 풍물군들이 앞장서 기세를 올리고 처녀들과 새색시들은 꽃잎을 따고 산나물을 캐서 바구니마다 가득가득 채우느라 쉴새없다.

집에서 기다리는 부모님들께 꽃지짐과 봄나물을 맛있게 대접해드리려는 갸륵한 마음이 바구니마다에 가득가득 차넘친다.

아니 봄나물만이 아닌 봄과 꽃과 젊음을 안겨드리고싶은 고운 마음이 30～40리 산길과 들길에 가득 차흐른다.

어슬녘이 되여서야 일행은 남문을 거쳐 마을어구에 들어섰다.

보패와 장쇠는 동무들과 덕담(복을 받으라 하여 주고받는 말)을

나누며 헤여져 집으로 들어섰다. 마당에서 복슬강아지가 뛰여나오며 꼬리를 흔들고 부엌문이 열리면서 어머니가 내다본다.

《인제야 오는구나. 그래 잘들 놀았느냐?》

《예. 잘 놀았어요. 두다리가 늘어날 지경으로 걸었어요.》

장쇠는 빈 지게를 마당구석에 벗어놓으며 자랑하였다.

《어머니, 난 배가 터질 지경으로 꽃지짐을 먹었어요. 꽃지짐을 먹는건 봄을 먹는거라나요?》

《오냐. 그럼직한 말이로구나. 너희들은 봄을 배부르게 먹었으니 평생 봄처럼 싱싱하게 젊어살겠구나.》

보패는 산나물바구니를 내놓으며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도 봄을 잡수어보세요. 꽃지짐과 산나물을 잡수시고 젊어지세요. 제꺽 부쳐드릴게요. 오늘 내가 부친 꽃지짐이 맛있다구 뭐 시집갈거라나요. 호호호…》

이렇게 남성귀등산놀이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이어졌다. 보패네만이 아닌 온 동네가 밤이 되여도 남성귀등산놀이분위기로 흥성거리였다.

2. 북성귀

그해 가을이 왔다.

한가위가 지난 어느 화창한 날이였다. 무시울사람들이 북성귀등산놀이에 떨쳐나섰다.

산과 들은 붉고 누른 단풍에 물들고 황금나락이 영글어가는 들판에서는 선들바람이 불었다.

하늘이 높아지고 말이 살진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이였다.

이때쯤이 되면 거의 매일이다싶이 북성귀등산놀이 긴 행렬들이 동대문이나 비둘기성재(성균관 뒤쪽으로 송악산을 넘는 고개)로 빠져나간다.

북성귀는 마을이나 부락끼리도 하고 이웃마을과 함께 하기도 하는데 많을 때는 그 일행이 100여명을 넘을 때도 있고 보통 40～50명, 적어서 10여명이 모여서 떠나기도 했다.

가족이나 친척들이 모여 가기도 했고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같은 서당출신의 사람들이나 같은 관청에 나가는 사람들, 심지어 뜻이 맞는 술친구들끼리 가기도 했다. 빈부귀천, 남녀로소의 차별이 없는 등산놀이 같아보이지만 량반부자들은 차림새부터 달랐다.

권세있는 량반부자들은 사인교(네사람이 메는 가마)에 올라앉아 전후좌우에 수많은 시중군들을 거느리고 나서는데 맨 앞에는 7～8명의 잡이군들이 풍물소리를 울리며 나가고 그뒤로는 갖가지 음식과 삿자리, 천막, 술방구리를 지고인 짐군들과 노래부르고 술시중을 들 기생들까지 해들거리며 따라선다.

등산놀이를 저들의 권세나 가세를 자랑하는 기회로 삼는 량반부자들의 북성귀행렬은 눈이 시여서 살펴볼 가치도 흥미도 없으니 침을 뱉아 저갈데로 가라고 내버려두자.

하지만 백성들의 북성귀행렬은 차림새도 소박할뿐아니라 등산놀이기간에 늙은이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효성하며 이웃, 친척사이에 화목하고 서로가 도와주고 위해주는 아름다운 기풍이 활짝 꽃펴나서 몸단련과 함께 마음까지 아름다와지는것이였다.

백성들의 등산놀이행렬에서는 늙은이들은 빈몸에 지팽이정도로 차림새를 간편히 하였고 나이 젊은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짐을 먼저 지고나섰으며 잡이군들도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당한 등산놀이 참가자로서 스스로 새납을 불고 북을 치고 징을 울리는 소임을 맡아할뿐이였다.

백성들의 행렬에서는 늙은이와 젊은이의 구별이 있고 인륜도덕상 웃사람과 아래사람이 있을뿐 빈부의 차이나 벼슬의 높낮음 같은것이 없기때문에 서로 돕고 위해주는 훈훈한 인정만이 뜨겁게 흘러넘치는것이였다.

무시울북성귀행렬이 마을이름을 써서 높이 드리운 기발을 앞세우고 풍물을 기세좋게 울리며 배고개너머 덕바위마을어구에 이르렀을 때였다.

길옆에 선 큰 느티나무그늘밑에 사람들이 모여 서있었다.

북성귀가 시작되면 이 마을사람들은 매일같이 성밖으로 나가

는 북성귀행렬을 바래우느라 늘 큰 항아리에 탁배기나 시원한 샘물을 담아들고 나오군 하였다.

《어허, 좋구나! 오늘은 무시울이 떠나는구나!》

《어서 목이나 추기고들 가게. 가는 길 곳곳마다 샘물이야 있겠지만 인삼뿌리를 씻어내린 송도샘물같은게 어디 있으며 삼천리를 다 뒤져도 정들이고 맛들인 송도탁배기 같은것이 어디 있겠나.》

권하는 말이 하도 듣기 좋아 목이 마르지 않아도 저저마다 샘물 한바가지나 탁배기 한종지쯤은 기분좋게 마시고 길을 다시 걷는다.

동대문을 빠져나오자 행렬은 북쪽으로 꺾인 길을 따라 화장사고개를 바라고 움직이였다.

최서방은 집을 떠날 때 있은 일이 문득 떠올랐다.

보패와 장쇠가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가 시중을 들겠다고 하는것을 최서방은 《아버지, 어머니걱정을 말어라. 아직 너희들 등에 업혀다닐 형편은 아니다.》 하고 밀막아버리려다가 장쇠는 기어이 데리고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봄에 남성귀를 갔다와서도 며칠간을 어디가 아프오 어디가 결리오 하면서 끙끙거리였었다.

몸이 든든치 못해보인다고 의원들이 보약이라도 좀 써보라고 할때마다 최서방은 젊은 놈이 보약은 무슨 보약, 몸단련이 보약이지 하면서 북성귀때 먼길 등산에 내세워서 몸단련을 시키리라 벌써 마음먹고있었던것이다.

떠날 때 최서방은 장쇠에게 말했다.

《이번 길에 나는 너와 내기를 좀 하자고 한다. 너는 짐을 지고가면서 아버지, 어머니시중을 들기로 하고 나와 어머니는 너한테 조금도 매달리지 않고 다녀오려고 한다. 그래, 어떠냐. 자신있느냐?》

장쇠는 그래도 사내녀석이라고 말대꾸를 했다.

《헹, 해보자요. 아버지도 쉰나이를 넘겼는데 마음같이 될줄 아세요?》

《이녀석, 나이가 중한게 아니라 마음가짐이 중하다. 넌 사내라는게 몸을 단련해야지 그런 약골을 어디다 쓰겠느냐. 사내가 나라지키는 군정노릇도 바로 못하면 사람값에 못간다.

보패는 며칠간 집과 집짐승을 돌봐야 하겠으니 못가지만 너는 모든걸 제힘으로 하면서 몸단련에 힘써야 한다.》

이렇게 되여 장쇠는 짐을 지고 일행을 따라서게 된것이였다.

쉰줄에 들어선 나이였지만 아직 건장한 최서방과 마누라 리씨는 마을사람들과 어울려서 서로 살펴주고 도와주면서 어렵지 않게 등산행렬을 따라가고있었다.

부지런히 걸어서 화장사에 이르러 점심을 치른 일행은 령통사에 들려서 하루밤을 묵으면서 등산준비를 면밀히 갖추었다.

다음날은 등산로정중에서 제일 힘든 천마산줄기를 에돌아넘어야 하기때문이였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일행은 짚신감발을 든든히 하고 이고지는 짐들도 간편히 꾸린 다음 기세를 올리며 일찌기 길을 떠났다.

령통사에서 오관산(갓 다섯개를 벗어놓은듯한 련이은 다섯봉우리, 해발 480m)을 옆에 끼고 서사정골을 따라 북쪽으로 가느라면 천마산의 험준한 봉우리들이 보인다.

동쪽으로는 자라봉, 인달봉, 멀리 서쪽으로는 애기봉, 깃대봉을 비롯한 바위산들이 대흥산성 성벽으로 억척같이 련결되여있다.

수도 개성 방위성이였던 대흥산성의 남문을 통해 성안으로 들어서면 북쪽으로 열린 대흥골에 이르는데 여기서부터 맑고 시원한 공계수를 따라 내려가면서 대흥사, 관음사를 거치게 되며 북성귀로정의 마지막지점인 천하명승 박연폭포에 이르게 된다.

못보면 한생의 한이 된다는 박연폭포에서 내 나라, 내 고향의 자랑과 긍지를 한껏 느껴보는것이 북성귀의 참멋이고 등산놀이에 나설 때 누구나 가슴에 품는 큰 소원이다.

그러나 그 소원을 이루려면 아직도 멀고 험한 등산길을 헤쳐가야 하였다.

아슬아슬한 벼랑길을 돌아나가는 힘겨운 길이 앞에 있었다.

발아래는 수십길 벼랑이고 머리우에도 하늘에 치닿은 벼랑이다.

길은 겨우 화로 한개를 들여놓을만한 너비였다. 부득이 벼랑을 안거나 등지고 모로 서서 게걸음으로 지나가는수밖에 없었다.

벼랑을 안고 도는것을 《안돌이》, 등에 지고 도는것을 《지돌이》라고 하였다.

빈몸으로도 오금이 저려서 발을 옮기기가 바쁜데 짐을 이고지고 지나가자니 오죽이나 힘들터인가. 무슨 일에서나 담이 크다고 자부하던 최서방도 벼랑아래를 한번 흘끔 내려다보더니 오금이 지르르 저려들었다.

나이들면서 어느새 이런 겁쟁이가 되였나 하는 생각이 들자 저도모르게 화가 치밀어서 어험 하고 큰 기침을 하고나서 마음을 다잡았다.

그런데 장쇠와 마누라가 걱정이다. 짐을 진 장쇠가 먼저 지나가야 하는데 주저하는 기색이 엿보이였다.

최서방은 느슨히 웃으며 말을 걸었다.

《장쇠야, 앞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걸 봤지?》

《예, 봤어요.》

《안돌이든 지돌이든 네가 편리한대로 해라. 짐을 등에 졌으니 벼랑을 가슴에 안고 나가는게 편할게다. 아낙네들도 눈섭 한오리 까딱 안하고 지나가는데 사내녀석이라는게…》

《체, 걱정 말아요. 내가 뭐 겁내는줄 알아요?》

장쇠는 우둘거리면서 벼랑길에 들어섰다.

《얘야, 덤비지 말고 조심해라.》

걱정을 담아 말하는 어머니 리씨의 치마아래섶이 두무릎과 함께 사시나무 떨듯 하였다.

그럭저럭 장쇠가 벼랑길을 무사히 지나가자 최서방은 마누라가 머리우에 인 크지 않은 짐을 훌 집어내려 자기 등에 지고 《발아래는 보지 말구 나를 따라서우.》 하고는 벼랑쪽에 바싹 붙어 걸음을 내짚었다.

그러나 리씨는 최서방의 옷자락을 꽉 거머쥐고 두어걸음 옮기더니 다리를 부들부들 떨며 움직이지 못하였다. 두발이 땅에 딱 들어붙어 떨어지지 않는 모양이다.
먼저 지나간 젊은 축들은 깔깔 웃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위로의 말을 해주느라 애를 썼다.
《장쇠 어머니, 아래는 아예 보지 말구 발을 옮겨짚으세요. 여기가 북망산길보다 더 험하다는데 그렇게 쉽겠나요.》
먼저 벼랑을 지나간 늙은이들도 수염을 내리쓸며 껄껄거린다.
《허허… 저런 변이 있나. 령감님 옷자락에만 매달리지 말구 어서 발자국을 떼시우. 염라대왕께로 가겠는지 옥황상제께로 가겠는지 여기서 결판이 납니다. 두눈을 딱 감구 살살 게걸음을 치시우.》
리씨는 젊은이들과 로인들의 부추겨주는 우스개말에 위안을 받으며 최서방을 따라 간신히 벼랑길을 지나 나오더니 안도의 모두숨을 훌 내쉬였다.
《됐수다. 아무렴 그렇겠지. 한창때엔 널뛰기, 그네뛰기에서 해마다 상을 타던 보패 어머니가 그럴수가 없지. 허허허… 이젠 힘든 고비를 다 넘겼수다.》
일행은 《안돌이》, 《지돌이》구간을 지나 망월봉에 올랐다.
평퍼짐한 곳에 삿자리를 펴고 둘러앉아 쉬면서 다정히 음식들을 나누었다.
숨가쁜 등산길을 걸은 뒤인지라 모든 음식이 꿀같이 달고 넘긴 음식은 다 살로 가는듯 했다.
일행은 대흥산성 남문을 지나 대흥골로 내려섰다. 드디여 천마산줄기를 타고넘은것이였다.
일행은 그냥 내처 걸어서 관음사에서 려장을 풀었다. 천마산을 넘어온 피곤을 무릅쓰고 모두가 관음사 대웅전이며 관음굴이며 그앞에 서있는 7층돌탑을 구경하였다.
관음사는 970년(고려 광종21년)에 법인국사라는 중이 천연바위굴안에 관음보살상 한쌍을 앉혀놓고 그 굴을 관음굴이라고 부른때로부터 절간으로 알려지고 그후에 대웅전을 비롯한 여러 건물들을 세우고 절의 이름을 관음사라고 불렀다고 한다.

최서방내외와 장쇠는 마을사람들과 함께 관음굴에도 들어가보고 부역에 끌려나온 운나라는 소년이 앓는 어머니의 림종에도 못가보게 한 관리놈들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자기 손목을 자른 후 어디론가 가버렸다는 구슬픈 전설을 들으면서 아직도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대웅전뒤면의 문짝들도 눈물겹게 돌아보았다.

관음사에서 하루밤을 보내고 이튿날 아침해가 골안에 퍼지자 일행은 북성귀로정의 마지막지점인 박연폭포를 향하여 떠났다.

개울을 따라 성북문에 이르자 성문옆에 있는 큰 바위밑에 바가지처럼 생긴 못이 보이는데 그것이 박연이였다.

이 못에 고였던 물이 벼랑아래쪽으로 쏟아져내려서 박연폭포를 이루는것이였다.

사람들은 아득히 높은 벼랑에서 곧추 날아떨어지는 폭포를 아래서 올려다보기도 하고 벼랑우에서 내려다보기도 하고 《범사정》정각에 올라 옆에서 보기도 하였다.

보는 곳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보는이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보이기도 하였다.

장쾌한가 하면 시원스럽기도 하고 장엄한가 하면 용맹스럽기도 하였다.

물보라를 일으키며 물확으로 쿵쿵 쏟아져내리는 물소리는 우뢰소리같기도 하고 노한 울부짖음같기도 하고 천군만마가 내달리는 말발굽소리같기도 하였다.

개성이 낳은 유명한 녀류시인 황진이가 젖은 머리태를 휘둘러썼다는 글씨가 새겨진 바위우에 오르니 그 옛날 이 못가에서 그윽히 울려퍼지여 서해룡왕의 딸을 반하게 했다는 전설속의 박진사의 피리소리가 들려오는듯도 하였다.

박연의 이 절경을 떠나서 어찌 북성귀등산놀이를 말할수 있을것인가.

황진이가 지은 시중에 《박연폭포》라는 시도 있다.

물소리 골안에 우뢰로 울고
물방울은 공중에서 구슬로 흩어지네

려산이 좋다 하지만
천마산의 이 폭포 누리에서 으뜸이요

남의 나라 명산보다 내 나라 박연폭포가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이 긍지높은 읊조림은 나라에 대한 사랑, 고향에 대한 사랑의 메아리였다.

박연폭포에 다녀간 사람이 천이면 천번, 만이면 만번 나라에 대한 사랑으로 가슴들이 뜨겁게 울리였을것이니 오호, 금수강산아, 고향산천아!

너는 그처럼 아름답기에 그처럼 아름다운 사람을 낳고 아름다운 풍속을 낳고 애국을 낳아키우는것이로구나!

최서방내외와 장쇠는 말로는 다 표현할수 없는 깊은 감동속에 하루를 보냈다.

나라에 대한 사랑, 고향에 대한 사랑을 키워주고 몸단련에 마음단련까지 시켜주는 이 등산놀이야말로 얼마나 훌륭한것인가.

무시울사람들은 저물녘이 되여서야 귀로에 올랐다.

대흥산성 북문을 빠져나와 골계수를 거슬러 대흥사를 향해 등산길을 걸으면서 살펴보니 산굽이마다 절경이고 물굽이마다 명소였다.

일행은 대흥사에 이르러 돌층계아래에서 개울가로 마당처럼 넓게 펼쳐진 너럭바위우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밤새워 춤을 추다가 다음날 아침에야 남문을 거쳐 성을 빠져나왔다.

남문에서 발아래로 멀리 펼쳐진 산과 들을 바라보니 참으로 장쾌하였다. 마치나 구름우에서 이 땅을 굽어보는듯도 한데 기묘한 바위들과 단풍으로 단장한 크고작은 봉우리들, 그 사이사이로 굽이굽이 흘러가는 맑은 개울, 누렇게 익어가는 들판… 한폭의 산수화를 마주하고선듯 하였다.

여기서 무시울사람들은 마중나온 자식들과 친척, 이웃들을 맞이하였다.

이렇게 자식, 친척들과 이웃들이 먼 등산길을 다녀오는 늙은이들과 부모들의 건강안부를 념려하여 간단한 음식을 차려

들고 손자, 손녀들까지 데리고 남문까지 와서 마중하는것을 《들이마중》이라 하고 화담계곡에 있는 서사정(중세철학자 서경덕이 학문을 닦던 정각)까지 와서 마중하는것을 《내마중》이라고 한다.

로상에서 만난 사람들은 서로가 험한 등산길에서 무사했음을 축하하면서 음식을 나누고 춤판을 벌리고나서 서로 부축하고 이끌면서 개성장안으로 유유히 돌아온다.

최서방내외와 장쇠는 보패를 반갑게 만나고 동네사람들과 함께 무시울로 돌아왔다.

등산놀이 며칠동안 마을과 집을 떠났다가 돌아오고보니 마을이며 집이 별로 정다와보이였다.

최서방은 퇴마루에 걸터앉아 먼지 오른 짚신과 행전을 벗어 털면서 누구에게라없이 말하였다.

《며칠간 등산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단련하였으니 래일부터는 힘을 부쩍 내여 한바탕 일을 해제껴보자!》

옆에 앉아 무릎을 다독거리고있던 리씨가 지청구 절반으로 대꾸하였다.

《어이구, 죽을 때까지 뼈빠지게 할 그 일이 그렇게두 좋으시우? 그저 눈만 뜨면 일… 일…》

《허허… 북성귀 갔다왔는데두 마누라생각은 그저 그대루라니까. 나는 풀무소리, 메질소리를 못들으면 잠이 오지 않고 몸이 편안치를 않어.

래년 봄갈이에 쓸 보습이며 괭이나 호미를 지금부터 벼려내야 우리 마을은 물론 이웃마을들에서도 농사를 지을게 아니여. 농사를 지어야 사람이 살고 사람이 살아야 나라도 있고 나라를 지켜 영웅장수도 날게 아닌가.》

《어이구, 평생 벼림질밖에 모르던 령감님이 북성돌귀 한번 하고오더니 유식해졌수다그려.》

《아무렴, 부뚜막 지키는 마누라보다야 낫겠지.》

《그런 말마시우. 나두 북성귀 다녀오고나니 아낙네라구 제 집 부뚜막 지킬줄만 알아서는 안되구 제 고향산천이 귀하구 이웃간에

오가는 정과 마음이 더 귀하다는걸 알았수다.》
《옳거니. 그 소리 한마디는 참 잘했어. 헌데 그 귀한것을 누가 가꾸고 지켜주는가 말이야. 우리 백성들이 지켜야 해. 빈말로가 아니라 바로 이 주먹으로 지키고 힘으로 지키고 일로 지켜야 해. 그러니 나야 눈만 뜨면 일, 일 할수밖에. 장쇠야, 그렇지 않냐?》
《옳아요. 아버지말씀이 맞아요. 사람이 일을 모르면 사람값에 못가지요. 사람답게 살려구 모두 평생을 바쳐 일하는것이구요.》
최서방이 머리를 끄덕이며 웃음을 지었다.
《우리 장쇠가 몸이 약해보여 늘 걱정이였는데 이번에 보니 사내다운 배짱은 있더라니까. 며칠간 산길을 걸으면서 몸단련도 하구 사람의 도리도 알게 되였을게다.》
《예. 북성귀가 처음이지만 몸단련도 하구 많은걸 배웠어요. 제 고향산천이 귀하다는것두 알게 되구 그걸 지켜 한몸 바쳐야 한다는것두 깨달았어요.》
부자간에 하는 말을 듣고있던 리씨가 눈이 휘둥그래졌다.
《어이구, 이 무슨 변이냐. 북성귀 한번에 서당문앞에도 못가본 이 집 남정네들이 다 유식해졌구나!》
리씨가 손벽을 짝짝 치며 웃는데 부엌에 있던 보패가 큰소리로 말했다.
《왜 남정네들뿐이예요. 나두 같은 생각인데요.》
《오냐, 맞았다. 너도 봄에 남성귀 갔다왔으니 그렇구말구. 북성귀, 남성귀라는게 산길을 걸어갔다오는 그저 놀이가 아닌줄 이제야 알겠다.》
집안팎이 웃음판이다.
최서방은 시원하게 세면을 하고나서 얼굴을 슬슬 닦으면서 기분좋게 말하였다.
《장쇠야, 오늘밤은 푹 자고 래일 첫새벽에 우리 집 메질소리로 온 마을을 깨우자꾸나. 알겠냐?》
《알겠어요. 쟁강쟁강, 댕강댕강 그 소리가 종소리보다 더 좋

지요.》

이때 동산에서 솟은 스무날달이 환히 웃으며 최서방네 마당을 기웃이 들여다보고있었다.

하늘도 땅도 사람들도 모두 웃는 날이였다.

× ×

북성귀와 남성귀는 고려와 리조시기를 거쳐 일제강점시기에도 꺾이지 않고 계속되였으며 해방후와 전후시기에도 그치지 않았다. 그 풍속이 지금에 와서는 박연탐승으로 면면히 이어지고있다.

왕복 100리 남짓한 박연탐승은 자동차를 리용하면 반나절이나 하루면 충분하기때문에 지금 북성귀와 같이 갖춤새가 요란한 등산놀이는 보기 어려운것으로 되였지만 명절날이나 휴식날은 물론이고 겨울철에도 진귀한 폭포의 얼음기둥을 보려고 탐승객들이 그침없이 찾아오고있다.

이러한 탐승은 단순한 관광이나 유람이 아니라 애국심과 향토애를 북돋구고 가꾸는 과정으로 되고있다.

개성사람들이 다른 고장에서 친척이나 손님이 오면 박연구경을 시키는것을 례절로 여기고있는데 이것은 오래전부터 북성귀, 남성귀와 같은 등산놀이를 통하여 나라에 대한 사랑, 향토에 대한 사랑을 다져가던 전통화된 민간풍속이 마음속에 진한 향기로 남아있기때문일것이다.

참으로 북성귀와 남성귀는 향토색이 짙은 년례적인 민간등산놀이로서 오늘도 우리의 사회주의민족문화를 꽃피우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조선온돌

리 빈

의식이 회복되는 순간 박연(본명 죤 웰테브레)은 일어서려고 몸부림쳤다.

허리가 뚝 부러지고 다리가 비틀리는듯한 아픔에 그는 저도모르게 《아!》 하는 비명을 지르며 털썩 쓰러졌다.

그찰나 눈앞에 사람형체가 얼른거렸다.

그는 흠칫 놀라 《청병? … 내 칼!》 하고 다급히 부르짖으며 부리나케 칼을 찾아 바닥을 더듬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귀를 울렸다.

《옳거니! 조선말을 아는 사람이로구만. 좋아, 가만 누워있으라구. 그러면 해로워… 청국병정놈들한테 혼이 난 뒤여서 그러는군. … 그놈들은 멀리 도망쳤으니 안심하라구.》

《?…》

어떤 늙은이 하나가 그의 팔을 이불속으로 밀어넣으며 환자가 다시 몸을 뒤틀가봐 저어하듯 다른 한손으로 가슴을 가볍게 누르고있었다.

그밖에 낯선 사람들 서넛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여 자기를 내려다보고있었다.

(?…)

박연은 통 영문을 알수가 없었다.

이 사람들은 청병이 아닌것 같은데? 하다면 누구들이란 말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누워있는가?

그는 정신을 가다듬으려고 안깐힘을 쓰면서 간신히 입을 열었다.

《저… 여기가 어딥니까?… 아버님은 뉘신지?》

《여긴 황해도 봉산땅 칠곡이라는 산골이구 난 유필근이란 늙은

일세.》
유로인은 부드럽게 대답을 하고나서 곁에 앉은 사람들을 돌아보며 《우리 칠곡동네 사람들일세. 자네의 병이 걱정되여 이렇게들 와있네.》 하고 알려주었다.
유로인의 이웃들은 《내내 정신을 못차리구 있을 땐 정말 별 생각이 다 나들더니…》, 《눈은 못뜨지 숨결은 금방 끊어질듯 가늘었지. 당장 무슨 변이 나는것만 같아 혼이 났어.》, 《아, 이젠 숨이 나간다!》 하고 못내 기뻐들하며 이불밑으로 손을 들이밀고 환자의 손도 잡아보고 흠뻑 땀이 배인 이마를 살근살근 문대주기도 하였다.
박연은 이들의 따뜻한 인정에 눈물겨운 감동과 함께 의혹도 생겼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데 생면부지 타국사람인 나의 소생을 두고 이렇게들 다행스러워 하는가?)
유로인과 이웃들은 상처를 봐야 한다면서 환자의 다리에 둘둘 감겼던 헝겊을 풀고 청국군대의 창에 찔려 끔찍하게 벌어진 상처부위를 소금물로 꼼꼼히 씻어낸 후 껍진껍진한 잣진을 한숟가락 듬뿍 발라놓으며 《피를 멈추고 생살이 돋는데는 이 잣진이 으뜸이야.》 하고 말했다.
아픔을 참느라고 눈을 꾹 감은채 이를 악물고있는 박연의 귀에 《아무렴, 그렇구말구.》, 《째진 상처엔 잣진이상 없지.》 하는 신심의 목소리가 울리였다.
얼굴과 머리, 팔에 난 상처들도 소독을 하고나서 잣진을 붙혔다. 이웃들은 다음차례로 량켠에 다가붙어 환자의 허리를 들었다.
유로인이 환자의 허리밑에 어린애베개모양으로 된 두툼하고 넙적한 헝겊주머니를 밀어넣었다.
헝겊주머니에서는 허연 김이 문문 서리였는데 씁쓸한 무우시래기냄새가 났다.
박연은 다시금 《어혈이나 담에는 시래기찜질이 그저 그만이지.》 하는 말소리를 들었다.

주인늙은이는 무슨 가루약을 숟가락에 담아 환자의 입에 떠넣으며 《이건 산대추씨가루인데 이걸 쓰면 아픔도 한결 멎구 잠두 잘 오느니.》 하며 따뜻이 위로의 말을 하였다.

《이 사람 젊은 병정. 마음 푹 놓으라구. 더운 구들에서 몸을 푹 녹이며 치료를 받으니 곧 나을걸세. 아무렴, 인차 낫구말구.》

《!》

박연은 너무나도 고마와 목이 메였다.

문병을 왔던 이웃들은 다시 오겠다며 자리를 떴다.

잠시후였다.

상처들의 쑤시는듯한 아픔은 차츰 가셔지기 시작하였다.

어느덧 그는 혼곤히 잠이 들었다.

그가 눈을 떠보니 벌써 날은 어두웠는데 밖에서는 눈보라가 아우성치고있었다. 문풍지가 태질하듯 부르릉거렸다.

바람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질겁하였다.

(아! 추워!)

그는 당장 눈보라속에 내던져지기라도 하는듯 치를 떨었다.

했으나 다음순간 온몸의 훈훈한 느낌으로 하여 공포는 잦아들었다.

뜨끈뜨끈한 구들바닥이 달구어주는 잔등의 더운 느낌은 기가 막히게 상쾌하였다.

몸과 마음이 사뭇 나는듯싶었다.

그는 저도모르는 사이에 방바닥을 더듬었다. 부지불식간에 탄성이 튀여나왔다.

《아, 조선구들! 이 얼마나 훌륭한가!》

그는 확신하였다.

(이렇듯 더운 구들이 아니라면 나는 벌써 저세상으로 갔을것이다!)

샛문(사이문)이 열리면서 부엌으로부터 오지화로를 든 유로인이 들어왔다.

약탕관이 끓고있는 화로는 어느덧 방안공기를 화끈하게 해놓았다.

박연은 흐뭇한 마음으로 생각하였다.
(저 화로는 참으로 값나가는 귀물이야. …여기 조선사람들은 더운 구들, 귀한 화로덕분에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무서워 안하거든. 구들, 화로 정말 좋은 풍속이야. 좋은 풍속…)
유로인은 베천이 깔린 뚝배기에 탕관의 끓는 약을 엎어쏟았다. 그는 막대기 두개로 베천 량머리를 휘감아 탕약을 짰다.
검붉은 약물이 쭈룩쭈룩 흘러내렸다.
유로인은 더운김이 물물 피여나는 약물을 박연에게 먹이였다.
훌훌 불어가며 뜨끈한 탕약을 마시고나니 당장 온몸에서 땀이 비오듯 흘렀다.
때를 같이하여 머리가 맑아지고 온몸에 한벌 덮인 크고작은 상처들의 아픔이 씻은듯 사라지는것만 같았다.
맺혀있던 응어리도 풀리는지 속이 시원하였다.
북받치는 감격을 누를길없어 그는 자기의 얼굴에서 흐르는 땀을 토목수건으로 문질러주고있는 유로인의 손을 와락 움켜잡았다.
《아버님, 고맙소이다! 정말… 난 다 죽었던 몸인데. 하늘같은 이 은공 내 진정 갚겠습니다.》
《젊은 병정, 자네 안할 말을 하는구만. 자네같으면 사경에 처한 사람을 보고만 있겠나. 더구나 자네는 우리 나라에 쳐들어온 원쑤 청병놈들을 막다가 상한 사람이 아닌가.》
《?!》
박연은 흥분된 마음을 진정하며 재차 물었다.
《아버님, 내가 어떻게 되여 아버님의 구원을 받게 되였는가요? 난 청병놈의 창에 찔려 벼랑에서 떨어지는 순간 죽는줄만 알았는데?》
《궁금할테지. … 우리 칠곡마을 변두리에서 우리 군사들과 청병놈들사이 싸움이 벌어지자…》
유로인은 말을 이어나갔다.
칠곡의 열세집사람들은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 몸을 숨겼다.
그들은 적들과 맞다들리는 경우 결사전을 벌릴 각오로 도끼와 쇠

스랑, 몽둥이 등을 틀어쥐고있었다.

도끼를 꽉 틀어쥔 유로인은 산봉우리로 올라가 싸움판을 내려다보았다.

청나라침략군놈들이 칠곡사람들의 은신처로 밀려드는 정황이 조성된다면 즉시 신호를 보내여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였다.

유로인의 눈길은 처절한 백병전의 한가녁으로 옮겨졌다.

한것은 조선군사 한명이 청병 두놈에게 몰리워 뒤걸음치고있는 광경을 보았던것이였다.

몰리우고있는 우리 군사의 뒤 몇걸음안에 《범바위낭》으로 불리우는 절벽이 있었다.

아슬아슬한 이 순간 우리 군사가 적병 한놈을 칼로 찔러넘겼다.

바로 그찰나 다른 적병놈이 번쩍 칼을 내질렀는데 그것이 우리 군사의 어딘가를 찌른것 같았다. 우리 군사는 절벽에서 떨어졌다.

황급히 산을 내려가서 《범바위낭》밑에 이른 유로인은 눈속에 묻혀있는 우리 군사를 발견하였다.

그런데 그는 우리 조선군사의 옷은 입었지만 머리칼은 노랗고 살색이 흰데다가 류달리 우뚝한 코에 놀라지 않을수가 없었다.

조선군복은 입었으나 사람은 조선사람이 아니지 않는가.

아무튼 설사 그가 조선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 적은 아닌 이상 먼저 살려놓고보아야 하였다.

이즈음 우리 군대는 전술상필요에 따라 적들을 유인하여 멀리로 끌고갔지만 《범바위낭》은 아찔하게 높은데다가 그밑은 숲이 우거져있어 유로인은 그들을 볼수가 없었다. …

유로인은 다음과 같은 말로 끝을 맺었다.

《…내 그때 얼른 가슴에 손을 대보니까 정신은 없어두 숨은 붙어있더군. 그래서 업어왔지.》

박연은 끓어넘치는 감동을 금할수가 없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님은 정녕 내 생명의 은인—그리스도이십니다.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 은공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파르스름한 눈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런 말 말라니. 고맙다는 말은 내가 자네한테 할 소리야. 보아하니 자넨 어디 먼 타국사람이 분명한데 타국사람이지만 우리 나라를 위해 피를 흘렸으니 이보다 더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나.》
아무런 꾸밈도 없이 펴놓는 로인의 대답에 더욱 감동된 박연은 목이 꽉 메여 무어라 할 말을 찾을수가 없었다.
이슥하여 마을이웃들이 하나둘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방안에 들어서는 길로 박연의 손을 다정히 잡고 빨리 완쾌되기를 바란다며 들고온 물건을 유로인앞에 내놓았다.
《이건 노루고기 장졸임인데 환자에게 보신이 될것 같아 가져왔습니다.》
《원기회복에는 잣죽이 은을 내지요. 그래서 잣을 좀…》
《우리 집 살림엔 아무것도 없어 기장쌀 둬되박을…》
《이건 말려두었던 도라지인데 병자의 구미에 맞겠는지…》
이웃들은 더 잘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마음을 터보였다.
박연은 이들의 아름다운 인정에 감격의 눈물이 앞을 가리워 그들을 똑바로 바라볼수가 없었다.
그는 흐느끼며 《고상한 조선풍속에 존경의 표시, 감사의 표시로는 절을 드리는 법인데 여러 은인들께 절을 드려도 큰절을 드려야 할 내가 일어설수가 없으니 널리 용서해주십시오.》 하고 진심으로 사죄하였다.
유로인과 이웃들은 절은 뭐고 용서는 또 무슨 용서인가, 불행한 사람을 도와주는것이야 마땅히 사람의 도리이니 그런 말은 말라고 부드럽게 만류했으나 박연은 도저히 가만있을수가 없었다.
《사람이라고 다 같은게 아닙니다. 여기 조선사람들은 그렇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은 결코 안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나는 많은 나라들을 다녀봤기에 잘 압니다. 내가 다른 나라에서 오늘과 같은 불행을 당하였다면 틀림없이 죽고말았을것입니다!》
그의 격동된 말을 이웃사람들은 알수가 없다는듯 의혹이 짙은 눈길로 서로 마주 바라보았다.

박연은 계속하였다.

《그렇습니다. 여기 조선사람들은 인정과 도리를 숨결로 삼고있는 참다운 사람들이니 나의 말을 믿을수 없을것입니다. 리해됩니다. 내가 생명의 은인들앞에서 어찌 꾸며낸 소리를 하겠습니까. 주, 그리스도께서 굽어보십니다. …》

이때 문득 그의 머리속에는 이제껏 자기 소개를 하지 않고있었다는 생각이 얼핏 떠올랐다.

(아차! 이런 인사불성이라구야.)

서둘러 자기 소개를 하려는 참이였다.

유로인이 다정히 물었다.

《자넨 그리스도란 말을 몇번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린가?》

《예. 벌써 알려드리고 말을 했어야 할걸 잘못했습니다. 그리스도란 나의 동포들이 살고있는 유럽이라는 넓은 땅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숭상하는 구세주의 이름입니다.》

《오, 그렇댔구만. 그리스도라, 이름두 참 괴상하지.》

《내가 어떤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사경에 처한 사람이니 구원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나를 도와주는 그 은정 얼마나 큰 도량입니까. 이 도량이야말로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한없이 은정깊은 여러분들앞에 이제껏 자기 소개도 않고있었으니 이런 인사불성이…》

그러며 그는 다음과 같이 자기 경력을 이야기했다.

박연(죤 웰테브레)은 네데를란드사람으로서 큰 상선의 선원이였다.

그는 유럽해안국들을 거의다 다녀보았을뿐아니라 케이푸타운과 봄베이, 상하이에도 그의 발자취가 찍혀있었다.

개척이 시작된지 오래지 않은 아메리카대륙에도 여러번 가보았다. 얼마전에는 일본 동경에 왔다가 돌아가던 도중 폭풍을 만나 배가 깨졌다. 다행히 통짝 하나를 붙잡고 구사일생으로 간신히 이른 곳이 조선의 제주도였다.

이때는 조선 인조왕 6년 무진(1628년) 음력 9월이였다.

구원을 받은 후 목포에 이르는 사흘동안 그는 줄곧 얼어떨

었다. 하루낮, 하루밤동안 물속에서 언 몸이 늦가을 차거운 날씨에 맞다들렸던것이다.

제주도의 관리들은 외국인인 그를 조정으로 올려보내려고 서두르다보니 그의 몸을 돌봐줄 겨를이 없었는데다가 배를 탄 뒤 목포에 이르는 이틀동안 몸녹일 조건이 전혀 없으므로 오금은 저리도록 얼어들기만 하였다. 게다가 조선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속이 비다보니 몸은 추위를 더 탈수밖에 없었다.

팔다리가 뻣뻣하고 목이 잘 돌아가지 않았다. 정신마저 얼어버릴가봐 겁이 났다.

네데를란드 고향의 뻬치까(벽난로)가 못견디게 그리웠다.

아, 온기는 어디에 있는가.

몸이 후끈히 녹으면 배가 고파도, 어디가 아파도 일없을것만 같았다.

하였기에 목포에서 하루밤 묵는 사이 비로소 몸녹일 기회가 생기자 이 세상에 자기처럼 행복한 사람은 다시 없을것 같이만 생각되였다. 하루밤을 지낸 집은 무슨 조화가 들었는지 방바닥이 뜨뜻하였다. 바닥전부가 구석까지 덥지 않는가.

편안히 벌떡 누워 잔등을 지지니 온몸이 언제 얼었더냐싶게 화끈 달아오르고 기분은 하늘을 날듯 상쾌하였다. 저절로 경탄이 터져나왔다.

《아, 이런 살림방도 다 있는가. 세상에! 이 나라 사람들은 이렇듯 천금짜리 보배를 가졌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후에 알게 된 사실에 의하면 이렇듯 따뜻한 바닥을 구들(온돌)이라 한다.

납작하고 넓은 판돌을 방바닥에 쭉 깔고 그밑에 여러 갈래의 골을 내는데 부엌에서 밥을 지을적에 때는 나무불의 불길과 연기가 골을 타고나가서는 밖에 세운 굴뚝으로 빠진다고 한다.

따지고보면 구들이란 밑천도 들것이 없고 큰 재간 아니고도 어디서이든 얼마든지 차려놓을수 있는것으로서 생활에 천금으로 쓰이는 보배인것이였다.

품은 거의나 들이지 않으면서도 큰 덕을 본다.

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유럽땅은 넓고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있지만 조선에서처럼 간단한 방법으로 방을 덥힐줄은 아무도 모른다.

박연은 구들을 쓰고사는 조선사람들이 부러웠다.

제주도에서 박연을 조정으로 올려보냈을 때 외국관계를 맡아보는 례조에서는 시끄럽게 되였다.

그를 귀국시킬 기회가 언제 생길지 전혀 예상조차 할수 없어 막연한 노릇이였고 제멋대로 살라고 그냥 내버려둘수도 없었다.

집을 한채 내주자니 산설고 물설은 이국땅에서 홀아비가 어떻게 살림을 한단 말인가.

또한 신원을 전혀 모르는 타국인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므로 일정한 감시도 붙여야 하고.

하여 례조에서는 골머리를 앓다못해 병조판서의 동의를 얻어 그를 훈련원에 넣었다. 훈련원은 많은 당직인원들이 먹고 자는 공공살림집을 가지고있었던것이다.

박연은 훈련원 고정당직군사가 되였다.

아무런 불만도 없었다. 훈련대장은 그의 본명이 부르기 까다로울뿐아니라 듣기도 귀거슬리는데다가 일단 조선에 살게 된 이상 조선식이름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그에게 《박연》이라는 이름을 달아주었다. 이에도 역시 그는 의견이 없었다.

그는 조선말을 배우고 조선풍속을 익히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주위사람들이 그를 따뜻이 돌보아주었다. 눈치빠르고 기억력이 좋은 그는 한 1년 지나는 사이에 흔히 쓰는 조선말을 거의나 다 배웠고 장과 김치담그기, 국수누르기, 약과, 강정튀기기 등의 풍속들은 물론 손님을 대접하는 법, 절을 어느때 하고 받으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등의 각종 례법을 터득하였다.

한마디로 조선사람이 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였다.

글도 익히고 책도 보았다. 하여 조선력사와 중국, 일본과의 관계를 비롯하여 여러 분야의 문제에도 시야가 넓어졌다.

그는 자나깨나 자기의 목숨을 건져주고 편히 살도록 극진히 돌보아주는 조선사람들의 은공에 보답할 일념으로 량심껏 일했다.

세월이 흐를수록 인정이 뜨겁고 례절이 밝은 조선사람들에 대하여 깊이 알게 되였다.

그는 수많은 나라들을 다녀보았지만 이렇듯 문명한 나라를 보기는 조선이 처음이였다. 그러고보니 자기가 조선이 아닌 다른 나라 기슭에 표착했더라면 영 신세를 망치고말았을것이라고 하루에도 몇번씩 다행스럽게 생각하군 하였다. 때문에 그는 자신의 운명을 조선으로 인도해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속감사를 드리기에 이르렀다.

나날이 몸에 젖어들고 뗄수없이 친근해진 생활들이 전부 마음에 드는 가운데서도 구들생활이 가장 좋았다.

훈련원 당직군사들의 살림방은 구들로 꾸리였는데 아궁에 불도 잘 들고 골고루 더웠다.

밖에서 일을 하느라 하루종일 꽁꽁 얼어도 그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저녁에 방안으로 들어서기만 하면 삽시에 온몸이 훈훈하게 녹기때문이였다.

여름철에도 비를 많이 맞으면 덜덜 떨린다. 이런 때도 구들은 그를 위해 어루만지는듯 온기를 준다.

그에게 있어서 오늘날 구들을 떠난 생활에 대해서는 생각할수도 없었다.

그가 조선에서 살기 시작한 이래 8년만인 병자년(1636년)에 청나라가 두번째로 조선에 침략군을 들이밀었다.

박연은 결심하였다.

(이때다. 내가 조선사람들의 은공에 보답할 때다. 창칼로 보답하자!)

그는 청나라침략군놈들을 무찌르는 전투들마다에서 용감하게 싸웠다. 그러던 가운데 봉산 칠곡싸움에서 치명상을 입었던것이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끌고온 박연은 마치 소중한 보물인듯 방바닥을 살틀히 어루만지며 《눈속에서 다 죽게 됐던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된 행운의 첫째는 아버님덕이고 둘째는 이 구들덕입니다. 구들

이 몸을 덥혀주니 온몸에 화기가 돌고 피가 잘 통하면서 상처의 독을 막아낼수 있었지요. 추위에 몸이 얼어 굳어지고 피가 잘 돌지 못했더라면 나는 벌써 숨이 끊어지고말았을것입니다. 구들—이런 보배의 덕을 한평생 입고사는 조선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럽습니다!》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유로인이 대답하였다.

《난 낭떠러지밑에 쓰러진 자네를 본 순간 깜짝 놀랐어. 조선사람이 아니지 않는가. 그때부터 자네가 어떤 사람인가 알고싶어 궁금했었네.

이젠 다 알았으니 속이 시원해. 자넨 좋은 사람이야. 우리 나라에 온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의리에 밝으니 말일세. 저를 구원해준 은공에 보답하고저 창칼을 들고 목숨을 내댄 의리보다 더 값높은 의리가 어디 있겠나.》

유로인의 목소리는 뜨거웠다.

곁에 앉은 이웃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옳은 말이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들은 제 나라땅이 아닌 이역에서 몸에 상처까지 깊으니 얼마나 고향의 혈육들이 더 그립겠는가, 하지만 너무 애태울것은 없다, 이제 곧 완쾌되여 고향으로 가게 될것이라고 따뜻이 위로하였다.

유로인이 흔연하게 뒤를 이었다.

《아무렴, 인차 고향에 가게 되구말구. 하루빨리 가야지. 사람이 천리만리를 가두 오로지 마음만은 제 고향땅에 두고있어야 하는걸세.》

말을 마치고도 환자의 심정을 헤아려보는듯 한동안 묵상에 잠겨있던 로인은 이윽하여 문득 좋은 생각이라도 떠오른듯 얼굴이 밝아지며 다시 입을 열었다.

《이자 자네가 덕이요 복이요 하고 옳게 말했는데 그건 다 우리네 현명한 조상님들께서 손수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준 덕이고 복일세.

한 4천여년전에 우리 박달겨레의 시조이신 단군성왕님께서 충신

들의 도움을 받아 구들을 비롯하여 만민에게 복이 되고 덕이 될 여러가지 풍속을 세상에 내놓으시였다네.》

그의 조용한 음성은 감동에 젖어있었다. 이웃들도 흥분되여 가만있지 않았다.

《먼 나라 배사공이 정말 바로 봤수다. 우리네 구들이야말로 천하에 보배지요. 보배인즉 만병에 명약이 당연하지. 몸이 얼어보라구, 없던 병도 생기구 있던 병은 심해지구…》

《정말 그 말이 옳아. 우리 아버님이 언제인가 〈동의보감〉이라는 선조대왕때 어의로 있은 허준선생이 지은 의서를 봤다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크게 네가지 원인으로 병이 난다더구만. 풍한서습 즉 바람이 끼구 지내 찬것, 지내 더운것, 지내 습한것. 그러니 몸이 얼면 탈이 날수밖에.》

《지금 어혈이 심한 저 타국환자에겐 불돌찜질이 제일일세. 누워있는 방바닥이 불돌같이 뜨끈뜨끈하니 따로 품들여 불돌찜질 안해도 되지 않아. 추운 겨울에는 말할것 없구 더운 여름에도 구들은 보배지. 한여름 장마철에 천지가 습한판에 방안은 더우니 몸이 말라 좋고 비를 맞아 으시시 몸이 떨릴 때 척 드러누워 잔등을 지지면 좀 시원한가. 석달 장마속에서두 방안에서는 옷도 말리구 무슨 낟알이든 누기에 변하지 않게 구들에 말리구. 하, 이거 뭐 좋은게 너무 많아 미처 다 꼽아내는 수가 없구만. …》

그가 숨을 돌리는 사이 곁의 사내가 서둘러 가로챘다.

《자네 거 말하기 숨차하는데 좀 쉬라구. 내가 도와줄테니까. 아궁에서 밥을 짓는 불길이 구들을 덥히니 그건 공짜라 큰 리득이요. 공짜리득이 또 있으니 밥짓구 남은 불을》 그는 약탕관이 끓고 있는 오지화로를 가리켜보이며 《저렇게 화로에 담아 구들에 척 들여놓은즉 방안이 곱절 더워지니 좋아, 화로에 저런 약다림뿐아니라 덕보는게 좀 많은가. 여러가지 찬거리 지지구 콩닦아 먹구, 추운날 술데우구, 밥, 닭알 삶아먹어 좋아, 불돌 달구어 찜질하구 굳은엿 녹이구 서로 언 손을 녹이면서 마주앉아 한담하기 좋구, 눈구뎅이에서 젖은 버선을 말리우고…》 하고 흐르는 물같이 쏟아져

나오는 말을 유로인이 막았다.

《가만, 가만, 자네 그렇게 뻗어나간 칡줄같이 늘어놓다간 검은 머리 파뿌리되겠네. 구들말 장마당에서야 구들말을 해야지. 화로는 또 왜 끌어다붙이나. 그러니까 끝이 없을수밖에.》

말허리를 잘리웠던 사나이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아—니, 형님, 화로가 구들우에 놓였으니 구들의 한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화로불이 구들달군 나머지라 헌즉 화로는 구들과 한 태줄의 형제란 말입니다.》

그만에 유로인이 허허 웃으며 《자네의 형제란 말이 명답일세.》 하고 선선히 수긍하였다.

모두가 그를 따라 유쾌하게 웃었다.

박연은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심취되여 오고가는 말들에 귀를 기울이며 구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하여 그것이 더욱 부러웠다.

조선입국 8년사이 구들에서 살아온 그였건만 이곳 사람들의 말을 듣고보니 참으로 구들덕이란 이미 알고있는 그밖으로 큰것이 아닌가.

그는 속다짐했다.

내 조선구들의 생김새를 밑바닥까지 깊이 파고들어서 상세한 기록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리라.

다음날 아침.

유로인은 사람 하나를 봉산관가로 보내여 부상자를 돌봐주고 있는 사실을 고하였다.

해질녘에 아전이 나타났다. 관속 하나가 따라왔다. 그는 박연의 상처를 들여다보면서 이것저것 몇가지 물어보고는 총총히 돌아갔다.

대엿새가 지나 그 아전이 다시 와서 다음과 같은 소식을 전하였다.

봉산군수는 박연을 보고간 아전의 말을 그대로 훈련대장에게 전하였다. 훈련대장은 박연을 구원한 칠곡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을 한데 이어 완쾌시켜 돌려보내라는 부탁을 하였다.

봉산관가는 아전편에 박연에게 필요한 약재 몇가지를 보내여 왔다.

…어느덧 봄이 왔다.

칠곡동네사람들은 한채의 새집짓기에 달라붙었다.

여기로부터 한 20여리 떨어진 큰길(국도)옆 마을 하나를 청나라 침략자들이 불태워버렸는데 집을 잃은 많은 가정들가운데 하나가 칠곡으로 들어와서 유로인의 웃방에서 겨울을 났다. 그 재난가정을 위한 집짓기인것이다.

박연은 지팽이에 의지하여 바깥출입을 할수 있게 추섰다.

그는 집짓는 일터에서 떠나지 않았다. 한손으로 할 일은 다 찾아다니며 힘껏 도왔다. 특히 바닥을 고루고 구들을 놓을 때는 노상 붙어있었다.

유로인이 아래목켠으로부터 웃목켠으로 가면서 바닥을 조금씩 높여 다짐을 하자 박연은 그 까닭을 물었다.

《불김이란 원래 우로만 오르는 성질이 있지 않나.》

박연은 즉시 머리를 끄덕였다.

《옳습니다. 듣고보니 리치에 맞는군요.》

《자네 굴뚝은 왜 동쪽으로 내는지는 아나?》

《…》

《겨울엔 흔히 우리 나라에서 북서풍이 많이 불지.》

《아, 그 역시 리치대로이군요!》

그는 이 마당에서야 비로소 리치의 파악을 떠나서는 그 어떤 재능도 이루어질수 없다는 진리를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바닥을 공그어놓은 집안으로 젊은이들이 목침 두어개만한 떼장들을 날라들였다.

유로인은 그것을 받아 두겹놓이로 부엌으로부터 굴뚝방향으로 여섯줄의 뚝을 쌓았다.

그는 그우에 모양새가 제가끔인 판돌(구들장)을 이를 맞춰 쭉 깔고 매개 구들장의 네귀에 작시돌을 고였다. 뒤따라 검불섞음을 듬뿍 넣은 진흙을 고루 발랐다.

그사이 다른 사람들은 부엌에 부뚜막을 걸고 밖에는 굴뚝을 세

웠다. 박연은 모든 공정을 빠짐없이 살피고 의문나는 점은 물어보면서 일일이 목책에 적고 그림을 그렸다.

구들장놓기가 거의 마지막단계에 이르렀을 때 유로인은 또한가지 지식을 알려주었다.

《구들이든 부뚜막이든 집 바람벽이든 모든 흙질은 잘 이긴 찰흙을 쓰네. 그래야 마르면 든든하거든. 저 유명한 만리장성두 진흙벽돌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데 진흙놀음땐 흠집도 있다네. 마르면서 틈이 생긴단 말일세.

틈이 갈라지면 부뚜막이나 굴뚝, 구들인 경우 연기가 새서 불때는 보람이 없고 그 틈새기로 바람이 들어 구들을 식혀버리구 바람벽인 경우 맥을 못추게 만드네. 이것을 막는 방도는 개울가의 매흙을 부드러운 짚검불을 섞어 잘 이긴 다음 걸에 한벌 혹은 두벌쯤 쭉 바르는걸세.》

박연은 펼쳐든 목책장우에 부지런히 붓을 달리면서 서둘러 물었다.

《그러니까 모든 찰진흙역사뒤에는 매흙 두벌손질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 말씀이겠습니다?》

《응, 그래.》

구들장놓기, 부뚜막과 굴뚝에서 손을 떼게 되자 새집, 새 아궁에 첫 불을 넣는 일을 하게 되였다.

아궁에 솔가래기를 한가득 밀어넣고나서 유로인은 박연에게 불을 지피라고 일렀다. 박연은 당황했다.

《이 일이야 집주인이 아닌 내가 어떻게?… 새집의 첫 불은 복좋은 사람이 지펴야 할것 같은데…》

유로인이 그를 안심시켰다.

《자네야말루 복이 좋은 사람이야. 두번씩이나 다 죽었다가 되살아났는데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다던가.》

《!》

박연은 감동의 눈물을 머금고 결집에서 화로를 가져다가 부저가락으로 불덩어리 하나를 골라 아궁의 솔가래기속에 찔러넣었다.

유로인이 조용히 한마디 했다.

《화로의 불로 아궁에 불을 지핀다. 그러구보니 언제인가 누구인지 〈구들과 화로는 형제다.〉고 한 뜻있는 말이 생각나누만.》

이날 밤이였다.

박연은 등잔불심지를 돋구어가며 새 목책에 구들을 놓는 묘리를 낱낱이 정리하였다.

그는 부록항목 첫머리에 이고장 사람들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두고 감사의 눈물속에 격찬서술한데 이어 인간들의 품성이 아름다운 조선에서는 그들이 향유하는 풍속들도 마땅히 아름다울수밖에 없다고 뚜렷이 박아쓰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

구들놓기에는 《석구들》이라는것도 있다. 이것은 떼장뚝대신 구들장을 돌로만 고이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방이 더 골고루 더운 우점을 가진다.

조선사람들은 흔히 구들에 떼장뚝을 놓는 방법을 쓰는데 한번 손질한 후 한해 혹은 두해가 지나 가을철에 구들장을 뜯은 다음 떼장뚝을 들어내고 새로운것으로 바꾸어놓는다.

이 형식의 목적은 두가지이다.

첫째, 나무불을 오래 때면 구들장밑에 그을음(일명 《고재》라고도 한다.)이 들어붙어 구들장이 덜 달고 곬에는 재티가 쌓여 불길을 잘 빨지 못한다. 이때 가정주부들이 아궁이 내서 고생을 한다. 이 폐단은 이른바 《구들질》 즉 낡은 떼장뚝을 들어내면서 구들장밑의 그을음을 긁어내치는 청소로 극복된다.

둘째, 들어낸 낡은 뚝은 구워지고 재가 엉킨 흙이므로 질이 좋은 거름이다. 이것은 흔히 가을밀을 심을 때 밑거름으로 쓴다. 꿩먹고 알먹기인셈이다.

…

그는 부록편 마지막에 이렇게 썼다.

조선의 구들에는 자재도 특별한것이 쓰이지 않고 구조 또한 간단하여 어디서나 손쉽게 도입할수 있는 방법이지만 인간생활에 미

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그리스의 신화에 프로메테우스가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주었다고 높이 칭송되는데 조선에 한하여 시조단군성왕이 만들었다는 구들은 그에 비길만한 공헌이 아니겠는가.

나는 운명이 준 이 보배자료들을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조국—네데를란드로 가져다가 보급할것이다.

어떻게 가져갈것인가?

나 개인 한사람에게 두번씩이나 생명을 준 조선사람들은 앞으로 문명의 우리 고국에 혜택을 주게 될것이다. 따라서 조선사람들의 고결한 성품도 고국으로 날라갈 방도는 없겠는가?…

숙종 4년(계사) 1662년에 서장 메멜을 위시로 한 네데를란드 선원 36명이 조난을 당하여 제주도에 표착하였다. 이때 박연—죤 웰테브레는 통역으로 활약하였다. 그는 이미 귀화한 조선국민으로서 안해와 아들, 딸을 거느린 가정을 가지고있었다.

메멜이 그에게 왜 조선국민으로 귀화했는가고 물었을 때 그는 거침없이 대답하였다.

나는 조선사람들의 뜨거운 인정으로 가슴이 더워졌으며 아름다운 풍속에 물젖은 사람이다. 그러니 난 조선사람들과 한태줄의 《친형제》이다. 이 소중한것을 떠나 내 어디 가서 행복하겠는가. 여기가 나의 포근한 보금자리이다. …

그가 큰마음먹고 품들여 만든 구들놓기자료집은 중국을 통해 귀국하는 메멜에게 부탁하여 고국으로 보내였다.

오늘날 아시아는 물론 유럽지역의 많은 민족들의 생활에 구들이 장려되고있다.

이것은 점점 확대되는 추세로 발전하고있다.

아마도 이렇게 된 요인이 메멜이 가지고간 죤 웰테브레—박연의 자료덕분이 아닌지. …

흔한것으로 별식을

전철호

고려 중엽, 도읍 개경으로 들어가는 서쪽의 선의문(오정문)밖에는 송나라 사절들이 묵어가는 영빈관이라는 객관이 있었다.

송악산에서 밋밋하게 줄기쳐내린 지네산을 등에 지고 세상에 널리 알려진 례성강의 벽란도에로 뻗어나간 큰길과 이어진 죽배천우의 황교다리앞에 일떠선 영빈관은 궁전처럼 웅장화려하기 그지없었다.

영빈관은 끝없이 찾아드는 송나라사람들로 하여 아무때 보아도 붐비고 흥성거렸다.

그럴수밖에 없는것은 서해바다를 건너온 송나라사람들이 황도 개경에 입성하기 전에 반드시 영빈관에서 묵어가야 했기때문이였다.

어느해 여름 어느날, 또 한떼의 송나라사람들이 영빈관에 들이닥쳤다.

새 손님들이 들이닥칠 때마다 누구보다 몹시 바쁜 사람들은 숙수(료리사)들이였다.

송나라사람들의 음식풍습이 고려와 다르고 늘 기름진 음식을 먹던 량반부자들이 태반이여서 그들의 비위에 맞게 별식을 차린다는것은 여간 조련치 않았다.

어떤 지꿎은 사람들은 영빈관에 려장을 풀기도 전에 제일 맛좋은 음식을 내라고 성화를 먹이기도 했다.

그러나 인차 그네들의 입은 헤벌어지군 하였다. 영빈관에서 내는 고려음식이 가지수도 많거니와 하나같이 그 맛이 독특했기때문이였다.

그들은 단 몇가지 별식에도 만족해서 엄지손가락을 뽑아들고 음

식솜씨만 보아도 고려는 참말 문화의 나라임을 알수 있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허나 이번만은 사정이 달랐다.

글쎄 이번 사신단의 부사(부단장)란 량반이 묵돈을 꺼내놓으며 그것으로 제 혼자 한끼 먹고 냠냠할 정도의 별식을 이틀만에 차려달라고 했다.

그것도 주식으로도 간식으로도, 술안주로나 반찬으로도 먹을수 있으되 자기가 여직 먹어보지 못한 별식이여야 한다는것이였다.

정말 무례한 청이라고 아니 할수 없었다.

영빈관의 관원들은 난처해하였다.

사절단의 부사란 량반으로 말하면 동서남북 천하의 거의 모든 나라들을 다니면서 견문을 넓힌것은 물론 세상의 온갖 별식들도 다 먹어보았다고 자랑하는 사람으로서 개경을 이미 다녀간적이 있어서였다.

그는 학식이 깊다고 자처하는 사람이였는데 앞서 사신으로 왔을적에 고려문인앞에서 시재를 뽐내다가 여지없이 코대를 꺾인바 있었다.

그때 그는 이미 송나라에서 지어가지고온 시를 접반사(외국사신을 영접하여 접대하는 소임을 맡은 림시벼슬)앞에 내놓으며 하루밤새로 그에 화답하는 시를 보이라고 억지를 부렸다.

접반사는 즉시 송나라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붓을 들고 화답시를 지었는데 그 시가 어찌나 잘되였는지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송나라사람들이 누구라없이 고려의 접반사가 일필휘지한 즉흥시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면 시재를 뽐내던 사신은 기가 죽어 얼굴을 들지 못했다.

아마 그는 그때 당한 수치를 엉뚱하게 고려의 음식을 트집잡아 앙갚음하려고 한 모양이였다.

하기에 그는 고려사람들에게 이틀이 아니라 달포의 기한을 준대도 이번에만은 손을 털고 나앉게 될거라고, 만일 신령님이 도움을 주어서 제 맘에 드는 별식을 진짜 차려낸다면 자기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다고 송나라 사신들앞에서 흰소리를 쳤다는것이였다.

그 말을 전해들은 관원들은 부사가 외국사람으로서 례의에 벗어났다며 분해하였다.

하지만 영빈관을 주관하는 관리는 심중한 생각끝에 송나라 부사의 청을 들어주기로 하였다.

하여 그 《별식》을 만들어내라는 분부가 《상덕어멈》에게 떨어졌다.

《상덕어멈》이 《별식》을 만들게 되였다는 말을 듣고 관원들도 숙수들도 이젠 됐구나 하고 마음을 놓았다.

그 녀인은 하늘나라의 별식일지라도 만들어 상우에 올려놓을만큼 기막힌 음식솜씨를 가지고있었다.

상덕이라는 아들을 두었대서 《상덕어멈》이라 불리우는 숙수의 손을 거치기만 하면 무슨 음식이든 다 별맛이였다. 그가 지은 밥과 고기국, 김치 그리고 다식이며 약과, 우메기 같은 떡음식, 회료리며 고기볶음을 먹어본 손님들은 숙수의 손에 따라서 그 맛이 이렇게까지 달라질수 있느냐면서 다들 신기해하였다.

귀신같은 음식재주를 지닌것으로 하여 《상덕어멈》은 숱한 제자들을 길러냈다. 그가 키운 제자들은 성안의 순천관, 오빈관, 청하관, 회동관 같은 여러 객관들에서 고려음식의 독특한 맛을 잘 살려내여 찾아오는 손님들을 감탄케 하고있었다.

허지만 《상덕어멈》도 이번에만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다.

마흔고개에 이른 오늘까지 무려 스무해 긴긴 세월 영빈관에서 음식을 만들었고 거기에 친정어머니에게서 음식비방을 배우던 나날까지 합치면 근 30년간 숙수일을 하였지만 이번에처럼 괴이한 《별식》을 만들어내야 하기는 처음이였다.

보통 사람들이 한달동안 음식을 사먹고도 남을만한 큰 돈을 가지고 한끼 겨우 먹고 냠냠해할 정도의 그런 《별식》을 만들어내라니 그게 어디 사람의 정신을 가지고 하는 소리인가.

영빈관을 주관하는 관리는 이번 일은 보통 외국사람이 아니라 한나라 사신단의 부사란 벼슬아치가 청한 음식이니 여느때보다 더 나라의 위신과 관련되는 일이라면서 온갖 재주를 다 부려서라도 꼭

진귀한 별식을 차려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였다.

나라의 위신과 관련되는 일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내야 한다.

세상에 마음먹어서 안되는 일이 있는가.

《상덕어멈》은 온 정신을 모아 별식을 만드는 일에 달라붙었다.

밥처럼 주식으로도 먹을수 있고 강정처럼 아무때건 먹을수도 있으며 술안주로도 좋고 반찬으로도 그저그만인 별식은 과연 어떤 음식이여야 할가.

곰곰히 생각해보니 송편이나 우메기 같은 떡은 아니겠다는 결말에 이르렀다. 떡은 반찬으로 될수 없으니 고기구이는 어떨가. 고기구이라면 얼마든지 주식이나 반찬으로도 먹을수 있다.

하지만 《상덕어멈》은 이번에도 고개를 가로 저었다.

대개 고기붙이음식은 소나 돼지 같은 집짐승고기 아니면 사슴이나 노루 같은 산짐승의 고기로 만든다. 그런 음식은 온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고있는것이여서 송나라 사신의 마음에 드는 별식으로는 안될것이다.

게다가 고기음식은 몹시 기름지고 근기가 있어서 한그릇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느끼하니 냠냠하다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도 그렇고 아무리 값비싼 등심살이나 발쪽으로 만든 음식이래도 그 한 그릇에 묵돈을 내라고는 할수 없다.

물고기음식은 좀 어떨가.

흔한 붕어나 숭어, 잉어 같은 민물고기는 그만두고 깊은 바다물속에서 산다는 거부기같은 희귀한걸 잡아다가 별식을 만들수는 있을것이다.

《상덕어멈》은 또 고개를 저었다.

꿈같은 일이 아닐수 없다. 도제 이틀안에 무슨 날고뛰는 재간으로 그런 희귀한걸 잡아온단 말인가. 또 설사 품들여 잡아온 그런 물고기를 가지고 만든 음식이 자기가 바라던 별식이 아니라고 그들이 고집쓴다면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일이 아닐수 없다.

그는 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더 오리무중에 빠져드는 감을 느끼였다.

그는 종시 아무 궁냥도 못해내고 부엌을 나오고야말았다.

해는 벌써 서산으로 기울어져있었다.

조바심이 그의 가슴을 옥죄였다.

이러다 송나라 사신이 했다는 호언장담처럼 두손을 털고 나앉는것이 아닐가. 그까짓 한 녀인이 망신보는 일로 끝난다면 열, 스무번이고 두손을 털고 나앉으련만 한사람의 잘못으로 해서 나라의 체면이 깎이겠으니 어쩌면 좋단 말인가.

《상덕어멈》은 밤에도 그 한 생각에 골몰했지만 아무런 실마리를 찾아내지 못하였다.

다음날 이른새벽, 《상덕어멈》은 일찌감치 집을 나서 영빈관으로 들어섰다.

오늘까지 별식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차라리 고려녀인이기를 그만두어야 한다.

숙수들이 아침을 짓느라 바삐 돌아치는 음식칸으로 향해가던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딱히 이렇다 할 궁냥도 없이 무턱대고 걸어가는 자기를 깨달은것이였다.

그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도망치듯 후원쪽으로 돌아섰다.

후원에 들어서니 희한한 꽃들이 다투어피는 아름다운 곳이 안겨왔다.

깨끗하고 함함하게 피는 하얀 꽃을 바라보니 이윽고 두근대던 가슴이 차분히 가라앉았다.

그 꽃에 마음이 끌려 늪주위를 돌던 《상덕어멈》은 새로 고쳐지은 후문에로 눈길을 가져갔다. 본래의 낮고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울긋불긋한 단청이 화려한 문이 우뚝 서있었다.

그가 멋진 후문을 일떠세운 목공이며 화공들의 재주에 감탄을 금치 못하는데 열려진 문으로 웬 처녀가 들어서는것이였다. 함께 숙수칸에서 일하는 초희였다.

처녀는 《상덕어멈》을 알아보고 반색을 지었다.

그는 들깨잎이 반나마 차있는 작은 바구니를 내보이며 말했다.

《짭짤한 밥반찬을 해보려고 좀 땄어요.》

《상덕어멈》은 고개를 끄덕이였다.

후문밖을 나서면 퍼그나 큰 들깨밭이 나진다. 깨보숭이감으로도 좋지만 그보다 들깨기름을 얻으려고 심은 들깨밭이였다.

찰흙을 들깨기름에 개여서 목함지나 목기에 바르면 붉은 밤빛이 잘 살아나면서 윤택이 나기때문에 오래 쓸수 있었다.

때로 숙수들은 생생한 들깨잎을 따서 음식을 만들군 하였다.

들깨잎은 향기롭고 독특한 맛이 있어 어죽을 쓸 때 함께 넣으면 비린맛을 없앨수 있어 좋고 또 깨잎에 양념장을 발라서 쪄내거나 된장에 절구어내면 짭짤한 밥반찬으로 그저그만이였다.

《별식 만드는 일이 잘되겠지요?》

처녀가 든 바구니에 손을 넣어 들깨잎을 꺼내들던 《상덕어멈》의 얼굴이 흐려졌다.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눈치챈 초희는 《그럼 난 가보겠어요.》 하더니 종달음을 놓았다.

《상덕어멈》은 멀어져가는 초희의 뒤모습을 보며 가는 한숨을 지었다.

아직까지도 속수무책인 자기가 원망스러웠고 제일을 찾아 바삐 다니는 초희가 부러워보였다.

참말 별도리가 없단 말인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주위를 둘러보던 그는 무심결에 제 손에 들려있는 들깨잎을 굽어보았다. 복숭아모양의 복스럽게 생긴 들깨잎이였다.

문득 그의 뇌리를 치는것이 있었다.

그렇지, 이 들깨잎에다 기둥에 단청을 칠하듯 찹쌀풀을 바르면 어떨가. 찹쌀풀을 발라 말린 들깨잎을 고소한 참기름에다 튀겨내면 틀림없이 색다른 음식이 될것이다. 아직은 세상이 깨잎튀기라는 음식을 모르지 않는가.

《되겠어!》

《상덕어멈》은 흥분이 앞서는 마음을 겨우 진정하고 후문밖으로 나섰다.

얼른 들깨잎 몇줌을 따든 그는 숙수칸으로 달음질쳤다.

뜻밖에 흔한 들깨잎이나 따안고 들어서는 《상덕어멈》을 보고 초희와 여러 숙수들은 어리둥절해졌다.

도대체 들깨잎을 가지고 어쩌자는것일가.

《상덕어멈》은 어떤 일에 몰두만 하면 주위를 잊군 하였다.

그는 지금도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보고있다는것을 잊고 일손을 잡았다.

그는 먼저 들깨잎을 끓는물에 살짝 데쳐 찬물에 씻어냈다. 그리고 한잎두잎 들깨잎을 곱게 펴서 차곡차곡 포개였다.

그다음 깨가루와 함께 인삼이며 오미자 같은 고려의 희귀한 약재가루를 조금 두고 간장으로 간을 맞추면서 걸죽하게 찹쌀죽을 쑤었다.

숙수들은 한결같이 숨을 죽이고 그가 하는 일을 지켜보았다.

《상덕어멈》은 찹쌀풀이 다되자 붓으로 그것을 묻혀서는 들깨잎에 발랐다.

채반에 한면씩 찹쌀풀을 바른 들깨잎이 한벌 깔리자 그는 그것을 화로불가까이로 가져다놓았다. 들깨잎이 마르자 그는 그것들을 뒤집어놓고 다른 한쪽면을 마저 풀칠하였다.

그다음 《상덕어멈》은 바싹 마른 들깨잎을 끓는 참기름에다 하나씩 튀겨냈다. 들깨잎은 짜리처럼 부풀어나서 보기에도 바삭바삭 부서질것 같았다.

일손을 마친 《상덕어멈》은 그제야 여러 숙수들이 자기를 지켜보고있다는것을 깨닫고 입을 열었다.

《어서 맛들 보세요.》

숙수들은 저저마다 깨잎튀기에 손을 내밀었다.

《상덕어멈》도 한잎 집어들었다. 입에 넣어보니 씹는 맛도 바삭바삭한것이 별맛이고 고소하고 향기로와 정말로 별맛이였다.

초희가 남먼저 감탄을 터뜨렸다.

《야! 이 맛 기막히구나!》

여러 숙수들도 탄성을 올렸다.

《상덕어멈》의 입가에 웃음이 떠돌았다. 이만하면 송나라 사신 앞에 내놓을만 하다는 배심이 들었다.

깨잎튀기는 맨입으로 먹으면 주식과 간식이 될수 있고 술에 받치면 술안주요 간장을 곁들어내면 밥반찬이 아닐수 없다.

더우기 부피가 커서 수북하게 담은 깨잎튀기 한접시쯤은 아이들도 냠냠해할것이니 송나라 사신인들 할 말이 없을것이다.

숙수들의 좌상인 《백령감》이 흡족해서 소리쳤다.

《이것이면 송나라 부사란 량반의 덜돼먹은 코대를 호되게 꺾어놓을수 있겠다.

자, 점심상을 차립세.》

드디여 송나라 사신의 점심상에 깨잎튀기 한접시가 오르게 되였다.

아름다운 그림들로 가득찬 열두폭 병풍을 둘러친 호화로운 독방에서 독상을 받은 송나라 사신단의 부사는 한동안 이게 무슨 음식일가 하여 깨잎튀기를 살펴보기만 하였다. 그러더니 한잎 집어들고 냄새까지 맡아보고서야 한입 베여물었다.

그러던 그는 머리를 끄떡이며 중얼거렸다.

《괜찮아.》

팔소매를 버썩 걷어붙인 그는 연방 깨잎튀기를 입에 쑤셔넣었다.

《맛있어, 맛있단 말이야.》 하고 감탄하던 그는 두눈이 둥그래졌다. 접시에 높이 담은 깨잎튀기가 어느결에 바닥나서였다.

《좀 먹어볼가 하였는데 벌써?!…》

이때 초희가 나서서 고개를 숙여 선절을 차리고는 새로 깨잎튀기 한접시를 가져다놓았다.

《좋소, 좋아.》

송나라 사신단 부사는 또다시 두팔 걷고 달라붙었다. 그가 얼마나 맛있게 먹어대는지 곁에서 보는 사람에겐 송나라 사신이 며

칠 굶은것처럼 보였다.
어느새 새 한접시가 또 바닥이 났다. 하건만 그의 배는 부를리 만무했다.
《허, 코끼리입에 만두 하나격이로군. 아직도 간에 기별이 안갔는데. 그래 그 돈값으로 이 자그만 배 하나 채우지 못한단 말인가.》
송나라 부사가 볼이 부어 투덜댈적에 한어에 능한 영빈관의 관원이 술방구리를 안고 나타났다.
《그 돈으로 별식 한그릇이면 족하다고 한것 같은데요?》
그 말에 송나라 부사는 얼굴이 수수떡처럼 벌개졌다.
하지만 그는 그 언제 깨잎튀기를 맛있게 먹었댔던가 하고 아닌보살하며 대꾸했다.
《에－에－, 호기심에서 좀 맛을 보았는데… 그저 간식으로나 먹을수 있겠소이다.》
숙수들을 통해서 별식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아는 관원은 낯색을 달리함이 없이 술잔에 술을 가득 부었다.
초희가 또 깨잎튀기를 한접시 상우에 가져다놓고 나갔다.
《한잔 드소이다.》
관원의 청에 송나라 부사는 사양없이 술을 입에 쏟아붓고는 덥석 깨잎튀기를 집어먹었다.
관원은 그러는 송나라 부사를 넌지시 바라보며 물었다.
《술안주로는 어떻소이까?》
깨잎튀기를 입에 넣던 송나라 부사는 게면쩍게 웃으며 대꾸했다.
《술안주로야 제격이오이다.》
《그렇다면 됐소이다. 이 음식을 자시면 신기를 세게 돋굴수 있소이다.》
송나라 부사의 두눈이 둥그래졌다.
《그게 진담이요?》
《허－우리 고려사람들은 과장해서 자랑하기를 좋아하지 않소이다.》

《그 말이 진담이라면 이건 나한테 맞는 음식이요.》
관원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간장종지기를 송나라 부사 앞에 옮겨놓았다.
《한번 간장에 찍어 자셔보소이다.》
《아, 그래요?》
송나라 부사는 깨잎튀기를 장에 찍어 입에 넣었다.
《반찬으로 꽤 자실만 하오이까?》
미처 깨잎튀기를 삼키지 못한 송나라 부사는 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인차 깨잎튀기를 수북이 담았던 접시가 바닥났다.
관원은 빈 접시를 가리키며 물었다.
《한접시 더 가져오게 할가요?》
체면없이 무려 세접시나 깨잎튀기를 말끔히 해치운 송나라 부사는 얼굴이 벌개서 고개를 저었다.
《됐… 됐소이다. 저녁상에 또 차려놔주면 고맙겠소이다.》
관원은 벙긋 웃으며 물었다.
《그럼 다른 음식을 가져오게 할가요?》
송나라 부사는 손을 내저었다.
《아, 됐소이다. 한끼 잘 먹었소이다.》
관원은 송나라 부사를 건너다보며 입을 열었다.
《부사님은 이 음식으로 점심끼니를 치렀다고 했소이다. 간식으로도 술안주로도 제격이고 반찬으로도 먹을만한 이 음식이 부사님에겐 분명 처음보는 별식이 옳소이까?》
《거야 그렇다마다요. 난 특이한 향기와 특별한 맛을 가진 이런 음식은 나서 처음 먹어보오이다.》
이때라고 관원은 송나라 부사의 말끄리를 놓지 않고 들이댔다.
《부사님은 금방 이 음식이 자기가 청했던 그런 음식임을 인정했소이다. 맞소이까?》
송나라 부사는 흠칫 놀라 눈을 크게 떴지만 이미 뱉아놓은 말이라 주어담을수 없다는것을 자인했다.
이제 와서 그냥 우길내기를 하다가는 더 큰 망신을 사서 할수 있

었다.

씹는 멋도 좋고 맛도 향기도 류별난 이 음식이 사내의 신기를 돋구어주는 기이한 별식이라는데 어깨를 낮추고 마음껏 청해 먹는것이 리로울것이 아닐가.

그만에야 송나라 부사는 열적게 웃으며 대꾸했다.

《내가… 내가 졌소이다. 난 정녕 고려사람들의 음식재주에 탄복하오이다. 그런데 이 음식을 무엇이라 부르오이까?》

관원의 얼굴에 만족해하는 미소가 실렸다.

《그걸 꼭 알아야겠소이까?》

송나라 부사는 더욱 궁금증이 나서 관원의 손을 잡았다.

《세상에 머리털이 돋아서 무슨 음식인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먹어보기는 처음인것 같소. 그러니 어서 대주소.》

관원은 소리없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건 보통 별식이 아니여서 함부로 대줄수 없소이다. 그런데 그게 부사님이 꼭 자시고싶어하는 음식이라면 대줄 용의는 있소이다.》

송나라 부사는 기쁨에 넘쳐 빠른 어조로 말했다.

《사실 난 이런 놀음이 처음이 아니오이다. 여러 나라들을 다니며 이름난 객사에 들릴적마다 묵돈을 꺼내놓고 이번처럼 했소이다.

허나 주식으로도 간식으로도 먹을수 있고 술안주로도 반찬으로도 먹을수 있으되 꼭 한그릇 듬뿍 먹어서 냠냠한 이런 음식은 아직 먹어보지 못했소이다. 더우기 신기를 돋구는데 좋다는데… 그래서 이 음식을 꼭 알아야겠다는거요.》

관원은 실눈을 켜고 딴전을 부렸다.

《큰 돈을 내놓게 된게 아쉽지 않소이까?》

송나라 부사는 도리머리를 했다.

《신기를 돋구어주는 귀한 보약과도 같은 음식인데 아쉽다니요?

외국사람으로서 아직은 누구도 먹어보지 못한 진귀한 별식을 내가 제일먼저 먹어본것이 기쁘오이다.

사실 난 우리 사람들앞에서 그런 음식은 고려사람들도 만들어내지 못할거라고 장담했소이다. 만일 진짜 만들어낸다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까지 했소이다. 그전에는 고려사람들앞에서 시재를 자랑하려다가 랑패를 보았는데… 후회되오이다.

백옥의 흠은 지워버릴수 있지만 뱉은 말의 흠은 바로잡을수 없다고 난 말을 잘못했으니 그 벌로 손에 장을 지지겠소이다.

그러니 제발 음식의 비방을 가르쳐주소이다.》

관원은 난색을 짓더니 마지못해 응하는 기색을 보였다.

《하도 알기를 바란다니 비방을 터놓겠소이다. 이 음식은 그 비방이 참말 절묘하기 그지없소이다. 튀기에 쓰는 참기름은 고려의 명산 구월산에서 나는 참깨에서 짠것이고 잎에 바른 가루는 곡창 전라도에서 나는 찹쌀과 만병통치약이라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삼과 오미자를 가루내여 섞은것이오이다.

좋은 음식감에는 좋은 물이라고 가루를 이긴 물은 천하명산 금강산에서 나는 샘물이오이다. 어찌 그뿐이겠소이까. 튀기에 쓴 숯은 송나라사람들이 찾아와보고 그 아름다움을 려산에 비긴 개경의 진산 천마산에서 자라는 참나무로 구운것이오이다. 이만하면 만족하겠지요?》

입을 헤벌리고 듣던 송나라 부사는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다.

《사향을 쏙 뽑아낸 사향노루라더니 알속을 왜 터놓지 않소이까?》

《알속이라니요? 아, 참, 그렇지!》

관원은 무릎을 치고나서 대꾸했다.

《그건 바로 새벽이슬을 머금은 들깨잎이올시다. 그래서 그 음식을 들깨잎튀기라고 하오이다.》

《들깨잎튀기?!…》

송나라 부사는 어이가 없는지 껄껄 웃어댔다.

《길가에 흔히 심는 들깨의 잎을 따서 튀겼단 말이지. 아, 신령님도 그런 기발한 궁냥은 못할거야.》

관원은 빙그레 웃음을 머금고 말했다.

《흔한것이 진귀한것으로 되게 하는것이 사람의 재주가 아니

겠소이까.》

《흔한것이 진귀한것으로 되게 하는것이 사람의 재주라… 참, 명담이라 하겠소이다.》

관원은 술대접을 내밀었다.

《고맙소이다.》

술을 마시고난 송나라 부사는 관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난 고려사람들의 슬기에 반했소이다. 확실히 고려사람들은 어느모로 보나 세상사람들의 본보기라고 할수 있소이다. 이제 고국에 돌아가면 두고두고 오늘일을 잊지 않고 고려사람들의 슬기와 재능을 자랑하겠소이다.》…

이렇게 깨잎튀기는 고려의 별식이 되였다.

고려시절 보통날에 나라를 사랑하는 평범한 녀인이 처음 만들어낸 깨잎튀기는 그 맛이 독특하고 볼품이 있어 오늘도 조선의 민족음식으로 전해지고있다.

로인들을 존경하는 민속풍습 《경로회》

전철호

고구려 장수왕(통치기간 413－491년)때 동비홀고을(개성시 서북일대)이 자리잡은 례성강기슭의 풍류동마을에서 있은 일이라고 한다.

사시절 마를줄 모르고 석숭산골안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시내가 동네의 한복판으로 흐르는 풍치수려한 동네라고 하여 풍류동이라 불리우는 이 마을에 무달이라고 하는 30대의 사나이가 살고 있었다.

바야흐로 진분홍빛 복숭아꽃이 만발하고 꾀꼴새들이 날아예는 좋은 절기에 무달은 아침부터 누렁소 암수 한쌍에 연장을 메워가지고 밭으로 나갔다.

그런데 늙은 아버지가 따라나와 보탑을 기어코 빼앗아잡는 바람에 무달은 구경군의 신세가 되고말았다.

아버지는 예순이 되였지만 아직도 패기와 기운이 있어 보탑을 흥겹게 드다루며 밭을 보기 좋게 갈아나갔다.

그러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무달의 눈에는 존경과 효성의 빛이 가득 어리였다.

얼마나 자애롭고 인정많은 아버지인가, 또 아는것은 얼마나 많고…

무달이 알고있는 세상리치에 대한 대부분은 아버지에게서 배운것이였다.

소를 부리는 일만 봐도 그러했다.

아버지는 무달이 잔뼈가 굳기 전에 벌써 소를 부리자면 뭐니뭐니해도 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며 알기 쉽게 일깨워주었다.

소에게는 타고난 부족점이 있다. 몸집이 큰 짐승이 풀을 먹고 살아야 하는 까닭에 꼴배(1위)며 물배(2위)를 포함해서 4개의 밥주머니가 있는데 꼴배는 엄청나게 큰데다가 왼켠으로 치우쳐 있다.

그러다보니 누울적에 앞발로 웃몸을 고이면서 꼴배에 부담이 실리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어떤 때는 소가 왼쪽으로 넘어질수 있다. 그때 허약한 소들은 제 힘으로 일어서지 못할수도 있다.

그러면 육중한 몸뚱이가 왼켠으로 치우친 꼴배를 꾹 누르다보니 새김질할 풀이 들어있는 밥주머니가 움직이지 못하여 그 안의 나쁜 바람이 우아래로 통하지 못하니 질식돼서 나중에는 죽을수 있다. 이런 까닭에 소를 부리는 사람은 소가 왼쪽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그래서 달구지나 연장을 메운 소는 오른쪽으로만 돌릴수 있도록 소고삐를 오른쪽에 둔것이다.

잘 달리는 말과 달리 소는 엄청나게 큰 꼴배때문에 동작이 굼뜨다. 그대신 한번에 많이 먹어서 기운이 세고 성질까지 순하여 부리기에는 소만한 짐승이 없다. …

무달이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데 밭을 가는 아버지의 걸걸한 목소리가 울리였다.

《와! 와! 정말 이 소들 말귀를 잘 알아듣는다니까. 워치(좋다는 뜻)!》

어느결에 뙈기밭 하나를 다 갈아제낀 아버지는 밭머리에서 소를 돌리고있었다.

언제 나왔는지 안해가 밭최뚝의 가래나무아래에서 소리쳤다.

《아버님! 쉬고 하시와요.》

무달은 하늘을 쳐다보았다. 해는 벌써 하늘중천에 올라있었다.

그러자 시장기가 났다. 이른새벽에 아침을 먹고 나왔으니 배고플만도 하였다.

무달은 뛰여가서 연장에서 소를 떼내는 아버지의 일손을 도

왔다.

그리고 발머리에 내다놓았던 콩짚을 소에게 가져다주었다.

이윽고 발머리에서 무달은 안해가 펴놓은 결두리를 앞에 놓고 아버지와 마주앉았다.

《아버님은 이걸 잡수시와요.》

무달은 보자기를 헤치고 꺼낸 단지를 아버지앞에 따로 놓아주는 안해를 보고 가슴이 뭉클하였다.

뚜껑을 열어놓은 단지에서는 냉이국이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김을 물물 올리였다.

늙은이의 몸보신에는 그저 뜨끈한 음식이 제일이라면서 늘 시아버지의 밥대접에 왼심을 쓰는 안해였다.

《아가, 잘 먹겠다.》

뜨끈한 냉이국을 달게 자시는 아버지를 보느라니 안해가 더욱 고와보였다.

안해의 얼굴이 고우면 새각시때만 하랴만 날로 곱게 보이는것은 그가 시부모공대에 효도가 극진하기때문이다.

참말이지 안해는 효도가 깊은 녀인이였다.

두해전의 일이 생각났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안해앞에 고개가 숙어진다.

그전부터 시름시름 앓던 어머니가 돌아간지 한해가 지난 어느날이였다.

안해는 불쑥 집에 어머니 한분을 모셔오자고 하였다.

그때 무달은 또다른 자기라고 믿었던 안해에 대한 믿음이 졸지에 무너지는것 같았다. 그사이 시아버지가 불편해할세라 각근하게 돌봐드린 안해의 그 모든 효성스러운 행실이 가식이였단 말인가.

사람이란 어려운 일에 닥쳐봐야 안댔다고 안해가 그런 서푼짜리 녀인이라고 생각되자 기분이 잡치고말았다.

무달이 입이 쓰거워 말을 못하는데 안해가 진속을 터놓았다.

《사람이 늙어서 제일 어려운것은 고적이라고 하더군요. 오죽했으면 늙어서 고적함은 죽음보다 몇갑절 무겁다고까지 하겠

나요.

시어머니가 돌아간 이후로 전 시아버님이 웃는걸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효자가 불여악처라고 아무리 저희들이 효도를 바친단들 못된 어머니만 못한 법이예요.》

무달은 그 말에 고까왔던 기분이 삽시에 사라지고 그때처럼 안해가 돋보이고 어려워보인적은 일찌기 없었다. 마치도 안해가 다심한 맏누이같아보였다.

이렇게 되여 무달의 내외는 새 어머니를 모셔오게 되였다.

새 어머니를 모시니 집안이 흥성거렸다. 음식솜씨가 좋은 새 어머니가 부엌일을 도맡아하여 며느리까지 밭일을 할수 있어 농사를 더 알심있게 지을수 있었다. 이로써 침울하던 아버지의 얼굴이 밝아졌다.

무달은 비로소 홀로 계시는 부모에 대한 진짜효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

《어— 맛좋다. 그저 이 뜨끈한게 들어가야 속이 후련해진다니까.

헌데 아가! 왜 안색이 좋지 못하느냐?》

그제야 무달은 안해의 얼굴이 전과 달리 흐려있음을 알아보았다.

안해는 그전부터 시아버지에게는 숨기는것이 없었다.

《아버님, 이자 〈우물집〉앞을 지나오는데 그 집 아버님이 마당에 나와 한탄하더군요. 자기같은 늙은이를 물어가는 호랑이는 왜 없느냐고…》

무달은 대뜸 기분이 잡쳐 이마살을 찡그렸다.

또 《우물집》며느리인가.

《우물집》 며느리의 덜돼먹은 행실이 또 되살아난 모양이다.

밥술이나 먹는 집의 딸이라고 시집온 첫날부터 시부모들한테 불손하기 그지없는데 지어는 로망했다고까지 역정을 부리는 못된 녀인이였다.

늙은이들은 바로 우리를 낳아 키운 부모들이고 우리를 걸음걸음 이끌어준 귀인들이다.

젊은이들한텐 힘과 용기가 있다면 늙은이들에게는 깊은 궁냥

이 있다.

고향마을에 깃든 전설만 보아도 로인들의 깊은 셈속을 잘 알수가 있다.

옛적에 마을에 살던 힘장수가 단번에 밭을 갈아엎을 마음으로 영각이 우렁찬 황소 두마리에 연장을 메웠다고 한다.

그런데 몸집이 실하고 기운이 어슷비슷한 황소들은 시꺼먼 눈알을 디룩거리고 코를 힝힝 불며 맞뿔질만 할뿐 밭을 갈지 못하고있었다.

힘장수는 화가 머리꼭두까지 치밀어올랐다. 그렇다고 무슨 용빼는 수는 없었다.

이때 지나가던 한 나그네가 있었다. 초라한 행색의 늙은이였다.

《이보라구, 젊은인 생떼를 쓰고있구만.》

길가던 나그네가 제 갈길이나 갈것이지 남의 일에 참견하는것이 아니꼬왔지만 힘장수는 상대가 늙은이임을 가려보고 공손히 대꾸했다.

《그럼 로인님에겐 무슨 수가 있소이까?》

《음과 음, 양과 양은 서로 밀치고 멀리 하려는게 정해진 리치인데 어찌 황소들끼리 짝을 무어 부릴수 있으리오.》

늙은 나그네는 이웃의 밭머리에 매여있는 암소를 가리켰다.

《한번 저 암소를 끌어다가 황소와 쌍을 지어보게. 그럼 생각대로 밭을 푹푹 뒤집어엎을수 있을거네.》

힘장수는 선뜻 믿어지지 않았지만 두고보자는 마음에서 늙은이가 시키는대로 하였다.

그랬더니 황소와 암소가 사이좋게 힘을 합쳐 연장을 씽씽 끄는것이였다.

힘장수는 놀라 공손하게 물었다.

《로인님이 사시는 고장에선 이렇게 밭을 가는 모양이지요?》

《웬걸, 나도 처음이네. 젊은이가 우격다짐으로 황소끼리 짝을 지어 연장을 메우려 하는걸 보고서야 그런 생각이 났을뿐이네.》

그때로부터 암수 한쌍의 부림소로 밭을 갈게 되였다고 한다.

어찌 그 전설뿐이랴.

옛적에 이 마을에서 부자지간이 성쌓는 부역에 나간적이 있었다고 한다.

아들은 재간좋은 석공이여서 그의 손이 닿기만 하면 든든한 성벽이 쑥쑥 키돋움을 하였다.

사람들이 그를 보배라고 칭찬하자 그것을 시기한자가 있었으니 그는 성쌓는 일을 맡은 관리였다.

관리는 석공을 불러 하루낮, 하루밤중으로 성으로 나드는 홍예문(웃머리가 무지개모양으로 반쯤 둥글게 된 문)을 그것도 아버지와 단 둘이서 쌓으라고 호통쳤다.

석공은 땅을 치며 죽을 수에 걸렸다고 한탄만 하였다.

그도그럴것이 마차들이 마음대로 나들수 있는 넓고 높은 홍예문을 만들자면 무거운 성돌을 떠받들수 있게 아름드리 나무기둥부터 세워야 하였다.

그러자면 사람도 많아야 했다.

허나 나무토막도 없고 늙은 아버지와 단 둘이서 어떻게 관리의 령을 따를수 있단 말인가.

그때 늙은 아버지가 아들의 팔을 잡아 이끌었다.

《얘야, 하늘이 무너진대도 솟아날 구멍이 있느니라.》

늙은 아버지는 먼저 홍예문의 량벽을 쌓은 다음 그안에 무지개모양으로 둥글게 흙을 다져넣게 하였다. 그다음 그우에다 성돌을 지여다 척척 쌓았다.

성문을 다 만든 다음 그안에 다져넣었던 흙을 퍼내니 더할나위없는 훌륭한 홍예문이 되였다.

이처럼 세상만사 풍상고초를 다 겪어본 늙은이들의 궁냥은 끝이 없이 깊고 넓은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고향마을에 몇몇의 덜돼먹은것들이 남아있어서 늙은 부모들을 박대하고있으니 이거야 분통이 터질 노릇이 아니고 뭔가.

세상만물이란 한번 났다가 세월과 더불어 고삭아 없어지고 젊은이도 늙어 죽기마련이다. 왜 이런 리치를 알려고도 않는지…

안해는 분이 나서 입을 열었다.

《아버님, 〈우물집〉며느리같은 녀자는 온 동네앞에 끌어내여 혼쌀을 안겨야 할줄로 아나이다.》

아버지의 고개가 천천히 저어졌다.

《애들아, 〈우물집〉며느리도 나쁘지만 보다는 그 집 아들녀석이 더 틀려먹었다. 부부한몸이라고 안사람이 나빠지는건 다 사내녀석의탓이야. 하여튼 그것들이 제정신이 들도록 무슨 마련은 있어야겠다.》

《아버님 말씀이 옳소이다.》하고 대답은 했지만 《우물집》 젊은이들의 고약한 행실을 떼줄 방도가 떠오르지 않아 무달의 마음은 무거웠다.

《자, 또 밭을 갈아볼가.》

무달은 제꺽 자리를 차고 일어나 보탑을 잡았다.

밭을 갈며 멀어져가는 안해를 바라보느라니 떠나간 친어머니의 다정한 모습이 떠올랐다.

눈에 흙이 들어간다 해도 어머니의 모습을 잊을수 없는것이다.

어머니는 온 고을에 효녀로 알려져서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다. 오늘도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다.

시집온 첫날부터 어머니는 눈먼 할머니를 끔찍이 보살폈는데 저녁이면 제손으로 이부자리를 펴드리고 아침이면 개여올렸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날 신새벽에 일어난 어머니는 밥을 짓고 뒤이어 방을 나선 아버지는 소에게 풀 먹이려고 밖으로 나갔다.

한참 지나 배가 불쑥해진 소를 끌고 아버지는 사립문안으로 들어섰다.

그때 눈먼 할머니가 어머니를 세워놓고 꾸짖고있었다.

《아무리 바쁠지라도 일에는 다 선후차가 있는 법인데 글쎄 오강을 아직까지 그냥 놔두면 되느냐? 오늘은 처음이니 이쯤 하자꾸나.》

눈먼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자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목을 움켜

쥐고 뒤울안으로 끌고갔다.

《오강을 그냥 내버려두었다니 이 어찌된 일이요?》

아버지의 재촉에 어머니는 사연을 그대로 터놓지 않을수 없었다.

그날아침도 어머니는 이전처럼 일찌기 일어나 방을 나오면서 오강을 내다쏟고 밖에 두었었다.

그런데 밥짓는 정신에 그만 간밤에 참기름을 짜서 담아둔 단지를 방에 그대로 두고 나왔음을 까맣게 잊고말았다.

하여 할머니가 참기름단지를 오강인줄 잘못 알았다는것이였다.

《제가 잘못하였으니 용서해주시와요.》 하는 어머니의 비는 소리에 아버지는 감동되여 절을 하였다고 한다.

그런 시어머니에게서 인생리치를 배운 안해이니 시아버지에게 새어머니를 데려다줄 생각을 먼저 해냈으리라.

예로부터 부모공대를 모르는 집안은 하는 일이 제대로 펴일수 없고 늙은이를 몰라보는 나라는 망조가 들기마련이라고 하였다.

들려오는 소문에 북쪽의 심심산골에서 수렵으로 살아가는 말갈족(녀진)이나 동해바다건너의 섬나라 왜인들은 자기를 낳아키운 부모가 늙으면 서슴없이 내다버린다고 하였다.

아, 정녕 그짓이 야수의짓과 무엇이 다른가.

남들은 어떻게 하든 고구려사람들은 나많은 늙은이들을 존대하고 우대하는 조상전래의 아름다운 풍습을 잘 이어나가야 한다.

어떻게 하면 《우물집》며느리같은 사람들이 제정신을 차리도록 깨우쳐줄수 있는지…

신통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무달은 이날도 아침 일찍 밭으로 나와 걸싸게 씨를 뿌려나갔다.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어제밤 달무리가 진걸 보아 이제 사흘안으로 비가 올거라고 하였다.

농사군이라면 누구보다 천기를 내다볼줄 알아야 한다. 한해농사의 흉풍은 씨붙임에도 달려있으니 비오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뒤따라 나온 아버지도 조를 뿌려나갔다.

얼마쯤 지났는데 밭머리쪽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왔다.

무달이 눈길을 드니 오솔길이 나있는 밭머리의 잔디우에서 지나가던 로파와 젊은 녀인이 보꾸레미를 펼쳐놓고 요기를 하고 있었다.

아마 식전바람으로 길을 나선 모양이였다.

《어머니, 좀더 잡수시와요.》

《아가, 난 많이 먹었다.》

《어머니가 더 들지 않으면 저도 안먹겠어요.》

《원참, 늙은이에겐 밥이 지팡막대라고 성화를 먹이니 할수 없지. 내가 한술 먹으면 아가도 한술 들어야 한다.》

오손도손 밥술을 권하는 그들을 보느라니 무달은 눈굽이 축축해졌다.

젊은이는 늙은이를 공대하고 늙은이는 젊은이를 아껴주는 바로 저들의 모습이자 선량한 박달겨레의 아름다운 참모습이 아니겠는가.

모두가 저들처럼 한다면… 한동안 생각을 굴리던 무달은 불쑥 무릎을 쳤다. 길가던 저 젊은 녀인처럼 나많은 어른들에게 음식대접을 잘하면 어떨가. 온 동네 젊은이들이 전부 떨쳐나 성의껏 음식상을 차리고 마을의 늙은이들을 청해오는 모임을 연다면 로인들을 우대하는 좋은 바람을 일으킬수 있을것이다.

무달은 지금껏 고심해온 생각을 틔겨준 젊은 녀인이 고마와 절이라도 하고싶었다.

길손들은 주섬주섬 행장을 꿍져이고 또다시 길을 떠났다.

무달은 그들이 언덕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왜 진작 그런 생각을 해내지 못했을가. 늙은이를 공대하는 일만은 억지로 절받기처럼 해서는 안된다.

사람의 바탕은 본래 착한것이니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이도 다 좋

은 말로 타이르고 좋은 일로 감화시킨다면 선량한 본래대로 되돌아올수 있을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혼쭐을 내주자는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저으며 무슨 마련이 있어야겠다고 했구나.

무달은 아버지와 함께 씨를 뿌려나가며 속생각을 꺼내놓았다.

그의 말을 다 듣고난 아버지는 못내 만족해하였다.

《옳은 생각이다. 바로 그렇게 하면 될게다.

사실말이지 늙은이들이 젊은이들에게 짐만 되는건 아니다.

그 반대로 도움을 많이 주거든. 우리 나라의 애국명장 명림답부어른이 년로한 몸으로 갑옷을 입고 출전하여 이 땅에 기여든 오랑캐놈들을 몰살케 한것만 봐도 잘 알수 있어. 늙은이를 공대하는 집안이나 나라는 꼭 흥하는 법이란다.》

《아버님 말씀을 명심하겠소이다.》

며칠후, 동네앞의 맑은 내물이 흘러내리는 개울가로 온 마을이 모여들었다.

집집마다 봄파종을 제때에 마친 기쁨을 안고 색다른 음식들을 잘 차려가지고 나왔으니 더없이 들썩거렸다.

마을이 생겨 보기 드문 광경이였다.

하긴 그럴수밖에 없는것은 무달이 큰마음을 먹고 동네젊은이들을 휘동하여 마련한 자리였다.

무달은 집에서 기르던 돼지까지 잡아 음식을 차리였다.

그는 제일 좋은 자리에 갖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동네로인들을 불러 따로 앉히였다.

각별한 환대속에 푸짐한 음식상을 마주한 로인들은 못내 만족해하였다.

지금껏 명절놀이나 생일놀이는 해보았어도 온 동네가 음식을 잘 차려가지고 쾌청한 날에 밖에 나와 한식솔처럼 오붓하게 둘러앉아 보기는 처음이였다.

더우기 동네젊은이들이 친절하게 음식을 권하니 한자식같았다.

그들은 음식을 맛있게 들면서 이렇게 늙은이들을 공경하여 진정

을 바치는 젊은이들을 효자라 치하하였고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었다.

늙은이들의 조언은 어느것 하나 리치에 빗나가는것이 없었다.

로인들의 칭찬에 부모공대를 잘하던 젊은이들은 앞으로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슴을 들먹였고 《우물집》젊은이같은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온 동네가 한자리에 모여앉아 음식을 나눈다고 하였지만 저희 젊은 량주몫만 차려내온 《우물집》며느리는 바늘방석에 앉은것 같았다.

무달이는 동네로인들을 다 잘 먹이겠다고 돼지까지 잡았는데 자기는 시부모의 몫마저 생각하지 않았으니 이게 과연 사람의 도리란 말인가. 사람이 이렇게 살아 무슨 락이람, 늦게나마 부모들에게, 늙은이들에게 효도를 바치는 무달이네 량주의 소행을 본받자.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 《우물집》며느리는 그날저녁 시부모들앞에서 용서를 빌었다. 다음날부터 그 녀인은 새로운 마음을 안고 늙은이공대에 정성을 다하였다.

이렇게 되여 마을에는 로인들을 우대하는 좋은 바람이 불게 되였다.

무달은 온 마을이 모여앉아 로인들을 공경하는 모임이 마을의 화목에 크게 기여한다는것을 뜨겁게 절감하였다.

하여 그는 자주 로인들을 우대하는 모임을 열었다.

명절날이나 쾌청한 날에 동네앞의 풍치좋은 개울가에 음식을 차려놓고 로인들을 불러내여 공대하는 모임은 그저 음식대접으로 그치지 않았다.

젊은이들이 경쟁적으로 차려내온 음식상을 마주한 자리에서 로인들은 누구나없이 마을의 화목을 도모하고 동네를 꾸리는 좋은 의견들을 내놓군 하였다.

그러니 이런 모임이 있어 마을에는 흥하는 일들이 련이어 생겨났다.

개울에 다리가 새로 놓아지고 길이 넓어졌다.

여기저기서 곡식종자며 가축종자, 과일나무들을 구해들였고 온 마을이 달라붙어 관혼상제를 치르었다.

서로 돕고 이끄는 미풍은 마을을 부유하게 하고 사람들의 화목을 이루게 하였다.

어찌 그뿐이랴. 늙은이들이 더욱 장수하여 젊은이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많이 할수 있게 되였으니 마을은 날로 흥해갔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로인들을 가리켜 동네의 자랑이라면서 끝없이 공경해마지않았다. …

이 좋은 풍습은 곧 고구려전국은 물론 동족의 나라들인 백제와 신라에로 널리 펴져나갔다.

세나라의 마을들마다에서 온 동네 젊은이들이 떨쳐나 춘하추동의 좋은 날이나 뜻깊은 날들에 맛좋은 음식을 성의껏 차려놓고 로인들에게 대접하고 그들의 훈시를 달게 받아들여 향토를 더 잘 가꾸어나가는 아름다운 풍습은 그후 고려를 이어 계속 전해졌다.

그 나날 이 모임은 로인들을 공경하고 위로하는 회합이라는 뜻에서 《경로회》라 불리우게 되였다.

오늘도 늙은이들을 우대하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풍습은 그대로 이어져 사회주의 우리 사회에서 로인들은 젊은이들의 존경과 도움을 받으며 나라를 위해 더욱 보람있는 삶을 누리고있다.

생일잔치가 《미수연》으로

전철호

리조 초엽 개성의 벽란나루가 있는 방골마을에서 있은 일이라고 한다.

어느해 가을날, 집없이 품팔아 빌어먹던 떠돌이군총각 덕배가 이 동네 《가래나무집》에 장가를 들었다.

데릴사위로 이 집에 들게 된 덕배는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이 그들먹한 잔치상에 끌려앉자 어리둥절하였다.

고아인데다 쇠못같은 재산 하나 가진것 없는 빈털터리가 장가드는것도 놀랍기만 한데 풍성한 잔치상까지 받았으니 이게 분명 생시란 말인가.

기껏 조밥에 산나물반찬 몇가지 놓고 혼례식날을 굼땔줄 알았는데… 꿈만 같았다.

상에는 엄지닭 한쌍을 가운데 놓고 그 좌우로 돼지발쪽, 소갈비, 돼지간, 순대, 숭어 등이 놓여있었고 약과, 다식, 산자, 찰떡들이 높이 고여있었다. 그리고 밤, 대추, 능금, 배 같은 과실들이 향기를 풍기였다.

덕배의 크고 검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였다.

분명 이 잔치상도 마을사람들이 차려주었을것이다.

마을사람들이 아니였다면 천덕꾸러기가 장가란 웬말이냐.

덕배의 고향은 방골이 아니였다. 그는 송도의 마바리골이란데서 태여났다.

가난하게 사는 마바리군들이 모여살기에 마바리골이라 불리우는 고향마을에서 그의 아버지도 마차를 끌었다.

그러던 아버지는 관가에서 조정에 섬겨바치는 봉물짐을 싣고 한성(서울)에 갔다가 진상물건을 훔쳐냈다는 도적의 루명을 쓰고 옥

에 갇혀 억울하게 죽고말았다.

그 일로 심화병에 걸린 어머니도 한많은 세상을 저주하며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졸지에 의지가지할데가 없게 된 덕배는 여기저기 떠돌다가 방골로 들어왔다. 그래도 방골이란데가 벌어먹기 괜찮다는 소문을 들어서였다.

허나 와보니 그건 다 지나간 고망년적소리였다.

고려때 벽란도가 있는 방골이라면 벌이가 참 좋았었다.

만국의 사절들이 물밀듯이 찾아들어와 벽란도에는 형형색색의 배들이 차고넘쳐 숲을 이루었으니 배에 짐을 싣고부리는 일로 살아가는 품팔이군들의 집이 방골에만도 백여호나 되였다고 한다.

고려가 망하고 나라의 도읍을 한성으로 옮겨간 오늘에는 례성강을 찾아오는 다른 나라들의 배가 없어 벽란도는 한적한 곳으로 변했다.

있다면 황해도의 조세를 한성으로 운반하는 조운선이 몇척 있을뿐이였다.

하여 방골사람들은 타지에 나가 품을 팔아야만 했다.

이런 판에 덕배가 벽란도에서 무엇을 할수 있단 말인가.

덕배는 하는수없이 방골뒤의 백편산에 올라가 솔가리를 긁어지고 집들을 찾아다녔다. 솔가리 한짐에 죽이나마 먹여주고 하루밤 재워준다면 더 바랄것이 없었다.

방골사람들은 잘살지는 못해도 인심은 후했다.

덕배가 나무짐을 지고가면 어느 집에서나 고생이 많다면서 끼식도 차려주고 잠자리도 내주었다.

떠돌이 몇해에 덕배의 코밑에도 수염이 검게 자리를 잡았다.

마을사람들은 로총각으로 나이들어가는 덕배를 보고 걱정을 했다.

덕배는 속이 탔다. 이러다 총각으로 늙는것이 아닐가. 송곳 하나 꽂을 땅도 없으니 딸가진 집들의 대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아 외자상투를 틀어올리였다.

그러던 어느날, 좌상로인이 찾는다기에 그 집뜨락에 들어서니 허연 수염을 어루만지며 그가 묻는것이였다.

《네가 몇해전에 〈가래나무집〉처녀애를 건져낸 그 총각이렷다?》

덕배는 대답이 나가지 않았다. 물에 빠진 사람을 하나 건져내준게 무슨 큰일이라고 이제 와서 또 입에 올리는것일가.

몇해전 여름이였다. 억수로 퍼붓는 비로 하여 개울물이 엄청나게 불어났다.

사람들이 다들 집에 들어앉아 꼭 무슨 일을 칠것 같은 하늘을 두렵게 쳐다보고있는데 갑자기 개울쪽에서 《사람 살려요.ㅡ》 하는 비명소리가 울렸다.

집들에서 남정네들이 뛰쳐나왔지만 선뜻 내물에 뛰여드는 사람은 없었다.

처녀애를 휘몰아가지고 강으로 사품쳐가는 시누런 내물은 무엇이나 집어삼킬듯 그 기세가 험악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덕배는 무작정 물속에 뛰여들었다. 오로지 사람을 구원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

좌상로인은 수염을 내리쓸며 말을 이었다.

《〈가래나무집〉에서 혼담이 있었네. 자네가 건져낸 손녀를 임자에게 주겠다는거야.》

《?!…》

덕배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게 어디 될번이나 할 소리인가. 아무리 자기 손녀를 건져주었대도 그렇지 떠돌이군을 손녀사위 삼겠다고 할 사람이 어데 있을가.

덕배는 《가래나무집》 손녀 간난이를 잘 안다. 그 집에서 적잖게 끼식을 얻어먹었으니까.

간난이는 인물도 곱지만 부엌일도 잘하고 길쌈도 잘하여 아들 가진 집들에서 탐을 내는 처녀였다.

《그동안 그 집에선 간난이의 나이가 차지 않아 자네를 마음에 두고있으면서도 입밖에 내지 못했던거네. 그런데 처녀네 집

이 가난한게 탈이거든.》
좌상로인의 말은 과언이 아니였다. 《가래나무집》은 마을에서 살림이 제일 어려웠다.
간난이는 일찌기 부모를 다 잃고 증조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손에서 자랐다.
《자네 말이 없는걸 보니 좋다는 뜻인데 그럼 혼사는 성사된 혼사일세.》…
잔치상의 곁에 앉은 간난이가 손수건을 들려주는 바람에 덕배는 생각에서 깨여났다.
그는 자기가 눈물을 흘리고있음을 알아차렸다.
아, 부모님들이 다 살아계셔서 이날을 보았더라면…
좌상로인이 웃으며 타일렀다.
《신랑 이 사람! 장가드는 날에 울면 한생 눈물을 흘린다고 했네. 웃으라구.》
《…》
《아들딸 한구들 낳구 길이길이 잘살게.》
《좌상님! 고맙소이다.》
덕배는 좌상로인의 거쿨진 손에 얼굴을 묻고 오열을 터치였다.
잔치를 보러 온 사람들도 눈시울을 슴벅거렸다.
덕배가 장가든지 며칠 지나서였다.
그날도 몇짐 솔가리를 긁어내린 덕배는 저녁을 치르고 신방에 들자 속을 터놓았다.
《난 말이요. 뒤골에 있는 갈밭에다 논을 풀겠소.》
간난이는 깜짝 놀라 고리눈이 되였다.
강물이 들며나는 갈숲에다 무슨 수로 논을 푼단 말인가.
덕배의 가슴은 일욕심으로 부글부글 끓고있었다.
그는 이전부터 그 갈밭을 탐내고있었다. 솔가리를 긁으려 산으로 오를 때면 일부러 뒤골로 가서 갈밭을 돌아보군 하였다.
강물이 밀려들지 못하게 든든한 뚝만 쌓으면 얼마만한 논을 얻을것 같았다.
《전 지금껏 그걸 논으로 풀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

했어요.》
《그렇겠지. 그래서 아직 임자없이 남아있는게 아니요. 논만 풀면 우리 집도 잘살수 있소. 머리를 싸매고 달라붙으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소. 난 래일부터 강뚝 쌓는 일을 하겠소.》
간난이는 정열에 넘쳐 부르짖는 덕배를 새삼스럽게 쳐다보았다.
남들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내물에 선뜻 뛰여들어 죽게 된 자기를 살려낸이가 정녕 다르구나.
다음날부터 덕배는 간난이와 함께 갈숲을 막는 일에 달라붙었다. 만조때 강물이 허리를 치는 곳에 새끼줄을 늘이고는 그우에 흙을 져다 쌓아나갔다.
덕배의 생각은 앞날에 가있었다. 땅 얼기 전으로 뚝쌓기를 마치고 땅 녹을 때는 논을 풀어 샘나오는 웃논에다 랭습에 견디는 찰벼를 심고 강쪽에는 메벼를 심을것이다.
이쯤한 농법은 떠돌이시절에 터득한 그였다.
쌀독에서 인심 난다고 어쩌구저쩌구 해도 농사를 잘해야 웃어른들을 잘 모실수 있다. 철없던 시절엔 부모있는 애들이 부러워 눈물을 흘렸는데 오늘은 친부모를 섬기는 마음으로 안해의 늙은 어른들을 모실테다.
간난이와 함께 있으니 성수가 나고 힘들지 않았다. 일자리가 푹푹 났다.
함박눈이 펑펑 쏟아져 강산을 하얗게 단장하는 그날 덕배네 부부는 든든한 강뚝을 완성하였다.
이듬해의 해토비는 철을 당겨 내렸다. 덕배의 마음을 알아준 해토비였다.
덕배네 부부는 불망치까지 켜들고 갈밭을 뒤집어엎었다.
봄날에 하루 놀면 겨울에 열흘 굶는다는데 어찌 한시인들 늦잡으랴.
생각했던대로 기름기가 도는 땅 서너마지기가 생겨났다.
잘 썩은 거름을 듬뿍 내고 실한 벼모까지 꽂으니 벼는 소리치며 아지를 치고 우줄우줄 줄대처럼 자라올랐다.

마침내 무거운 벼이삭이 바람에 설레이는 가을이 찾아들었다.

하여 쌀부자가 된 《가래나무집》이였다.

집어른들에게 흰쌀밥을 차려올리는 덕배네 부부의 기쁨은 이루 말할수 없었다.

효도는 말로 하는게 아니다. 집어른께 삼시 더운밥을 지어올리고 따뜻한 잠자리 펴드리고 병나지 않게 돌봄이 진정 효도일진대 자식된 사람으로서 어찌 제 한몸을 아낄소냐. 더 힘껏 일을 하여 남부럽지 않게 웃어른들을 모시고 받들리라.

덕배는 뒤늦게야 안해의 늙은 어른들이 생일을 쇠지 않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수 있었다.

세상에 이럴수도 있는가. 빈부의 차이, 반상의 구별은 있어도 자기가 사는 형편에 맞게 생일상을 받는것은 옳은 리치인데…

집없는 떠돌이신세라면 몰라라 초가집이나마 제 집이 있으면서 어른들이 생일을 쇠지 않았다는것이 놀랍기만 하였다.

생일에 음식을 차리는것은 친척만이 아닌 친지들과 이웃들을 불러 정을 두터이 하자 함인데 알고보니 사연은 눈물겨웠다.

증조할머니는 자기가 태여난 생일날조차 모르고있었다.

할아버지는 증조할머니의 생일날도 모르는데 그 자식도 생일상을 받을수 없다면서 오늘에 이르렀다는것이였다.

보다 더 눈물겨운 일은 두 어른이 다 예순돐생일상을 받지 못한것이였다.

이제부터라도 못누린 생일을 기어이 차려드릴테다.

땅이 꺼지게 농사를 지어 두 어른에게 남들이 부러워하도록 생일상을 차려놓고 일찌기 떠나간 장인과 장모를 대신하여 《갑일축수》(환갑날에 장수를 축하한다는 뜻)를 드려 오래오래 장수를 누리도록 하리라.

덕배는 부지런히 논을 가꾸어 다음해에도 벼풍작을 거두었다.

벼를 꺼들인지 며칠이 지나 덕배네 부부는 정성껏 생일상을 차리였다. 바로 할아버지가 태여난 날이였다.

두 늙은이들은 너희들을 만나 하루 세끼 더운밥을 대접받고있는데 그것이면 됐지 무슨 생일인가 하면서 펄쩍 뛰였지만 덕배네 부

부는 생일상을 차려놓고 온 마을 늙은이들을 청하였다.
하여 마을로인들이 《가래나무집》으로 모여왔다.
뜨락에 들어서면서부터 마을로인들은 끌끌 혀를 찼다.
이 집이 마을에서 제일 어렵던 《가래나무집》이 옳긴 옳은가. 기울었던 초가집도 번듯해졌고 뜨락에는 한해 먹고도 남을 벼가마니가 쌓여있으니 이게 바로 자수성가(물려받은 재산이 없이 제힘으로 벌어 살림을 이루고 집을 꾸려나가는것)가 아니고 뭔가.
그들은 방안에 차려놓은 생일상을 보고는 더욱 감탄을 금치 못했다.
금시 살아서 펄펄 뛸것 같은 팔뚝같은 잉어도 올라있고 고기음식, 떡, 과일도 한가득 올라있었다.
새옷을 차려입은 증조할머니가 덕배에게 부축되여 상에 나앉는것으로 생일맞이가 시작되였다.
증조할머니에게 절을 올리는 할아버지의 얼굴에서 눈물이 철철 쏟아졌다.
《어머님께서 여든여덟이 되도록 언제한번 음식대접을 바로 올리지 못하다가 늘그막에 애들덕으로 사람노릇을 합니다. 어머님! 부디부디 오래오래 앉아계시옵서.》
백발의 늙은 아들이 부어올린 술잔을 받아들고 증조할머니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였다.
두 늙은이를 지켜보는 마을의 로인들도 눈물을 흘리였다.
할아버지에 이어 덕배네 부부도 증조할머니에게 절을 하고 술을 올렸다.
《얘야, 어서 내곁으로 와 앉으려무나.》
허리굽은 증조할머니의 부름에 할아버지는 황송한 자세로 그 곁에 가 앉았다.
손녀와 손녀사위가 두 늙은이에게 또다시 절과 술을 드리는 모습을 눈물이 글썽해서 지켜보던 좌상로인은 감탄을 금치 못하다가 불쑥 무릎을 쳤다.
세상에 이런 기이한 일도 있는가. 한날한시에 꼭같은 생일상에 나앉은 이 집 늙은이들의 나이가 정말 신통하다.

파파 늙은 어머니는 88이요, 그의 아들은 66살이다.

몹시 흥분한 좌상로인은 좌중을 향해 입을 열었다.

《다들 내 말 좀 듣게. 난 오늘 이 자리가 쉽지 않은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하네. 아마 하늘이 점지해준 모양이야. 그러기에 어머니는 여덟이란 수가, 그 아들에겐 여섯이란 수가 두번 겹쳐진 나이가 되였거든. 정말 세상에 두번다시 없을 기이한 일일세.》

로인들은 영문을 알수 없어 서로 쳐다보기만 하였다.

그도 그럴수밖에 없었다. 태반의 로인들이 아궁에서 재를 퍼내는 고무래를 놓고도 《고무래 정》(丁)자를 모르는 까막눈이였다.

좌상로인만은 달랐다. 그는 일찌기 젊어서 글방이며 지어는 향교까지 다니였다. 그런 까닭에 보통 식자가 아니면 놓쳐버릴번한 기이한 일치를 발견한것이였다.

그는 생일상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두 늙은이의 나이를 생각하다가 그들의 나이를 글로 만들어보았다.

예순여섯살을 글로 쓰면 六十六이다. 그것을 가지고 글자를 만드니 美 즉 아름다울 미자가 된다. 하듯이 여든여덟살은 八十八이고 그것으로 글을 만들면 쌀 미자 즉 米이란 글자가 나온다.

좌상로인은 역시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있는 덕배의 손을 잡고 껄껄 웃었다.

《이 사람! 자네네 부부의 남다른 효행을 하늘이 굽어보고 이 자리에 알맞는 이름을 점지해주었네그려. 내 식견은 부족하지만 능히 하늘의 점지만은 풀이할수 있네.

생일상을 받은 두분의 나이를 글로 옮기면 어머니는 쌀 미자요 그 아들은 아름다울 미자, 여기에 두분의 장수를 바라는 글자인 수자에 잔치를 의미하는 연자를 합치면 〈미수연〉이라, 그게 바로 하늘이 점지해준 이 자리의 이름일세.

그래 어떤고?》

덕배는 좌상앞에 넙적 엎드렸다.

《정말 고맙소이다.》

《이 사람! 고맙다는 인사는 내게가 아니라 내가 자네에게 해야 하는 말일세. 자네야말로 온 마을이 달라붙어 효자문을 세워주고 칭찬할만한 진짜배기 효자일세. 암, 그렇구말구.》

《좌상님!…》

좌상로인은 덕배의 손을 잡아일으켜 앉히고는 흥이 나서 소리쳤다.

《이 기쁜 〈미수연〉날에 어찌 술만 마시겠나. 온 마을이 들썩하게 춤판을 벌리세나.》

좌상로인은 먼저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기다렸다는듯 장고소리, 물장구소리가 흥취를 돋구고 이어 방안에서도 뜨락에서도 춤판이 벌어졌다.

덕배는 집어른들의 생일맞이가 이렇게까지 뜻깊게 번져질줄은 몰랐다. 살림이 너무도 구차하여 한생에 다시없는 생일 예순돐에까지조차 죽으로 끼니를 에웠다는 두 어른에게 예순돐생일상에 못잖은 생일상을 차려드리려고만 했지 거기에 뜻깊은것을 담을념을 못하였다.

사람을 사람이라 함은 도리를 알기때문이요, 웃어른들을 존경하고 효성을 다해 섬기는 미덕이 있어서가 아니겠는가.

집어른들을 잘 받들어모실적에 집안에도 마을에도 웃음이 넘치리라.

방골마을의 가난한 집에서 늙은이들에게 《미수연》이라는 생일상을 차려주었다는 소문은 날개가 돋힌듯 이 마을, 저 마을들에 퍼져나갔다.

그 소문은 가난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살림이 구차해서 부모들에게 예순돐생일상을 올리지 못한 사람들은 뒤늦게나마 《미수연》을 차리였다.

그후 세월이 흐르면서 《미수연》은 장수를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부모들의 나이 66살과 88살이면 꼭꼭 차리는 풍습으로 되였다고 한다.

소문난 명태식혜

김복련

《함북금강》으로 이름난 칠보산이 자리잡고있는 명천읍에서 학령고개를 넘어 구슬같은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보촌천을 따라 바다가쪽으로 나가느라면 보촌이라는 아담한 마을이 나진다.

앞으로는 푸른 바다 출렁이고 뒤에는 소나무숲이 울창하게 우거진 보촌은 말그대로 절승경개였다.

여기 보촌에는 조상 태씨가 명태를 처음으로 잡았다고 하여 《명태집》이라 불리우는 집이 있는데 그 집에는 고분이라는 녀인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있었다.

인물 곱고 마음씨 무던한 고분이는 시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한것으로 하여 온 마을에 소문났다. 고분이의 남편은 바다가에 고기잡이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 돌아오지 못하였다. 그때로부터 여러해가 지나도록 고분이는 남편이 있을 때와 조금도 다름없이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였다. 변변한 독 하나 없는 어려운 살림이였지만 고분이는 신세타령 한번 한적이 없이 산나물일망정 정성을 다해 깨끗하고 먹음직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시어머니에게 대접하군 하였다. 너무도 애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외롭게 지내는 고분이의 정상을 가긍히 여겨 좋은 자리를 소개해주며 재가할것을 권고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그때마다 고분이는 이렇게 만류하였다.

《예로부터 남편 잃은 설음보다 자식 잃은 설음이 몇배나 더 크다고 했어요. 오죽하면 남편의 상사에는 남산이 보이지만 아들의 죽음앞에서는 그 남산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겠나요. 그러니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이야 얼마나 쓰리고 아프시겠나요?》

고분이는 제 설음은 가슴속 깊숙이 묻어두고 늘 밝은 얼굴로 시어머니를 대하였고 더우기 식사대접에 온갖 성의를 다 기울였다.
끼마다 더운밥을 대접하고 식찬이 짤세라 싱거울세라 시어머니식성에 맞추기 위해 애썼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후로 자주 자리에 눕군 하더니 이즈음에는 입맛을 잃고 밥술을 거의나 들지 못하군 하였다. 고분이는 용하다는 의원은 다 찾아다니며 약방문을 알아보았고 끼마다 색다른 반찬을 대접하느라 애썼다. 하지만 부두에 나가 명태뱁을 따주고 품삯으로 얼마간의 물고기를 받아다 살림을 유지해나가는 고분이로서는 그것도 용이한 일이 아니였다.
봄철이나 여름같으면 짬짬이 산나물이라도 뜯어다 찬을 만들어 대접해보련만 눈덮인 겨울에는 더구나 찬거리가 걱정이였다. 하루에도 수십두름이나 되는 명태를 손질하여 말리우군 하는 고분이지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명태를 보면서도 앓는 시어머니한테 뜨끈한 생선국 한그릇 대접할수 없는 형편이였다. 명천앞바다의 포구며 배 그리고 어부와 그들이 잡아들인 명태까지 배선주의 관할하에 들지 않는것이 없었고 명태 한마리라도 그의 승인없이 빠져나가는 날에는 큰벼락이 떨어지군 하였다.
고분이는 가을에 묻어두었던 무우를 꺼내여 된장을 풀어넣고 지지기도 하고 무우채도 만들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밥술을 들지 않았다. 수저도 대보지 않은 밥상을 도로 들고나오는 고분이의 마음은 찢어지는듯 하였다.
(이럴 때 명란이라도 있었으면…)
언젠가 명태뱁속에 섞여있는 터진 알들을 골라 젓을 담그었더니 시어머니가 맛있게 잡숫던 생각이 났다. 하지만 요즘엔 배선주가 명란단속을 어찌나 심하게 하는지 터진 알 한개라도 뱁속에 섞일세라 눈을 밝히군 하였다. 그러다보니 이즈음엔 명란젓을 구경하기조차 힘든 형편이다. 생각다못해 고분이는 배선주에게 명란이라도 좀 주십사 하고 청을 드려보리라 마음먹었다.
그날저녁 하루일을 끝내고 배선주네 집앞에까지 이른 고분이는 선뜻 문을 두드릴수가 없었다. 배선주의 성미를 너무도 잘 아

는 고분이였다. 밸따는 녀인들에게 차례지는 명란이며 고지까지 돈벌이를 하겠다며 모조리 빼앗아내던 배선주였다. 한참이나 망설이던 그는 저도모르게 발길을 돌렸다. 몇걸음 옮기던 고분이는 못박힌듯 그자리에 선채 움직일줄 몰랐다. 여러날째 미음 한술 들지 못하고 자리에 누워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면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선주네 대문을 두드렸다.
《선주나리, 시어머니가 여러날째 입맛을 잃고 밥 한술 들지 못하고있소이다. 명란이라도 좀 있으면 젓을 담글가 해서 왔소이다.》
《뭐… 뭐라구? 명란을?!…》
장지문을 와락 열어젖히며 선주놈이 소리치는데 어느새 토방우에 나와섰는지 선주녀편네의 귀청을 째는듯한 악청이 터져나왔다.
《일은 안하구 집구석에 틀어박혀있으니 밥맛이 날턱이 있나. 그주제에 뭐 음식타령을 다 해? 네년들한테 선심 쓸 명란이 있으면 돈이라도 한푼 더 만들겠다. 흥…》
순간 고분이는 화독처럼 달아오른 두볼을 감싸쥐고 문밖으로 뛰쳐나왔다.
(아, 어쩌면 사람으로 생겨나 저다지도 악할가? 우리 《명태집》의 조상어른이 아니였다면 명태라는 이름도 몰랐을것들이 이제와서 주인이라고 이렇게 악착하게 노는가?)
고분이는 언젠가 시어머니가 들려주던 《명태집》의 래력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났다.
명천땅에 태를 묻고 살아온 태씨네 가문은 대대로 고기잡이를 업으로 살아오고있었다. 태씨의 먼 조상 한분이 설날을 며칠 앞두고 바다에 나갔다가 뜻밖에도 큰 물고기떼를 만났다. 어부생활 10여년만에 처음 보는 이름모를 물고기였다.
태씨는 잡아온 물고기를 온 동네에 골고루 나누어주어 그해 설은 태씨덕에 모두가 푸짐히 쇠였다. 그때로부터 배군들은 해마다 겨울이면 물고기잡이에 떨쳐나서군 하였는데 그로 해서 이곳 바다가사람들의 생활도 한결 펴이게 되였다.

이곳 사람들은 처음 보는 이 물고기이름을 명천에 사는 태씨가 처음으로 잡은 물고기라는 의미에서 《명태》라 부르기로 하고 태씨네 집을 《명태집》이라 부르기 시작하였다는것이다. 그러던 이 마을에 배씨가 자리를 잡으면서부터 사람들은 고역에 시달리고 가난에 쪼들리게 되였다.

원래 배씨는 멀리 남쪽지방에서 떠살이하던 놈으로서 명천앞바다에서 명태가 많이 잡힌다는 소문을 듣고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왔던것이다.

당시 여기 명천땅으로는 칠보산유람을 오는 량반관료들과 《큰뜻》을 품고 도를 닦으려 칠보산의 절을 찾아오는 젊은이들도 적지 않았다.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 장사흥정이 성하는것은 물론이라 명천장은 늘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중에서도 제일 경기가 좋은것이 여기 명천장에서 노란자위라 할수 있는 생선가게와 생선국집이였다. 하루 한끼 죽물이나 겨우 우려먹는 가난한 사람들은 머리조차 기웃거릴념을 못해도 돈냥이나 휘두르는 량반나부랭이들은 《명천 왔다 생선국맛 아니 보고서야 그 무슨 칠보산유람이랴.》고 하면서 생선국집으로 뻔질나게 드나들었다.

배선주의 돈주머니는 날을 따라 불어났지만 그것만으로 성차할 배선주가 아니였다.

사실 명천앞바다에서 성어기는 겨울철이였다. 겨울에 잡히는 명태는 봄내가으내 잡아들이는 물고기에 비할바없이 많은 량이였다. 반면에 배선주의 돈주머니를 불구어주는 칠보산유람객은 겨울보다 봄, 가을에 더 많았으니 이 계절에 명천장이 더 흥성일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였다.

어떻게 하면 겨울철에 흔한 명태를 가지고 사철 돈벌이를 할수 있을가 하고 궁리를 거듭하던 배선주는 겨울에 명태밸을 따서 말리워두었다가 봄부터 가을까지 몇배나 비싼 값으로 팔아 일확천금할 묘안을 생각해냈다.

아닌게아니라 대소한의 강추위속에 얼대로 얼고 부풀대로 부풀면서 잘 마른 명태는 허연 살이 솜처럼 부근부근하여 칠보산

유람객들이 앞을 다투어 찾는 술안주로 유명해졌다.

무더운 여름날 땀방울을 뚝뚝 떨구며 생선국을 마주하기보다는 시원한 나무그늘밑에서 흥타령이나 부르며 마른 명태 찢는 맛이 몇배로 더 좋았다.

배씨의 돈주머니는 불어나는 반면에 배군들과 밸따는 녀인들의 고역은 점점 더 커졌고 그들의 살림은 나날이 쪼들리기만 하였다. …

생각에 잠겨 걸음을 옮기던 고분이는 어느새 자기 집 문앞에 이르렀는지도 몰랐다. 부엌문을 여는 순간 그는 밝은 얼굴로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오늘 일이 있어 좀 늦어졌는데 정말 미안하오이다. 인차 저녁을 지어 올리겠소이다.》

고분이는 명란젓은 대접하지 못할지언정 있는 성의를 다하여 음식을 만들어보리라 마음먹었다.

그는 들고온 구럭안에서 좀 성해보이는 명태대가리들을 골라 푹 끓여서 고추마늘로 양념을 한 지지개를 밥상에 올려놓았다. 며느리의 지성을 그냥 마다할수 없었던지 시어머니는 두어술 뜨는둥 마는둥 하고는 밥상을 도로 물리였다. 너무도 안타까와 고분이는 아궁이앞에 주저앉아 울고 또 울었다.

설겆이를 끝내고 남은 명태대가리를 손질하던 고분이의 머리에는 (명란젓대신 명태대가리를 가지고 젓을 담그면 어떨가?)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곧 깨끗이 손질한 명태대가리를 잘게 찢어 소금에 절이고 거기에 갖가지 양념을 버무려 단지에 꼭꼭 눌러담았다.

(이거라도 어머님의 입맛을 돌려세워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가?)

그날부터 고분이의 모든 신경은 그 단지에만 가있는듯싶었다. 저녁에 들어오는 길로 단지를 따뜻한 아래목에 옮겨놓고 자다 깨여도 단지부터 만져보군 하였다. 명란젓과는 달리 대가리뼈는 좀처럼 익지 않았다. 온통 뼈투성이인 명태대가리가 그렇게 쉽게 익을리가 없었던것이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맛있게 익힐

수 있을가 하고 생각하던 고분이의 머리에 언젠가 샘골집할머니가 하던 말이 생각났다.

《물고기뼈는 무우가 들어가야 잘 삭는다네.》

순간 고분이는 너무 기뻐 환성을 올릴번 하였다.

(내가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가?)

그는 무우움에서 제일 단단하고 생생한 무우를 골라냈다.

깨끗이 손질한 무우를 손가락길이만큼 길죽길죽하게 채치고 거기에 소금을 살짝 뿌린 다음 젓담가두었던 명태대가리를 섞어 다시금 단단히 봉해두었다. 매일저녁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식찬때문에 애쓰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근심어린 어조로 말하였다.

《네가 나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이제부턴 너무 마음쓰지 말아. 내 병이라는게야 나이 많아 생기는 병이니 별다른 도리가 없느니라.》

《그런 말씀 마시오이다. 의원할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어머니는 입맛이 돌아서서 식사만 하시면 다른건 문제가 아니랬소이다. 제 이제 어머니의 입맛을 돌려세울수 있는 맛있는 반찬을 해올리겠소이다.》

며칠후였다. 고분이는 궁금증을 견디지 못해 단지뚜껑을 열어보았다. 새큼하면서도 구수한 젓내가 확 풍기는데 보기만 해도 군침이 당기였다. 고분이는 너무 기뻐 반찬을 접시에 담아 시어머니의 밥상에 올려놓았다.

이날아침 시어머니는 오래간만에 밥그릇을 다 내였다.

《며늘애야, 오늘 식찬이 정말 별맛이구나. 내 오늘 배부른줄 모르고 다 먹었다.》

시어머니는 별치 않게 여겼던 명태대가리와 흔한 무우를 가지고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낸 며느리의 정성에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고분이는 시어머니의 두손을 꼭잡고 기쁨에 넘쳐 말하였다.

《고맙습니다. 전 그저 어머님만 달게 잡수신다면 열밤을 새우면서라도 이런 식찬을 번지지 않고 대접하겠소이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도, 고분이의 눈가에도 기쁨의 눈물이 맺혀있었다.

이날부터 고분이네 집에는 낟알이 떨어지면 떨어졌지 명태대가리와 무우로 담근 식찬을 떨구는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당반우에는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식찬단지가 늘 《대기》하고있었다.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것은 바깥날씨가 차지면 식찬이 제때에 익지 않아 생무우냄새가 나는것이였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더운 부뚜막에서 익히느라면 물크러지기가 쉬웠다. 고분이는 단지를 당반에 올려놓기도 하고 아래목에서 웃목으로 옮겨가면서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

어느날 저녁 어두운 등잔불아래에서 밥을 푸던 고분이는 부뚜막에 놓여있는 식찬단지안에 조밥 한덩이가 떨어져 들어간것도 모르고 그대로 덮어두었었다. 뒤늦게야 이것을 알게 된 고분이는 안타까와 어쩔줄 몰라했다. 아직도 반나마 남아있는 식찬을 못쓰게 만든걸 생각하면 아깝기 그지없었다. 어떻게 하면 아까운 식찬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더 맛있게 만들어 먹을수 있을가 하고 궁리를 거듭하던 그의 머리에 피뜩 떠오르는것이 있었다.

고분이가 어릴 때 그의 할아버지는 늘 위병으로 고생하고있었다. 그런 할아버지를 위해 친정어머니는 끼마다 보리가루 달인 물을 대접하군 하였다. 그게 하도 이상해서 영문을 묻는 어린 고분이에게 어머니는 이렇게 말해주었다.

《할아버지는 소화가 잘 되지 않으시기때문에 이 약물을 잡수셔야 한다. 먹은것이 잘 내려가지 않거나 체한데는 이 보리가루이상 없느니라.》

그제야 고분이는 무릎을 탁 쳤다.

(보리가루를 버무려놓으면 밥쌀도 잘 삭고 대가리뼈나 무우도 더 잘 익을게 아닌가? 내가 왜 그 생각을 이제야 했을가. 사람의 머리는 쓰기탓이라더니…)

고분이는 단지안에 덩이채 돌아가는 조밥덩이를 잘 풀어놓고 거기에 보리길금가루를 뿌려 고루 버무려놓았다. 그랬더니 좀처럼 삭지 않던 대가리뼈들이 연한 삭뼈처럼 만문해지고 껍질이 단단해서

잘 풀어지지 않는 좁쌀의 노르스름한 색갈이 새빨간 고추양념과 잘 어울려 한결 볼품이 좋아졌다.

시어머니는 새로 들여온 반찬을 맛보더니 눈이 휘둥그래졌다.

이발이 없는 늙은이까지도 씹을수 있게 잘 삭은 대가리뼈와 아삭아삭 씹을 때마다 새큰하면서도 달짝지근한 무우채며 그리고 좁쌀밥이 삭으면서 내는 독특한 맛은 밥이 넘어가는지 혀가 넘어가는지 모를 지경으로 입맛이 당기였다.

《어데서 이렇게 훌륭한 식찬이 다 생겼느냐?》

시어머니의 물음에 고분이는 두볼에 보조개를 살짝 지으며 대답하였다.

《그런게 아니오라 전날저녁 제 불찰로 단지안에 조밥덩어리가 들어가지 않았겠소이까. 식찬에 밥이 섞였으니 이런 변이 어데 있겠나이까. 그렇다고 식찬을 다 버린다는건 너무도 아까운게고…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식찬으로 만들수 있을가 하고 궁리를 거듭하던 끝에 보리가루를 더 넣었소이다. 그랬더니 이렇게 맛좋은 반찬이 되지 않았소이까.》

《네가 나때문에 무던히도 마음쓰더니 이렇게 훌륭한 식찬까지 다 만들어냈구나.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너를 두고 하는 말인가 보구나.》

《어머니두 참, 지내 과분한 말씀이오이다.》

그날저녁 고분이는 큼직한 나무함지를 내리워 명태대가리와 채친 무우를 넣고 거기에 되직하게 지은 조밥에 고추가루를 넉넉히 뿌려 잘 버무리였다. 그 모양을 이윽토록 바라보던 시어머니가 의아하게 물었다.

《무슨 식찬을 단번에 그리도 많이 만드느냐?》

《맛이 괜찮으니 이웃들에도 좀 나누어줄가 해서 그럽니다. 명절때마다 색다른 음식이 생기면 가져오군 하는 샘골집이랑 우물집에도 좀 나누어주어 맛보게 말입니다.》

《오―냐. 그러지 않아두 늘 이웃들의 신세만 지는게 마음에 걸리댔는데… 네가 참 기특한 생각을 했구나.

얘야, 그런데 이 훌륭한 식찬에 이름이 없는게 흠이로구나. 좋

은 이름 하나 붙이자꾸나.》
시어머니의 말에 고분이는 한참이나 머리를 기웃거리더니 이렇게 말하였다.
《저… 식혜라 부르는게 어떨는지요? 명태식혜라고 말입니다.》
《명태식혜라니?!…》
《원래 식혜란 보리길금가루를 우린 물에 흰쌀밥을 넣어 삭힌 음료를 말하는데 조밥에 보리가루를 넣고 거기에 명태대가리와 무우를 넣어 삭혔으니 명태식혜라 부르는게 좋을것 같소이다.
어머님 생각엔 어떠하신지…》
고분이의 말에 시어머니가 머리를 끄덕이였다.
《명태식혜란 말이지? 참 그럴듯한 이름이다. 명태살은 한점도 못들어갔어도 명태대가리가 들어갔으니 명태식혜가 옳구말구. 예로부터 어두진미라 했거늘, 아마 사람들이 이 명태식혜에 맛들이면 저저마다 명태대가리만 가지겠다고 할걸… 그러구보면 네가 생각하는품이 나이 먹은 나나 사내들보다 훨씬 낫구나.》
《어머니두 참, 너무 과분한 말씀이오이다. 그러다가 이 며느리가 방자해지면 어찌 당하겠소이까. 호호호…》
《하하하…》
만병을 다 털어버린듯 시어머니는 소리내여 웃었다.
이즈음 어느날 새벽 우물가에 모여든 마을아낙네들은 고분이의 음식솜씨를 두고 이야기장단에 시간가는줄 몰랐다.
《명태집에서 보내온 식혜맛에 우리 주인은 홀딱 반했나봐. 글쎄 끼마다 명태식혜를 찾으니 이런 변이라구야.》
《우리 령감은 끼마다 지청구라네. 남들은 별치 않은 명태대가리와 무우를 가지구두 이렇게 맛좋은 음식을 만드는데 당신은 왜 같은 음식감을 가지구두 그렇게 못하는가구 날마다 닥달질이야.》
《아니예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음식맛은 손맛이래요.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사람의 손이 따로 정해져있는데 그런 사람은 아무런 음식감을 가지고도 남보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낸다지 않아요. 아마 조물주가 그렇게 정해주었나부지요?》

아낙네들은 물동이에 물이 찰랑찰랑 넘쳐나도록 우물가를 떠날줄 몰랐다.

이때 물길러 나오던 샘골집할머니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핀잔을 주었다.

《모르는 소리. … 예로부터 내인들의 아름다움은 얼굴이 아니라 음식솜씨에 있다 했거늘 녀자란 얼굴도 곱고 품성도 좋아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건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거라네. 어떤 아낙네들은 음식감만 좋으면 누군들 맛있는 음식을 만들지 못하겠는가고도 하고 또 어떤 내인들은 음식솜씨도 타고난것이여서 딴도리가 없는듯이 말하는 사람들도 있네만 그건 다 구실에 불과하네. 어떤 집의 음식맛이 못한고 하니 일년 삼백예순다섯날 하루 세끼 늘 부엌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서 대강대강 음식을 만드는 아낙네들이 있는 집에서는 아무리 좋은 음식감을 가지고도 한번도 맛있게 먹어볼수 없지만 남편과 자식들 그리고 부모님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정성을 깡그리 쏟아붓는 녀인들이 서있는 부엌에서는 언제나 훌륭한 음식만 생겨난다네.

명태집의 고분이가 담근 명태식혜가 그렇게 맛이 좋은것도 다 시어머니를 위하는 며느리의 정성이 지극한때문이야. 고분이는 시어머니라기보다 친정어머니를 모시는 딸의 심정으로 시어머니를 극진히 위해주고있거든. …》

샘골집할머니의 말에 녀인들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오구작작 끓어번지던 우물가는 물뿌린듯 조용해졌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부전에 사는 사돈벌되는 친척이 고분이네 집에 찾아왔다.

그는 밥상에 오른 명태식혜 한공기를 게눈 감추듯 하고는 체면도 없이 식혜를 더 요구하였다. 덧들여온 밥이며 명태식혜를 반반히 다 먹고난 부전사돈은 사돈집이라는것도 잊고 이렇게 말하였다.

《명태식혜가 정말 별맛이웨다. 1년 365일 매일 매끼마다 먹어도 싫어질것 같지 않수다.》

그는 식혜맛에 정들어 떠나고싶지 않다면서 예정보다 이틀이

나 더 묵었다. 그러더니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일어나서 한다는 말이 《예로부터 가는 손님의 뒤꼬리가 예쁘다고 했는데 내 오늘 떠나면서 긴히 부탁할 말이 있소. 미안하지만 명태식혜 한 단지를 구해주면 부전산골에 사는 우리 로친네한테 맛이라도 보이겠는데…》

《호호호… 사돈님두 참, 명태식혜 한단지가 무슨 큰게라고 사돈님답지 않게 그러십니까?》

그날 고분이가 꿍져주는 명태식혜단지를 그 무슨 보물이기라도 한듯 정히 안고 떠난 부전사돈은 어슬녘이 되여 어느 한 주막집에 거처를 정하였다. 깡보리밥에 된장 한보시기가 고작인 저녁상을 마주한 부전사돈은 보짐속에 들어있는 명태식혜가 눈앞에 얼른거려 차마 숟갈을 들수가 없었다.

끝내 참아내지 못한 부전사돈은 슬그머니 돌아앉아 식혜단지를 열었다.

단지안에서는 향긋하면서도 새큼하고 구수한 젓내가 방안가득 풍기였다. 뜻밖의 음식냄새에 방안의 길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단지안에 무슨 보약이 들어있기에 길 떠나면서까지 가지고 다니시오?》

《이것말이요? 보약이래도 상보약이지요. 입맛 잃은 사람들에게 입맛을 돋구어주고 먹은것이 내리지 않아 고생하는 사람의 묵은 체기까지 떨구어주니 이보다 더 훌륭한 보약이 어디 있겠소?》

《그 훌륭한 보약을 우리도 맛 좀 봅시다그려.》

《그야 뭐 어려울게 있소? 이게 명천에 사는 우리 사돈댁이 담근 명태식혜인데 하도 맛이 좋길래 내 우리 로친네한테 맛보이자고 한단지 가지고가는 길이라오.》

부전사돈은 식혜자랑, 사돈자랑에 단지가 밑창나는줄도 모르고 계속 퍼내여 내돌렸다. 식혜맛을 본 길손들중 그중 나이많아보이는 로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과시 보약이라 할만 하오. 예로부터 〈약식동원〉이라 했

거늘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약재와 음식은 그 근원이 하나인고로 병을 치료하려거든 약재와 함께 약용음식을 동반해야 한다는 말일세.》

며칠만에 부전땅에 이른 사돈은 마중나온 로친네에게 식혜단지를 안겨주며 자랑삼아 말하였다.

《이게 명천 사돈집에서 보내는 명태식혜라는건데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지경이라오.》

《명태식혜라니요?… 이렇게 맹물만 찰랑거리는데두요?》

식혜단지를 흔들어보이며 로친이 하는 말이였다.

《그게 무슨 말인가. 엊저녁까지만 해도 밑굽에 좀 남아있은것 같은데…》

단지안을 들여다보며 떠듬거리는 령감을 바라보며 안사돈이 이렇게 빈정거렸다.

《하긴 술 한통을 지구는 못가두 마시구야 가는 령감님의 솜씨에 명태식혜 한단지쯤 꿀꺽 하기야 여반장이지요. …》

고분이네 명태식혜는 어느덧 보촌마을을 벗어나 명천장에까지 알려져 고분이네 집으로 명태식혜 구하러 오는 사람들의 수가 하나둘 늘어났다.

고분이는 정성껏 담근 명태식혜를 명천장에 가지고 나갔다.

이미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은 인차 고분이의 단골손님으로 되였다. 그들속에는 함경도일대에 사는 사람들뿐아니라 평안도와 황해도는 물론 멀리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오는 량반들도 있었다. 《지체》높은 경기도량반들까지 칠보산유람을 구실로 명천장에 와서 명태식혜를 단지채 사가기도 하였다.

고분이는 겨울에 소금에 절여두었던 명태를 가지고 여름에도 식혜를 담그어 명천장에 내갔다.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풋김치의 산뜻한 맛에 짜지지 않는 명태식혜의 얼근하면서도 감미로운 맛은 생선국을 릉가하였다.

점차 배선주네 생선가게와 생선국집은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반면에 고분이의 명태식혜매대는 나날이 번창해졌다.

한편 린색하고 고약하기 그지없는 배선주의 심보를 잘 알고있는 배군들은 그에게서 하나둘 떨어져나와 다른 포구로 넘어가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배선주네 포구에 넘쳐나던 명태더미는 점차 낮아지고 생선가게와 명태국집도 파산지경에 이르렀다. 사철 배선주의 돈주머니를 불구어주던 마른 명태의 인기도 점차 떨어져갔다.

값비싼 마른 명태는 얼마 안되는 량반들이나 봉건관료들의 술놀이용으로 리용되는것이 고작이지만 값누고 맛좋은 명태식혜는 지체높은 량반들로부터 시골의 아낙네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즐겨찾는 밥식찬이였다.

고분이네 명태식혜의 인기가 하늘높은줄 모르고 오르는데 시샘을 느낀 배선주는 심화병으로 끙끙 앓기 시작하였다.

그로부터 얼마후 간다온다 소리없이 배선주는 어데론가 사라지고말았다. 그와 함께 명천장을 흥성이게 하던 생선가게와 명태국집도 자취를 감추었다.

이때로부터 사람들은 명태식혜를 단순히 보리가루 넣어 삭인 음식이라는 의미에서 붙인 《식혜》라는 이름대신에 명태음식가운데서 혜성처럼 나타난 식찬이라는 의미를 더해주어 《명태식혜》라 부르며 즐겨찾군 하였다.

올챙이국수

전철호

리조 말엽 평안도 의주고을의 석숭산골안에는 진씨성을 가진 눈먼 할머니의 손에서 장가를 든 구돌이란 젊은이가 살고있었다.

진씨는 어려서 부모를 다 잃은 구돌이를 앞을 보지 못하는 불편한 몸으로 애지중지 길렀고 그 또한 할머니에 대한 효성이 이만저만 아니였다.

동네사람들은 자기를 길러준 눈먼 할머니를 깍듯이 공경하고 효도를 바치는 구돌이를 눈먼 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한 고구려의 온달장군에게 비기면서 칭찬해마지 않았다.

부부오누이라더니 구돌이의 안해 역시 시할머니에 대한 효성이 사내못지 않았다.

삼시세끼 강냉이타개죽이나마 따끈하게 지어올리고 시할머니가 손댈세라 집안팎을 깨끗이 거두고 살림살이를 깐지게 알뜰살뜰해나가면서 저녁이면 꼭꼭 제 손으로 뜨뜻한 아래목에 이부자리를 펴드리니 진씨의 입에서는 손자자랑, 손주며느리의 자랑이 떠날줄 몰랐다.

구돌이네 부부는 눈먼 할머니를 잘 모실뿐아니라 농사도 잘하였다.

그들부부가 특별히 잘하는 농사는 강냉이농사였다.

이랑에 한자 좀 넘는 사이로 씨앗을 묻으면 그게 싹이 트고 두길 높이 자라서 팔뚝같은 이삭이 달리는 강냉이는 거름을 내는대로 더 큰 이삭을 내뽑았다.

한이삭만 먹어도 배가 불쑥해지는 강냉이농사에 구돌이 재미를 붙이게 된데는 그럴만한 일이 있었다.

구돌은 어려서부터 저녁이면 동네마실방에 다니기를 좋아하였다. 구수하게 말을 번지는 이야기군에게서 옛말을 듣는 재미란 참 멋이 있었다.

몇해전 어느날 저녁 마실방에 갔는데 그날 이야기군은 고려말기때 머나먼 남의 나라에 가서 갖은 고생과 위험을 무릅쓰고 붓대속에 목화씨를 숨겨가지고온 문익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야기끝에 그가 하는 말이 근래에 나라와 겨레를 아끼는 어떤 사람이 옛적에 문익점이 그러했던것처럼 이웃나라에 가서 강냉이를 들여다 펴쳤는데 그것은 백성살이에 기여한 소행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는 강냉이로는 밥을 해먹기엔 좁쌀만 못하나 그대신 거름만 많이 내면 소출이 굉장해서 흉년구제를 할수 있다고, 그러니 강냉이농사를 잘해서 배고픈 고생을 면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배고픈 고생을 면할수 있다는 이야기군의 말은 구돌이의 가슴을 몹시 흥분시켰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생중의 제일 큰 고생은 배고픈 고생이라고 할수 있지 않는가. 배고픈 고생을 면할수 있다는데 어찌 강냉이농사를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그해 구돌은 집주변의 터밭은 말할것도 없고 산자락의 새로 일군 밭들에까지 거름을 듬뿍 내고 강냉이종자를 구해다 심었다.

그랬더니 정말 어른들의 팔뚝만한 큰 이삭이 한개도 아니고 두개씩 매달린것이 허다했다.

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난한 백성들도 배불리 먹을수 있게 하려고 남의 나라에서 강냉이를 들여다 고국에 퍼치였구나.

시집오자마자 안해도 강냉이농사를 중시하는 구돌이를 지지했다.

하여 그들부부는 힘을 합쳐 이전보다 더 많은 거름을 장만하여 밭에 냈다.

올해에도 제때에 강냉이씨앗을 심고 김이 돋아날세라 이랑을 매니 강냉이는 하루가 몰라보게 우줄우줄 자라올랐다.

일심동체가 되여 농사를 알심있게 지어나가던 그들부부에게 갑자기 근심거리가 생겼다.

그것은 여름에 들어서면서 할머니가 끼식을 제대로 들지 못하는 그때문이였다.

늙은이가 밥맛을 잃게 되면 곧 몸져눕게 되고 그러면 오래 살지 못한다는것쯤은 알고있는 그들부부는 색다른 음식을 해드리기에 왼심을 썼다.

입맛을 잃었을 때에는 흰쌀밥을 차려올리면 좋으련만 워낙 석숭산골안이라는데가 논을 찾아볼수 없으니 흰쌀은 구경조차 할수 없었다.

더우기 지금은 여름이라 논농사를 하는 벌방지대에서도 가난한 백성들은 흰쌀을 약쌀로도 가지고있지 못하는 형편이다. 보리고개를 넘긴 때이니 보리밥을 먹을것이다.

설사 흰쌀 몇되박이 생겼을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입맛을 잃어버린 늙은이에게 별로 큰 도움을 주지 못할것이다.

구돌이네 부부가 색다른 음식이라며 할머니의 밥상에 차린것은 차조가 섞인 보리밥에 산나물반찬이였다.

강냉이타개죽으로 끼식을 에우는 구돌이네 집에서 차좁쌀을 섞어지은 보리밥은 그래도 상음식이였다.

보리란게 아무리 거름을 많이 내도 강냉이보다는 소출이 높지 못한 까닭에 구돌이네는 가을보리를 적게 심었으니 그래서 보리쌀마저 귀했다.

온 동네가 구돌이네와 다를바 없었다.

이제는 나이가 많아 입맛이 없기마련이라며 차조가 섞인 보리밥을 서너숟갈 뜨다마는 할머니를 보며 구돌이네 부부는 안타까와했다.

그들부부는 비로소 늙은이의 입맛을 돌려준다는것이 간단치 않은 일임을 깨달았다.

여느 병같으면 그들부부의 지성에 차도가 있었을것이다.

그것은 지난해에 있은 일을 보고 그렇게 말할수 있다.

지난해 정초부터 할머니는 머리를 아파했다. 어떤 날에는 너

무 머리가 쑤셔 눈물까지 흘렸다.

그러는 할머니의 병을 고치려고 그들부부는 그 병에 효험이 있다는 약초라면 온 산판을 다 뒤져서라도 캐여다 달여올렸다.

허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머리를 아파했다.

어느날 구돌이네 부부는 마을을 찾아온 의원으로부터 머리아픈 병에는 산비둘기골이 제일이라는걸 알게 되였다.

하여 그들부부는 며칠을 밤늦게까지 소나무숲을 뒤지면서 끝끝내 몇마리의 산비둘기를 잡아다 할머니에게 올렸다.

산비둘기를 약으로 써서인지 그후 할머니의 머리아픔은 씻은듯이 사라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온갖 성의를 다했지만 할머니의 입맛은 좀처럼 돌아설줄 몰랐다.

과연 이 산골마을에서는 할머니의 입맛을 돌려드릴 그런 음식은 만들수 없단 말인가.

근심에 휩싸인 그들부부의 눈에는 실하게 자란 강냉이마다에서 개꼬리가 솟구치고 흰수염들이 다투어 피여나는것도 별로 반갑게 보이지 않았다.

올해도 강냉이풍작은 갈데가 없다.

하지만 그게 무슨 큰 기쁨이랴. 여느해같으면 강냉이타개죽이나마 배불리 먹을수 있게 되였다고 그리도 기뻐했건만 극상 그런 음식으로 할머니의 몸을 추세울수 있는가.

이러구러 며칠이 또 지나갔다.

강냉이밭에서는 팔뚝같은 이삭들이 탐스러운 자태를 드러냈다.

장마비에 강냉이밭이 패여나가는걸 미리 방비하려 안해와 함께 물도랑을 치면서 잘된 강냉이이삭을 바라보던 구돌은 불쑥 무릎을 쳤다.

《이보라구, 삶은 풋강냉이도 별맛이 아닌가. 오디며 앵두며 산딸기를 따다 드렸건만 어쩌지 못한 할머니의 입맛이 풋강냉이를 삶아올리면 돌아설수도 있을거란 말이요.》

그 소리에 안해는 삽을 내려놓고 손벽을 쳤다.

《아이, 정말. 난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가요?》

《등잔불밑이 어둡다고 그럴수 있지 뭐. 당장 이삭을 따자구.》

팔뚝같은 이삭을 따서 오사리를 벗기니 구슬같은 강냉이알들이 이삭끝에까지 촘촘하였다.

《히야!》 구돌의 입이 대번에 벌어졌다.

안해도 감탄을 금치 못했다.

《품들인것만큼 곡식을 거둔다더니 정말 그른데 없어요.》

《그러게 말이요. 우리 얼른 이걸 삶아 할머니에게 대접하자구.》

그들부부는 풋강냉이를 따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안해는 솥에 풋강냉이를 안치고 구돌은 아궁에 불을 땠다.

얼마 안있어 솥에서 구수한 풋강냉이 삶는내가 풍기여 군침을 자아냈다.

그들부부는 따끈따끈한 삶은 풋강냉이를 한바가지 담아들고 토방에 올라섰다.

《할머니!》

문을 열어놓은 방안에서 베개잇을 다듬질하던 진씨가 부름소리에 돌아앉았다.

구돌이 벌씬 웃으며 강냉이이삭을 내밀었다.

《할머니! 풋강냉이 삶은거예요.》

《그 냄새 참 구수하구나. 내 생각은 말고 너희들이나 어서 먹으렴.》

구돌의 안해는 앗차— 하고 혀를 깨물었다. 성한 이발이 별로 없는 할머니가 어떻게 삶았다고는 하지만 강냉이알을 씹을수 있단 말인가.

구돌이도 인차 그것을 깨달았다.

그들부부는 어깨가 축 처져 풋강냉이바가지를 안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부엌문턱에 걸터앉아 고개를 숙이였던 구돌이 머리를 들었다.

《이보라구, 그것으로 강낭떡은 칠수 없을가?》

《강낭떡이요? …》하던 안해의 두눈에 생기가 돌았다.
《전 왜 또 그런 생각을 못했을가.》
그들부부는 사기가 나서 일손을 잡았다. 안해가 이삭에서 뜯어낸 삶은 강냉이알을 절구에 넣기 무섭게 구돌은 떡메를 휘둘렀다.
잠간사이에 빚은 강낭떡은 범벅같은데 맛을 보니 들척지근했다.
허나 강냉이꺼풀이 씹히여 맛이 별로 신통치 못했다.
구돌이 손에 들려준 강낭떡을 받아든 할머니는 혀를 찼다.
《원 애들두, 그럼 함께 먹자꾸나.》
강낭떡을 달게 먹는 할머니를 바라보는 구돌이네 부부는 너무 기뻐 눈물이 글썽거렸다.
허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할머니는 저녁끼식에 차려놓은 강낭떡을 겨우 한개 들고는 맛있게 잘 먹었다며 물러났다.
아, 그러니 강낭떡도 할머니의 입맛을 북돋아줄수 없단 말인가.
그들부부는 손맥이 풀려 한숨만 내쉬였다.
그날밤, 잠자리에 나란히 누운 그들부부는 인차 잠에 들지 못했다.
어떻게 하면 할머니가 끼식을 맛있게 들수 있을가.
한곬으로 자꾸만 생각을 몰아가서인지 안해는 언제인가 할머니에게 무우를 드리던 때의 일이 우렷이 떠올랐다.
지난해 초겨울일것이다.
할머니가 무우를 먹고싶다 하기에 구돌의 안해는 연한 무우를 하나 골라들었다. 그것을 칼로 쪼개려고 하니 할머니는 숟가락과 통무우를 달라고 하였다.
이발이 변변치 않은데 어떻게 통무우를 자신다고 할가.
그런데 할머니는 숟가락으로 무우를 벅벅 긁어 맛있게 잡숫는것이였다.
가만, 혹시 풋강냉이를 망에 갈아 죽을 쑤어드리면 어떨가.
그는 곧 머리를 저었다. 그게 풋강낭떡이나 별반 그 맛이 다

르지 않을것이다.

풋강냉이껍질이 씹히기는 마찬가지니까.

종시 이렇다할 생각을 해내지 못한 그들부부는 다음날에도 강냉이밭에 나가 물도랑을 치고있었다.

무더위는 곧 그들부부를 땀투성이로 만들었다.

서늘한 나무그늘에서는 맴맴— 하는 매미들의 울음소리가 귀따갑게 들려왔다.

앞에서 부지런히 삽질을 해나가던 구돌이 팔뚝으로 얼굴을 문대며 《야, 이런 더운 날엔 시원한 오이랭국에 만 메밀국수나 먹었으면 좋겠다.》 하고 말한 제 말에 환성을 올렸다.

《이거다. 바로 이거!》

안해는 제 혼자 환성을 지르며 기뻐하는 구돌을 의아하게 쳐다보았다.

《바로 이거란건 무슨 소리세요?》

《아, 듣고도 모르겠소? 메밀국수! 바로 메밀국수를 대접하면 할머니는 당장 입맛이 돌아설게요. 내 어렸을적에 더위를 먹은적이 있었소. 그때 할머니는 메밀을 구해다 국수를 해주었단 말이요. 난 난생처음으로 맛있고 시원한 메밀국수를 먹고 더위병을 뚝 떼버렸소.

내 이제 생각해보니 할머닌 분명 어느날엔가 더위를 당해 더위병에 걸렸을거요.》

《더위병이요?》 하던 안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의 말에 일리가 있었던것이다.

할머니는 손주내외가 밭에 나가고 집에 혼자 있을 때면 뜨락도 다시 쓸고 지어는 터밭에 들어가 손더듬질로 김도 맸다.

첫 더위가 닥쳐든 그날 구돌의 안해는 점심을 끓이려 집에 들어가다가 터밭에서 땀을 흘리며 김을 매는 할머니를 보았었다.

바로 그날 할머니는 분명 더위병에 걸린것 같다.

《메밀국수가 더위병에 좋다는걸 알았으면 지난해에 메밀을 좀 심는건데…》

《내가 덜퉁한 놈이였소. 그저 소출이 높은 강냉이만 제일이

라면서 메밀같은건 심을 생각을 안했거든.》
《제가 메밀을 좀 얻어보겠어요.》
삽을 내려놓고 마을을 한바퀴 돈 안해는 실망하고말았다.
어느 집에서나 할것없이 국수를 해먹으려고 오늘까지 메밀을 남겨둔것이 없었다. 다른 집들에서도 소출이 낮은 메밀농사를 소홀히 한것이였다.
메밀을 얻어오지 못했다는 안해의 말을 듣고 구돌은 한숨만 쉬였다.
말없이 깊은 생각에 잠겨 물도랑을 쳐나가던 안해가 고개를 들었다.
《저… 메밀대신 풋강냉이로 국수를 누르면 어떨가요?》
《글쎄, 그게 되겠는지 …》
구돌이 고개를 기웃거리는데 안해는 신심에 넘쳐 말했다.
《될수 있겠어요. 풋강냉이로 앙금을 받아내면 될수 있어요.》
《그렇다면 한번 해보구려.》
구돌은 그닥 내키는 마음은 아니였지만 안해가 자신있어하는 바람에 그의 등을 집으로 떠밀었다.
풋강냉이를 한아름 따들고 집에 돌아온 안해는 앞치마를 찾아 둘렀다.
마침 할머니는 이웃마을에 마실을 가고 없으니 이틈에 강냉이국수를 해놓으면 깜짝 놀랄것이다.
그는 식칼로 강냉이알을 이삭에서 깎아냈다. 강냉이알이 물알이다보니 손으로 뜯어낼수 없어서였다. 깎아낸 풋강냉이알은 서너되박이 잘되였다.
그것을 매돌로 불군 콩을 갈듯 물을 좀 두고 보드랍게 갈았다. 그리고 망에 간 풋강냉이를 채로 걸어서 껍질을 갈라냈다.
껍질을 갈라낸 다음 한동안 앙금을 앉혀 맑아진 웃물을 찌워버렸다.
《됐어. 이걸로 국수가 안될리 없지.》
강냉이앙금을 바가지에 담아든 그는 국수분틀이 있는 옆집으로 달려갔다.

《선동엄마! 계시나요?》
사립문밖에서 소리치기 바쁘게 부엌에서 선동엄마가 나왔다.
《임자로구만.》
반색을 하며 맞아주는 선동엄마를 보니 눈물이 핑 돌았다.
지난날 구돌이네 집을 가끔 찾아와 부엌일도 돌봐주고 옷도 빨아주고 해마다 김치를 담가주었다는 선동엄마였다. 몇해전에는 구돌이 독감에 걸리자 며칠을 새여가며 머리맡을 지켜 약을 달여 먹이면서 병구완을 해주었다고 한다.
하기에 구돌은 일찍 돌아간 어머니의 모습을 선동엄마에게서 찾는다고 하였다.
구돌의 안해는 강냉이앙금바가지를 내밀며 말했다.
《이걸루 국수를 눌러볼가 해서 왔어요.》
선동엄마의 두눈이 둥그래졌다.
《그게 메밀가루같지 않은데…》
《예, 풋강냉이앙금이예요.》
《오, 그 집 할머니에게 국수를 대접하고싶은 모양이구만. 헌데 이걸 어쩌나. 국수는 꼭 메밀가루로만 누르는것인데… 내 집에 메밀가루가 있으면 좋으련만…》
한숨을 짓는 선동엄마를 보며 구돌의 안해는 어깨가 축 처졌다.
그렇게 자신있어보였던 강냉이앙금으로는 국수가 안된단 말인가.
그는 맥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마음이 울적했다. 지금처럼 무더운 때 시원한 국수를 상에 올리면 할머니가 기뻐하시겠는데…
그는 다시 되돌아가 선동엄마한테 국수분틀을 빌리고싶었지만 그럴 용기는 나지 않았다.
할수 없지. 강냉이로는 국수를 할수 없다는데…
그런데 그의 눈앞에는 국수분틀이 얼른거리면서 기어코 강냉이국수를 누르고싶은 생각이 굴뚝같았다.
강냉이가루는 메밀가루와 달리 풀기가 부족해서 국수오리가 빚

어지지 않는다는것인데 그렇다면 강냉이앙금가루로 쑨 된죽을 바가지같은 물건에 구멍을 뚫고 뽑아내면 어떨가.

대개 낟알가루반죽은 익으면 풀기가 나는 법이라 강냉이앙금반죽도 마찬가지일것이다. 꿩대신 닭이라고 국수분틀대신 바가지에 구멍을 내여 쓰면 될것이다.

됨직해보였다.

《기어이 강냉이국수를 만들어내고야말겠어.》

그는 송곳을 찾아들고 바가지에 구멍을 뚫었다. 바가지에 잔구멍을 무수히 뚫어놓으니 국수분틀 못지 않아보였다.

《됐어.》

그는 서둘러 아궁에 불을 지폈다. 가마에서 물이 설설 끓자 그는 강냉이앙금을 밥주걱으로 조금씩 떠넣으며 죽을 쒔다.

식은 죽은 묵처럼 맑고 깨끗했다.

그는 양푼을 부뚜막에 놓고 그우에 구멍뚫은 바가지를 얹어놓았다. 그다음 묵모양의 된죽을 바가지에 떠넣었다.

《아이, 이 어찌된 일일가?》

바가지만 들면 죽이 저절로 구멍으로 빠져내릴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아이, 야단났네. 이게 헛공사란 말인가.》

화김에 바가지를 툭 쳤더니 이게 뭔가. 무수한 구멍으로 강냉이죽이 줄줄 미끄러져내리는것이였다.

한동안 그 본새로 바가지를 쳤더니 죽이 몽땅 구멍으로 빠져내렸다.

《?!…》

바가지를 치우고 양푼을 보던 그는 아연해졌다. 글쎄 양푼속에 받아버린 국수는 국수라 하기엔 너무도 어이가 없었다.

메밀국수처럼 가늘고 길게 국수발이 생겨야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졸망졸망한게 손가락 한마디만큼 토막토막 끊어져있었다.

어찌보면 가물철 웅뎅이속에 오골오골 몰려있는 올챙이를 건져담은것 같았다.

《아이, 망쳤구나.》
그가 락담실색하여 한숨을 몰아쉬는데 구돌이 막 뜨락에 들어서며 급하게 소리쳤다.
《그래 됐소?》
안해는 너무도 안타까운 나머지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고말았다.
부엌에 들어선 구돌은 얼굴을 싸쥔 안해와 올챙이모양의것이 들어있는 양푼을 번갈아보더니 사태를 알아차렸다.
《이보라구, 애쓰다 안된걸 가지고 너무 마음쓰지 마오. 효성을 다하자고 애쓴걸 알면 할머니는 이걸 보고도 기뻐할거요.》
그 말에 안해는 감동되여 얼굴에서 손을 내리웠다.
이때 《계셔요?―》 하는 어떤 녀인의 목소리가 사립문밖에서 들려왔다.
허참, 하필 색시가 속상해할 때 남이 찾아올건 뭐람.
구돌이 속이 좋지 않아 돌아서는데 뜨락에 들어서는 녀인은 뜻밖에도 선동엄마였다.
《아주머니군요. 어서 오시오이다.》
곧장 부엌으로 다가온 선동엄마는 그안을 들여다보더니 웃음을 지었다.
《알만해. 범벅이 떡만 하랴만 그래도 그 맛이야 어데 갈가. 사실은 곰곰히 생각해보니 강냉이앙금가루라고 국수가 안될리 없겠어. 그런데 벌써 이 집 새애긴 강냉이국수를 빚었구만. 내 좀 손을 대볼가?》
선동엄마는 부엌으로 들어가 올망졸망하게 토막투성이인 강냉이국수를 채반에 쏟아 물기를 찌우더니 구돌의 안해더러 오이랭국을 타라고 일렀다.
얼마 있어 진씨가 지팽이를 더듬으며 집에 들어섰다.
선동엄마가 진씨를 보고 큰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댁의 손주며느리가 무슨 국수를 했는줄 아세요? 올챙이처럼 깜찍스레 생긴 강냉이국수를 빚어놓았다니까요.》
《뭐 〈올챙이국수〉? 거 처음 듣는 소리다.》

의아해하는 진씨를 부축하며 선동엄마는 구돌의 안해에게 어서 점심상을 차리라고 눈짓했다.

인차 네사람은 뜨락에 멍석을 펴고 음식상에 둘러앉았다.

《할머니! 새애기솜씨인데 맛보시라요.》

선동엄마의 재촉에 진씨는 먼저 수저를 들었다.

말없이 국수를 맛보던 진씨가 혀를 찼다.

《이 맛 참 좋구나. 이게 정말 강냉이로 만든게 옳은가?》

그 말에 구돌이 얼른 국수를 입에 넣었다.

오이랭국에 말아서 시원하기 그지없는데 매끈매끈하고 올롱올롱한것이 별스러웠다.

《맛이 이만하면 괜찮군요.》

국수를 맛본 선동엄마도 감탄을 터쳤다.

《야, 이게 정말 강냉이로 만든 국수가 옳긴 옳은가요. 이거야말로 우리 마을 상음식이라니까요. 〈올챙이〉도 한철, 〈올챙이국수〉도 한철, 하여간 풋강냉이철에 이걸 실컷 해먹게 되였으니 이 집에도 마을에도 복이 든셈이예요.》

《그러게 말일세. 손주며느리덕에 아직 남들이 먹어못본걸 선참으로 먹게 되였으니 늘그막에 사는 재미가 있네.》

안해자랑을 하고싶었으나 색시 자랑하는 놈은 배안의 병신이라는 말이 생각나서 구돌은 입을 다물고말았다.

놀라운 일은 저녁끼식으로 차려놓은 올챙이국수도 할머니가 참 별맛이라면서 맛있게 먹었고 다음날에도 그 다음날에도 그걸 물리지 않고 음식그릇을 다 냈다는 그것이였다.

구돌이네 부부는 할머니의 밥상에 오이랭국에 만 올챙이국수를 날마다 차려올렸다.

마침내 할머니는 입맛이 돌아섰다면서 아무 음식이든 좋으니 이전처럼 강냉이타개죽을 먹자고 청했다.

그러니 올챙이국수가 늙은이의 더위병을 가셔주고 입맛을 돌려주었다는것이 아닌가.

이로써 구돌이네 집에 웃음이 넘쳐났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우에도 꽃을 피운다고 효성이 지극한 구

돌의 안해는 이렇게 희한한 올챙이국수를 만들어내여 더위병으로 끼식을 제대로 들지 못하던 할머니의 밥맛을 돋구어준것이였다.

마을사람들은 올챙이국수를 너도나도 해먹으면서 눈먼 할머니를 봉양하는 그들부부의 효행을 칭찬해마지 않았다.

이리하여 강냉이를 많이 심는 평안도의 산골마을에서는 풋강냉이철이면 올챙이국수를 즐겨 해먹게 되였고 그것이 관서지방의 여름철별식으로 소문이 날수 있었다.

달맞이로 이루어진 소원

김복련

지금으로부터 천여년전 동해안 성천강기슭의 어느 한 마을에 달래라는 소녀가 살고있었다. 마을의 곽지주네 집에서 머슴살이하던 아버지는 일찌기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가 대신 그의 집에서 부엌데기노릇을 하고있었다.

달래는 어려서부터 빈집에서 엄마를 기다리며 배고파도 무서워도 혼자서 울고울다 지쳐서 쓰러져자군 하였다. 달래에게 있어서 배고픔보다도 더 두려운것이 고독과 외로움이였다.

저녁 어스름이 깃들무렵이면 늘 토방에 나앉아 엄마를 찾으며 슬피 울고우는 달래의 모습은 참으로 가긍하기 그지없었다. 이런 그를 이웃에 사는 바우네 부모들이 자주 데려다 돌봐주었고 그러다보니 같은또래인 바우가 즐겨 동무해주었다.

이들의 소꿉시절우정은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차감에 따라 어느덧 사랑으로 변하였다. 그들은 정깊은 눈길로 서로 바라보며 마음속언약을 다짐하였다.

그런데 바보로 소문난 곽지주의 아들놈이 그들의 사랑에 끼여들줄이야…

재산많은 집안에는 재앙이 따른다고 3대독자인 곽지주는 나이 마흔이 넘도록 자식이 없어 앙앙불락하였다. 금의옥식으로 몸이 비대해진 곽지주의 녀편네는 아이를 낳을가 하여 능하다는 의원들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깊은 산속의 절간에 들어가 백날불공도 드리며 소란을 피웠다. 그러다가 어느것이 효험을 보았는지 쉰고개에 올라서야 겨우 태기가 생기였다. 그렇게 힘들게 본 자식이 병신바보일줄이야. 제 애비를 닮아 두볼이 축 처진데다 배안의 언청이였으니 참으로 난사는 난사였다.

그래도 곽지주네 집에서는 아들을 낳았다고 대문간에 금줄을 띄운다, 고추를 달아맨다 하며 부산을 피웠다. 예로부터 집들마다 애기를 낳으면 대문앞에 금줄(새끼줄)을 늘여놓고 남자애인 경우에는 거기에 고추를 매달고 녀자애이면 솔잎을 매달아서 자식이 태여났다는것을 알리는것과 함께 뭇사람들의 출입을 삼가하게 하였던것이다.

곽지주는 아들의 병을 고칠가 하여 돈을 뿌리며 무당을 불러오기도 하고 좋다는 약은 다 구해다 써보았으나 언청이만은 어쩌는수가 없었다.

세월이 흘러 어지간히 사람꼴이 잡히자 언청이는 그래도 사내라고 나이가 차기 전부터 처녀들을 따라다니며 말을 건네고 치근거리군 하였다. 그리고 제 아비의 돈을 훔쳐내서는 흥청망청 마구 써버리기가 일쑤였다. 곽지주가 얼려도 보고 욕설도 하고 지어 매도 들어보았으나 소귀에 경읽기였다. 생각다못해 곽지주는 아들을 장가보내려고 부랴부랴 혼처자리를 물색하기 시작하였다. 병신자식이라 자기 동네나 이웃마을에서는 혼처가 나설리 없는 일이고 그러다보니 매파들에게 돈을 찔러주면서라도 주로 멀리 타지방의 처녀들을 물색하는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매파들마다가 헛물만 켜군 하니 이런 난사라구야. 제아무리 거짓말에 능수인 매파일지라도 배안의 병신인 신랑쟁이의 허물만은 감추어줄수가 없었던 모양인지 마땅한 처녀는커녕 밤중에 몰래 업어올만한 과부조차 나서지 않았다.

(에라, 나두 모르겠다. 이젠 될대루 되라지. …)

곽지주도 맥을 놓고 나앉은 어느날 종일 밖에 나가 돌아치던 언청이가 갑자기 방안으로 뛰여들며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아버지, 달래를 내 색시로 만들어줘.》

그 말에 곽지주의 녀편네는 큰변이 났다고 법석 떠들었다.

《아이구, 이놈의 집에 망조가 들긴 들었구나. 글쎄 처녀가 없어서 하필이면 제 집 머슴의 딸년을 며느리로 맞는단 말이냐!》

《흥, 그래두 난 달래가 좋은데 뭐…》

언청이는 손가락을 입에 문채 칭얼대기 시작하였다.

《아이구, 이런 변이라구야.》

곽지주의 녀편네는 큰일이 났다고 야단을 떠는데 타산밝은 곽지주는 머리속으로 수판알을 튕기기 시작했다.

(머슴의 딸년이면 어쨌단 말인가. 달래년을 데려다 제 어미대신 부엌일을 시키면 머슴 하나는 더는셈이요, 품삯줄 걱정도 없으니 이야말로 꿩먹구 알먹구 둥지털어 불때는 격이 아닌가. 시집온 며느리가 부엌일을 하는건 응당한 일이요, 며느리한테 품삯을 주는 시부모는 이 세상에 없는거구. 으흐흐…)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격이였다.

곽지주는 연신 히물거리며 입다물줄 모르더니 녀편네의 귀박죽에 대고 쑹얼거리였다.

《여보, 우리 아들이 정 바보는 아니란 말이요. 제 손으로 색시감을 고른걸 보면…》

곽지주의 말을 한참이나 듣고난 녀편네는 머리를 끄덕이면서도 불안스레 말하였다.

《글쎄 그렇긴한데 달래 그년이 말을 듣겠는지… 내 듣자니 그 년이 옆집 바우녀석과 자별한 사이여서 두 집간에 약조는 됐다던데, 요즘 바우애비가 앓아눕는 바람에 잔치마련을 못해 어쩌지 못하구 있는가 봅데다.》

녀편네의 말에 곽지주는 별걱정을 다한다는듯 큰소리로 말하였다.

《흥, 그게 무슨 상관이야. 머슴인 주제에 제가 감히 어데라고 반대를 해. 달래년을 우리가 제꺽 데려오면 그만아니야. 달래에미도 그닥 반대는 못할걸…》

이튿날 아침 곽지주는 달래 어머니를 불러들였다.

《달래 에미, 요즘 일이 힘들지 않나. 요즘 달래는 어떻게 지내나?》

여느때없이 살가운 곽지주의 태도에 달래 어머니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주인어른의 덕분에 그럭저럭 지냅니다.》

《이보라구, 내 자네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빚도 갚고 앞으로

살 길도 확 트일 방도가 하나있네. 내 말대로 하겠나?》
곽지주의 말에 달래 어머니는 영문을 알수 없어 멍하니 서있었다.
《다른게아니라 달래를 우리 며느리로 삼자고 하는데 어떤가? 이를테면 나와 사돈을 맺자 그 말이야. 그렇게만 되면야 달래 에미는 머슴신세에서 벗어나구 또 빚도 다 면제시켜줄테니 좀 좋은가? 달래는 달래대루 일생 먹구살 걱정은 하지 않아두 되겠으니 이거야말루 호박이 넝쿨채로 떨어졌다구 해야 할거네. …
이보라구, 오래 생각할것없이 올가을에 제꺽 잔치를 하자구. 잔치준비는 아예 걱정말게.》
상대방의 의향같은것은 안중에도 없이 제 주장만 내리먹이는 곽지주의 말에 달래 어머니는 황급히 두손을 내저었다.
《아…아니올시다. 우리 달래는 이미 옆집 바우와 약조가 되여있는데요.》
《그런 걱정은 말라구. 내 어련히 처리하지 않을라구…》
곽지주는 더 가타부타할것 없다는듯 안으로 씽하니 들어갔다.
달래 어머니는 너무도 억이 막혀 그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일어날념을 못하였다.
곽지주는 그길로 바우네 집에 찾아가 묵은 빚을 당장 갚지 않으면 바우를 멀리 팔아버리겠노라 엄포를 놓고 돌아섰다.
달래네는 물론 바우네 집도 초상난 집처럼 울고불고 야단이였다.
며칠후 정월대보름날이였다.
새해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맞는 대보름이라 누구나가 손꼽아 기다리던 명절날이였다. 아이들은 오래간만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생각에 손꼽아 기다렸고 어른들은 달맞이로 한해의 흉풍을 알고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날을 기다렸다. 아무리 가난한 집일지라도 이날만은 집집마다 갖가지 낟알을 섞어 오곡밥을 짓는다. 그것을 취나물이나 배추잎에 싸서 한웅큼씩 입에 넣는데 이것을 복쌈이라고 하였다.
이날 집집들에서 지은 오곡밥을 이웃들에 들고다니며 엇갈아 맛보는것도 정월대보름날의 풍습이였다. 그 덕에 달래나 바우네처럼

어쩔수 없는 사정으로 오곡밥을 짓지 못한 집들에서도 복쌈을 맛볼수 있었으니 이 얼마나 훌륭한 풍습인가.

이날에는 또 여러가지 묵은 나물로 9가지 반찬을 만들어먹기도 하고 아이들은 이불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벌써 잣이나 호두, 날밤과 같은 굳은 열매를 깨물면서 《부름깨기(부스럼깨기)》를 하였다. 그래야 한해동안 부스럼도 나지 않고 이발도 든든해진다는것이다. 이날 제일 불쌍한것은 집집의 멍멍개들이였다. 제아무리 목이 쉬도록 짖어도 주인을 보고 반갑다고 꼬리를 저어도 누구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해종일 굶기기만 하니 이런 난사가 어데 있으랴. 하지만 정월대보름날에 개에게 먹이를 주면 그해 여름에 파리가 많이 끼고 개가 여윈다는것이 예로부터 내려오는 관습이였으니 개들이 종일 출출 굶을수밖에 없었다. 오죽하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어지내는 사람을 두고 《개 보름쇠듯 한다.》는 말까지 생겼겠는가.

저녁무렵에는 성천강의 다리에서 다리밟이를 하였다.

젊은이들은 한바탕 웃음소리를 남기고 성천강쪽으로 향한다. 큼직한 통나무들로 세워진 성천강의 《만세교》는 드넓은 성천강을 가로질러간것으로 하여 여기 함흥일대에서는 가장 큰 다리였다. 해마다 정월대보름이면 함흥은 물론 멀리 정평, 신흥에서까지 다리밟이를 위해 새벽조반을 설치고 줄창 걸어오는 사람들로 길이 미여질 정도였다. 다리어구에서부터 사람들로 꽉 차있어 발디딜 짬도 없었다.

어른들사이로 엿이며 강정따위를 손에 든 조무래기들이 콩당콩당 뛰여다니며 분주탕을 피웠다. 그러다가 어른들의 발치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저들끼리 부딪쳐 머리받기도 했다. 그래도 누구하나 탓하는 사람도 없다. 마냥 싱글벙글 웃으며 《에끼, 이녀석, 눈은 어따 건사하고 이 모양이냐?》 하며 궁뎅이를 철썩 칠따름이다. 강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고 또 건너오는 사람들의 행렬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늘어만 간다.

그도그럴것이 이날에 다리밟이를 하면 1년내내 다리병을 앓지 않는데 이날 12개의 다리를 밟거나 한개의 다리라도 열두번 건느

면 1년 12달의 모든 재난을 다 막아낸다고 하니 정월대보름날의 성천강다리가 어찌 조용할수 있으랴.

성천강다리밟이를 할 때 함주평야를 등지고 고을쪽을 향해 돌아오면서 동흥산중턱에 우뚝 솟은 구천각이며 다리어구에 처마가 건듯 들린 락민루를 바라보면 그 운치가 더욱 장쾌하였다.

날이 채 어둡기 전에는 갖가지 색동옷이며 명절옷차림으로 단장한 아이들과 로인들로 붐비던 성천강다리가 자정을 가까이하면서부터는 쌍쌍이 짝을 지은 젊은이들의 세상으로 되여버린다.

바우네는 붐비는 사람들속에 섞이여 다리를 건너가고 건너오면서 달구경에 여념이 없었다.

한편 달래는 마을사람들과 함께 달맞이하려 동흥산에 올랐다.

정월대보름날의 민속놀이에서 절정을 이루는것은 달맞이놀이였다. 정초의 첫 보름달을 먼저 보는 사람에게 제일 큰 행운이 차례진다고 하면서 앞을 다투어 높은 산으로 오르는 사람들로 오솔길은 인산인해를 이루군 한다. 특히 정월대보름날의 달맞이가 남녀로소모두의 관심과 인기를 끄는것은 이날의 달빛과 그 모양새, 달의 자리를 보고 한해의 농사작황을 예언한다는데서였다. 정월대보름날 달맞이에 마치 자기들의 명줄이 달려있기라도 한듯이.

마을사람들과 함께 산으로 오르는 달래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었다. 곽지주네 바보 언청이가 히물거리며 하던 말이 자꾸만 되살아났기때문이였다.

《달래, 너 이제 나한테 시집오게 될거야.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네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면 너희가 진 빚은 다 무효로 하구 네 엄마두 돌려보내겠다구 했어. 좋지? 히히히…》

처음 들을 땐 그저 바보이니 바보같은 말만 한다고 흘려들었는데 곰곰히 생각해보면 볼수록 여기에 무슨 오그랑수가 있는게 분명했다. 더구나 요사이 곽지주와 그 녀편네가 자기와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것이 오강뚜껑으로 물받아 마신것처럼 께름직했다. 차라리 곽지주네가 손쓸새없이 얼른 잔치를 치르고말았으면 좋으련만 바우네나 자기네 살림에 잔치는 고사하고 하루 한끼 죽물도 이어대기 어려운 형편이였다. 정월대보름

이라고 온 마을사람들이 명절분위기로 흥성이지만 달래만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수 없어 종일 집안에만 들어앉아있었다. 그런 달래를 분이 할머니가 달맞이에 데리고나온것이다. 이번 달맞이에서 자기의 소원을 말하면 혹시 성취되지 않을가 하는 막연한 기대도 없지 않았던것이다.

달맞이를 위해 산에 오른 사람들은 소나무가지들을 잘라 큼직한 달집을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달집은 달맞이가 다 끝난 다음 거기에 불을 놓고 그 주위를 돌아가며 춤추며 즐기군 하였다.

동쪽 하늘가에 쟁반같은 둥근달이 솟아오르자 마을의 제일 나이 많은 좌상로인부터 차례로 소원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올해에는 가물도 큰물도 나지 말구 오곡이 다 잘되게 풍년이 들게 해주시오.》

《우리 마을에 전염병이 돌지 않고 모두모두 무병장수하게 해주시우.》

《왜적들이 우리 마을에 쳐들어오는 일이 없게 잘 살펴주소서.》

소원을 말하는 사람마다가 하나같이 자기 집과 제 한몸보다도 마을과 이웃들의 건강과 행복에 대한 바람이였다.

이어 달래의 차례가 되였다.

《얘, 달래야, 어서 나와 소원을 말하거라. 좋은 신랑감을 만나 잔치를 하게 해달라구…》

달래는 달아오른 두볼을 감싸쥐고 어쩔바를 몰라했다. 옆에 섰던 분이 할머니가 달래를 이끌어 달집앞에 세워주었다.

달래는 저고리고름을 쥐고 만지작거리다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저… 바우오빠네 아버지병이 하루빨리 낫게 해주세요.…》

《에그… 마음씨곱기는 비단결 한가지라니. 그러지 말구 어서 바우를 새서방으로 맞게 해달라구 하려무나.… 참, 마침 바우도 왔구나. 어서 여기 나와 나란히 서게나.》

분이 할머니는 방금 등성이에 올라서는 바우를 띄여보고 달래옆에 나란히 세워주었다.

이때였다.

《나…나두 한마디 하…할래요.》 하는 소리와 함께 달집앞에 나서는것은 곽지주의 아들 언청이였다.

《아니? 저녀석이?!…》

모두들 눈이 둥그래 서있는데 언청이는 무작정 큰소리로 말하는것이였다.

《난 오…올해에 달래를 내 새…색시로 하…할테요. 꼭 그… 그렇게 하구야말겠소. ―》

너무도 뜻밖에 일어난 일이라 모두들 아연해 서있는데 어데선가 드센 주먹이 언청이에게 날아들었다. 바우였다.

《야 이놈아, 다시한번 말해봐라. 달래를 어쩌구어째?!》

《아가가… 왜…왜 그래? 아… 알지두 못하면서… 다…달래 어미하구는 이미 야…약조가 됐단 말이야. 엉엉…》

《아니 뭐? 우리 어머니가? 그럴수 없어요. 절대로 그럴수 없단 말이예요. 아―》

달래는 이렇게 한마디 뇌이고는 그자리에 쓰러지고말았다.

《달래, 이게 무슨 일이요. 어서 정신을 차리요. 이 바우가 있는 한 달래는 누구도 다치지 못해.》

《달래― 달래야―》

바우도 분이 할머니도 아니 온 마을사람들이 달래를 부르며 안타까이 소리쳤다.

이때 갑자기 검은 구름이 밀려오더니 하늘중천에 떠올랐던 보름달이 서서히 자취를 감추는것이였다. 그러자 대낮처럼 환하던 주위가 순간에 어둠속에 잠겨버렸다.

대보름날에 떠오른 달의 모양새며 빛갈, 그자리를 보고 올해의 날씨와 농사형편을 알아보려던 사람들의 기대는 일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고말았다. 모두들 사색이 되였다.

누군가가 맥풀린 어조로 말하였다.

《이젠 달집이라도 태워 주위를 밝혀야 하지 않을가요?》

그 말에 좌상로인이 머리를 저었다.

《달집을 태우다니?… 그럼 오늘 대보름달맞이를 이것으로 마치자는건가? 그건 안되네.

바우와 달래를 달집앞에 나란히 세우고 이들의 소원을 말하기 전에는 절대로 달맞이를 끝낼수 없네.》

《아무렴, 그래야 하구말구.》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찬동해나섰다.

원래 정월대보름날 달맞이는 소원말하기를 다하고 달집을 태우면서 춤추고 노래부르는것으로 마무리하는것이 상례인데 바보 언청이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바우와 달래의 소원은 말도 해보지 못한것이였다.

좌상로인은 어둠속에 서있는 마을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였다.

《내 오늘 여러분네와 한가지 의논할 일이 있네. 다름이아니라 올해가을에 우리 마을이 달라붙어 바우와 달래의 잔치를 차려주자는걸세. 곽지주네가 다시는 엄두도 못내게 말일세.》

《그게 좋겠수다.》

얼마쯤 지나자 하늘중천이 희여스름하게 밝아지더니 구름속으로 사라졌던 보름달이 빠금히 머리를 내밀기 시작하였다. 달은 점차 둥글어지더니 계수나무아래에서 절구질하는 옥토끼의 자태까지 완연히 드러났다.

마을사람들은 의식을 차린 달래를 일으켜세워 바우와 나란히 달집앞에 세워주었다. 그리고는 약속이나 한듯이 모두가 입을 모아 한목소리로 말하였다.

《올해에는 바우와 달래가 잔치를 하고 검은 머리 파뿌리될 때까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오.》

달속의 옥토끼도 그 뜻을 알았다는듯 절구질을 더 힘차게 하는것 같았다.

《오늘의 보름달을 보니 올해에는 영낙없이 풍년이구만. 올가을에는 집집마다 낟가리를 듬뿍듬뿍 쌓아놓고 풍년잔치도 푸짐히 차리세.》

《좋수다. ―》

좌상로인의 말에 모두가 호응했다.

이어 좌상로인이 달집에 불을 놓았다.

마을사람들은 황황 타오르는 달집주위를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추기 시작하였다.

옥토끼야 옥토끼야
우리 소원 풀어주렴
가물장마 몰아내고
오곡풍년 안아다주렴

옥토끼야 옥토끼야
우리 소원 이뤄주렴
달래바우 부부되여
천년만년 살고지고

이들의 노래춤은 밤새도록 그칠줄 몰랐다.

이날 바우의 드센 주먹에 얼이 나간 언청이는 황황히 도망치다가 달이 구름속으로 사라지는 바람에 그만 벼랑턱에서 굴러내려 성천강에 빠져죽고말았다.

그후 곽지주와 그의 녀편네도 심화병으로 앓다가 죽고말았다.

이해 가을 마을사람들의 축복속에 가정을 이룬 바우와 달래는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살았다고 한다.

기와굽기풍습

전철호

리조 중엽 함경도 함흥부의 향교마을에서 있은 일이라고 한다.

고을의 향교가 자리를 잡았대서 향교마을이라 불리우는 동흥산기슭의 이 동네에 갈자리를 엮어 팔아 생계를 잇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홍달이라고 하는 40대의 사내인데 그가 엮은 갈자리는 질이 좋기로 소문나 사람들이 다투어 샀다.

하여 그는 부쳐먹는 땅도 없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초가집을 쓰고 살기는 해도 조반석죽은 하는 정도였다.

때는 봄철이라 농사군들이 이른새벽부터 밭으로 나가는데 홍달은 겨우내 그러했듯 아침밥술을 놓기 바쁘게 갈자리를 엮는 일에 달라붙었다.

그는 늘 갈자리를 엮을 때면 1년 12달을 차례로 노래하는 《동동》을 부르기 좋아했다.

안주인도 설겆이를 끝내고 들어와 홍달의 곁에서 갈자리를 엮어나갔다.

쪼갠 갈대를 틈이 없게 촘촘히 엮어나가는 이 일은 고되기 그지없었다.

허나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손을 놀리면 지루감도 덜하고 힘든줄을 몰랐다.

부부가 나란히 앉아 노래 《동동》을 거듭거듭 부르며 갈자리를 하나 엮어 말아놓고 또하나를 엮어나가려는데 갑자기 우지끈 딱— 하는 소리가 벼락치듯 들려왔다.

집이 통채로 무너져내리는듯한 요란한 소리에 부부는 와뜰 놀라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한참만에 그래도 사내인 홍달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일어섰다.

《이보라구, 마누라, 마른하늘에서 벼락친게 아니요?》
겨우 정신이 들었는지 안해는 몸을 떨며 겁먹은 소리로 대꾸했다.
《글쎄말이예요. 지동치는 소리갈기도 하고… 혹시 전란이 터진건 아닌지.》
《뭐, 전란? 그런 끔찍한 소린 하지두 마우.》
《에그, 집에서 큰소리만 치지 말고 어서 밖에 나가 알아보기나 하라구요.》
《하긴 그래.》
흥달은 두려운 생각이 없지 않았지만 대담하게 방문을 열고 토방에 나섰다.
밖에 나가놀던 여덟살난 외아들 복근이 뜨락에 들어서더니 다급히 소리쳤다.
《아버지! 부엌이 왜 저 모양이나?》
《부엌이 어쨌다구 그래?》
무심결에 부엌쪽으로 돌아선 흥달은 《아이쿠!》 하고 비명을 질렀다.
그 비명소리에 깜짝 놀란 안해가 황급히 방에서 뛰쳐나왔다.
부엌을 본 그도 비명을 질렀다.
부엌천정을 받들고있던 들보가 부러졌는지 부엌지붕이 반나마 무너져내린것이 아닌가.
《아이구, 이게 무슨 날벼락이람. 애고, 이 일을 어쩌면 좋수?》
안해는 발을 동동 구르며 아우성을 쳤다.
《그만큼 집을 다시 짓자 하였는데 끝내 말을 듣지 않더니 이런 변을 당했구려.》
흥달은 안해의 푸념소리에 할 말이 없었다.
아, 이제는 어쩌면 좋단 말인가.
흥달은 너무도 한심한 집꼴에 어찌할줄 몰라 한숨만 내쉬였다.
흥달이네 집 부엌들보가 부러지는 요란한 소리를 들었는지 마을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다.

처참하게 주저앉은 부엌지붕을 본 마을사람들은 자기 집이 무너진듯 가슴아파했다.
《자, 다들 달라붙어 복근이네를 도웁세!》
마을좌상의 분부에 사람들은 두팔을 걷어부치고 부엌지붕을 다시 일으켜세우는 일에 달라붙었다.
온 마을이 도와준 덕으로 흥달이네는 저녁무렵에 부엌지붕을 바로 잡을수 있었다.
그날밤 자리에 누운 흥달은 좀처럼 잠에 들수 없었다.
눈앞에는 무너져내렸던 부엌지붕의 처참한 광경에 이어 꼭 기와집을 지어서 대를 물려주라고 신신당부를 하던 림종시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태전 가을 어느날 병석에 누워있던 아버지는 자기의 림종을 예감했는지 온 식솔을 불러들였다.
온 식솔이라야 흥달이내외와 어린 복근이가 전부였다.
흥달은 아버지의 머리말에 꿇어앉아 눈물을 머금었다.
《아버님!…》
《오냐, 아범아, 내 말을 자자구구 잘 새겨두거라. 난 네 아비로서 자식에게 할바를 제대로 못했구나. 일찌기 어려서 부모를 다 잃고… 그래서 너무도 모르는게 많았다.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는 목숨을 준 은인일뿐아니라 세상을 알게 해준 첫 스승이라고 할수 있다. 부모는 사실 자식을 위해서 산다고 말할수 있거든.
이것이 인생리치임을 깨닫고보니… 어느새 백발이 되였구나.》
잠시 숨을 톺고나서 아버지는 더욱 힘들게 말했다.
《아범아, 너에게 당부할 말은…》 하던 아버지는 갑자기 목에서 가르릉 소리를 내며 눈을 감았다.
사람의 숨이 끊어질 때면 목에서 가래끓는 소리가 심하게 난다는 말을 들은적 있는 흥달은 안타까와 부르짖었다.
《아버님!》
《할아버지!—》

안해는 눈물을 머금고 시아버지의 손을 꼭 싸쥐였다.

감았던 눈을 힘겹게 뜬 아버지는 안깐힘을 다해 간신히 입을 열었다.

《다 찌그러진 소우리만도 못한 집을 그대로 물려주고 가는것이 가슴에… 가슴에 걸리는구나. 내 살아생전 혈혈단신으로… 간난신고하여 이런 오막살이같은 집밖에… 허나 지금은 조반석죽은 하게 되였으니 애써 노력하면 기와집을 지을수 있느니라.

아범아, 난 백부자네 집에서 네 어미와 함께 개만도 못하게 천대를 받고 업신을 당하던 지난날을 눈을 감아도 잊지 못한다. 너는 어떻게 하나 보란듯이 기와집을 지어서 대를 물려주거라. 량반부자들만 기와집에서 살라는 법은 없다. 백부자 같은 량반부자놈들이 배아파하게 꼭 그렇게 하거라.

그렇게 하면… 땅속에서 나도… 네 어미도 눈을 제…대로 감…감을수 있…》

온몸의 힘이 깡그리 잦아버렸는지 아버지는 마지막말을 채 마무리하지 못하고 눈을 뜬채로 절명하고말았다.

장례를 치르고난 흥달은 어이하여 아버지가 림종의 시각에 그리도 안깐힘을 모아가면서 기와집을 지으라는 긴 유언을 남겼는지 그 뜻을 새겨보았다.

아버지는 자기가 태여난 고향도 정확한 나이도 알지 못했다.

살길을 찾아 북행길에 오른 부모들의 등에 업혀 가던중 로상에서 병을 만나 량친을 다 잃고 한지에서 울고있는 아버지를 지나가던 나그네가 안아다 키워주었는데 그 집 어른들마저 몇해후에 열병으로 잘못되였다고 한다.

그래서 아버지는 처음에는 이집 저집 찾아다니며 밥을 빌다가 좀 더 커서는 품을 팔아 입에 풀칠을 하였다.

그후 발길닿는대로 함흥땅으로 들어온 아버지는 나무장사를 하였는데 바로 향교마을 백부자네 집에서 종살이를 하던 처녀와 알게 되였고 그와 정을 나누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백부자는 고된 일로 잔뼈가 굳어 그 어떤 일이든 막힘없는 아버지를 탐내였다.

백부자는 아버지에게 자기 집에 들어와 5년을 일해주면 기와집도 한채 마련해주고 종살이를 면하게 해줄테니 그 처녀와 살라고 하였다.

그 처녀와 함께 살수만 있다면 무엇을 마다하랴.

아버지는 너무 기뻐 백부자의 요구를 달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어야 하는지는 그때 아버지로서는 생각도 못하였다.

백부자네 집에서의 고역살이란 이루 말할수 없었다.

아버지는 날마다 꼭두새벽에 일어나 소여물을 끓이는 일부터 시작하여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는데 혼자서 여섯마지기의 밭을 말아 농사를 지으면서 또 백부자네 집의 땔감을 몽땅 감당해야 하였다.

어느 하루도 지어는 설날에조차 아버지는 쉴수 없었다.

그렇게 다섯해를 죽도록 일해주었으나 백부자는 수판을 튕기더니 다섯해기간 번 돈은 얼마인데 그동안 먹고 입은게 얼마이고 종살이처녀가 빚진 돈이 아직 얼마가 남았으니 몇해 더 일해야겠다고 을러멨다.

억울하였지만 아버지는 울며 겨자먹기로 또 3년을 허리가 휘도록 일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아버지가 죽을 기를 쓰고 몇해 더 일해준 대가로 백부자가 내준것은 기와집은커녕 낡은 헛간을 헐어낸 재목아닌 재목뿐이였다.

백부자는 또다시 수판을 튕기고나서 아버지가 번 돈으로는 처녀가 진 빚돈도 안된다고 그나마 재목을 받은게 과남한줄 알라고 호통쳤다.

아버지는 울분을 참을수밖에 없었다. 그리도 바라던 처녀와 함께 살수 있게 되여서보다 골병이 들어서 몸을 제대로 운신할수 없는 처녀를 놓고 백부자와 시비를 가를수 없어서였다.

백부자네 집을 등지고나온 아버지는 향교마을의 한쪽 가녁에 집터를 잡았다. 동네사람들이 모여와서 그 재목으로 부엌과 단칸방의 이 집을 지어 새살림을 시작하게 하였다.

지옥같은 백부자네 집에서 고역살이에 골병이 든 어머니는 흥달을 낳은지 몇해만에 한많은 세상을 원망하며 숨을 거두었다.

흥달이 어머니는 숨을 거두면서 아버지에게 자기가 진 빚때문에 백부자집에서 억울하게 고역살이를 했다고, 기와집만 아니였어도 골병들어 잘못되지는 않았을것이라는 말을 남기였다.

어려서 어머니를 잃은 흥달이는 홀아버지의 손에서 자랐다.

못 하나 박을 땅쪼각도 없는 아버지는 어린 자식을 먹여살려야 한다는 그 한생각으로 닥치는대로 품을 팔았다.

어데서 누구한테 배웠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버지는 흥달이 여덟살나던 해부터 갈자리를 엮어 팔기 시작했다.

흥달이도 아버지를 도와 갈자리를 엮었다.

점차 흥달이네 갈자리는 질이 좋기로 알려져서 죽물신세를 면할수 있었다.

그때는 벌써 아버지의 머리에 흰서리가 하얗게 내리였다.

아버지는 백부자네 집의 고역살이로 골병들어 죽은 어머니를 가슴아프게 추억하면서 기와집이란 말을 자주 뇌이군 하였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얼굴은 무섭게 이그러지고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백부자 그놈은 기와집을 미끼로 해서 여러해동안 날 마소처럼 부렸어. 네 어미도 골병이 들어 더는 쓸모가 없다고 여겨서야 내보내고. 아, 기와집때문에 백부자한테 속은걸 생각하면 이가 갈린다.》라고 말할 때마다 아버지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군하였다.

오죽 기와집이 가슴에 맺혔으면 백부자같은 량반부자들이 배아파하게 기와집을 지으라는 유언을 남겼겠는가.

아마 아버지는 10년만 젊었더라면 기와집을 짓는 일을 벌려놓았을것이다.

기둥이며 들보들이 다 고삭고 썩어버린 이 집의 곁에다 번듯한 기와집을 일떠세우는것은 아버지의 원한서린 마음을 풀어드리는 일이자 자식을 위한 일이기도 하였다.

집이야말로 한 당대만이 아닌 자손대대로 물려지는 재산이니 부

모라면 누구나 좋은 집을 마련하려 전심하는것이다.
안해도 시아버지의 유언을 지켜드리자고 집짓는 일에 발벗고 나섰다.
허나 막상 집짓는 일을 벌려놓으니 고양이가 소대가리를 맡은듯 너무도 아름찼다.
처음에 흥달은 소뿔은 단김에 뽑으랬다고 이웃집의 소달구지를 빌려가지고 동흥산너머의 오봉산으로 들어갔다.
오봉산에는 집기둥으로 딱 좋은 아름드리나무들이 울창했다.
혼자 부지런히 집기둥할 목재 한달구지를 해오는데 보름나마 걸렸다.
그러니 집을 한채 짓는데 소용되는 목재를 해오는데만도 숱한 품을 바쳐야 했다.
그보다 더 골치거리는 기와였다.
재목감은 그래도 제힘으로 찍어오면 되지만 기와만은 돈으로 사야 했다.
지붕을 씌우자면 무려 몇천장의 기와가 드는데 그걸 다 사자면 엄청난 돈이 있어야 했다.
기와집을 짓는다며 달라붙은지 몇달만에 흥달은 두손을 들고 나앉았다.
생활이 넉넉치 못한 처지에서 기와집을 지으려다가는 굶어죽을수 있었다.
아, 이래서 생각과 행동이 다르다고 하는거로구나.
기와집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였다. …
잠자리에 누운 흥달이 몸을 이리 뒤치락 저리 뒤치락하며 괴로와하는데 안해가 근심조로 물었다.
《복근이 아버지! 아직도 자지 않수?》
《아, 왜 그런지 잠이 통 오질 않는구만.》
《하긴 그렇겠지요. 이 집이 언제 무너질줄도 모르는데 속수무책이니…》
흥달은 그 말에 맥이 빠져 구들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였다. …
봄이 가고 여름도 지나 추석날이 왔다.

남들축에 빠질세라 성의껏 음식을 차려가지고 아버지의 묘에 이른 홍달의 마음은 무겁기 그지없었다.

아버지의 산소를 마주하고보니 기와집이 떠오르면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아버님! 불효자 홍달, 아뢰지 않을수 없소이다. 기와집을 지어 복근이에게 물려주라고 하신 아버님의 당부를 지켜드리지 못하고있소이다.

벌을 내려주소이다.》

홍달의 곁에 꿇어앉은 안해가 머리를 기웃거렸다.

제를 마치고 산을 내리면서 안해는 홍달이에게 물었다.

《이보세요! 그러니 아직도 기와집을 꿈꾸고있다는거예요? 도대체 우리 힘으로 기와집을 지을수 있느냐 말이예요?》

홍달은 눈섭을 찌프리며 어성을 높였다.

《그럼 내가 잠시 물러섰더니 기와집을 줴버린줄 아나? 우리 부부가 다 쓰러지는 한이 있더래도 아버지의 유언을 지켜드려야 함은 마땅한 도리란 말이요. 난 복근이에게 기울어져가는 이 초가집을 그대로 물려준다면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할거요.》

그 말에 안해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구었다.

하기야 그렇지, 저런 한심한 초가집을 그대로 자식에게 물려준다면 부모로서 죄되는 일일것이다.

낯색이 온화해진 안해는 나직이 말했다.

《제 생각이 짧았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집 형편으로는 기와집을 짓는다는게 여간 힘에 부치지 않아요. 그러니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지요?》

《마누라! 궁냥이 있으면 털어놓게.》

홍달의 재촉에 주밋거리던 안해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나서 입을 열었다.

《내 생각엔 갈밭을 논으로 풀어 몇해 벼농사를 하면 지붕에 씌울 기와쯤은 장만할것 같애요.》

《뭐, 갈밭을 논으로 푼다구?》

잠시 고개를 숙인채 타산을 하던 홍달은 쓰거운 미소를 짓고

말았다.
마누라의 그 말에 억이 막혔기때문이였다.
그래, 갈밭이 어떤 재산인가.
사실 홍달이네 갈자리가 유명해진것은 갈농사에 그 비결이 있었다.
아무리 손재간을 부려 곱게 그리고 탐탁하게 엮은 갈자리일지라도 갈대가 가늘고 채 여물지 않은것이라면 꺾어지기 쉽고 한번 꺾어지면 부스러져버리는 까닭에 그런 갈자리는 인차 못쓰게 되고만다.
갈대를 굵고 잘 여문것으로 엮어야 들기름을 바른듯 갈자리가 연한 누른색의 윤기가 나서 방안이 환해지고 산뜻해보이는것은 물론 돗자리못지 않게 질겨 오래 쓸수 있다.
홍달이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재주는 갈자리를 탐탁하게 잘 엮는 솜씨와 함께 성천강에 펼쳐진 갈밭을 가꾸는 비결이였다.
아버지는 홍달이 어렸을 때부터 성천강에 데리고나가 이른봄에는 갈밭에 불을 놓아야 하고 웅뎅이도 메우며 갈이 설핀데는 더 심어도 주고 김은 또 어떻게 매야 하는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었다.
그리고 갈은 반드시 상강절기를 전후로 해서 베여들여야 한다는 요점을 일깨워주었다.
아버지가 배워준대로 아글타글 갈밭을 가꾸고 잘 여문 철에 갈을 베여들이니 갈대가 하나같이 실하고 단단하여 그것으로 엮은 갈자리는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사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버지가 피땀흘려 마련해준 그 귀중한 갈밭을 뒤집어엎고 논으로 풀다니…
억지로 논으로 풀다가는 큰 화를 당한다. 장마철이면 무섭게 물이 범람하는 성천강인데 갈밭에 푼 논은 당장 죽탕이 되고말게 아닌가.
그래서 아버지는 살아생전 갈밭에 논을 앉힐 생각은 하지도 않았을것이다.
홍달은 성이 나서 버럭 큰소리를 치고싶었으나 자기를 다잡고 차

근차근 일깨워주었다.
안해는 크게 실망하여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는 안해를 보며 속이 좋지 않아하던 홍달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하였다.
티끌모아 태산을 이룬다고 갈자리를 더 많이 엮어 팔면서 허리띠를 조이면 그 돈으로 기와를 살수 있지 않을가.
한꺼번에 기와를 다 사들일수는 없는것이고 하루에 기와 몇장값을 마련해서 한달에 백여장씩 사들이면 불과 몇해만에 넉근히 큰 기와집 한채를 씌울수 있을것이 아닌가.
홍달은 안해에게 자기 생각을 말하였다.
그 말을 들으면서 반신반의하던 안해의 얼굴이 마침내 환해졌다.
《그 궁냥이 그럴듯해요. 하루에 기와 몇장값만한 돈이야 마련하지 못하겠어요?》
그날부터 홍달이네는 푼전을 아껴가며 죽으로 끼니를 에웠고 밤에까지 갈자리를 엮었다.
며칠 지나 홍달이는 이것도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이 풀죽으로 때식을 굼때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것도 한두해이지 강산이 변하도록 생고생을 어떻게 사서 할수 있단 말인가.
옛적에 어떤 사람이 생일날 하루 잘 차려먹으려고 재물을 아끼다가 그전에 굶어죽었다는 소리도 있다.
아무래도 안되겠다. 무슨 변통이 있어야지…
홍달은 여러날째 머리를 쥐여짜며 기와장을 장만할 궁냥을 거듭했으나 신통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에라, 호랑이도 어떻게 생겼는지 보아야 그림을 그린다는데 도대체 기와를 어떻게 굽는것인지 구경이라도 하고 올가.
홍달은 아침일찍 기와점촌을 찾아갔다.
아늑한 골안에 자리잡은 기와점촌에서는 장공인들이 기와를 빚어 굽느라고 벅적이였다.
한켠에서는 산더미같이 파다놓은 흙을 이겨서는 기와틀에 넣

어 기와를 빚어내고 다른 한켠에서는 구운 기와를 기와가마에서 꺼내느라 장공인들이 땀을 흘리며 돌아갔다.

장공인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느라니 기와굽는 일이 뭐 별다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성천강기슭에 흔한 갈매흙을 파다가 기와모양으로 빚어말린걸 기와가마라고 하는 불아궁이에 넣었다가 꺼내면 그게 기와였다.

한나절동안 기와점촌을 오락가락하면서 기와굽는 일을 유심히 지켜보던 홍달은 불쑥 무릎을 쳤다.

까짓것 기와쟁이들처럼 집에서도 기와를 구워내면 안된다더냐. 세끼 때식을 끓이느라고 아궁에 불을 땔 때 그안에 기와 몇장을 넣고 구우면 그게 바로 꿩먹고 알먹고 둥지털어 불때는 격이 아닌가. 기껏해서 갈매흙이나 파다가 암기와와 수기와를 빚는 일밖에 품들게 없겠는데…

생각해볼수록 기와굽는 일은 자신있었다. 저 장공인들이 하는 일을 나라고 왜 할수 없단 말인가. 사람이 마음먹어서 못할 일이 있는가.

집으로 부지런히 돌아온 홍달은 먼저 암기와며 수기와를 빚는 나무틀부터 만들었다.

다음날 홍달은 어뜩새벽에 성천강으로 나가 맞춤한 흙을 파다가 기와 몇장을 빚어말렸다.

그리고 기와 한장을 아궁에서 구워냈다.

아궁에서 구워낸 기와를 살펴보니 거무스름한 색이나 댕댕 쇠소리가 나는것이나 기와점촌에서 구워낸 기와와 별로 차이가 없었다.

홍달은 집이 떠나갈듯 소리쳤다.

《마누라! 이젠 됐소. 돈 한푼 들이지 않고 기와를 마음대로 구워낼수 있단 말이요.》

안해도 너무 좋아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복근이를 꾹 껴안았다.

허나 홍달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다음날 아궁에서 구워낸 기와 몇장이 전부 설구워져서 기와로는

쓸수가 없었다.
  홍달은 기가 막혀 한숨만 내뿜었다.
  그러니 하루세끼 불을 때서는 기와 한장밖에 구워내지 못한단 말인가.
  한두해도 아니고 근 10년세월 날마다 기와 한장씩 꼭꼭 구워내는것은 여간 조련한 일이 아니다.
  이거야말로 쇠절구공이를 갈아 바늘을 만들었다는 격이 아닐수 없다.
  아니, 그보다 더 지루하고 품이 많이 드는 일이다.
  이것도 아니로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좋단 말인가.
  그날밤 홍달은 그 한생각으로 궁싯거리다가 겨우 잠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허연 수염을 가슴에 드리우고 하얀 바지저고리우에 흰 두루마기를 차려입은 백발로인이 우불구불한 지팽이를 쥐고 나타났다. 신선같았다.
  홍달은 너무 놀라 신선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신선이 먼저 말을 건넸다.
  《여봐라! 자네가 복근이란 아이의 아비인고?》
  《예, 그렇소이다.》
  《그렇다면 자식에게 기와집을 지어주겠다고나선 사람이 자네겠다? 그래 부엌아궁에서 기와를 굽는다는게 사실인고?》
  홍달은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대꾸했다.
  《그렇소이다. 허지만 하루에 기와 한장밖에 구워낼수 없으니 그것도 아닌것 같소이다.》
  신선은 엄한 기색을 지으며 물었다.
  《그럼 어찌할셈인고?》
  《글쎄올시다. 어떻게 해야 자식에게 기와집을 지어줄런지 소인으로서는 난감하기만 하오이다.》
  신선은 잠시 지팽이를 쥐고 오락가락하더니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10년 공든 탑이 무너지랴 하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자식을 키

우고 자식을 위한 일에서는 오랜 세월 품을 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하루가 모여 한달, 한해가 되고 10년이 된다.

자식을 위한 일에서는 하루와 한달, 한해를 뛰여넘어 세월을 짧게 하려 해서는 안된다. 하루하루를 매일같이 품을 넣고 정을 쏟을 때 그 자식은 비로소 사람의 체모를 갖추게 되여 제구실을 할수 있느니라.

날마다 한장한장의 기와를 자식을 위해 굽느라면 그 자식에게 쏠리는 정이 나날이 더해만지게 될것이요, 그와 함께 자식은 날마다 부모에 대한 효도의 마음이 움터자라니 집안에는 화목을, 나라에는 충정을 다할수 있게 된다.

세월은 류수와 같아서 10년일지라도 돌이켜보면 눈깜빡할 사이라 부디 하루를 길다 하지 말고 정을 쏟아 기와를 구워내라.

자식을 위해 십년공들인 집에서는 반드시 효자가 나는 법임을 명심할지어다.》

자식을 위해 십년공들인 집에서는 반드시 효자가 난다는 말에 홍달은 감격하여 고개를 쳐들었다.

신선은 구름을 타고 서서히 하늘로 올라가고있었다.

《신선님! 가지 마소이다!―》 하고 소리치며 이부자리를 차고 벌떡 일어난 홍달은 한동안 어리둥절하였다.

한참만에 홍달은 꿈이였음을 깨달았다.

꿈치고는 너무도 신통한 꿈이였다. 그의 귀가에는 방금 꿈속에서 찾아와 하루를 길다 하지 말고 정을 쏟아 기와를 구우라던 신선의 말이 쟁쟁했다.

《암, 옳구말구. 매일같이 품을 들여 기와를 굽는 일은 진정으로 자식을 위한 일이구말구.》

다음날부터 홍달이네 집 아궁에서는 기와 한장이 어김없이 구워져나왔다. 허나 비오나 눈오나 날마다 어김없이 기와 한장을 구워내는 일은 헐치 않았다.

홍달은 어렵고 괴로울 때마다 꿈속에 나타나 자식을 위해서는 십년공을 기울여야 한다고 한 신선의 말을 되새기며 힘을 냈다.

한편으로 홍달은 한해에 두번씩 오봉산에 들어가 재목감을 베들

였다. …
여러해가 흘러 복근이 18살이 되였다.
꽃피는 봄날에 향교마을의 홍달이네 집에 경사가 났다.
네귀 번듯하게 새로 지은 큰 기와집에서 미끈하게 잘 생긴 복근이 새색시를 맞아들이게 된것이였다.
온 동네가 모여들어 합각기와지붕을 한 고래등같은 큰 집에서 장가를 드는 복근이를 보며 몹시 부러워하였다.
부쳐먹는 땅 한뙈기도 없이 갈자리나 엮어 파는 가난한 홍달이네가 장가드는 아들자식에게 덩실한 기와집을 지어주다니…
그들은 복근이가 꽃처럼 고운 색시를 맞아들이는 잔치구경을 하면서 속으로 다짐했다.
홍달이네도 기와집을 지었는데 나라고 왜 그런 집을 못짓는단 말인가. 더우기 10년공들인 집에서는 반드시 효자가 난다는데…
마을사람들은 너도나도 홍달이네가 그러했던것처럼 아궁에서 기와를 구워내기 시작했다.
마을의 어느 집에서나 잘 구워진 기와들이 날마다 키돋움을 하며 높이높이 쌓아졌다. 겨우 밥술이나 드는 집들에서까지 마당에 검은빛의 암기와며 수기와무지들이 커가는 풍경은 참 볼만하였다.
이로써 함경도지방에서는 장가드는 아들자식들에게 기와집을 지어주려고 너도나도 떨쳐나 기와를 굽는 좋은 풍습이 생겨나게 되였다.
그야말로 자식들에게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더 잘 키우고 더 잘살게 해주려는 부모들의 뜨거운 정이 어려있는 아름다운 풍습이 아닐수 없다.

부부간의 정을 두터이 해준 김치깍두기

김복련

저 건너집 김첨지 두 량주가
아침을 먹을 때—
김치깍두기 맛 참 좋시다
김치깍두기 맛 참 좋시다
김치깍두기 맛 참 좋시다
만반진수 차려놓고 김치깍두기 없으면
아주 맛없네—

우리 인민 누구나가 좋아하며 즐겨찾는 김치깍두기, 진수성찬을 차려놓고도 먼저 찾는 먹음직스럽고도 군침이 슬슬 도는 김치깍두기와 관련한 수많은 이야기들중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도 전해지고있다.

먼 옛날 후치령기슭의 어느 한 마을에 김첨지농부내외가 살고있었다.

김첨지는 모르면서 아는체 하고 없어도 있는체 하면서 일하기 싫어하고 허세를 부리기 좋아하였다. 그러면서 늘 자기 우월감에 사로잡혀 남들이 자기를 존대해주기만 바랐다.

일생동안 첨지벼슬은커녕 벼슬감투꼭지 한번 다쳐보지 못한 그에게 첨지라는 과분한 이름이 붙어다니게 된데도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

언젠가 그의 안해 리씨가 토방에 앉아 새끼를 꼬는 남편에게 《김청지나으리, (청지는 그의 이름이였다.) 진지드시오이다.》고 하였다. 그 말에 김청지는 입이 귀밑까지 째져서 《어험—》 하더니 《거 같은 값이면 김첨지나으리라 부르구려. 귀맛이라도

좋게스리.》 라고 말하였다.

그의 안해가 《정 소원이라면 그렇게 불러봅시다요. 김첨지나으리—》 하며 허리까지 깊숙이 숙였다.

이 일이 한입 건너 두입 건너 퍼져나간것이 어느새 그에게는 《김첨지》라는 별명이 이름처럼 붙어다니게 되였던것이다.

김첨지와는 반대로 그의 안해 리씨는 부지런하고 입이 무겁고 듬직한데다 음식솜씨 또한 유명하였다.

특히 리씨가 담근 김치깍두기는 눈맛이 좋을뿐아니라 입맛 또한 독특하여 동네방네에서 일러주는 음식이였다.

다만 김첨지만이 깍두기에 새우젓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느니 파가 안들어가니 감칠맛이 적다는 등 밥 한술에 잔소리가 두세마디씩 뒤따르군 하였다.

게다가 마음고운 리씨가 이웃집들에 깍두기를 퍼다주는 눈치만 보이면 무슨 놈의 녀편네가 제것 아까운줄도 모르는가, 지어 마음 무던한 며느리 동네집 시아비 열둘이라더니 하며 트집잡기가 일쑤였다.

그뿐이면 다행이라 하겠다.

건달뱅이 김첨지는 하루종일 밭 두세이랑 뚜져놓고도 집에 들어와서는 어깨가 쑤시오, 허리가 아프오, 다리가 저리오 하면서 해종일 집안일로 팽이처럼 돌아가는 리씨에게 푸념질을 하였다.

리씨는 그때마다 군소리 한마디없이 두드려주고 주물러주고 찜질까지 해주었다.

하지만 김첨지는 안해가 하는 일에 늘쌍 불만을 가지고 대했고 쩍하면 트집잡기가 일쑤였다.

안해가 미처 손이 딸려서 터발김을 제때에 매지 못할라치면 하루종일 집안에서 뭘 하길래 터밭의 김이 저렇게 자라도록 손대지 않았는가, 하루세끼 때식이나 보장하는게 뭐가 그리 바빠 터밭일까지 내가 손대게 하는가, 이건 집안의 가장에 대한 태도와 관점이 덜돼먹은 때문이다, 그렇게나 집살림을 꾸릴테면 내 집에

서 당장 나가라고 을러메군 하였다.

그때마다 리씨는 농사일이 오죽 힘들면 남편이 저러랴싶어 모든 것을 묵묵히 참고 견디였다.

어느해 이른봄날이였다.

봄씨붙임준비로 집집마다에서 밭에 두엄을 내고 갈아엎느라 이른새벽부터 밭으로 나가건만 김첨지는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에야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뒤늦게야 산기슭밭에 올라 밭을 뚜지기 시작한 김첨지는 오전중에 겨우 밭 두어이랑을 갈아엎었다. 때는 벌써 정오를 가까이 하고있었다. 따스한 해빛은 골짜기사이로 스며들어 밭머리에 걸터앉은 김첨지의 눈에 가물가물 잠기운을 몰아오고있었다.

《어— 춘곤증이 몰리는가. —》

김첨지는 갓 돋기 시작한 풀밭에 드러누웠다. 봄꿈에 취해버린 김첨지는 안해가 점심밥을 이고나와 흔들어깨워서야 눈을 번쩍 떴다.

《무슨 녀편네가 조심성도 없이 남편의 곤한 잠을 깨우나. 방금 사돈령감과 마주앉아 술 한잔 나누자던 참인데… 거 참 아쉽다. …》

리씨는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한마디 하였다.

《여보, 봄사돈은 꿈에 보는것조차 두렵다고 했어요. 요즘처럼 바쁜 때에 술상이 다 뭐예요?》

그러면서도 리씨는 정성껏 담근 막걸리단지를 기울여 남편에게 대접하였다.

《어서 일어나 시원하게 한모금 드시라요.》

김첨지는 안해가 부어주는 막걸리사발을 단숨에 비우고는 밥 한 그릇을 게눈감추듯 해버렸다.

그리고는 안해가 집으로 내려가기 바쁘게 식곤증을 푼다며 다시금 풀밭에 큰대자로 드러누웠다. 코까지 드렁드렁 골며 한잠 자고나니 길지 않은 저녁해가 서산마루로 줄달음쳐가고있었다.

(에크, 벌써 이렇게 됐는가. 오늘 못다간 밭은 래일 마저 갈

아야지. 오늘만 날인가.)

김첨지가 부랴부랴 집에 돌아오니 안해는 베낳이에 여념이 없었다.

《여보, 해가 다 넘어갔는데 저녁지을 생각도 안하고 아직 그러구있으면 어쩔테요?》

김첨지는 큰 변이라도 난듯이 소리쳤다.

《이제 한자만 짜면 짜던 필을 마무리하겠기에… 조금만 기다리세요.》

리씨는 손발을 더 재게 놀리며 미안해하는 어조로 말했다.

《여보, 짜던 필이구 뭐구 끼니야 제때에 차려야 할게 아니요. 종일 밭에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두 모르겠소? 하긴 편안히 집안에 앉아있는 당신이 그런걸 알리가 없지. …》

김첨지의 지청구는 리씨가 베틀에서 일어나 저녁상을 차릴 때까지 그칠줄 몰랐다.

잠시후 저녁상에 마주앉은 김첨지의 입에서는 음식타발이 줄소나기로 쏟아져내렸다.

《여보, 종일 밭갈이하는 사람에게 하는 대접이 이게 다요? 그래 김치깍두기만 먹고 어떻게 일하라는거요. 내가 아무리 김치깍두기라면 오금을 못쓰는 사람일지라두 요즘같은 농사철에야 대접이 좀 달라져야지.

앞집 천석이네 집엘 좀 가보오. 해마다 봄철이면 콩을 한말씩이나 삶아서 황소한테 먹인단 말이요. 그래 내가 천석이네 황소보다 못하단 말이요? 엉?… 하루종일 집에서 뭘 하길래 이 모양인가 말이요?》

한동안 묵묵히 듣기만 하던 리씨는 참다못해 입을 열었다.

《당신은 말끝마다 제가 집에서 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데 물론 자질구레한 집안일이 농사일보다는 힘이 덜 드는건 사실이예요. 하지만 저라고 뭐 집에서 편안히 놀기만 하는줄 아세요?》

여느때없이 들이대는 안해의 항변에 김첨지는 가슴이 섬찍했다. 그러면서도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여보, 그럼 당신이 집에서 하는 일이 농사일 못지 않게 힘

이 든다는거요? 허 참, 소가 웃다 꾸레미 터질 노릇이지. …
여보, 당신이 정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디 한번 바꾸어 해보는게 어떻소?》
그 말에 리씨는 다소곳이 숙였던 머리를 쳐들었다.
《좋을대로 하자구요. 》
너무도 스스럼없는 안해의 대답에 김첨지의 두눈이 화등잔만 해졌다.
《여보, 그게 정말이요? 롱은 아니겠지?》
《뉘앒이라고 감히 롱을 하겠나요?》
《그래?… 하여튼 당신 그 생각 하나만은 정말 잘했소. 당신이 직접 제손으로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농사를 지어봐야 이 남편의 수고가 얼마나 큰가를 잘 알거란 말이요. 》
이렇게 말하고난 김첨지는 어딘가 미덥지 않은듯 머리를 기웃거리더니 이렇게 오금을 박았다.
《여보, 그런데 한가지 조건이 있소. 만일 당신이 밭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농사에 지장을 주면 그때엔 당신스스로가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걸 명심하오. 알겠소?》
《알겠어요. 저… 그런데 반대로 당신이 혹시…》
리씨가 미소를 머금고 하는 말에 김첨지는 두손을 내흔들었다.
《그런 걱정은 애당초 하지도 마오. 아무러면 내가 아낙네들이나 하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할가봐 걱정이요?》
《그래도 혹시… 알겠어요?》
《정 그렇다면 이렇게 합시다. 만일 내가 집안일을 제대로 못해서 끼니를 번진다든가 늦어지게 되면 그때엔 김치깍두기를 내가 직접 담그겠소. 》
이리하여 다음날부터 리씨는 농쟁기를 메고 밭으로 나갔고 김첨지는 집안일을 하게 되였다. 부지런하고 눈썰미있는 리씨는 첫새벽에 일어나 농쟁기를 메고 밭으로 나갔다. 물론 처음 해보는 일이라 그리 쉽지는 않았다.
그는 헛눈 한번 팔지 않고 쉴새도 없이 부지런히 일했다.

그렇게 애써 일한 덕에 저녁 어스름이 깃들무렵까지 하루갈이 밭을 다 끝냈다. 김첨지가 사흘이 걸려도 끝내지 못한 밭이였다.

리씨가 일을 끝내고 집마당에 들어서니 김첨지는 베틀앞에 엉거주춤하고 서있는것이였다.

그의 손에는 북바디가 쥐여져있는데 그속에서 빠져나온 실꾸리는 데굴데굴 굴러 마당 한가운데서 돌아가고있었다.

《여보, 그 실꾸리를 좀 집어다주오. 어찌된 판인지 실꾸리가 자꾸만 북바디속에서 빠져나와 이 모양이 아니요?》

리씨가 실꾸리를 집어들고 다가가니 김첨지는 북바디에 실꾸리를 꺼꾸로 끼워넣고있었다.

《주세요. 제가 마저 할테니…》

북바디를 받아쥔 리씨는 숙련된 솜씨로 짤깍짤깍 베를 짜기 시작하였다.

《허 참, 그놈의 북바디도 사람을 가려보는가?…

역시 베낳이는 남정들이 할 일이 못되는가보군. …》

그 말에 리씨가 싱그레 웃으며 말하였다.

《그럼 천은 제가 마저 짤테니 저녁이나 지으세요. 깍두기마저 어제까지 다 먹었으니 아마 새로 담그어야 할거예요.》

《그렇게 하지. … 아무러면 무우 써는 일도 못할라구?》

김첨지는 이렇게 대답하고는 부엌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얼마 안있어 부엌쪽에서 다급한 비명소리가 울리였다.

리씨가 다급히 나가보니 김첨지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손가락을 쳐들고 울상이 되여 서있었다.

무우를 썬다는게 그만 손가락을 다친것이였다.

리씨는 천쪼박으로 남편의 손을 처매주며 이렇게 말하였다.

《아이참, 칼질을 어떻게 했길래 이다지도…》

《허 참, 령감망신 고불통이 시킨다구 오늘은 코코마다 왜 이 모양인지 원…》

김첨지는 멋적은듯 이렇게 두덜거렸다. 창피할 땐 두덜거리는게 낫다는격이다.

《저녁은 내가 지을테니 들어가 좀 쉬세요. 대신 래일은 보리방

아를 찧어야겠어요. 그건 자신있겠지요?》
그제야 김첨지의 입이 헤벌쭉 벌어졌다.
《아무렴, 그야 두말하면 잔소리구말구. …》
이튿날도 리씨는 새벽에 일어나 밭으로 나갔다.
그러나 김첨지는 해가 중천에 떠올라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른건 몰라도 보리방아만은 자신있다고 생각한 김첨지였다.
방아간에 나가니 거기에는 겉보리 한자루와 채가 이미 준비되여 있었다.
알뜰하고 다심한 리씨의 솜씨였다.
김첨지는 단숨에 해제낄 심산으로 방아확이 넘쳐나게 보리를 쏟아넣었다. 그리고는 힘차게 발방아를 디디였다.
그런데 방아공이가 공중에 올라갔다가 내리꽂힐 때마다 보리알들은 방아확속에서 탕탕 튀여나오는것이였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한 김첨지는 보리알들이 튀여나올세라 조심조심 방아를 디디였다.
그랬더니 보리껍질이 벗겨지는것이 아니라 방아확속에서 요리조리 뱅글뱅글 돌아가며 숨박곡질을 하는것이였다. 마치 자기를 조롱하는것만 같았다.
(눈엔 익고 손엔 설다더니… 에라, 모르겠다. 될대로 되라지. …)
김첨지는 후끈단김에 방아를 힘껏 내디디였다.
방아를 디딜 때마다 방아공이는 공중에서 부르르— 떨다가는 아래로 떨어지군 하였다.
그러다가 그만에야 옆에 놓인 채바퀴를 툭 건드려놓았다.
그러자 채바퀴는 데그르르 굴러 방아확속으로 들어가는것이였다. 이제 방아다리만 놓으면 당장 채바퀴가 부러져나갈판이였다.
(아이쿠, 저걸 어쩌누?)
김첨지는 방아다리를 디딘채 놓지도 못하고 어쩔줄 몰라 쩔쩔매고있었다.
이제는 누구든지 들어와 채바퀴를 꺼내줄 때까지 기다리는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날따라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다.
방아공이를 쳐든채 안해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자니 이마에

서는 진땀이 빠질빠질 내돋았다.

이날처럼 김첨지가 안해를 애타게 기다려본적이 있은것 같지 않았다.

리씨는 하루일을 끝내고 다음날 씨뿌릴 준비까지 다 해놓고 오느라 어슬녘이 되여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멀리서 들려오는 귀익은 발자욱소리에 김첨지는 너무도 반가와 소리쳤다.

《여보— 당신이요? 어서 들어와서 날 좀 구원해주오.》

영문을 알리 없는 리씨는 어둑시근한 방아간에 들어서며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이 보리방아 찧느라 정말 수고많았어요.》

《수고구 뭐구 언제 그럴새가 없소. 빨리 채… 채바퀴나 꺼내주오. 이거야 어디 힘들어 견디겠소?》

그제야 영문을 알아차린 리씨는 얼른 옆에 놓인 짝지발이를 가져다 방아다리에 끼워주었다.

김첨지는 방아다리를 힘껏 디디고있던 발을 내려놓으며 큰 숨을 내쉬였다.

《어휴— 내 오늘 수명이 십년이나 감소된것 같소. 보리방아 찧기가 힘들다힘들다 해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다지 힘들줄은 정말 몰랐소.》

김첨지는 어찌나 혼쌀이 났던지 머리를 흔들며 진저리를 쳤다.

《아니? 언제는 보리방아는 문제없다고 하더니 왜 그러세요?》

《여보, 그런 말 마오. 내 두손 번쩍 들었소. 내 다시는 집안일이 쉽다는 말을 입밖에 내지 않을테니 당장 래일부터 본래대로 바꾸어 일하기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이제야 겨우 농사일에 재미를 붙일가 했는데 벌써 바꾸다니요?》

리씨의 말에 김첨지는 한풀 주눅이 든 목소리로 이렇게 사정하였다.

《제발 그러지 말구 날 좀 살려주오. 이대로 며칠만 더 있으면 난 아예 죽고말거요.》

《호호호… 정 그렇다면 좀 생각해보자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약속한…》

리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첨지가 앞질렀다.

《김치깍두기말이요? 그건 걱정마오. 내 이제부터는 김치깍두기면 김치깍두기, 터밭일이면 터밭일 뭐든지 다 할테니 제발 나한테 베낳이나 방아찧으라는 말만은 하지 말아주오. 내 오늘저녁 당장 김치깍두기를 담그겠소.》

난생 처음보는 김첨지의 태도에 리씨는 미소를 머금고 어정쩡하게 대답하였다.

《당신이 정 요구하신다면 할수 없지요 뭐.》

그날저녁이였다. 리씨는 베틀에 앉아 짜던 베를 마저 짜기 시작하였다.

김첨지는 무우를 썰었다.

짤깍짤깍…

깍둑깍둑…

밤대기를 가르며 들려오는 베틀소리와 칼도마소리는 이들 부부의 마음이런듯 가락맞게 울렸다.

김첨지는 버치에 무드기 쌓인 무우깍두기에 소금을 뿌리고 버무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저도모르게 이마살을 찌프렸다. 전날밤 칼질하다가 벤 상처자리에 소금이 닿으면서 쓰려나기 시작한것이다.

이것을 본 리씨가 황황히 베틀에서 일어났다.

《여보, 그만두세요. 당신 그 손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러세요?》

리씨는 팔을 걷어붙이고 썰어놓은 무우에 소금과 고추가루를 두고 지난해 김장때 남겨두었던 새우젓국물을 부어넣었다. 그리고 밭일을 하며 짬짬이 캐두었던 달래를 깨끗이 손질해서 함께 넣고 버무렸다.

깨끗이 씻어 물기를 말끔히 훔쳐낸 단지에 깍두기를 차곡차곡 눌러담는 안해를 이윽토록 바라보던 김첨지의 두눈이 갑자기 휘둥그래졌다.

《아니 여보, 당신 손이 왜 그 모양이 됐소. 온통 물집투성이

구만.》

김첨지는 안해의 손을 끌어다 펴보며 놀란듯 물었다.

《별일 없어요. 처음 해보는 일이다보니 물집이 좀 생겼을뿐인데…》

《처음 나한테 시집올 때만 해도 그렇게도 곱던 손이 이렇게 됐구만. 헌데 그 손으로 고추가루까지 만지다니…》

김첨지는 저도모르게 목이 꽉 메여올랐다. 손바닥이 이 지경이 되도록 일하고도 저녁에 들어와서는 또 집일은 집일대로 하자니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을가.

김첨지는 지금껏 자기가 하는 농사일만 힘들다고 하면서 집안의 온갖 잡다한 일에 부대끼는 안해의 수고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잔소리만 해온 자신이 참으로 민망스럽기 그지없었다.

그는 안해의 두손을 꽉 부여잡고 진심어린 목소리로 말하였다.

《여보, 내가 참 인정머리 없는 놈이였소. 나같은걸 남편이라고 믿고사는 당신이 참 불쌍하기 그지없소. 난… 사실 당신같은 녀자와 살 자격이 없는 놈이요.》

《아이참, 그런 말씀마세요. 사실은 제 잘못이 더 커요. 남편을 진심으로 위하고 받들어줄 대신 종일 밭일하고 들어온 사람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하는것으로 그치고 음식상에는 김치깍두기 한사발 뎅그라니 올려놓고도 제할바를 다했다고 생각했으니… 제가 정말 나쁜 녀자였어요.》

리씨는 남편의 큰 손안에 든 자그마한 제손을 뽑아 황황히 흔들며 말하였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주니 난 정말 더 바랄게 없소.

우리 이제부터 손잡고 남들이 보란듯이 깨가 쏟아지게 잘살아 보기요. 김치깍두기도 더 많이 담그어 이웃들과 나누어먹으면서 말이요.》

《그러자요.》

이들부부의 얼굴에는 행복의 웃음꽃이 활짝 피여났다.

김첨지부부가 다정히 마주앉아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며 담근 김치깍두기는 이전의 깍두기맛에 비할바가 아니였다. 빨갛게 고추물이 올라 보기만 해도 군침이 슬슬 도는데다 맵쌀하면서도 달짝지근하고 새큼하면서도 구수한 젓갈냄새와 사박사박 씹히여 혀바닥을 스치며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의 감칠맛은 혀가 넘어가는지 음식이 넘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였다.

이웃들에서는 저저마다 김첨지네 김치깍두기를 얻어가군 하였다.

어느새 김첨지네 집은 《김치깍두기집》으로 알려지게 되였고 깍두기맛의 비결을 배우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칠줄 몰랐다.

가정이 화목해야 만가지 일이 잘된다고 부부간의 의가 좋아지니 자식없던 집안에 연줄연줄 다섯이나 태여나 끌끌한 장부로 자라났고 김첨지부부도 무병장수하여 일흔을 넘기였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김첨지부부는 결혼 60년을 맞으며 회혼잔치상을 받게 되였다.

자식들이 부어주는 축배잔을 쭉 들이키고난 김첨지는 큰상 한가운데 놓여있는 김치깍두기를 한저가락 집어다가 입에 넣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제아무리 진수성찬일지라도 우리 마누라가 담근 김치깍두기가 제일이야. 아마 우리 내외가 오늘까지 무탈하게 살아온것두 다 이 김치깍두기덕인가 보네. 그렇지 않소? 마누라－》

그 말에 리씨는 쓸데없는 말을 한다는듯 고운 눈을 흘기며 새색시마냥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였다.

이때 허연 수염을 드리운 좌상로인이 좌중을 둘러보며 위엄있게 말하였다.

《아무렴, 김치깍두기덕이구말구. 예로부터 무우는 만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유용한 남새로 일러왔지. 그래서 겨울철에 무우 한섬만 먹으면 산삼 한뿌리 먹은것과 맞먹는다고 한거네.

하지만 제아무리 무우를 많이 먹고 김치깍두기를 떨구지 않는다할지라도 부부간의 의가 좋지 않으면 그 모든게 효력을 내지 못하거든.

자네들부부의 마음과 지혜를 합치고 화목을 이루게 해준 김치깍두기가 있었기에 오늘과 같이 자식부자도 되구 회혼잔치상까지 받게 된게 아닌가. 그렇지 않았으면 오늘까지 빈 방아공이나 쳐들고 있었을 자네가 아닌가? 허허허—》

그러자 둘러앉은 사람들모두가 한바탕 소리내여 웃었다.

《하하하—》

《허허허—》

이때로부터 김치깍두기는 량반관료들의 진수성찬에는 물론 임금님의 음식상에까지 오르는 함경도의 특산음식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토란닭고기국

전철호

고려의 도읍 개경에서 서쪽으로 30여리 가느라면 개성현의 고을이 자리잡은 풍류동마을이 나진다.

개성현 고을이 진산으로 삼은 석숭산의 깊은 골안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내물이 사시절 마를줄 모르고 마을을 감도는 풍치좋은 마을이여서 풍류동이라 부르는 이 마을에서 설씨성을 가진 사람이 의원노릇을 하고있었다.

어떤 연고로 해서인지 증조할아버지는 왕건태조대왕이 궁예를 뒤엎고 고려를 세운 그해에 의원이 되였고 그때로부터 4대째 의원으로 살아오는 설씨집에는 고금의 의서들이 가득하였고 의술도 괜찮아 아근의 백성들속에서 자못 신망이 있었다.

설씨의원은 어려서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의술은 인술이라는 가르치심을 머리에 새겨서 병자들을 살붙이처럼 여기고 온갖 지성을 기울이는 나날에 누구보다도 의술이 다듬어지고 높아지게 되였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웬만한 의원들이 다스릴수 있는 일체 잡병들은 제껴놓고 오직 한곬으로만 의술을 몰두하게 되였다.

설씨의원이 이렇게 된데는 골수에 사무친 사연이 있어서였다.

그는 나이 서른을 먹는 설날아침에 청천벽력같은 재난을 당했었다. 그렇게 존경하여마지않던 아버지가 머리에 가득한 의술을 아들에게 전수하기는커녕 유언조차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쓰러진것이였다.

아버지를 쓸어눕힌 병은 다름아닌 중풍이였다.

증조할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생일 60돐을 한해 앞두고 중풍에 잘못되였는데 그것이 설씨네의 어찌할수 없는 운명인듯 아버지도 그

들의 뒤를 이어 영영 가버렸다.

한생토록 남의 병을 수없이 고친 의원들이 제 병에는 너무도 무심하였다.

그날부터 설씨의원은 그 몹쓸 중풍병과의 싸움을 결심하였다.

그는 먼저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남긴 처방의 비술들부터 샅샅이 찾아보았다.

놀라웁게도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증조할아버지를 쓰러뜨린 그 병의 근원을 남몰래 따지며 고심한 흔적들이 여기저기에 씌여져있었다.

언제 어떤 중풍병자를 당하여 머리의 어떤 침혈들에 침을 놓았고 잔등부위의 어떤 침혈들에는 뜸을 놓았는데 효험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등의 기록도 있었다.

일명 졸증이라고도 불리우는 중풍은 사람들을 순식간에 정신을 잃고 넘어지게 한 다음 자기 부모처자조차 가려볼수 없게 하여 죽이거나 입과 눈을 삐뚤어지게 하고 말을 제대로 할수 없는 반신불수로 만든 다음 고통속에 죽어가게 하였다.

그런데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가 해놓은 일은 중풍이란 사람들이 바람을 맞아 생기는 병이라는것밖에는 별로 이렇다할 신통한 처방을 남겨놓지 못하였다.

하긴 이만큼이라도 밝혀놓은것이면 집을 지을 터전을 닦아놓은셈이라고 할수 있었다.

중풍과의 싸움은 빈터우에서 번듯한 집을 저 혼자 지어야 하는것처럼 힘겨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설씨의원은 기어이 이 병을 다스릴 처방을 찾자고 마을들을 찾아 떠났다. 그런데 알고보니 놀라웁게도 개경에 사는 늙은이들의 거의 전부가 중풍으로 넘어지고있는것이였다.

개경에는 숱한 의원들이 있지만 중풍에는 낯을 돌리지 않고 있었다.

설씨의원은 전국의 이름난 의원들을 찾아 안가본 곳이 없었다. 북으로는 서경이며 안변대도호부, 남으로는 전라도의 전주, 경상도의 경주에까지 말을 달렸었다.

이 나날에 설씨의원은 보다 큰것을 알게 되였다.

그것은 어느 의원도 찾아내지 못한것이였는데 개경은 다른 고을들과 달리 중풍으로 죽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한다는것이였다.

설씨의원은 관가의 도움까지 받아 개경에서 병으로 죽은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중풍은 개경땅의 고질적인 토질병으로서 나쁜 바람을 맞아 생긴다고 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견해가 옳았다는것을 확인하고보니 더더욱 어깨가 무거워졌다.

어떻게 하면 땅에서도 물에서도 바람에서도 나쁜 기운이 사람의 몸으로 들어올수 없도록 뜸법과 침구술을 완성할수 있을가.

설씨의원은 서경의 어떤 명의가 귀신처럼 중풍을 고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한달음에 달려갔다. 서경명의는 신선처럼 생긴 백발의 로인인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면서 설씨의원을 어떤 집으로 이끌었다.

병자는 그해에 생일 60돐을 쇤 로파인데 전날저녁 중풍으로 쓰러졌다는것이였다.

그 집 자식들은 명의의 옷자락에 매달려 제발 자기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애걸하였다.

명의는 한번 병자를 눈여겨보고는 품속에서 소뿔로 만든 약통을 꺼내들었다. 그는 약통에서 진한 향내가 풍기는 어떤 약을 눈곱자기만큼 털어내여 로파의 코에 불어넣었다.

이런 식으로 명의는 하루에 세번 약을 넣어주었는데 이틀만에 병자는 자리를 털고일어나 앉았다.

설씨의원의 기쁨은 이루 다 말할수 없었다. 이 약이야말로 죽어가는 사람까지 살려내는 불사약이라 할수 있다.

그런데 명의가 한숨을 내쉬며 하는 말이 이 약은 명약이라 할순 있으나 몹시 진귀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아닐수 없다는것이였다.

설씨의원이 놀라서 쳐다보자 명의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깊은 산속에 복작노루보다 작은 사향노루가 있는데 그놈은 어찌도 겁이 많은지 밤낮 굴속에 숨어있다가 아침과 저녁에만 기여나와 풀을 뜯어먹는다. 이때 힘들게 잡을수 있는데 그나마 네마리속에서 겨우 한마리만이 배꼽에 사향을 가진 수놈이다. 수놈 한마리에서 말리우면 보통 콩알만 해지는 사향을 얻을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중풍에 특효있는 명약이라는것이였다.

하늘처럼 믿고 찾아갔다가 먹는 약으로는 중풍을 고칠수 없다는 인식을 보다 굳히며 빈손으로 돌아오는 설씨의원의 마음은 천근인듯 무거웠다.

과연 중풍은 제 병을 알고 죽는 해소병과 같아서 그 자식들이 죽어가는 부모님들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조상만 해야 한단 말인가. 아니다. 그렇게는 할수 없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설씨의원은 선대들이 물려준 의술이자 지금껏 도달한 의술을 다 써보며 중풍에 걸린 병자들을 찾아다녔다.

병을 다스리는 술법에 있어서 제일가는 상수로서는 바깥세상과 오장륙부를 가르는 가죽의 침혈들을 뜨거운 불로 다스리는것이고 그다음가는 중간수로는 침으로 가죽밑의 살이나 뼈가까이의 살을 자극하는것이고 제일 낮은 수로는 입을 통해 약을 넣어주는 것이여서 일뜸, 이침, 삼약이라고 한다.

무정하게도 중풍에 걸린 병자들은 설씨의원의 다양하고 지극한 뜸술과 침구술을 모두 외면하고 숨을 거두었다.

설씨의원의 의술은 점점 사람들속에서 의심을 받기 시작하였고 동시에 신망마저 잃지 않으면 안되였다.

돈냥이나 있는 부자들은 설씨의원을 가리켜 얼치기뜸의원, 햇내기침의원이라고 야유까지 했다.

설씨의원의 가슴은 찢어지는듯 하였다.

이러한 때 안해가 던진 말은 참으로 많은걸 생각케 하였다.

지금처럼 살다가는 의원으로서의 이름은 고사하고 죽물신세도 면할수 없다, 당신은 어느 마을에 중풍에 걸린 병자가 있다면 앞뒤를 재지 않고 달려가군 하는데 무엇이 차례졌는가, 밤낮으로 병

자의 곁에서 뜸을 뜨고 침을 놓으며 공력을 바쳤건만 병자는 끝내 숨져버리고 동전 한잎 받아오지 못한다, 오죽 당신을 보기가 딱했으면 아들 향촌이가 붓대를 내던지고 건너마을 대정동의 백부자한테 구걸하여 논을 부치겠는가, 저 서우물마을의 림씨의원을 보라, 그 의원은 비단옷을 쭉 빼입고 퇴마루에 올방자를 틀고앉아 찾아오는 병자들을 보아주면서 톡톡히 값을 받아 덩실한 기와집을 짓고 아들, 딸 장가 시집 보낼 밑천도 다 장만해놓고서도 문전옥답을 몇마지기나 사들였다고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먹지를 못해 쉰살도 제대로 못사는 판에 하늘도 어쩔수 없다는 중풍을 붙안고 씨름을 해야 옳은가. 당신은 개경일판에서 손꼽히는 의원인데 중풍을 걷어치우고 림의원처럼 살면 단숨에 집안살림도 일떠세우고 이름도 날릴것이다. …

안해의 말은 너무도 사리에 딱 들어맞아서 무엇이라 꾸중을 할수 없었다.

설씨의원은 안해의 말을 따르자고 하니 마음에 걸렸고 그렇다고 그냥 중풍과의 싸움을 계속하자니 묘책이 떠오르지 않아 밤마다 이리 뒤치락 저리 뒤치락거리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잠에 들군 하였다.

그날도 설씨의원은 홰를 치는 수닭들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고 새벽잠에 들어있었다.

《여보, 일어나시오이다.》

설씨의원은 안해의 깨우는 소리에 짜증이 나서 누운채로 대꾸했다.

《제발이지 날 좀 건드리지 말아주오.》

《에그, 아이가 다쳤다고 의원을 청하러 왔소이다.》

《그게 사실이요? 진작 그말부터 했어야지.》

《뭐가 뭔지 모르겠소이다. 밤낮 이집 저집 뛰여다녀야 신이나 해뜨렸지.》

설씨의원은 안해의 푸념에 대척할 생각이 나지 않아서 급히 옷을 차려입고 대대로 물려오는 침통을 안은채 밖을 나섰다.

《의원님, 식전부터 미안하오이다.》

갓 상투를 틀은듯한 젊은 사내가 문가에서 굽석 허리를 숙이고 아뢰였다.

《어느 마을에서 왔소?》

《방골에서 왔소이다.》

《벽란나루가 있는 동네?》

《예. 동생이 방금 감나무에서 떨어져 다리를 상했소이다.》

설씨의원은 상한 다리를 안고 울고있을 아이의 정상이 눈에 선하여 부리나케 걸음을 다그쳤다.

그러다나니 다른 나라 배들이 붐비는 번화한 벽란나루의 광경을 볼새가 없었다.

설씨의원이 어느 한 초가집의 마당에 들어서자 검은 수염이 가슴을 덮은 장대한 로인이 《먼길을 오시라해서 미안하오이다.》라고 말하는것이였다.

로인은 윤기나는 수염만이 아니라 머리카락도 검고 시꺼먼 눈에서는 광채가 일고있었다.

설씨의원은 자신이 병자를 구원하러 온 의원임을 까맣게 잊고 홀린듯이 건장한 로인을 쳐다보았다.

이마에 깊이 패인 주름살이며 대나무마디처럼 생긴 굵은 손가락, 보다는 가슴을 덮은 수염을 보면 틀림없이 70을 훨씬 넘겼을 로인이다.

그런데 혈기가 왕성하여 씩씩한 기운이 막 넘쳐나보인다.

이 아근에도 이런 로인이 살고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내가 왜 진작 이런 로인을 몰랐을가. 중풍! 중풍! 하며 중풍병자를 찾아 발치만 내려다보고 뛰여다녀서인가 아니면 중풍을 다스릴 희한한 처방을 찾아 하늘만 쳐다보고 떠돌아다녀서인가.

설씨의원이 주위를 감감 잊고 머리를 기웃거리며 섰는데 로인이 그를 손잡아 집안으로 이끌었다. 안방에 들어서니 열살이 났을가 할 총각아이가 끙끙 신음소리를 내며 아래목에 누워있었다.

설씨의원은 급히 총각애의 다리를 훑어보았다.

안도의 숨이 나갔다. 생각과는 달리 뼈는 상하지 않았다.

나무에서 떨어지면서 무엇에 얻어맞았는지 정갱이부위가 퉁퉁 붓

고 멍이 들었다.
설씨의원은 능란한 솜씨로 잎침을 놓고 부항을 붙여 죽은피를 뽑아냈다.
《이제 며칠 눕게 하면 별일은 없겠소이다.》
설씨의원은 근심에 싸인 로인을 안심시키고나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고맙소이다. 이녀석이 어찌나 장난이 심한지 동트기 바쁘게 익은 감을 딴다고 감나무에 기여올랐댔지요.》
《사내라면 좀 벌차야 하지요. 그럼 전…》
설씨의원은 로인에 대한 의문을 풀고싶었으나 괜히 부담을 주고싶지 않아 침통을 찾아들고 일어섰다. 그러자 로인은 설씨의원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부엌에 대고 소리쳤다.
《뭣들 하고있느냐?》
《예, 들어가나이다.》
설씨의원은 로인의 청을 굳이 뿌리칠수가 없어서 그자리에 주저앉았다.
《별루 차린것이 없지만 많이 드소이다.》
총각애의 어머니인 녀인이 술상을 차려들고 들어서며 인사 하는 말이였다.
《폐를 끼치게 되였소이다.》
이런 말을 하며 숟갈을 들던 설씨의원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가난한 살림살이에 고기붙이는 없다 해도 음식은 하나같이 먹음직스러운 별식이였다.
국에는 밤톨만한 동글동글한것이 들어있었고 볶음도 처음 보는것이였고 분명 생채로 먹으라고 올린 푸른 잎도 아직은 먹어본적이 없는것이였다. 한숟갈 국을 떠먹어보니 구수한것이 꽤 먹을만 했고 밤톨만한 덩어리는 아리고 미끈미끈한것이 좀 별났다.
《로인님, 이건 무슨 남새들로 만든 반찬이오이까?》
설씨의원은 궁금해서 물었다.
《이건 다 토란으로 만든것이오이다.》

설씨의원은 부끄럽기만 하였다. 명색이 의원이란 사람이 다른 지방도 아니고 이웃마을에서 흔히 심는 토란도 모르고 살아오다니…

이 마을에 들어설 때 개울가에서 무슨 련잎같은것이 우거진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토란이라는것이였다.

《토란은 예로부터 심었다고 하오이다. 땅속에 닭알같은 덩어리들이 달린다 하여 토란이라고 하는데 땅이 질어 다른 곡식이나 남새가 안되는 개울옆에서 잘 자라지요. 한포기에서 보통 닭알만한 덩이들이 마흔알, 잘되면 쉰알까지 달리는 소출이 많은 남새여서 가난한 사람들이 즐겨먹지요.

국을 끓여먹기도 하고 볶아먹기도 하고 잎은 쌈을 싸먹기도 하는데 될수록이면 날것은 금해야 하오이다. 왜냐하면 아린 맛이 있는데다가 오줌이 잘 나가지 않으니까요. 내가 코흘릴적엔 다른 마을에서도 조금씩 심었는데 맛이 아리여서인지 요즘은 보기가 힘드오이다.》

상을 내가자 설씨의원은 로인에 대하여 새롭게 생각되는것이 있었다.

《로인님은 지금 춘추가 어떻게 되시였소이까?》

《여든한살이 되였소이다.》

설씨의원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이 개경일대에도 80고령의 로인이 있다는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로인님은 혹시 중풍이란 병을 아시오이까?》

《알다마다요. 이너머 묘골이나 저너머 매착골에서 나와 함께 뛰놀던 동갑이들은 벌써 오래전에 다 불귀의 몸이 되였소이다. 중풍이란 그 몹쓸 병으로 말이오이다.》

《집의 어르신들은 춘추가 얼마였소이까?》

《우리 증조부께서 여든다섯에 작고하시였고 조부님은 태조대왕을 따라 공주에서 견훤과 싸우다가 나이 스물에 돌아오지 못하시였고 아버님은 저 북쪽 변방의 전장에서 나이 서른에 잘못되시였소이다.》

《예… 저 이 마을에 로인님처럼 년세가 높으신분들이 또 계

시오이까?》

《있지요. 인동이도 있고 땅쇠, 강달이, 미긍이도 다 칠순을 넘겼소이다.

우리 로친넨 나보다 세살이 우인데 며칠전에 딸네 집에 갔지요.》

《그럼 이 마을엔 중풍으로 잘못된 사람이 없소이까?》

《왜 없겠소. 중풍으로 잘못된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그들은 하나같이 벽란도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들한텐 돈이 없었겠소, 재물이 없었겠소? 잘 먹고 잘 입고 한평생 호강을 했는데도 중풍은 사정이 없었소. 명의란 명의는 다 불러오고… 뜸봉이 타는 냄새가 집안을 진동하고 금침, 은침을 밤낮으로 맞았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혹시 그 사람들이 토란을 멀리하지 않았소이까?》

《그걸 어떻게 아시오? 하, 그 사람들이 고기도 맛없다던 부자들인데 아린 토란같은걸 먹겠다고 하겠소이까?

우리 마을은 원래 땅이 몹시 척박하고 그나마 일굴 땅이 얼마 없어 개울까지 쑤셔가며 토란을 심지 않으면 안되였지요.

토란은 사실 우리같이 째지게 가난한 사람들만 심어먹는 천한것이라지만 나한텐 이게 부자들의 고기음식보다 못한것 같지 않소이다.》

설씨의원은 눈앞이 탁 트이는것 같았다.

설씨의원 자기도 그렇고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일뜸, 이침, 삼약이라는 어길수 없는 그 술법에만 매달려 모든 병을 대해왔고 그런 의술로 중풍도 고쳐보려 시도했었다.

그런데로부터 침혈부위에 침을 놓고 뜸을 뜨는 그런 술법에만 몰두하였지 이 땅에서 절로 나는 풀들과 보다는 심어먹는 작물들에 전혀 낯을 돌리지 않았다.

그러니 개경땅에 토란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조차 없는것이였다.

이 로인이 중풍을 모르고 오래 살수 있은것은 그 어떤 조상의 덕도 아니고 하늘의 복도 아니며 바로 가난이 가져다준 이 토란을 늘

먹은데 있었다.

이제부터라도 종전의 의술에서 벗어나 침이나 뜸으로가 아니라 토란갈이 풍을 막는 초약에 토란종자까지 얻어가지고 돌아오는 설씨의원의 발걸음은 가볍기 그지없었다.

그는 짐을 벗어놓자 되돌아 집을 나섰다.

그는 한달동안 개경일판의 마을들을 밟아보며 늘 토란을 먹는 사람들이 또 있을가 하며 찾아보았다.

겨우 벽란나루가 있는 방골동네와 신통히도 비슷한 정주의 바다가 류정마을에서 70을 넘긴 로인들을 찾아낼수 있었다.

류정마을도 앞에는 바다고 동네 한가운데로는 시내물이 흐르는데 땅이 부족하여 사람들은 내가주위에 토란을 숲처럼 심고있었다.

결국 개경땅에 마을들이 많지만 맛으로가 아니라 주식이다싶이 토란을 심어먹는 마을은 이렇게 두손가락에 꼽는 정도였다.

토란은 중풍에서 사람들을 건져주는 불사약이 틀림없었다.

설씨의원은 겨우내 토란을 가지고 중풍에 걸린 병자들을 고쳐보려 달라붙었다.

그러나 이상스럽게도 이미 중풍에 걸린 사람들에겐 아무런 차도가 없었다.

이것 역시 놀라운 발견이 아닐수 없었다.

토란은 일시 쓰는 약재로가 아니라 늘쌍 먹는 음식으로서만 자기의 신기한 효험을 나타내는것이였다.

사람이 병없이 오래 살려면 병이 난 다음 손을 쓸것이 아니라 늘 오장륙부로 통하는 일을 홀시하지 말아야 한다.

내 나라의 산과 들, 강기슭에서 나는 갖가지 물산들로 조화롭게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다면 그 어떤 병도 얼마든지 막을수 있을것이다.

얼음이 풀리자 설씨의원은 아들 향촌이를 데리고 밤낮으로 동네앞의 개울을 따라 잡풀숲을 뒤엎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동네사람들도 머리를 기웃거렸다. 도대체 저 의원이 그 잘난 개울옆을 뚜져 무엇을 하자는것일가.

어느새 파릇파릇 새싹이 돋은 토란종자들은 우후죽순마냥 우줄우줄 자라 무성한 숲을 이루었다.

물자랑밖에 없던 풍류동의 경치는 련잎같은 멋진 잎을 추켜든 토란숲으로 하여 기이한 풍경을 이루었다.

가을이 되여 설씨의원은 아린 맛이 없이 맛나는 토란음식을 만들려 부엌에까지 드나들었다.

안해는 내심 기뻐하였다. 이제야 남편이 집살림에 돌아선 모양이다. 개울가에 우거진 토란이면 몇년을 먹어도 남을것이니 한밑천 뽑아낼수 있다.

어느날 저녁 안해는 마루에 토란된장국을 차려들고 나섰다.

《여보, 제 하나 알아맞추어 보라나이까?》

숟갈을 오르내리던 설씨의원은 여느때없이 곰살궂게 접어드는 안해가 이상하였지만 머리를 끄덕이였다.

《당신은 토란을 가지고 음식장사를 하자는것이지요?》

《그렇소.》

《그걸 왜 진작 말씀해주지 않으셨나이까? 난 웅심깊은 당신의 마음도 모르고… 이젠 됐나이다. 저 행길옆에 토란음식점을 차리면 개경과 벽란도로 오고가는 숱한 행인들을 불러들일것이니 우린 부자가 될수 있나이다.》

《부자가 된단 말이지. 여보! 난 쬐쬐하게 행길옆에서가 아니라 개경의 한복판에서 통이 크게 음식장살 하자는거요.》

《개경의 한복판에서요?》

안해의 입이 크게 벌어졌다.

《그렇소. 난 이미 집 한채를 빌려놓았소. 그런데 음식점을 열기로 약조한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지만 이렇다할 토란음식을 내놓지 못했으니 야단이 아니요?

이 토란된장국도 아린 맛은 여전하거든.》

《여보, 너무 념려치 마소이다. 제가 어떻게 하나 세상에 대고 소리칠 토란음식을 만들어내겠나이다.》

설씨의원은 허거픈 웃음이 나갔다.

《당신은 꼭 만들어내지 못할것이요.》

《그… 그건 어떻게 하시는 말씀이나이까?》
《날 오해마오. 당신은 내가 의원을 걷어치우고 제살궁리나 하자는줄 아는것 같은데 천만에! 당신 사방을 둘러보오. 그러면 한줌도 안되는 사람들이 떵떵 큰소릴치며 호의호식하는걸 볼것이요. 우리 마을 최부자나 리부자만 보오. 그들은 벽란도에서 장사하는 큰 장사군이라 그 집 개들도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소. 그러나 그렇게 잘살았대서 무엇이 남을것 같소? 사람의 목숨이 기껏 백년인데 어떻게 저만 위해 살겠소. 범은 죽어 가죽을 남긴다면 사람은 무엇을 남겨야 하겠소?
권세나 부리며 천금을 쌓아놓고 저만 위해 사는 사람은 나라에 백만 아니, 천만이 있단들 아무 소용이 없소. 오히려 짐이 될뿐이요.》
설씨의원의 의분에 찬 목소리는 들보를 드르릉 울리였다.
안해의 고개는 점점 더 수그러들었다.
《토란도 그렇소. 토란은 사람들을 그 몹쓸 병마로부터 막아주는 귀중한 남새요. 그런데 난 아직도 오늘뿐아니라 후세들한테 당당히 물려줄 맛나는 토란음식을 만들어내지 못하고있소. 아, 내 고향을 위하는 마음이 부족한가 보오.》
《여보, 제가 잘못했나이다.》
《알았으면 됐소. 밤도 깊었는데 이젠 들어가 쉬오.》
설씨의원에게는 이밤 귀뚜라미의 처량한 울음소리가 유정하게 들려왔다.
며칠이 지나갔다.
해가 중천에 떠올라 설씨의원이 토란숲을 돌아보고있는데 향촌이 달려와 어머니가 새로 만든 토란음식을 보아주었으면 한다는것이였다.
아직은 끼식전에 이런 일이 없었다. 분명 좋은 징조다.
설씨의원이 집에 들어서니 구수하고 달달한 음식내가 기분나게 풍기였다.
부엌문을 열자 하얀 앞치마를 두른 안해가 앞을 막고 마루로 이끄는것이였다.

《여기 좀 앉으시오이다. 세상에 닭고기를 싫다할 사람들은 없을거우다.》
《그건 또 무슨 생뚱같은 소리요?》
《제 말 좀 들어주소이다. 설날에 먹는 떡국에도 닭고기, 생일상에도 닭고기, 혼례식상에도 닭고기, 귀한 손님이 와도 닭고기, 앓고난 사람한테도 닭고기, 누구나 닭고길 즐겨하나이다.》
《여부가 있소? 집집마다 닭을 많이 치니 그런것이요.》
《그게 아니오이다. 우리 고려사람들이 본래 닭고기를 좋아하니 많이 치는것이지 저 압록강건너에 사는 사람들처럼 양고길 좋아한다면 양을 많이 기를것이오이다.》
《도대체 그게 토란과 무슨 인연이 있소?》
《인연이 있어도 크게 있소이다. 우리 고려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 닭고기에 토란을 섞어 국을 끓인다 이 말씀이나이다.》
《토란닭고기국? 여보, 그것 참 그럴듯하오.》
안해는 제꺽 토란닭고기국을 차려왔다.
설씨의원은 너무 별맛이여서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이 한그릇을 다 먹었다.
《여보, 이게 웬 조화요? 돼지고기에 넣고 끓였을 땐 아린맛이 여전했는데 닭고기엔 전혀 아리질 않으니… 참, 기막히구나.
좋아. 아주 좋아. 이 토란닭고기국이야말로 만사람들앞에 내놓아도 아무런 손색이 없을것 같소. 이만하면 손색이 없을 음식이 될것 같단 말이요.》
이날 설씨의원은 안해를 데리고 개경으로 갔다.
쟁반같은 달이 떠오른 날 밤이였다. 이밤만 지새면 추석이다.
이 추석날에 토란닭고기국집은 첫 대문을 열것이다.
하얀 앞치마를 두른 안해는 초불이 환한 넓은 방의 복판에 앉아 무엇인가를 생각하고있는 설씨의원의 곁에 가앉았다.
《여보! 한가지 알고싶은것이 있나이다.》
《어서 말하오.》
《어이하여 추석날에 꼭 음식점을 열려 하시나이까?》

설씨의원은 정통으로 자기의 마음을 헤쳐보려는 안해가 몹시 미더웠다.

《내 알려주자고 했댔소. 어이하여 추석날에 토란닭고기국을 우리 사람들에게 먹이려고 하는가? 그건 설날에 떡국을 먹듯이 추석날엔 반드시 토란닭고기국을 먹는 풍습을 만들고싶어서요. 토란은 추석을 앞두고 여물지. 그런즉 추석날음식에 이 좋은 토란음식을 어떻게 빼놓겠소? 자, 저 벽을 좀 보오.》

안해는 설씨의원이 가리키는 손길을 따라 눈길을 돌렸다.

세면의 벽에 길높은 병풍을 차렸는데 다른 음식점들처럼 산수수려한 경치가 아니라 토란을 어떻게 심고 가꾸는가, 토란닭고기국은 어떻게 끓이는가, 토란이 사람의 몸에 어떻게 좋은가, 특히는 중풍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사는 방골동네와 류정마을 로인들의 비결을 그림과 함께 글로 상세히 적어놓았다.

다음날 토란닭고기국집이 문을 열자 사람들이 호기심을 안고 찾아들었다.

그들은 토란닭고기국을 달게 먹으면서 중풍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려 애쓴 설씨집의 수고에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일약 토란닭고기국은 개경의 손꼽히는 음식이라 소문이 났다.

맛도 좋고 무서운 병마도 다스리는 토란닭고기국을 먹으려 사람들이 줄을 섰다.

이로써 설씨의원은 사람들의 귀중한 목숨을 앗아가던 중풍과의 싸움에서 이긴것이였다.

설씨의원이 토란닭고기국집을 연 그 이듬해부터 개경일판에 토란심는 바람이 불었다.

곳곳에 련잎같은 큰잎을 추켜든 시내가의 경치는 참으로 볼만 했다.

세월은 흘러 설씨의원의 머리에도 흰서리가 내리였지만 그는 자기가 찾은 비방의 혜택으로 오래 살면서 사람들의 병치료에 좋은 일화를 많이 남기였다.

그가 세상을 떠났지만 토란닭고기국은 여전히 개경의 으뜸가는 음식의 하나였고 추석날에는 이런 인사말까지 생겨나게 되

였다.

이날에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만나면 《자네 토란닭고기국을 먹었나?》, 아래사람이 웃사람에게 《토란닭고기국을 자셨소이까?》 하고 묻는데 만일 상대가 먹지 못했다고 대답을 하면 그의 팔을 잡아 제 집으로 이끈다.

하여 추석날의 토란닭고기국은 동지날의 팥죽처럼 서로서로 권하는 이름난 음식으로 된것이였다.

설씨의원이 살았던 때로부터 참으로 오랜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오늘도 개성의 개울가들에서는 시퍼런 큰잎을 추켜든 희한한 토란숲을 볼수 있고 사람들은 추석같은 명절날이나 생일날이면 토란닭고기국을 즐겨 먹는데 다른 지방에서 온 손님들에게는 반드시 토란닭고기국을 대접하는 좋은 풍습이 그대로 이어지고있다.

행복한 밤이야기

리 빈

노치는 평양지방의 특산음식으로 전국에 소문이 짜하다. 지금도 평양에서는 추석때 특식으로 노치를 만들어 먹는다.

노치가 어떻게 태여났는지 평양의 어느 한 마을에서 있은 이야기를 아래에 서술하는것으로 전하려 한다.

부들이는 근심에 싸였다.

(그이가 왜 이마를 찌프렸을가? 무슨 언짢은 일이라도?…)

오늘 점심무렵이였다.

새서방일행이 들어오고 전안례에 이어 초례석의 교배가 벌어질적에는 어리벙벙하여 정신을 차릴수 없었던 부들이였지만 새서방이 방으로 들어와 큰상을 받을 때는 비로소 그의 얼굴을 살펴볼 기회를 가졌다.

설레이는 마음을 애써 눅잦히며 한평생 고락을 같이할 자기 새서방을 처음으로 뚜렷이 한눈에 담는 순간 놀랍게도 그의 시원한 이마에 푹 패이는 주름살을 보았던것이다.

물론 그 주름살은 곧 사라졌지만 그것이 첫날 새색시의 마음속에 남긴 흔적은 좀처럼 없어질줄 몰랐다.

왜 그랬을가? 혹시 내가 마음에 없어서가 아닌지. 그이도 오늘에야 비로소 내 얼굴을 보지 않았는가.… 아니면 누가 그이에게 기분나쁜 소리라도 했나?…

결혼첫날 새색시의 신경은 바늘끝같거늘 다른 누구도 아닌 새서방이 상을 받자마자 낯을 찡그린 사실은 결코 심상히 스칠 일이 아닌것이다.

왜 그랬느냐고 묻고싶어 안이 달았으나 새서방이 어려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속이 상하였다.

한 보름이 지나갔다.

그사이 밤마다 한자리에 함께 들고 매일 밥을 차려주며 여러가지 시중을 들다보니 어느덧 차츰 긴장이 풀리고 점점 허물이 없어지면서 부부정이 살틀히도 자랄즈음이였다.

그때는 장가든 새서방이 처가에서 한동안 살다가 본가로 돌아오는 풍습이 있었다.

오늘은 새서방의 생일이다.

시집에서 시부모들이 쌀 한말, 닭 한마리 그리고 오지술병을 들고 찾아왔다.

부들이는 친정어머니를 도와 첫날 새서방상 못지 않은 생일상을 정성껏 차려놓았다.

그런데 상을 받는 새서방이 또 낯을 찌프리는것이 아닌가.

(?!)

부들이는 놀랐다. 먼저번과 꼭같은 현상이였지만 거듭 되고보니 더욱 불안하였다.

그래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수가 없어 몇술 뜨는척 하고있을 때였다.

김치물을 찾자 얼른 일어나는 어머니를 따라 냉큼 밖으로 나온 부들이는 서둘러 걱정거리를 터놓았다. 어머니도 놀랐다.

《거참 이상하구나. 저를 위해 차린 상이니 좋아서라두 웃을대신 낯을 찌프려? 참 별나다. …》

《어머니, 왜 그랬을가요?》

《난들 알겠니? 아무튼 한번이면 몰라라 두번씩이나 거퍼 그러고보니 그냥 스칠노릇이 아니다. 이렇게 하자. 네가 서방한테 까닭을 물어봐라.》

《어마나, 내가 어떻게? 어머니가 좀…》

《야, 이 못난것아, 한평생 같이살 사람한테 뭘 못물어. 세상에 서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부부야. 그래 〈부부일체〉라고 하지 않니.》

《?…》

이날밤 한자리에 들었을 때였다.

《부부일체》라던 어머니의 말을 되새겨보며 부들이는 용기를 내여 물었다.

《저… 저 있잖아요. …》

단단히 마음먹고 입을 떼기는 하였으나 문득 전혀 뜻밖의 상서롭지 못한 대답을 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라 수월히 뒤말을 이을수가 없었다.

《왜?》

《저…》

《〈저, 저〉하다가 밤새겠소. 〈부부일체〉이니 어려워말고 말하오.》

《그럼, 저… 서방님이 첫날 큰상을 받았을 때랑 오늘 생일상을 받았을 때랑 왜 낯을 찡그렸어요? 뭐가 잘못된거라도…》

《뭐 내가 낯을 찡그려? 언제?》

《두번 다 상을 받았을 때 처음…》

《〈상을 받았을 때 처음〉? 모를소리.》

《정말이예요. 내가 공연한 소릴 할 까닭이 없지 않아요. 글쎄 꼭 사실대로 말해줘요. 〈부부일체〉라면서… 알아야 고칠게 아니예요.》

그러자 새서방은 이불을 활 열어젖히고 벌떡 일어나앉으며 짐짓 목소리를 높였다.

《도대체 뭘 고친단 말이요? 뭐가 잘못돼서?》

《상을 받으시자마자 서방님이 낯색을 달리하셨을 땐 무슨 불쾌한 일이 있는게 분명하지 않아요. 글쎄 난 정말 걱정이예요. 여느날 밥상도 아닌 잔치날 첫상, 오늘 생일상앞에서 그럴 땐 필경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기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래 그 까닭을 알고싶어 속을 쓰다가 끝내 어머니앞에 털어놓고야말았지요.》

《그래 어머니가 뭐라고 했소?》

《그냥 넘겨버릴 일이 아니라고, 그런건 오직 당사자만이 알수 있으니 너의 새서방한테 물으면 얼마든지 알게 될거라고 하셨어요.》

이때였다.

새서방이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던지 웨치듯 말했다.

《아, 그거. 이제야 알겠소!》

《뭐예요?》

《그건 두 상에 다 노치가 없어서였소. 그게 보이지 않으니 기분이 상하더구만.》

《예ㅡ 예? 노치라구요?》

《노치도 몰라? 거 찹쌀가루에 보리길금을 쳐서 조금 삭여 번철에 지져내는…》

《아, 그럼 노치단떡말이예요?》

《응.》

《어마나. 세상에 그게 뭐가 돼서 없다구 낯빛이 다 달라진단 말이예요. 글쎄 값진 음식들이 상을 채웠는데. 그건 아니예요.》

부들이는 잠시 마음을 다잡느라 숨을 들이킨 다음 성급히 뒤를 이었다.

《애매한 노치같은데 둘러대지 마세요. 노치가 알면 억울하다 성내겠어요. 말못할 딱한 사정이 있을수도 있지요 뭐. 그래도 숨기지 말고 다 말해주세요. 네? 어른들 말씀이 〈부부는 일체〉라던데 서로 숨기는게 있어서는 안되잖아요.》

《아ㅡ니, 정말이요. 내가 무슨 억심에 〈일체〉앞에서 없는 소릴 꾸며내겠소. 그밖에 다른 리유란 있을수 없소.

상을 받고 척 보니까 노치가 눈에 띄우지 않더군. 기분이 상하더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빠졌으니 그게 못마땅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 얼핏 이마살이 찌프러졌소. 참, 눈두 밝지. 얼핏 스쳐버리는 그런 변색을 다 눈치채구. 허, 허!》

《어마나, 세상에…》

《〈어마나 세상에〉가 아니요. 틀림없이 그렇게 됐다니까.》

《두번 다 상우에 노치가 없던것만은 사실이예요. 우리 고장에서는 잔치때나 생일때 노치는 셈에도 넣지 않는걸요. 그런걸 서방님은 그렇게도 좋아하신단 말이예요?》

《그저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요.》

《아ㅡ니 그럼…》

《내겐 노치 그이상 맛좋은 음식이 없소.》

《어마나, 세상에…》

《난 원래 속을 말끔 털어놓는 성미이기도 하지만 하물며 그대앞에 어찌 속에 없는 소릴 지어내겠소.》

《난 그 말을 믿어요. 하지만…》

《믿었으면 다지 뭐가 모자라 또 〈하지만〉이요. 〈하지만〉이?》

《…》

어째서인지 부들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부부는 제나름의 생각에 잠겨 말이 없었다. 먼산에서 부엉이가 근심스럽게 울었다. 그 소리가 불쾌했던지 토방구석의 검둥이가 투정질하듯 끙끙거렸다.

이윽하여 새서방은 할 말이 많아 오래 앉아있어야겠던지 부시를 쳐서 초에 불을 달았다.

부들이가 보건대 자기 서방이 이제 무슨 신중한 이야기를 꺼내려는듯만싶어 슬그머니 긴장되였다.

새서방은 기색이 자못 엄숙하여 《그대는 내가 노치 하나때문에 기분이 나빠졌다는 말을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는데, 물론 그럴수 있지. 사내대장부라는게 노치를 못먹어 그토록 기분이 상할것으로는 누구도 생각할수 없을테니까. 아무래도 내 신상에 있었던 일을 알려줘야겠소. 그러면 의문이 풀릴게요.

몇년전이였어. 그때 우리 나라 북방이 편안치 않았소. 오랑캐무리가 자주 변경을 범하여 우리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으니까. 조정에서는 놈들을 막기 위해 온 나라 여러곳에서 젊은이들을 군사로 뽑아 그리로 보냈는데 내가 그가운데 한사람으로 가게 되지 않았겠소.》라는 정황제시로부터 이야기를 펴나갔다.

나라의 북변까지는 보름나마 걸어가야 할 머나먼 길이고 북쪽으로 갈수록 산은 점점 더 험해지고 인가는 점점 줄어든다. 까닭에 길을 헛갈리기 쉽고 많은 경우 밥을 먹지 못한채 한지잠을 자야 했다.

이런 실정을 잘 알고있는 어머니는 마음놓지 못할 근심거리가 많았다. 그가운데서도 가장 큰것은 아들의 길량식마련이였다.

인가를 만난다면 주인이 밥도 주고 재워도 주겠지만 인가가 없는 무인지경에서 헤매이게 되는 경우 굶어서 한지잠을 자야 할 때가 얼마든지 있을수 있다.

먼길로 아들을 떠나보내는 어머니는 아들이 당할수 있는 이런 고생에 대해 예견하지 않을수 없는것이였다. 더우기 아들은 먹은것을 남들처럼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허약한 체질이 아닌가.

아들은 아들대로 자기에 대한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이 결코 조금도 식지 않을줄 알고있었지만 그렇다고 어머니의 근심을 보고만 있을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어머니에게 사람이란 어떻게든 다 살게 마련되여있다, 바로 그래서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치지 않는다는 속담까지 나오지 않았는가, 그러니 길량식을 두고 너무 근심하지 말라고, 그저 적당히 있는 음식을 가지고 떠나면 된다고 극력 안심시켰으나 그런 말에 위안을 받을 어머니가 아니였다.

어머니는 아들이 먼길에서 처하게 될 여러가지 경우를 다 헤아리며 곰곰히 생각해보았다.

길량식으로는 무거운 칼과 창 그리고 활과 함께 지고가기에 편리하게 자양분이 많아서 적게 먹고도 오래 견딜수 있으며 또 잘 변하지 않아 오래 두고 먹으며 맨땅에서 자거나 눈비속에서 먹어도 속이 편할 그런 음식이여야 한다. 이런 음식이 우리의 식생활가운데서 어느것이겠는가.

어머니는 알고있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꼽아가며 따져보았다. 떡같은것은 그것이 어떤 떡이든 대체로 잘 내려가지 않으며 특히 물없이 먹거나 몸이 차거울 때 먹으면 체하기 쉽다. 또한 오래 건사해두지 못하는 흠이 있다. 닦은 콩— 그것은 오래동안 건사하기 좋은 점은 있으나 자칫 잘못하면 속탈에 걸린다. 지짐따위들은 멀컹거리는데다가 하루 지나면 못쓰게 되고 강정은 부피만 크고… 아무리 내리훑고 올리훑어보아야 합당한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다고 물러설 어머니가 아니였다.

《없으면 새로 만들어내기라도 해야지!》

어머니의 결심은 굳었다. 자식을 위해서는 하늘의 별이라도 따

올 어머니의 마음이였다.

먼저 음식감마련에 달라붙었다. 살림이 가난하여 음식감장만이 헐치 않아 첫걸음부터 애를 써야 하였다.

종자닭을 팔아 밀과 기름을 사오고 이웃집에서 흰쌀을 몇되박 꾸어왔다. 동네사람들도 보고만 있지 않았다. 저마다 제집형편에 따라 보리길금이며 들깨, 참깨, 좁쌀 등을 조금씩 들고와서 주었다. 일손을 도와나서는 아낙네도 있었다.

망질, 절구질로 흰쌀, 좁쌀, 밀을 가루내여 시험삼아 이것저것 만들어보기 시작하였다.

아들이 닷새후에는 떠나야 하므로 어머니는 마음이 조급했으나 제나름으로 만들어놓은 음식들이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실망하지 않고 낮에 밤을 이어 끈질기게 애를 썼다.

아들은 관가에 자주 불려다니는 사이에 가지고 가야 할 칼이며 창, 활을 마련하느라 집에 붙어있을 사이가 없었지만 어쩌다가 집에 들리게 되면 어머니의 두손을 꽉 잡고 제발 그만두라고, 어머니의 고생덕에 제 고생을 던다면 그게 무슨 자식인가고 애절히 만류하였으나 그때마다 어머니는 《응, 그러자.》고 대답을 선선히 한 뒤 그가 나가기만 하면 부지런히 일손을 놀렸다.

보람없는 이틀이 지난 날 밤이였다.

오늘밤에 어머니는 이틀동안의 경험을 살려 물론 먹기 좋고 먹은 다음 소화가 잘 되도록 길금을 섞고 쌀가루에 밀가루를 조금 보태서 반죽을 되게 잘 이긴 다음 불에 구워낼 마음을 먹었다. 일손을 돕는 이웃집아낙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좋다고 했다.

어머니는 방웃목에 앉아 망질을 하고 이웃집아낙네는 어머니가 갈아서 넘겨주는 쌀가루를 버치에 담아 보리길금가루를 몇줌 섞은 뒤에 설설 끓는 물을 부어가며 골고루 버무렸다.

한동안 일손을 놀리던 아낙네는 무슨 생각이 떠올랐던지 《앞서서 몇가지 해본건 생반죽이여서 찌던 삶던 속이 설군 했었는데 이번엔 익반죽을 해서 불에 구울테니까 속이 잘 익기도 하고 딴딴해

질거예요.》 하고 신심있는 말을 하였다.

《고마우이.》

어머니는 진심으로 대답하였다. 그랬으면 오죽이나 좋으랴. …

힘써 망질을 하다가 이마에서 흐르는 땀을 씻으려고 고개를 들던 어머니는 반죽버치를 앞에 놓은채 끄덕끄덕 졸고있는 이웃아낙네에게 눈길이 갔다. 어머니는 미안하였다.

그래서 이웃아낙네에게 《우리 잠간 눈을 좀 붙였다가 마저하세.》 하고 함께 쉬기를 권하였다.

어머니는 자신도 이틀밤을 설친탓에 오는 졸음을 쫓아버리기가 힘들었다.

두 녀인은 앉은자리에 아무렇게나 드러누웠다.

그들이 소스라치듯 깨여났을 때에는 이미 동녘하늘이 푸름푸름 밝아올무렵이였다.

《이런 변 봤나! 통잠을 자다니?》 하고 어머니는 정신없이 잠들었던 자신을 원망하며 부랴부랴 화로에 숯불을 피웠다.

지난 밤에 만든 음식감으로 구이떡을 만들어야 했던것이다.

이때였다. 반죽버치를 들여다보며 이웃아낙네가 《형님! 음식감이 변했어요.》 하고 바쁜 소리를 했다.

《뭐라구?》

어머니는 놀라 얼결에 버치안의 반죽을 만져보았다.

(?!)

그의 얼굴에는 그늘이 졌다. 더운방 아래목에서 여러 시간 있다나니 그사이 반죽은 보리길금의 당화작용으로 삭아버린것이였다.

이웃집아낙네는 울상이 되였다.

《굳잠에 빠지다보니 그만 형님을 돕기는커녕 손해를 끼쳤으니 이노릇을 어쩌면 좋아요. 제꺽 구웠더라면 일없을걸. 내가 조는 바람에…》

어머니는 부드럽게 그를 위로하였다.

《일없네. 이런 일이 이번이 뭐 처음이라구. 새것을 만들기가 그리 쉬운가. 잠은 내가 자자구 충동질을 했으니 따지면 죄는 내

게 있지 않나.

이건 삭아서 굽기는 글렀으니 우리 고만 번철에다 지져서 아침 한끼를 굼때세.》

삭기 시작하여 펴그나 묽어진 반죽을 어머니는 국자로 푹 떠서 번철우에 서너점으로 갈라놓았다.

기름이 쫄면서 고소한 냄새와 달콤한 길금향기를 풍겼다.

어머니는 그것을 인차 뒤집지 않았다. 익었어도 멀컹거리면 먹기에 기분나쁘다.

한참후에 번철에 닿은 밑바닥이 거뭇거뭇하게 눌었을즈음 한번 뒤집고 또 한참 기다렸다. 한동안이 지나 저가락끝으로 꾹꾹 눌러보니 펴그나 딴딴해졌다.

어머니는 한개를 집어 이웃집아낙네에게 주면서 《먼저 맛을 보라구. 꽤 먹음직해보이는데.》라고 하였다.

그것을 받아 한입 뜯어먹던 녀인은 금방 눈이 둥그래졌다.

그것을 본 어머니는 흠칫 놀랐다.

《왜 그러나?》

《기가 막혀서…》

《뭐? 기가 막혀? 기가 막힌게 아니라 목이 막혔을테지?》

아낙네는 어머니의 두손목을 덥석 잡으며 환성을 올렸다.

《맛이 기막히단 말이예요. 맛이!》

《…》

어머니는 다급히 먹어보았다.

《?!》

달콤하고 쫀득쫀득한것이 씹기에도 기분이 좋고 입맛이 깨끗하였다. 더구나 새로 생긴 음식이 연하게 누른 밥강정마냥 딴딴하여 단번에 많이 건사한채 오래 먹을 자신이 있었다.

어머니는 너무나도 기뻐서 《됐구나! 됐어! 이젠 살았다!》고 기쁨을 터치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한동안이 지나 흥분이 잦아드는 사이 곰곰히 생각해보니 성공의 비결은 잠을 잔데 있었다.

길금가루가 섞인 익반죽은 그들이 잠든 사이 따뜻한 아래목에서

맞춤히 삭았던것이다. 길금가루의 반죽삭음작용—이것이 성공의 열쇠인줄 어머니는 알았다. 잠을 자지 않고 길금이 반죽을 삭일사이없이 곧추 구웠더라면 사태는 달라졌을것이다.

이렇게 태여난 음식은 손에서 놓지 못할 지경으로 맛이 썩 좋았다. 쌀가루에 기름이 절었으니 영양가가 높을뿐아니라 굳어지지 않을것이고 길금의 작용으로 맛은 단데다가 소화는 잘될것이 틀림없지 않은가. 또한 앞판뒤판이 거뭇거뭇 눋도록 바싹 졸이고보니 딴딴하여 한그릇에 많이 담아도 뭉그러지거나 맞붙지 않고 저 모양새가 그대로 또렷하여 길가면서도 짐속에서 꺼내먹기도 또한 좋을것이였다.

아들은 바람이 슬슬 새여들어가는 버들고리에 어머니의 극진한 정성으로 이루어진 이 이름모를 음식을 한가득 담아지고 천리길을 떠났다.

몇해가 지나서 북방변경이 든든해지자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자기의 귀환을 축하하려 모여든 마을사람들앞에서 끓어오르는 진정을 터놓았다.

《…이 아들은 어머니의 심혈로 이루어진 그 보배음식덕분에 저문날 인가를 못만난적이 여러번이였지만 한끼도 굶지 않고 속탈 한번없이 무사히 변경까지 갔습니다. 도중에 그것을 먹을 때마다 어머니의 생각에 가슴이 사뭇 뜨겁게 달아올라 눈물과 함께 삼키군 하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아껴먹고먹다가 변경에 이르러보니 아직 몇개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분하게도 곰팡이가 끼여있더군요. 그러나 어머니의 하늘같은 그 사랑을 배신하는 행위같아 그것을 차마 버릴수가 없어 물에 씻어 다 먹었지요. 설사 크게 탈이 난다 해도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을것이였습니다. 그런데 내내 속이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글쎄! 아, 그때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그때 나는 충격이 떠미는대로 남쪽 멀리 고향하늘을 우러러보며 뜨거운 눈물과 함께 어머니에게 마음속감사를 드리였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는 이자식의 먼 앞날까지 내다보시며 세상에 없는 그 보배음식을 저에게 만들어주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방안 한가득 모였던 마을사람들모두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였다.

…

새서방은 회고담을 마치고 그사이 거반 다 타서 꽁다리만 남은 초를 묵묵히 들여다보기만 하였다.

아마도 어머니의 은공을 두고 마음속깊이 절할 생각을 하고있는지도 몰랐다.

부들이는 그린듯이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자기 새서방의 이야기에 가슴이 뜨거워 목이 메였기때문이였다.

지금 저 새서방이 줄곧 지켜보고있는 초와 같이 시어머니는 더 말할것 없고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 자신을 깡그리 태우고있지 않는가. 장차 나도 그런 어머니가 되여야 할텐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문득 무겁게 울리는 새서방의 목소리에 부들이는 상념에서 깨여났다.

《나는 원래 단것을 좋아하는 식성이였는데 북방변경에 갔다온 다음부터 노치를 더 좋아하게 되였소.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날더러 〈술군이 술에 취하듯 너는 노치에 취하는구나.〉하고 늘 롱담삼아 말씀하시지 않겠소. 나는 노치를 먹을 때마다 어머니의 사랑이 가슴사무치게 젖어들고 오직 그에 보답해야겠다는 결심이 굳어지군 하오.》

《!…》

부들이는 새서방의 말 한마디한마디 전부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느라 오래동안 말을 건늬지 않았다. 한동안이 지나서야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렇듯 절절한 사연이 깃든 음식이여서 그것이 상에 없으니 정말 기분이 나쁘셨겠어요. 내 미처 헤아리지 못해 죄가 크군요.》

《죄까지야 무슨…》

《들려오는 소문에 온 마을사람들이 서방님을 효자라고 칭찬을 한다는데, 이제 서방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런 칭찬이 있게 된 까닭이 짐작되여요.

우리 친정아버님은 서방님이 효자라는 소문에 깊이 관심하시

여 재산이건 학식이건 다 불문에 붙이고 서방님을 사위로 삼으셨어요.》

《나정도의 효도는 효도라할것이 없거니와 만약 나의 그것이 효도라면 자식이면 누구나 효도요. 내 오늘 이밤을 빌어 진정으로 당부하는데 내가 일생을 효자로 살도록 떠밀어주오.》

《예. 엄숙히 약속해요. 일생을 효자로 살려는 그 중한 마음을 내 일생 받들겠어요. 믿어주세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고맙기까지야 뭘. 〈부부는 일체〉인데. 이봐요, 어머니가 만드신 그 새로운 음식에 어째서 〈노치〉라는 이름을 붙였을가요? 어쩐지 내 보기에는 무심히 들어넘길 그런 이름이 아니지 않아요.》

《아, 그거. 거기엔 재미난 얘기가 있소. 어머니는 그때 나를 북방군사로 떠나보내신 다음 조금밖에 남지 않은 음식감을 말끔히 털어 그 음식을 만들어 마을사람들에게 한개씩 맛을 보이며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었다오. 마을사람들은 어머니의 말대로 만들어 먹어보고는 너무나도 좋아서 어머니를 찾아와 사의를 표하였는데 한동안 우리 집 문돌쩌귀가 불이 날 지경이였다지 않겠소. 그가운데 좌상로인 한분도 있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 집에서 새로 만든 음식이름을 〈놓지 못해〉라고 불러야겠소.〉했다오. 금시초문이라 마을사람들은 그를 멀뚱멀뚱 쳐다보는데 그는 곧 그 까닭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네. 먹어치우면 없어질것이 두려워서 놓지 못해, 또 놓아두면 그 귀한걸 누가 탐이 나서 훔쳐갈가봐 놓지 못해, 그러니 〈놓지 못해〉이상으로 알맞는 이름이 없다고 말이요. 그 이름이 온 마을사람들의 일치한 찬성을 받아서 한동안 〈놓지 못해〉, 〈놓지 못해〉하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덧 〈못해〉라는 뒤말은 떨어져나가고 그저 부르기 좋게 〈노치〉가 돼버렸다더구만. 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벌써 〈노치〉란 말이 아주 굳어진 뒤였소.》

《어마나 세상에! 그랬댔군요. 어머니가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부어 만든 그 음식에 깊은 사연이 깃들어있으니 이름 또한 뜻이 유별나군요.

이보세요. 난 이제부터 노치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어요.》

《그럼 난 당신을 업구다니겠소. 허! 허!》

행복한 밤이였다.

… … …

잠들었던 새서방이 어느때쯤인가 눈을 떴다. 아직 날은 밝지 않았는데 곁에 누웠던 안해가 보이지 않았다.

(?!)

마침 부엌에서 무슨 기척소리가 가늘게 들렸다.

얼른 일어난 그는 사이문을 열고 부엌을 내려다보니 초불이 밝은데서 안해가 한창 보리길금을 망에 갈고있지 않는가! 그옆에 놓인 버치에는 언제 만들었는지 벌써 쌀가루가 한절반 차있었다.

새서방의 입에서는 어느결에 경탄이 튀여나왔다.

《아, 저사람이? 밤새껏 노치음식감을 장만했구만!》

《첫날 새서방상은 다시 차릴수 없지만 생일상만은 또 차려드리겠어요. 새서방님이 이마를 찌프리지 않도록. 호호!》

《!…》

세월이 흐르는 사이 노치의 밑음식감으로는 찹쌀로 바뀌여 오늘에 이르렀다.

그리고 노치는 지진 다음 항아리같은데 넣어두고 먹는데 그때에는 노치가 서로 붙지 않게 길금가루를 뿌려준다.

나박김치

전철호

리조 중엽 송악산기슭의 채하동에 사는 설옥이라는 처녀에게 혼사말이 났다. 신랑감으로는 한동네에 사는 농사군집 아들 진철이였다.

두 집의 어른들은 부지런히 매파를 띄우더니 마침내 꽃피는 새봄에 좋은 날을 택하여 혼례를 하기로 결말을 지었다.

이 소문을 들은 마을사람들은 자기 일같이 기뻐하였다. 두 집의 딱한 사정을 잘 아니 더 기뻐들 하는것 같았다.

신랑될 로총각 진철이는 늙은 홀아버지를 모시였고 설옥은 젊어 과부가 된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그래서 마을사람들은 두 집의 혼사가 안성맞춤이라고 하면서 잘 되기를 바랐다.

두 집에서는 혼사준비로 바삐 돌아갔다.

어서 빨리 두 집의 처녀총각이 모여살기를 바라는듯 내가에서는 철을 당겨 버들개지를 피웠다.

그런데 불행한 일이 처녀네 집에 들이닥쳤다. 일 잘하고 마음씨 고운 설옥이 콩콩 기침을 깇더니 자리에 눕고만것이였다.

남의 좋은 일에 훼방치는 귀신이 들었다면서 설옥의 어머니는 사색이 되였다.

설옥은 고열이 나고 기침을 몹시 하는데 머리와 가슴이 아파 괴로와하였다.

사색이 되였던 어머니는 귀신은 경에 막힌다는 말이 생각나서 부랴부랴 동전 몇잎을 싸들고 이웃마을의 궁봉사네 집으로 달려갔다.

앞을 보지 못하는 우멍한 눈망울을 움씰거리며 산통을 흔들던 궁

봉사는 한참 알아듣지 못할 말을 늘어놓더니 난색을 지었다.
《어허—변괴로다. 동남쪽 액운이 다홍치마그루에 깊이 끼였으니 그것 참 변괴로다.》
그 말에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무슨 놈의 억하심정으로 액운이라는 못돼먹은 귀신은 얼마 안있어 머리를 얹을 남의 집 외딸에게 눈독을 들여 해를 끼치는거냐. 액운이라면 상가집에서 뻗쳐오는 악귀라는것인데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어머니의 한탄소리에 궁봉사는 능청을 부렸다.
《사람 가는 인생고개 높고높은 아흔아홉고개요, 인생굽이 또한 아흔아홉굽이라 무슨 변인들 없겠소이까.》
궁봉사는 무슨 큰 비방을 대주는듯 귀속말로 이리저리하라고 수군덕거렸다.
그 말에 어머니는 황송하여 코가 땅에 닿아라 거듭거듭 절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만사전폐하고 궁봉사가 일러준대로 액문풀이에 달라붙었다.
다음날 차도가 생겼겠지 하고 아래목에 누운 딸애를 살펴보던 어머니는 다시 사색이 되였다.
병이 낫기는 커녕 고열로 헛소리까지 치는것이 아닌가.
그 어떤 악귀도 능히 내몰아친다는 액문풀이를 열성껏 하였건만 효험이 전혀 없다면 딸애는 이 세상사람이 아니라는 소리가 아닌가.
아이쿠, 애오라지 딸 하나만을 믿고 아득바득 살아가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이 집에 떨어졌구나.
어머니가 가슴을 치는데 《계시오이까?》 하는 젊은 사내의 목소리가 울리고 뜨락으로 웬 로인을 앞세운 총각이 들어서는것이였다.
이웃한 부산동마을에서 의원을 청해온 진철이였다.
《?!…》
어머니가 놀랄만도 하였다.

혼례식을 하기도 전에 병난 딸이여서 좋지 못한 소문이 날가봐 남몰래 세상에 없는 하느님께 치성을 드리며 빌었을뿐인데 어떻게 알고 찾아왔을가.

《장모님! 저… 병이 급하다기에…》

굽석 절을 차리는 진철을 보고 어머니는 무등 반가왔다.

딸애의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판에 의젓한 사위감이 나타났으니 체면이고 뭐고 가릴 경황이 있는가. 더우기 사위는 장모사위라는데…

《의원님! 안으로 드시오이다.》

진철은 경우도 밝았다.

형편이 부득이하여 처녀네 집에 찾아왔지만 청혼도 하지 않고서 어떻게 당자가 누워있는 안방으로 들어갈수 있단 말인가.

진철은 토방에 앉았고 의원만 들어가 설옥의 병을 보았다.

찬찬히 병자를 살피고난 의원은 탄식을 하였다.

《자칫하다가는 큰일날번 하였소이다. 병을 너무 길렀단 말이요.》

그 말에 어머니는 액운이 끼였다기에 액풀이를 했는데 귀신은 쫓겨나기는 커녕 더 기승을 부리니 야단났다고 우는 소리를 하였다.

《어처구니없는 그 귀신놀음이 생사람을 잡소이다.》

의원은 처녀의 병은 풍온(급성페염)이라는 일각을 다투는 무서운 병이라면서 뽕잎, 살구씨, 도라지 등이 들어간 상국음이라는 약처방에 몇가지 약재를 첨가한 약을 내주었다.

그 약을 받아들고 어머니는 허겁지겁 부엌으로 내려갔다.

며칠이 지나자 설옥의 병세는 수그러들었다. 고열도 내리고 가슴과 머리아픔도 퍼그나 줄어들었다.

며칠사이에 반쪽이 된 딸을 보며 어머니는 가슴이 미여지는듯 하였다.

그 곱던 얼굴이 보조개도 없어져 홀쭉해지고 반달눈도 푹 꺼져내렸다.

사위감이 의원을 제때에 모셔왔으니 망정이지 어쩔번 했는가.

의원이 내준 약이 정말 좋긴 좋은 명약인가부다. 액풀이도 어쩌지 못하는 그 몹쓸 풍온귀신까지도 다스리니 말이다.

그날 의원은 약을 쓴다고 해서 마음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풍온에 걸리면 며칠만에 잘못되는 경우가 많고 병이 차도가 있는듯 하다가도 다시 심해지기가 일쑤이니 약도 약이지만 원기를 돋구게 잘 먹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입맛을 잃어버린 딸애가 음식내만 맡아도 속이 메슥메슥하다고 하니 그게 난사였다.

의원은 병자의 입맛을 약으로는 돋구기 어려우니 아무쪼록 병구완을 잘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남기고 떠나갔다.

한뉘 무명낳이나 하던 아낙네가 이제 갑자기 무슨 재주로 딸애의 입에 맞는 음식을 구하랴.

집안에 음식감이 전혀 없는것은 아니였다. 얼마 안되는 찹쌀도 있고 사위감이 가져온 몇알의 닭알도 있었다.

딸애는 색다른 음식일지라도 다 머리를 젓고 겨우 멀건 미음만 몇모금 마셨다.

진철의 지성을 생각하면 목이 멘다.

아직은 하늬바람이 살판치는 때인데 허리를 치는 찬물속에 들어가 잉어도 건져오고 지어는 전어까지 구해왔다.

전어굽는 냄새에 나갔던 며느리도 다시 들어온다고 그토록 맛있는 전어구이를 상우에 올렸는데도 딸은 고개를 돌린다.

또 며칠이 지났다.

어머니는 속이 바질바질 타들어서 재만 남은듯 하였다.

아무리 독한 풍온귀신이래도 그렇지 사람의 입맛을 그렇게까지 망쳐놓을수 있단 말인가.

딸애는 한본새로 하루 겨우 몇모금의 멀건 미음만 마셨다.

이래가지고야 사람이 어떻게 살수 있담.

《계시오이까?》

설옥의 발치앞에 앉아 근심하던 어머니는 맥없이 방문을 열었다.

진철이 의원을 모시고 사립문으로 들어섰다.
이전에는 토방에만 앉아있던 진철이 주저주저하더니 의원을 따라 방문턱을 넘었다.
오죽이나 애가 타면 저러랴, 정혼도 안한 사내가 매일이다싶이 처녀의 집을 찾아오기는 헐치 않은 일이다.
사내가 처녀를 제사람으로 여긴게 확실하니 무얼 더 마다하랴.
어머니는 진철의 팔을 잡아 이끌며 딸에게 말했다.
《얘야, 네 랑군이 왔다.》
설옥은 안깐힘을 써서 자리에 일어나앉았다.
그러는 설옥을 보는 진철은 손발을 어데다 둘지 몰라 허둥거렸다.
의원은 옹색해하는 젊은이들을 못본척 하며 입을 열었다.
《병자는 오늘 뭘 좀 들었는가요?》
어머니는 대답대신 한숨을 지었다.
《먹고싶다 하는것도 없는가요?》
어머니는 또 한숨을 지었다. 시원한 능금이나 참배소리만 하는데 그런걸 무슨 수로 구해오랴. 그야말로 눈속에서 산딸기를 따오는 격이랄가. 가을이나 초겨울도 아니고 이제는 움안의 김치까지 다 시여버린 봄철인데 어델 가서 그 귀한걸 찾으랴. 궁궐이나 고관대작들이 사는 고대광실이라면 몰라도…
어머니는 그냥 함구무언할수 없어 《예, 시원한 과실같은걸 좀…》 하고 말끝을 얼버무렸다.
의원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게 바로 입맛을 틔워주는 비방이요.》
그 말에 진철은 귀가 번쩍 트이는것 같았다. 처녀만 일궈세울수 있다면 생생한 과실이 대수랴. 온 장안을 다 뒤져서라도 기어이 구해올테다.
《허나 과실만으로는 입맛을 틔워줄수 없소이다.》 하는 의원의 다음말에 진철은 손맥이 풀리였다.
《이 집 따님처럼 꽃나이병자에겐 새로 돋아나는 햇나물같은것으로 햇김치를 해주면 입맛을 틔워줄수 있소이다. 그런데 아

직 들나물도 산나물도 돋지 않았으니 그게 난사라는겁니다.》
의원은 돌아가면서 햇김치가 좋다고 다시한번 다짐을 두었다.
집에 돌아온 진철은 온통 햇김치에 대한 생각뿐이였다.
햇김치를 담그려면 햇나물이나 햇남새가 있어야 한다.
진철이 부엌에서 서성대며 속을 앓고있는데 뒤울안에서 아버지가 밭이랑을 짓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직은 부루같은 남새와 조같은 곡식을 심을 때가 못되였는데 왜서 이랑을 벌써 짓는것일가. 진철은 뒤울안으로 들어갔다.
《아버지, 무얼 심자고 그러세요?》
아버지는 구부린 허리를 펴고 몸을 일으켰다.
《무우씨를 많이 받자면 이맘때 종자무우를 심어야 하느니라. 헌데 설옥의 병은 좀 어떠냐?》
《별로 차도가 없소이다.》
《거 정말 야단났구나. 겨우내 찬방에서 무명을 낳더니…》
아버지는 한탄을 하더니 이윽하여 움에서 청무우를 꺼내왔다.
진철은 얼른 청무우가 가득한 삼태기를 받아내렸다.
진철의 아버지는 무우농사를 잘하기로 소문이 났다. 그는 무우농사의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무우농사는 뭐니뭐니해도 잘 여문 종자를 많이 받는데 있다고 말하군 하였다.
해마다 그는 가을만 되면 크지도 작지도 않은 한뽐가량의 통통한 청무우를 움에 넉넉히 묻어두었다가 이른봄에 꺼내 심어 무우씨를 받군 했다.
그렇게 받은 종자는 집에서 쓰고도 남아 마을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한동안 무우를 심어나가던 진철은 갑자기 일손을 멈추었다.
노란 싹이 한치가량이나 돋아난 소담한 청무우가 눈길을 끌었다. 이런 생생한 무우는 햇남새라고 할수 있지 않을가.
사실 들나물이나 산나물이나 다 지난해의 그루터기에서 움터나온것이다. 그러고보면 이 무우는 햇남새가 마땅할진대 이것으로 만든 김치는 햇김치라 할수 있을것이다.
진철은 흥분이 앞서서 목소리가 떨리였다.

《아버지, 종자무우 몇갤 써도 일없겠소이까?》
정성껏 무우를 심던 아버지가 호미질을 멈추었다.
《정 긴요하게 쓸데가 있으면 써야지. 종자무우는 넉넉하니까.》
《저… 실은 의원님말씀이 햇김치를 먹으면 병자의 입맛이 돌아설수 있다고 해서…》
아버지는 놀라서 벌떡 몸을 일으켰다.
《왜 진작 그 말부터 하지 않았느냐? 어서 가져다주어라. 어서!》
《예.》
진철이 기뻐하며 무우삼태기를 부여안는데 아버지가 다시 소리쳤다.
《가만! 그럴것없이 네 손으로 햇김치를 담그어 가거라.》
《예.》
진철은 허둥지둥 무우를 안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러는 아들을 보며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저녀석에게 시키느니 내 손으로 하는게 낫지. 저녀석이 김치를 담가보았으면 얼마나 담가보았다고…
아버지는 무우심던 일을 거두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진철이 벌써 무우를 깨끗이 손질해놓았다.
행주치마를 두르는 아버지를 진철이 막아나섰다.
《제가 해요.》
《음식하는덴 묵은 손이 재주라는거다.》
아버지는 소리칠만도 하다. 일찌기 안해를 잃고 아들 하나를 키워오면서 동자질을 하다나니 무우농사를 잘하듯 무우반찬도 잘 만들었다.
그가 만든 무우절임도 맛이 좋지만 동치미는 어찌나 쩡하고 달큼한지 마을에서 손꼽혔다.
《얘야, 뭘 멍청히 서있기만 하는거냐? 웃방에서 고추를 내오지 않고?》
《예.》
햇김치를 제꺽 익히려면 동치미와 달리 무우를 얇게 썰어

야 한다.
아버지는 잽싸게 식칼을 놀려 무우를 네모지고 얄팍하게 썰었다. 진철이 내온 고추는 실고추로 만들었다.
나박나박하게 썰은 무우에 실고추를 넣고 버무리니 인차 빨갛게 물이 들었다. 여기에 마늘과 생강, 파까지 치니 당장 먹고싶은 감질이 났다.
아버지는 백항아리에 그것을 넣고 김치국물을 넉넉히 부었다.
《이 항아릴 뜨뜻한 아래목에 묻어두거라. 그래야 빨리 익어.》
진철은 사기가 나서 항아리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다.
다음날 김치항아리를 열어본 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졌다. 잘 익은 김치향내가 마음을 흥그럽게 하였다.
《얘야.》
진철은 장작을 패다말고 방으로 들어왔다.
《김치가 잘 익은듯 하니 가져다주어라. 가만!》
아버지는 자기가 덤빔을 깨닫고 정색해졌다.
《아직은 날이 찬데 찬김치를 먹으면 좋지 않을수도 있어. 그러니 장작을 한지게 지고 가서 구들이 절절 끓게 불을 땐 다음 김치를 내놓도록 하여라.》
진철은 코마루가 저려들어 대답이 나가지 않았다.
처음 설옥을 찾아 그 집으로 발길질을 할수 있은것도, 닭알이며 물고기 같은 음식감을 들고 갈수 있은것도 다 아버지가 등을 떠밀어서였다.
《어서 가거라.》
아버지에게 떠밀려 집을 나선 진철은 날아갈듯한 기분이였다.
뜨끈뜨끈한 방에서 땀을 쭉 뺀 설옥은 목이 말라 자리에서 일어나앉았다. 그저 시원한 과실이나 햇김치 같은것이 눈에 얼른거렸다.
그런것을 한번 먹어보았으면…
기다렸다는듯 어머니가 밥상을 챙겨왔다.
《얘야, 이걸 봐라. 햇김치다. 햇김치!》
설옥은 꿈결에 듣는 소리라고 생각하며 밥상을 무심히 굽어

보았다.
?!…
설옥은 깜짝 놀랐다.
이게 정말 생시란 말인가. 새빨간 고추물이 보기 좋게 우러난 파란 무우김치에서 향긋한 햇김치냄새가 가슴을 파고든다. 무우대가리에서 새로 돋아난 노란 햇싹은 더욱 볼만하였다.
꿈속에서 그려보았던 햇김치였다.
기갈이 날대로 난 설옥은 덥석 두손에 김치그릇을 들고 정신없이 김치물을 마시였다. 찡하고 씨원하고 달달하면서도 새큼하고 매큼한게 정신이 번쩍 드는것 같았다.
(야, 살것 같구나. 정말 별맛이구나.)
설옥은 김치와 함께 죽을 반그릇이나 축냈다.
어머니는 겨우 멀건 미음이나 받아마시던 딸이 땀을 철철 흘리며 햇김치를 맛있게 먹는것을 보고 기뻐 어쩔줄을 몰라했다.
그럴수록 진철에 대한 고마운 정이 가슴 한가득 고여올랐다.
《어머니, 정말 맛있군요. 이런 햇김치는 생전 처음 먹어보는군요.》
두볼에 홍조가 피여오르는 설옥을 보며 어머니는 눈물이 글썽하였다.
《얘야, 바로 그 햇김치는 네 랑군이 해온거란다. 네 랑군이…》
《?!…》
어머니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딸을 꼭 껴안았다.
《사람의 정이란 참… 아궁에도 진철이 그 사람이 불을 한가득 지폈단다. 그 사람 정성에 네가 살아난거란다.》
설옥의 홀쭉해진 두볼로 눈물이 쭈르르 흘러내렸다.
(랑군님!…)
그날부터 설옥은 입맛이 나서 밥을 먹기 시작했다. 고추물이 빨갛게 우러난 햇김치는 신기하게 밥맛을 돋구어주었다.
햇김치덕으로 몸을 추세운 설옥은 드디여 살구꽃이 만발한 새봄날에 칠보단장을 하고 나섰다.

오색령롱한 아름다운 구름이 떠돈대서 채하동이라 불리우는 마을에 경사가 났다며 온 마을사람들이 설옥이와 진철이네 집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두 집의 음식상에 올라있는 햇김치를 먹어보고 혀를 찼다.

설옥이 무우를 나박나박하게 썰어 만든 햇김치로 병을 털어버린 사연을 안 마을사람들은 못내 기뻐하면서 그 햇김치를 나박김치라고 불렀다.

이때로부터 송도사람들은 너도나도 나박김치를 담그어 먹게 되였다.

나박김치는 금시금시 담그어먹을수 있는데다 하도 그 맛이 좋아서 밥맛을 돋구는데 그저그만이였다. 더우기 햇남새를 찾아보기 힘든 봄철에 움에 묻어두었던 무우를 꺼내 담근 나박김치는 더욱 별맛이여서 송도의 자랑으로까지 되였다.

밥맛을 돋구어주는 토장

전철호

박달임금이 조선을 세운지 천여년이 지나서 있은 일이라고 한다.

조선(고조선)의 도읍 왕검성(평양성)에서 동쪽으로 백수십리가량 떨어져있는 박달곶마을(오늘의 강동군 문흥리일대)에는 고달이라는 40대의 장년이 살고있었다.

고달은 박달곶마을은 물론 왕검성에까지 명궁으로 소문난 사람이였다.

그런 고달이 삼복철 땡볕아래서 김매기를 하다가 더위를 먹은 다음부터 머리가 어지럽고 입맛을 잃어 밥을 드는둥마는둥 하더니 자리에 눕게 되였다.

비루먹은 강아지도 살이 오른다는 늦가을에조차 몸이 추서지 않게 되자 고달은 자기의 병이 위독하다고 단정하였다.

입안은 소태같이 쓰고 몸은 자꾸 땅으로 잦아드는듯싶고 도저히 밥을 먹을수 없으니 이게 골병 든게 아니고 뭔가.

이젠 죽을 때가 됐나부다.

밥술을 영영 놓을 때가 왔다고 생각하니 원통하기 그지없었다.

그전에는 얼마나 사는 멋이 있었던가.

한창시절에는 때없이 마을들에 달려들어 짐승들을 물어가고 지어는 사람까지 해치던 호랑이를 활로 쏘아잡기도 하였다.

어찌 그뿐이랴. 갑옷입고 투구쓰고 전장을 종횡무진하면서 변방에 침노한 오랑캐들을 수없이 활로 쏘아잡아 그 공으로 나라에서 내리는 비단필까지 상으로 받았다.

그때는 생전 늙지 않고 나라와 겨레를 지키는 명궁으로서 오래오래 변방에 남아있을줄로 믿었다.

그후 태묻은 고향으로 돌아와 본때있게 농사를 지으면서 젊은이

들에게 무술과 병법을 가르치였는데 그들이 다 변방에 나가 적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군공을 세웠다.

이런것이 사람사는 락이 아니겠는가.

허나 이제 더는 그 좋은 일을 찾아할수 없게 되였으니 그래서 원통하다는것이다.

하긴 마흔을 넘어 살았으면 적지 않게 산셈이다. 대체로 사람들이 마흔전에 세상을 버리지 않는가.

그것을 생각하느라니 고달의 마음은 한결 가라앉는듯 하였다.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으로 무엇을 더 찾아할수 있을가.

고달은 요즘 이 한가지 생각으로 마음을 쓰고있었다.

박달곶마을은 조선(고조선)을 일떠세운 박달겨레의 시조임금이 묻힌 고장이다.

마을이 주산으로 삼은 박달메(대박산)기슭에 시조임금의 릉이 있다.

아득한 태고적부터 박달겨레는 맑은 물이 늠실대는 큰강(대동강)이 유유히 감돌아흐르는 박달메기슭의 비옥한 땅에서 살아왔다.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붉은메(홍산)가 솟아있다.

10살때 벌써 활쏘기재주를 련마한 박달임금이 바로 그산에서 무술을 닦았는데 어찌나 말을 밤낮으로 세차게 달렸던지 풀과 나무들이 말발굽에 짓밟혀 다 없어지고 나중엔 불그스레한 흙먼지가 산불연기인양 피여올라 그런 산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오늘도 고달은 몸져누웠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박달임금이 림종시에 남겼다는 여덟가지 유언을 생각해보았다.

자기 마음을 다잡아 남의 마음을 비치게 하면서 백성을 다스려야 하느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받드는 도리를 체득하고 나라에 충정해야 하느니라.

집안을 화목하게 하고 나라를 편안하게 해야 하느니라.

사람마다 양보하며 서로 빼앗지 말며 집살림을 풍족하게 하며 나라를 부강하게 해야 하느니라.

남녀가 음탕하지 말며 무어진 배필과 한생토록 변심말고 살아가야 하느니라.

사람을 업신여기고 모욕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간사한 마음과 남을 해치는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하느니라.

나라의 산천초목을 아껴야 하느니라.

박달임금의 유언을 되새겨보느라니 이 유언을 족자로 남겨놓아 자손들이 두고두고 볼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 아비로서 후손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쓴것이라고 하면 그 여운이 더욱 클것이라고 생각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앉았다.

그는 흰명주천과 붓을 가져다달래려고 안해를 불렀다.

《이보게! 어데 있나?》

몇번 불러도 안해는 나타나지 않았다.

고달은 소리치기를 단념하였다. 틀림없이 안해는 또 약을 구하려 나갔을것이다.

그만큼 약으로는 안된다고 했는데… 입맛을 잃었다는건 골수에 병이 들었다는것이고 골병에 들면 백가지 약일지라도 소용이 없게 된다.

그전에 중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보았을 때 열사람이고 백사람이고 다 입맛을 잃었다고 했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병석에서 종시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안해는 날마다 약을 구해오느라 극성이니 과연 답답한 아낙네로다.

고달이 벽에 기대앉아있는데 방에서 인기척이 났다. 이어 방문이 벌컥 열렸다.

고달은 흠칫했다. 방에 들어서는 사람은 안해가 아니였다. 구척같은 키에 눈같이 하얀 옷을 입은 백발로인이였다. 얼굴은 젊은이들처럼 불깃불깃했다.

고달이 놀라와하는데 그를 앞세우고 들어온 안해가 말했다.

《이보세요. 병 잘 보는 의원님을 모셔왔어요.》

고달은 그 말에 자기를 다잡고 절을 차렸다.

《됐소, 됐다니까.》

급히 고달에게 다가간 백발로인은 그를 자리에 눕히였다. 그리고 천천히 고달의 맥을 짚어보고나서 그의 안색이며 숨소리를 살피였다.

이윽고 백발로인에게서 탄식소리가 흘러나왔다.

《한다하는 〈박달곶촌명궁〉이 골병을 재촉하다니…》

고달은 금시 의문이 가득해졌다. 한번도 본적없는 로인이 상대를 어떻게 안다고 《박달곶촌명궁》이라 할가.

그의 속을 들여다본듯 백발로인이 말했다.

《난 말이요. 왕검성에서 사는 의원일세. 병자들을 찾아다니다가 예까지 왔네. 자네는 나를 몰라도 난 자네를 아네. 자네가 젊었을적에 군공을 세우고 왕검성에 입성하여 상도 받고 활도 쏘는걸 보았거든.

그때 난 몹시 놀랐네.

자네는 백보앞에 세운 과녁에 다섯순(25대)이나 화살을 날려 몽땅 명중시키지 않았나.

그때 온 성안사람들이 환성을 올렸지. 정말 보기 드문 명궁이였어. 그러니 〈박달곶촌명궁〉을 내가 잊을리 있겠나. 참, 그때 내 나이가 예순살이였어.》

고달은 크게 놀랐다. 백발로인의 기억력도 놀라왔지만 보다는 그의 나이가 많은데 더욱 놀라왔다. 왕검성에 가서 상을 받고 활쏘기를 한 때가 아마 스무해전일것이다.

《그럼 의원님은 여든살?…》

《그렇네. 난 여든살이 넘었네.》

고달은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원, 세상에 사람이 80을 넘어 살수도 있단 말인가.

백발로인의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방안을 울리였다.

《자네 밥이 지팡막대란 말 들어보았나? 제꺽 대답 못하는걸 보니 그런건 생각밖인 모양이군.

요즘 사람들이 마흔도 되기 전에 세상을 등지는건 사실 늙어 명

이 진해서가 아닐세. 그건 다 병이 들어서일세. 병이 원쑤이거든. 사람이 병들지 않으려거든 약도 잘 써야 하지만 밥을 잘 먹어야 하네. 먹는 밥이 살로 간다고 밥맛을 잃지 않도록 밥상대접을 잘 받는다면 누구나 나처럼 오래 살수 있어.》

고달은 속으로 의원이 실없는 소리를 한다고 나무랐다.

잘사는 부자들이라면 몰라도 겨우 때식이나 때고 사는 농사군들이 무슨 재주로 밥맛을 잃을세라 밥상대접을 잘 받을수 있단 말인가.

《자넨 아마 삼복철에 무슨 힘든 일을 하다가 더위를 먹었을 거네. 더위를 먹으면 밥맛을 잃게 되거든. 만병의 뿌리는 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함이라 그래서 병이 든걸세.》

고달의 안해가 두손을 모아잡고 간청했다.

《의원님, 제발 병을 고쳐주사이다.》

《거야 어련하겠소. 내 곧 노야기란 풀약을 보내주리다. 그 약을 여러날 달여먹이면 몸안에 든 더위병을 몰아낼수 있을걸세. 허나 잃어버린 밥맛을 되찾아주는건 나도 별수 없소그려. 약으로는 안되는 일이니까.》

고달의 안해는 안타까이 물었다.

《의원님! 그럼 어떻게 해야 밥맛을 되찾아줄수 있겠나이까?》

《그건 바로 아낙네들이 할바일세. 평소에 이 사람이 무슨 음식을 좋아했나?》

고달의 안해는 말문이 막혔다.

늘 먹는 밥으로는 조밥 아니면 콩밥이고 어쩌다 기장밥을 상우에 올렸다. 떡으로는 조떡 아니면 콩떡이다. 찬으로는 고사리며 고비 같은 산나물이나 미나리며 냉이 같은 들나물로 만든 반찬이고 가끔 콩비지 그리고 가물에 콩나듯 생선국 아니면 고기국을 상우에 올렸다.

이건 다 농사가 괜찮게 된 해에 하는 소리이고 흉년에는 풀죽을 면할수 없었다.

보통 농사군집들에서는 다들 그렇게 먹는다.

밥술을 잡은 사람이라면 남녀로소가 다 기장밥에 고기국을 먹길

바란다.
허나 가난한 사람들에겐 그림의 떡과 같은 일이다.
대답을 못하는 고달의 안해를 보며 백발로인은 한숨을 지었다.
거친 음식이나 먹고사는 농사군집에서 어떻게 맛좋은 음식을 생각할수 있으랴. 이런 때 잉어탕을 장복시키면 좋으련만 값비싼 잉어를 무슨 수로 사서 먹이라고 하겠는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입맛을 잃으면 인차 몸이 여위고 기력이 쇠진하여 밥술을 놓게 되는것이다.
백발로인은 고달의 손을 잡고 입을 열었다.
《이사람, 명궁! 힘을 내게. 어떻거든 먹고 일어나서 명궁술을 젊은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게 아닌가.》
백발로인은 고달의 안해에게도 당부했다.
《임금이 자시는 흰쌀밥에 기름진 고기반찬만이 입맛을 찾아줄수 있는게 아니요. 병에 따라 약처방이 달라지듯 사람에 따라서도 입맛이 달라지게 되오. 그러니 이 집에서 늘 차리는 음식이래도 그것을 병자가 달게 먹을수 있도록 맛나게 료리하면 얼마든지 명약이 될수 있소. 재삼 말하지만 밥 한알이 귀신 열을 쫓는다는걸 명심하오.》
백발로인은 집에 돌아가자 노야기풀약을 보내주었다.
그 약을 며칠간 달여먹고 한결 머리가 거뜬해진 고달은 안해가 성의껏 차린 밥상에 나앉았다.
기장밥에 붕어졸임이 올라있었다.
처음에는 밥상을 반반하게 해치울듯싶었는데 몇술 먹으니 헛구역이 나서 먹을수 없었다.
맥없이 숟갈을 내려놓는 고달을 보고 안해는 괴로와 눈을 감았다.
어떻게 해야 이전처럼 밥을 먹음직스럽게 들게 할수 있을가. 의원은 약만으로는 입맛을 돌리기 어렵다고 하였다. 산해진미를 차리면 좋으련만 가난한 처지에서 그건 꿈같은 일이다.
궁냥을 거듭하니 그래도 고달이 평소에 콩비지를 좋아했다는 생

각이 들었다.
하긴 병중에 콩비지를 차려주지 않은건 아니다. 고달은 그때마다 콩비지를 한두술 뜨다말았다.
혹시 이번엔 콩비지가 그의 입맛을 돌려줄지 알겠는가.
안해는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콩비지를 또 쑤었다.
그러나 고달은 이번에도 콩비지를 한두술 뜨다말았다.
안해는 너무 안타까와 사정하며 말했다.
《이보세요. 콩비지가 그렇게도 맛이 없으세요? 그럼 무슨 음식이 생각나세요, 예?》
그 말에 덤덤히 앉아있던 고달이 입을 열었다.
《무얼 먹고싶은가고? 가만… 그런게 하나 있긴 있소.》
안해는 너무 좋아 고달의 손을 덥석 그러쥐였다.
《뭔데요? 어서 말하세요!》
《내 젊었을적에 군사로 나가있던 전장에서 말이요. 메주죽이란걸 참 맛나게 먹었소.》
《메주죽이요?》
안해는 난생 처음 듣는 소리에 두눈이 둥그래졌다. 세상에 메주는 있어도 그걸로 죽을 쑤어먹는다는 소린 여직 듣지 못했다.
고달의 생각은 스무해전으로 거슬러갔다.
당시 고조선은 서쪽으로 발해만의 산해관일대(후에 만리장성)에까지 이르는 광활한 령토를 가진 대국이였다.
변방에서는 싸움이 빈번하였다. 서쪽의 오랑캐들이 고조선의 령토를 떼먹으려고 수시로 변방에 침입하였다.
이로부터 고조선군은 변방에 성을 쌓고 오랑캐들을 물리치였다.
어느해 이른봄, 한무리의 외적이 고달이 군사로 나가있는 산성에 달려들었다.
싸움은 처음부터 치렬하고 간고하였다. 성을 무너뜨려야만 고조선땅으로 깊숙이 쳐들어갈수 있음을 잘 아는 적들은 악착하게 덤벼들었다.
싸움준비를 갖추었다고 하지만 여러날이 흐르자 아군에게 불리한 정황이 생겨났다. 화살도 떨어지고 병력수도 줄어드는데

보다 큰 애로는 군량이 바닥난것이였다. 놈들이 대군으로 성을 포위하다보니 보급로가 끊어져서였다.

이런 형편에서 진장(한개 진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수)은 화식병들에게 군사들이 가지고있던 콩떡을 전부 모아들이게 하였다.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급보를 받고 여기 산성으로 올 때 백성들이 군사들에게 성의껏 많은 콩떡을 쳐주었던것이다.

콩떡을 모아보니 태반의 콩떡에 허연곰(곰팽이)이 쓸어있었다. 여러날의 격전에서 제때에 먹지 않고 아껴 남겨두었던것이 누기를 받아 곰이 낀 모양이였다.

진장이 그것을 하나 들고 뻐개려 하니 부슬부슬 부서졌다.

《허— 메주 한가지로군.》

메주란 풀기없는 덩어리라는 소리다.

진장은 허연곰이 낀 콩떡을 그냥 먹으면 배앓이를 할수 있다면서 끓이게 하였다.

소금을 약간 치고 펄펄 끓인 죽은 별나게도 그 맛이 들큰하고 구수했다.

뜨끈한 메주국을 한그릇씩 받아든 군사들은 천하별미라면서 맛있게 먹었다.

가렬한 싸움은 인차 끝나지 않았다.

병력수가 줄어들자 화식병들도 싸움판에 나가야 했다.

화식병들은 남은 메주를 몽땅 질항아리들에 담고 짭짤할 정도로 소금을 탄 물을 콸깍 부어넣었다. 메주덩이를 짠물에 담아놓으면 허연곰이 더 끼지 않으리라는 생각에서였다.

이 사실을 안 진장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군사들에게 익은 음식을 먹여야 한다며 그것을 끓이라는 령을 내렸다.

맹물을 조금 더 두고 쑨 메주죽은 멀건 죽이였는데 맛은 이전보다 한결 더 별맛이였다.

이상한것은 질항아리에 둔 메주로 쑨 죽이 날로 달아지고 구수해지는것이였다.

화식병들의 말은 소금물속에서 메주가 익어지기때문이라는것이였다.

한번 익은 음식이 소금물속에서 또 익어지다니…
군사들은 어처구니없는 말을 한다고 화식병들을 나무랐지만 메주죽그릇을 받아들 때면 너무 맛이 좋아서 혀가 다 말려든다고 칭찬하였다.
구수하고 달짝지근한 메주죽을 먹으면서 아군은 용기백배하여 마침내 오랑캐군을 물리치였다. 줄행랑을 치는 오랑캐군을 성문을 활짝 열고 나가 쳐부시는 싸움에서 고달은 많은 적을 잡았다.
그 공으로 승전고속에 왕검성으로 입성하여 나라님이 하사하는 상을 받았고 그길로 활쏘기시합에 나가서는 백발명중의 명궁술을 떨친것이였다.
고달의 이야기를 감동깊게 듣고난 안해는 메주죽을 쑤는 일에 두팔 걷고 달라붙었다.
콩떡을 빚어 방 한구석에 가지런히 놓아두었더니 과연 며칠 지나 허연 곰이 생기면서 갈라터지였다. 그러니 콩떡이 메주로 변한것이였다.
콩떡의 속에까지 곰이 쓸자 안해는 부엌에 질항아리를 들여다놓고 그것들을 옮겨넣었다. 그다음 군사들이 했다는것처럼 짭짤한 소금물을 메주덩이들이 잠길정도로 부었다.
여러날이 지나 질동이안을 들여다보던 안해가 근심조로 말했다.
《이보세요. 콩떡은 먹어보았지만 이렇게 하는건 난생 처음이라 제대로 되는것인지 어디 알겠어요?》
고달이 자리에서 일어나 질동이에 다가가보니 단내가 확 풍기였다. 질동이의 짠물은 가둑나무잎을 우려낸듯 밤빛이였다.
고달은 고개를 기웃거렸다.
옛적에 화식병이 끓여주는 메주죽을 달게 받아먹으면서도 언제 한번 메주덩이가 든 질항아리안을 들여다본적이 없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고달은 손가락으로 짠물을 찍어 입에 가져다댔다. 들척지근하고 향기로왔다.
《하여간 메주죽맛을 보아야 알겠소.》
안해는 메주죽을 부글부글 끓여 조금 맛을 보았다. 들척지근

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별스러웠다. 과연 이게 남정네의 입에 맞겠는지…

안해는 마음을 조이며 메주죽을 점심상우에 올렸다.

궁금한 마음으로 상을 마주한 고달은 메주죽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에 군침이 돌았다. 전장에서 먹어본것과 비슷한 냄새였다.

고달이 한입 떠먹기 바쁘게 안해가 물었다.

《맛이 어때요?》

《가만…》

두번, 세번 메주죽을 떠먹어보더니 고달은 웃음을 함뿍 지었다.

《틀림없어. 그 맛 같애. 헌데 너무 짜구만.》

그럴만도 하였다. 전장에서는 군량난으로 메주죽을 묽게 쑤어먹었지만 안해는 되게 끓인것이였다.

《참, 아침밥이 남아있어요.》

안해는 얼른 기장밥을 가져왔다.

고달은 메주죽에 기장밥을 말아 맛을 보았다. 그러더니 군말없이 숟갈질을 하였다.

한두숟갈 떠먹고 물러나앉으면 어쩌나 해서 마음을 바재이던 안해는 그제야 얼굴이 밝아졌다.

뚝배기에 반나마 담긴 메주죽을 말끔히 바닥내고서야 고달은 입을 열었다.

《꽤 먹을만 하군.》

《참말이세요?》

얼굴이 함박꽃처럼 환해진 안해를 보고 고달은 눈시울이 달아올랐다. …

그날부터 고달의 밥상에는 매번 번지지 않고 메주죽이 올랐다.

처음에는 반그릇을 먹던 고달이 며칠 지나서는 한그릇도 냠냠해하였다.

맛있게 메주죽을 떠먹는 고달을 보고 안해는 신기해하였다.

생전 처음 보는 허연 곰이 낀 메주가 도대체 어떤 조화를 부리기에 죽을 쑤어먹으면 입맛을 돌려주는것일가.

날이 지나면서 보다 신기한것은 메주죽이 점점 먹을수록 더 맛

이 드는것이였다. 이거 이상하지 않은가. 아무리 맛있는 고기붙이도 몇끼 지나면 점차 물리는 법인데…

안해로서는 도저히 알수 없는 조화였다.

안해는 물리는 문세를 모르는 메주죽으로 남편을 장복시키려고 콩떡을 또 빚었다. …

어느덧 긴긴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고달의 안해는 파랗게 돋아난 냉이며 달래 같은 들나물을 캐여다 메주와 함께 죽을 쑤었다.

그랬더니 봄의 류다른 향취까지 메주죽에 어려들어 천하별미라고 감탄할 지경이였다.

이제는 고달이 하루 세끼로 밥에 메주죽 한그릇을 거침없이 먹었다.

살구꽃이 만발한 화창한 날에 고달을 찾아온 백발로인은 깜짝 놀랐다.

몇달전만 해도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던 고달이 마을앞의 정자나무아래에서 젊은이들에게 활쏘는 재주를 배워주고있었던것이다.

세상에 이런 희한한 일도 있는가.

고달은 자기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것을 띄여보고 활쏘기를 멈추었다. 그는 백발로인을 알아보고 반색하며 말했다.

《의원님! 그동안 편안하셨소이까?》

백발로인은 고달의 손을 부여잡으며 물었다.

《무슨 약을 썼소?》

백발로인은 고달이 메주죽으로 입맛을 돌리고 원기를 회복했음을 알수 없었다. 그는 겨우내 왕검성의 자기 집에 가있다가 고달의 병이 걱정되여 다시 찾아온것이였다.

《의원님께선 밥 한알이 귀신 열을 쫓는다고 이르시지 않으셨소이까? 밥이 명약이고 진짜 보약인줄을 이젠 똑똑히 알았소이다.》

《허— 자네 말을 듣고도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내가 보내준 노야기풀약으로는 입맛을 돌릴수 없거든.》

《의원님! 전 노야기풀약을 달여먹은 다음 날마다 메주죽을 먹었소이다.》
《메주죽이라는건 뭔고?》
고달은 자초지종 사연을 털어놓았다.
백발로인은 크게 놀라와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였다.
《알만하이. 콩의 남다른 효험이 메주속에 있었구만.》
이런것이 발견일것이다. 흔한 밭곡식인 콩이 입맛을 찾아주는 기막힌 약재로 쓰일줄이야 누가 알았으랴. 메주야말로 진짜 명약이고 보약이 분명하다.
새로운 보약재를 찾아낸 만족감에 흐뭇해진 백발로인은 롱조로 물었다.
《그 좋은 보약을 혼자만 먹어서야 쓰나?》
언제 다가왔는지 고달의 안해가 공손하게 인사를 차리며 대꾸했다.
《의원님! 의원님이 아니였다면 어떻게 밥맛을 찾아낼 생각을 했겠소이까. 지아비가 입맛을 돌리자 온 마을이 메주죽을 쑤어먹게 되였소이다.》
《잘했네. 정말 잘했어. 그대부부는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남겨놓았네. 자, 내 절을 받아주게.》
고달은 급히 백발로인의 두손을 부여잡고 간청했다.
《의원님! 제발 이러지 마소이다.》
백발로인은 두눈을 슴벅이며 오래도록 고달의 손을 놓을줄 몰랐다. …
인차 메주죽을 쑤어먹는 바람이 온 나라에 불었다. 조선의 방방곡곡 마을들에서 사람들은 메주죽을 즐겨먹게 되였다.
녀인들은 곧 메주를 소금물에 담그어서 우러나온 밤빛의 짠물로 국을 끓이면 소금국보다 맛이 비할바없이 좋아진다는것도 벼짚을 놓고 띄운 메주로 쑨 죽이 더 맛이 좋아진다는것도 알게 되였다.
그들은 밤빛의 짠물을 메주즙이라고 불렀다.
하루세끼 메주즙이며 메주죽으로 장복한 고달은 백발로인처럼 오

래 살면서 젊은이들에게 무술을 가르치였다. …

그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메주즙은 간장으로, 메주죽은 무장으로 불리웠고 간장을 뽑고 남은것으로 끓여먹는것은 된장이라고 하였다.

이것들을 통털어서 장이라고 불렀다.

리조시기에 와서 사람들은 동지날에 메주를 만들었다가 다음해 정월에 장을 담그어 먹었다.

현세에 이르러 조상전래의 장을 공업적으로 만드는 장과 구별하기 위하여 토장이라고 하였다.

슬기롭고 문명한 우리 선조들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발효법을 리용하여 만들어내고 일상 먹어온 토장에는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하고 여러가지 사포닌들과 항암성분까지 들어있어 보양제로서만 아니라 소화불량과 빈혈, 설사 같은 병을 고칠수 있는것은 물론 방사선피해와 암을 막는것으로 하여 세계적인 건강식품으로 만사람의 인기를 모으고있다.

몸보신에 좋은 약호박곰

전철호

파란많은 임진왜란이 끝난 이듬해 봄이였다.

송도의 흥박골에 사는 《대추나무집》녀인 리씨는 아침 설겆이를 마치기 바쁘게 호미를 찾아들고 뒤울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한손에는 빨간색 비단염낭이 들려있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풀릴 날만을 애타게 기다려온 리씨는 두엄을 듬뿍 낸 구뎅이앞에 이르자 가슴이 울렁거렸다.

그는 진귀한 보배를 다루는듯 조심스레 염낭에서 무엇인가를 손바닥우에 꺼내놓았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서나 흔하게 볼수 있는 호박종자였다.

정녕 이 호박종자들이 마음 착한 흥부네 집에 큰 복을 안겨주었다는 그 박종자처럼 돼주었으면…

방안에서 남편 춘익의 쇠기침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리씨의 가슴은 찢어지는듯 하였다.

임진왜란전에는 힘장사로서 씨름판에 나가 황소까지는 타지 못했어도 송도일판에서 한다하는 씨름군이라 소문을 낸 남편이 오늘은 무서운 골병에 들어 제 몸 하나 똑바로 운신 못하는 폐인이 되고말았으니…

남정네가 나이 서른이면 아직 한창나이라 할수 있는데 집안에 들어앉아 녀인의 손끝에 목숨을 부지하고있으니 얼마나 기구한 처지인가.

남정네가 그렇게 된것은 다 악귀같은 쪽발이왜놈들때문이다.

눈에 흙이 들어간대도 간악한 왜놈들의 귀축같은 만행을 어찌 잊을수 있으랴.

7년전 여름, 쪽발이왜놈들이 북으로 파천한 임금을 붙잡는다

며 송도에 들이닥쳤다.

닥치는대로 조선사람들을 잡아죽이는 왜군을 피해 백성들은 짐을 이고지고 고향과 집을 떠나 산지사방으로 흩어졌다.

홍박골의 《대추나무집》도 황급히 송도 동북켠의 화장산고개를 넘었다.

송도에서 토산으로 가는 길을 따라 70리정도 이르러서 황계치고개쪽이 아니라 덕적천방향으로 또 60리쯤 가느라면 《조선의 배꼽》이라 알려진 심복동이 나진다.

심복동골안에는 유명짜한 심복사절간에 땔감을 해주며 사는 집이 있는데 바로 그 집이 리씨의 본가였다.

험한 골안에까지 왜군이 쳐들어올수 없다고 여긴 《대추나무집》식솔은 마음을 푹 놓고 그 집에다 짐을 풀어놓았다.

《대추나무집》식솔은 단출하였다. 일찌기 부모 다 잃고 춘익은 안해와 손아래 누이동생과 함께 살고있었다.

춘익은 장인을 도와 절간에 땔나무를 해주었고 누이동생은 리씨와 함께 중들의 옷가지를 빠는 일을 하였다.

심복사는 조선에서 손꼽히게 큰 절간이였다. 웅장화려한 불당건물이 무려 천칸에 이르렀고 멋스런 석탑들이 우뚝우뚝 솟아있었다. 이 절간은 후기신라의 고승 대국통 자장률사가 두루 고국산천을 돌아보다가 월정산마루에 올라와보고 예가 나라의 배꼽되는 곳이로다 하여 세운것이였다.

《대추나무집》의 피난살이는 며칠 가지 못했다.

악독한 왜놈들이 《조선의 배꼽》 심복사에 보물이 많다는걸 어떻게 알았는지 쳐들어왔던것이다.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며 산속으로 몸을 숨겼지만 심복사는 몽땅 불타버리고 탑들도 무너져버렸다.

개울에서 빨래하다가 미처 피신하지 못한 시누이는 왜놈들에게 무참히 살해되였다.

하나밖에 없는 누이동생을 잃은 춘익은 복수의 칼을 뽑아들었다. 그는 젊은 중들을 모아가지고 곯아 자빠져 자는 왜놈들을 무자비하게 요정냈다.

심복동에 기여들었던 왜놈들이 몰살되였다는 소식이 퍼지자 사방에서 젊은이들이 병쟁기를 들고 춘익이네를 찾아왔다.

춘익은 그들과 함께 장단의병대를 무었다.

평양성을 되찾고 남하하는 관군과 합세하여 송도를 탈환하는 싸움에서 춘익은 왜놈조총에 허벅다리를 맞았다. 다행히 뼈는 상하지 않았다.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춘익은 관군에 들어갔다.

왜놈들을 이 땅에서 몽땅 쫓아낸 지난해 겨울 그는 홍박골의 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는 친구들에게 부축되여온것이였다.

그날 춘익의 병을 보아준 의원은 탄식하여 말했다.

《조총에 맞았을 때 몸조리를 잘해야 하는건데 아물지도 않은 상처를 가지고 전장에 다시 나가 온갖 고생을 하다보니 기혈이 다 빠지고 정기가 쇠약해졌네. 그러니 로채충(결핵균)이 침범해서 페로(페결핵)에 들수밖에…》

페로는 3대가 망한다는 무서운 병이였다.

병에 견디는 장사 없다고 알면서도 죽는 페로에 들었으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의원은 자음강화탕이란 약을 지어주면서 병이란 다 밥상머리에서 떨어지는 법이니 아무쪼록 음식대접을 잘하라고 당부하였다.

자음강화탕을 써서인지 춘익은 밥맛이 좀 나서 음식을 먹고싶어했다.

리씨는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나라가 방금 전란을 겪다보니 그전에 밥술이나 겨우 먹던 사람들도 죽을 먹었다.

홍박골사람들의 살림은 더 한심하였다.

원래 홍박골이란데가 송도에서 제일 가난한 축에 속하는데 예로부터 박을 심어 바가지를 만들어 팔아 집살림에 보태여왔다.

남들은 박농사가 흥한대서 마을이름을 홍박골이라 불러주지만 바가지장사로는 가난을 면할수 없어 집주변은 물론 성밖에까지 나가

곡식을 심어 생계를 부지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리씨는 병자의 몸을 추세우는데서 인삼닭곰이 그저 그만이라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허나 풀죽으로 끼니를 잇는 집살림에서 그림의 떡같은 일이였다.
도움을 청할데도 없었다.
하여 리씨는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고 직심스레 일을 하였다.
낮에는 삯빨래, 밤에는 삯바느질을 하였다.
이러한 때 심복동의 본가에서 아버지가 밤 한말을 지고 찾아왔다.
입맛이 좀 돌아 음식을 먹고싶어하는 사위의 모습을 보고 집으로 돌아간 그는 희귀한 호박종자를 보내여왔다. 심복사의 중들이 보배로 여긴다는 《약호박》종자였다.
약호박은 크지 않아서 기껏 목탁만한데 다 익으면 빨갛다고 했다. 약호박의 꼭지를 도려내고 씨를 뽑아낸 다음 꿀 몇숟갈을 넣고 다시 맞추어서 삶으면 그게 약이라고 했으니 그런걸 하루 한개씩 한동안 먹으면 해소(기치병)뿐아니라 페로같은 병에도 알도리가 있다는것이였다.
리씨가 이런 생각에 골몰하고있는데 방을 나온 춘익이 지팽이를 짚고 다가왔다.
《박을 심으려는가부지?》
리씨는 얼른 웃음을 지어보이며 대꾸했다.
《저… 호박을 심자고 해요.》
《호박을?… 호박을 심어먹으면 좋기는 하지. 허지만 올해 와서 박대신 호박이나 심으면 집살림이 뭐가 되겠어. 가뜩이나 어려운데…》
《…》
춘익은 정색해서 말했다.
《난 임자가 내 입맛을 돋구려고 호박을 심으려 하는걸 아오. 그 마음만 알아도 내 병이 낫는것 같소. 호박은 먹지 않고서도 견딜수 있지만 바가지농사를 못하면 살아가기가 힘드니 그만두기요.》
리씨는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입을 열었다.

《서방님! 집살림때문에 너무 념려마시와요. 터밭농사를 직심스레 지으면 식량은 그럭저럭 될거예요. 참, 이건 여느 호박종자가 아니예요.》

춘익이 의아하여 물었다.

《그건 무슨 소리요?》

《이 종자는 우리 집에 복을 가져다줄 복호박종자예요. 지금은 그쯤만 아시와요.》

《허— 무슨 영문인지 통 모르겠구만. 하여간 그게 복호박종자라니 나도 같이 심자구.》

《좋아요.》

부부는 세여가며 약호박종자를 정성껏 심어나갔다. 전부 백알이였다. …

날이 흘러 여느 집들에서 박넝쿨이 큼직한 잎새를 너풀거리며 박덕대를 타고 지붕을 덮고있을 때 유독 《대추나무집》에서만은 약호박이 류달리 작은 잎새를 나풀거리며 내기라도 하려는듯 덩굴을 뻗고있었다.

리씨는 하루같이 바삐 돌아갔다. 남편에게 약도 달여먹이고 삯일을 쉬임없이 맡아하였다.

더위가 들자 리씨는 애간장이 말라들었다. 봄철에는 산나물이나 들나물이 있어 서너가지 찬은 떨구지 않았는데 여름철에는 찬거리가 별로 없었다.

춘익은 또다시 입맛을 잃어버렸다. 페로로 몸이 허약하다보니 더위를 타는 모양이였다.

약호박이 나오는 가을까지만 제발 견디여주었으면…

지붕을 바라보면 마음이 좀 진정되였다. 지붕의 여기저기에 목탁만한 약호박들이 널려있는데 그것이 볼만하였다. 애기주먹만 할적에는 노랗다가 좀더 커지자 감색이던것이 목탁만큼 커지면서 멋진 불색으로 물들은 약호박이였다.

지붕우에 그들먹한 약호박을 신기하게 구경하던 이웃들은 그것이 해소에 좋다는걸 알고는 자기 일처럼 기뻐하였다.

어서 가을이 와주려무나.

리씨가 약호박이 여물기를 안타깝게 기다리는데 뜻밖에 청천벽력같은 비보가 날아들었다.

왜놈들이 불사른 심복사를 다시 짓던 아버지가 그만 보짱이 주저앉으면서 허리를 치는 바람에 크게 상했다는것이였다.

엎친데 덮친다고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친정집에 가자니 남편이 걸리고 속수무책 그냥 있자니 아버지가 걸렸다.

리씨가 벙어리 랭가슴 앓듯 하는데 말없이 지팽이를 끌고나갔던 춘익이 무슨 물건을 하나 쥐고 나타났다.

《죽을 수가 닥치면 살수도 나진다고 너무 락심마오. 자, 이거 가지고 아버님을 찾아가보오.》

리씨는 얼결에 춘익이 손에 들려주는것을 받아쥐였다. 베천에 꾸린것인데 꿩알만 했다.

《이건 뭐예요?》

《웅담이란거요. 타박상이나 허리를 다친데 그것이상이 없다오.》

《웅담이라구요? 이런걸…》

리씨는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세상에 웅담이 귀하다는걸 모를 사람이 있겠는가. 구하기도 힘들고 값도 엄청나게 비싸서 돈많은 사람들도 선뜻 사쓸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귀물이였다.

《금같이 비싼걸 당겨 쓰고 어쩌자고?…》

춘익은 대범하게 웃어보이며 어깨를 으쓱했다.

《별걱정을 다하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겠소? 사실은 전장에서 함께 싸운 친구들을 찾아가 사정얘길 하였더니 그들이 구해준거요.》

춘익의 말은 사실이였다. 그의 딱한 사정을 안 친구들은 빚을 내여 웅담을 사준것이였다.

리씨는 감격을 금치 못하였다. 여러모로 도움을 주는 그들이였다. 지금껏 춘익이에게 조밥이나마 밥을 떨구지 않고 때식을 차려줄수 있은것은 다 전장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한 그들이 성심성의로 도와준 덕이였다.

언제면 그 신세를 갚을런지…
《어서 떠날 차비를 하라구.》
웅담을 손에 든 리씨는 선뜻 움직일수 없었다.
웅담이 해소병이나 페로에는 그닥 효험이 신통치 못하더라도 그것을 팔면 인삼도 꿀도 닭도 얼마든지 다 살수 있을것이다. 그러니 웅담을 팔면 남편의 병을 능히 고칠수 있다.
《왜 그러구 섰소? 어서 행장을 갖추라니까.》
리씨는 고마움의 눈물이 글썽거려 고개를 떨구었다.
아, 사람은 지내봐야 안다고 내 남편은 지내볼수록 미덥고 정이 드는구나. …
며칠동안 친정집을 다녀왔지만 리씨의 근심은 좀처럼 가셔질줄 몰랐다.
남편에게는 그닥 심하게 상하지 않아서 웅담만 쓰면 곧 일어날거라고 말했지만 실은 몹시 다친 아버지였다. 승의(중의사)말은 웅담을 쓰면서 한 반년쯤은 몸조리를 잘해야 한다는것이였다.
그러니 친정집에다 꿀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기는 틀렸다. 그렇다고 남편의 친구들에게 또 도움을 청할 면목도 없었다. 녀인이란게 신수 멀쩡해있으면서 그토록 값비싼 웅담을 구해준 그들에게 어떻게 또 손을 내밀수 있겠는가.
무슨 수로 값나가는 꿀을 살수 있단 말인가.
꿀없이 약호박은 쌀없이 취떡을 치겠다는것과 마찬가지이니 한해 공사는 헛공사로 되고말았구나.
리씨가 마당가에 나와서서 안타까와하는데 갑자기 머리우에서 까치가 깍깍 울어댔다. 그 소리에 이끌려 고개를 쳐드니 대추나무꼭대기에서 한쌍의 까치가 다정하게 마주앉아 우짖고있었다.
까치의 유정한 울음소리에 잠시나마 시름을 잊고 대추나무를 쳐다보던 리씨는 불쑥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대추나무에는 여느해보다 더 많은 대추가 달렸다. 어찌나 주렁주렁한지 가지가 휘여져 찢어질듯 하였다.
이 나무는 홍박골에서 제일 크고 대추도 많이 달리는데다가 알

이 굵고 달아서 이름이 났다.
그래서 《대추나무집》이라 불리우는것이였다.
서당개 3년에 풍월을 짓는다고 리씨는 의원집을 자주 드나든때문에 웬간한 약처방쯤은 외우고있는 터였다.
예로부터 대추는 비와 위, 심과 페며 기를 보하고 진액을 잘 생기게 한다고 하였으니 그것이 약재로서 페로를 다스리고 몸을 추세우는데 괜찮을것이 아닌가. 꿩대신 닭이라고 값나가는 꿀대신 집에 있는 대추를 가지고 남편을 장복시키면 어떨가. 틀림없이 효험을 보게 될것 같았다.
업은 아이 찾는다더니 집안에 둔 보약재를 두고 밖에서만 두리번댔구나. 값비싸고 진귀한 약재만 좋은 약이랴. 값눅고 흔한 약재일지라도 잘 쓰면 좋은 약이 될것이 아닌가.
리씨는 기쁨에 겨워 까치를 쳐다보며 말했다.
《까치야, 기특하다. 너희들이 아니였다면…》
《누구와 말을 하는거요?》
집에서 나온 춘익이 어깨를 건드리며 묻는 말에 리씨는 흠칫 놀랐다.
《아이, 깜짝이야. 간떨어질번 했네.》
리씨는 오랜만에 활짝 웃어보였다. …
며칠이 지났다.
집주변에서 콩가을을 하던 리씨는 왈랑절랑하는 소방울소리에 허리를 폈다.
옆집 사는 황첨지가 칡덩굴같이 검은줄무늬가 어룽어룽한 황소에 달구지를 메우고있었다.
룡수산너머의 어느 골안에다 콩을 많이 심었다더니 콩가을을 가려는 모양이였다.
마을에 황첨지네 황소만큼 힘을 쓰는 소는 없을것이다.
그건 다 황첨지가 소를 잘 먹여서이다.
황첨지는 소에게 《호박곰》이란것까지 만들어먹였다.
호박꼭지를 도려내고 씨를 뽑고는 물에 불쿤 콩을 한되박 넣고 푹 삶은것이 소가 먹는 호박곰이였다.

달구지를 끌고 골목길로 사라지는 소를 바라보던 리씨는 또 한 생각이 떠올랐다.

가만, 소가 먹고 기운을 쓰는 호박곰이나 심복사의 중들이 기침에 쓰는 약호박곰이나 기력을 내게 하는데서는 비슷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 호박곰이란걸 사람이 먹어서도 좋을것이다.

약호박속에 대추와 콩도 넣고 곰을 하면 어떨가. 왜 그것들만 넣겠는가. 가을철이면 어디서나 흔한 밤도 넣고 단맛이 나게 엿도 넣고 소화를 돕는 마늘과 생강도 넣으면 더 좋을것이다.

가만, 꿀도 구하기가 어려울게 없다. 대추를 절반만 내다 팔아도 약으로 쓸만큼은 살수 있을것이다 하고 생각한 리씨는 자기가 이런 궁냥을 해낸것이 이만저만 놀랍지 않았다.

그는 만족하여 웃음을 가득 지었다. …

마침내 잘 익은 약호박을 따들이게 된 리씨는 너무 기뻐 가슴이 두근거렸다.

지붕우에는 빨간 약호박들이 기이한 풍경을 펼쳐놓았다.

춘익은 뜨락에 버티고 서서 지붕우에서 리씨가 따주는 약호박을 받아내렸다.

다 따서 무져놓으니 몇섬은 실히 잘돼보였다.

춘익은 몹시 궁금하였다. 이것들이 정말 잘살게 해줄수 있을가.

그는 토방에 가득한 약호박을 가리키며 리씨에게 물었다.

《이게 무슨 복을 가져다준다는거요?》

리씨는 생글생글 웃어보이며 응수했다.

《하늘신도 생각지 못하는 큰 복을 가져다준다니까요.》

《허— 난 도무지 모르겠소. 바가지농사가 풍년이 들어도 죽을 면치 못했는데 보기나 깜찍한 약호박이 대체 무슨 복을 가져다준다는거요? 흥부네집 박종자라면 몰라도…》

리씨는 량손에 약호박을 하나씩 집어들고 방긋 웃었다.

《글쎄 두고 보시라니까요. 흥부네집 박종자도 가져다주지 못하는 복을 우리 집에 가져오지 않나. 그때까지 서방님은 그게 무언지 알려 하지 말아야 해요. 그렇게 할수 있겠는지 그게 걱정

되누만요.》
《안사람 말 잘 들으면 오뉴월에 팥밥 먹는다는데 하물며 복을 불러들이는 일이라는데 왜 못참겠소. 내 분부대로 하리다.》
《그럼 언약했어요.》…
그날저녁 춘익의 밥상우에는 난생 처음 보는 기이한 음식이 올랐다.
춘익은 상우에서 더운 김이 몰몰 나는 삶은 약호박을 휘둥그런 눈으로 굽어보았다.
혹시 이속에서 쌀도 나오고 천필도 나오고 은금보화도 나오는것이 아닐가.
안해는 분명 흥부네 박종자도 가져다주지 못하는 복을 준다고 하였다. 대체 그 복이란 어떤것일가.
춘익이 그냥 놀라와하는데 웃음을 머금은 리씨가 삶은 약호박에서 꼭지를 떼여냈다.
《자, 이젠 잡숴보세요.》
《먹다니? 이걸 먹어야 한단 말이요?》
《그럼요.》
《아니, 복을 가져다준다는걸 먹어치우면 어떻게 하오?》
어이없어하는 춘익을 바라보며 리씨는 환하게 웃었다.
《바로 이걸 자셔야 우리 집에 복이 들어와요.》
《허참,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난 흥부네가 박을 삶아먹었단 말 들어보지 못했단 말이요.》
《아이참, 답답하시네. 이 약호박곰을 잡숴야 몸을 추세우는 복기운을 불러들일수 있단 말이예요.》
리씨는 제 말을 못미더워할가봐 의원이 말했노라고 오금까지 박았다.
춘익이 비로소 안해가 왜서 약호박을 심었으며 애지중지 가꾸어왔는가를 깨달았다.
그는 코마루가 저려들어 고개를 숙이였다.
《어서 드세요.》
춘익은 안해가 쥐여주는 숟갈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리고 눈을 슴벅거리며 숟갈을 오르내리였다.
《맛이 어떠세요?》
《어…어, 달고… 구수한것이 먹을만 하구만.》
《그럼 됐어요.》
입맛이 돌아 약호박곰을 맛있게 먹는 춘익을 보며 리씨는 기쁨의 눈물을 지었다.
다음날에도 그다음날에도 춘익이 받아안은 밥상우에서 안해의 마음인양 홍도와 같이 빨간 약호박곰이 언제나 웃고있었다.
그는 만가을에 이어 온 겨우내 약호박곰을 끼마다 받아먹었다.
그가 먹은 약호박곰을 어찌 흥부네 복박에 비길소냐.
만산에 진달래꽃이 아름답게 피여난 봄날에 춘익은 영 딴사람이 되였다. 상씨름군으로 소문났던 그때의 춘익으로 돌아온것이였다.
살구꽃이 만발한 어느날 아침 춘익은 일찌감치 길 떠날 행장을 갖추어가지고 방을 나섰다.
갑자기 나들이를 가려고 나선 춘익을 보고 리씨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무슨 일이 생겼어요?》
춘익은 벙긋 웃으며 대꾸했다.
《있구말구, 있어도 세상에서 제일 중한 일이요.》
《그렇다면 저에게도 말못할 일이나요?》
《왜 말을 못하겠어. 사실 난 언제부터 외롭게 사시는 당신 부모들을 모셔오려 하였소. 이젠 폐로가 뚝 떨어졌으니 그 몹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가지 않을거란 말이요.》
그 말에 리씨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 얼굴을 싸쥐였다.
《이 은혤 무엇으로… 갚을런지…》
춘익이도 눈물이 글썽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무슨 소릴… 그대가 아니였다면 내가 어떻게…》
며칠후, 흥박골 《대추나무집》에 경사가 났다.
웅담을 쓰고 다쳤던 허리를 고친 령감은 마누라와 함께 흥박골로 살러 온것이였다.

마을사람들은 자기 집 식솔처럼 그들을 반겨맞아주었다.

《대추나무집》 리씨는 잘 받아두었던 약호박종자를 집집들에 나누어주었다. 마을사람들은 기쁨에 겨워 그것을 정히 받아 심었다.

이리하여 송도의 집집들에 약호박이 퍼지게 되였다. 가을이면 마을의 지붕들에서 약호박이 무르익는 경치는 참으로 볼만하였다.

약호박곰을 해먹은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 몸보신에 좋다고 리씨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여 송도에 약호박곰을 해먹는 또하나의 풍습이 생겨나게 되였다.

그 옛날에 안해가 병든 남편을 진정으로 위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만들어낸 약호박곰은 오늘날 훌륭한 강장제로 널리 알려져서 더더욱 개성특유의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모으고있다.

조선민속전설(4)

심 사 리재선
편 집 장옥영 장 정 박철남
편 성 인태선 교 정 안명순

낸 곳 금 성 청 년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1(2012)년 2월 5일
발 행 주체101(2012)년 2월 10일

ㄱ—15987ㄴ 값 120원